

수암 스님(태고종 원로위원·금붕사 주지)
"교육 없이 종단 미래 없어"
공부는 내 수행 방편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9월 3일) · 주간

제1066호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뤄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韓 민족유산 '한글', 불교계가 지켜왔다

한글날 맞아 허영호 친필 〈조선어기원론〉 공개

범어사에서 출가했던 불교지성인 허영호(1900~1952) 前동국대 학장의 친필원고 〈조선어기원론〉이 공개됐다.

허영호 선생의 유족 허영선 씨는 최근 금정중학교에 〈조선어기원론〉 친필원고를 기증했다.

〈조선어기원론〉 친필 원고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직후 한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활동한 불교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1914년 당시 부산 범어사는 한글 역경화 사업을 위해 조선어 강습으로 한글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 총 24명의 한글교사 및 전문가가 배출됐으며 허영호 선생도 그 중 하나였다.

이후 범어사 조선어 강습 졸업생들은 불교 중요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앞장섰으며 특히 허영호 선생은 〈불교성전〉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 그 외 많은 불서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김화선 금정중 교사는 "당시 김법린, 선광 선사 등 뛰어난 분들이 졸업하고 한글 역경화 사업에 앞장섰다"며 "허영호 선생의 〈조선어기원론〉 친필원고는 한글 보급과 전문연구에 범어사와 불교계가 앞장섰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증된 〈조선어기원론〉 친필원고는 총 6권으로 조선어의 어운, 어휘, 어원 등 한글의 기원을 연구 조사해 적은 글이다. 한국어를 다른 언어와 비교하고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절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혀 있다.

허영호 전 학장은 서문을 통해 "과거 반세기 동안 조선어 연구자들이 일본 학정의 뭇매 밑에서 연구를 계속 해 온 결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바로잡게 되었다"며 "조선 민족이 가진 이 조선어라는 것은 조선 민족이 가진 모든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호 前 학장이 작성한 친필원고

범어사 등 한글 보급 증거
총 6권, 어원 등 내용 담아
유족, 금정중에 기증 '눈길'

친필 원고를 기증한 허영호 전 학장의 유족 허영선 씨는 "평생토록 소중히 보관해온 아버님의 친필원고를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아버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노력과 활동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며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주민들을 위해 직접 점심을 배식했으며, 아름다운동행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쪽방촌 도우미봉사회 격려지원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1000여 명의 쪽방촌 이웃이 함께한 가운데 '제15회 쪽방촌 주민위안잔치'도 열렸다. 본행사에 앞서 풍물패 공연이 진행되고, 가수들의 노래와 주민들의 장기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글=신성민 기자

법회없는 '어린이 전법도량' 포교원 부실 관리 도마 위

121곳 중 15곳 법회 없어… 포교원 "관리 어렵다"

본지 10월 3~6일 전화 조사
매주 법회 사찰 70% 못미쳐
법회 중단 3년 사찰도 유지

조계종 포교원이 2009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어린이 · 청소년 전법중심도량(이하 어린이전법도량) 체계가 관리부실로 표류하고 있다.

본지는 10월 3~6일 어린이전법도량 121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찰이 15곳(1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월 4회 실시하는 사찰은 83곳(약 69%), 월 2회 8곳(약 6.6%), 월 1회 8곳(약 6.6%), 미실시 15곳(약 12.3%), 무응답 7곳(약 5.8%)이다. 월 4회 운영하는 사찰 중 5곳은 어린이 · 청소년법회가 아닌 부설 어린이집 등에서 원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월요법회다.

포교원은 2009년부터 어린이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거점 사찰을 지정하고, 종단 차원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을 추진하는 전법도량을 운영해왔다. 이후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에 108어린이마음거울CD, 어린이법요집 등 자료 배포하는 한편, 매년 우수전법도량을 선정해 노트북, 피아노, 빔프로젝터 등을 지원해 왔다.

문제는 관리감독이었다. 조사결과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중단한지 3년 이상인 사찰 3곳이 전법도량 지정기간인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밝혀졌다.

포교원 측은 연말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 전법도량 현황을 파악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화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의 일선 사찰에서는 보고서 제출에 대한 거부감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내지 않는 사찰에 제출을 권고해도 이행치 않는 사찰이 있다. 관리가 쉽지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어린이 포교 전문가들은 "종단 어린이 포교 종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또한 최미선 동련 사무처장은 "전법단과 전법도량, 불교스카우트 등으로 다양화된 조계종의 어린이 포교정책의 단점이 드러났다. 종책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관련기사 A7 · 8면〉

'염화미소법' 내년 3월까지 입안 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제도 특위, 7일 첫 회의서 결의

총무원장 선거 혁신 방안 논의
법등 스님 제안 중심으로 추진
11월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변화를 위해 제안된 '염화미소법'이 내년 3월 이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 및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특위는 지난 8월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이 새 총무원장 선출제도로 '염화미소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중앙종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특위 위원은 '염화미소법'을 제안한 법등 스님을 비롯해 초격 · 자현 · 오심 · 지홍 · 주경 · 장명 · 함결 · 성행 · 법상(화림) · 제정 · 정덕 · 혜범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정묵 · 덕문 · 경우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지현 · 일감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와 도진(직지사 중암 감원) · 도문(전 조계사 주지) · 능도(전 기획실장) 등 종단 중진 스님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도개선안은 법등 스님이 제안한 '염화미소법'을 토대로 마련하되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3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정기회 기간 중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임시회까지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성문 스님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곱 번 정도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런 가운데 법등 스님이 추첨에 의한 선출제도를 제안했고, 선거 폐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뜻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법등 스님은 "조계종이 금권선거 등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종단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염화미소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화미소법'은 중앙종회 의원과 각 교구본사 등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총무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종정스님이 최종 1명을 추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내년 예산심의 종회 열린다

중앙종회 제204차 정기회 11월 3일 개원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 등을 다룰 중앙종회 제204차 정기회가 오는 11월 3일 1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204차 정기회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종회의 의안 접수는 10월 27일, 종책질의는 10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 203차 임시회에서 이월된 법계법을 비롯해 총림법,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된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종단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종무감사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창간 21주년 특집 | 혐오사회, 불교적 대안 B1~3 | 관계 사이 B4~5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전형절차 2차
경력기자 수습기자	각 0명	① 경력기자 2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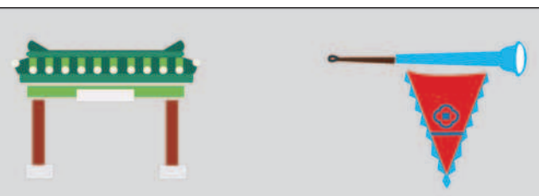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5년 10월 23일(금)까지

2.접수방법 :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 02-2004-8204)



1370주년 개산대재
2015. 10. 17 ~ 10. 21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

영축총림 통도사

청한 가을의 향기가 천년의 도량을 감싸 안을 듯 좋은 절기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통도사 창건 1370주년을 기리는 환희의 야단법석이 펼쳐집니다.

행사일정

어린이수계식	10월 17일	설법전	11:00
재롱잔치	10월 17일	박물관 앞 무대	13:00
청소년댄스경연대회	10월 17일	설선당 앞 무대	14:00~17:00
괘불이운	10월 18일	박물관 → 괘불대	10:00
괘불헌공	10월 18일	괘불대	10:30
다문화공연	10월 18일	설선당 앞 무대	13:00~15:00
통도사 학춤	10월 18일	괘불대 무대	15:00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10월 19일	설선당 앞 무대	12:00
괘불탱 특별전	10월 20일	박물관	13:00
부도헌다례	10월 20일	부도전	14:00
개산조당 영고재	10월 21일	개산조당	09:00
법요식	10월 21일	설법전	10:00

(장학금 수여, 지역문화 발전 공헌자 표창)

이번 개산문화대재 주간에는 괘불이운식을 화려하게 재현 할 예정이며 자장율사스님의 영고재를 통도사 본말사스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올릴 것입니다.
※ 개산문화대재 주간에 진행 될 내용들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사배견은 10월 17일(토) ~10월 21(수)까지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 382-7182 Fax. 055) 382-7196 www.tongdosa.or.kr



통도사 어린이 수계식



천년의 향기가 숨쉬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을미년 어린이 수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입 재 2015년 10월 17일(음 9. 5)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통도사 금강계단
대 상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서울 봉은사 신임 주지 원명 스님

자승 스님, 7일 임명장 수여…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보문사 주지 정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영사찰 강남 봉은사 재산관리인에 현 조계사 재산관리인 원명 스님을 임명했다. 또 조계사 재산관리인에는 현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 스님을 겸직하도록 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7일 오전 종무회의를 열어 임기만료 예정인 봉은사 재산관리인 원학 스님의 후임에 조계사 재산관리인 원명 스님을 임명했다. 또 조계사 재산관리인에는 현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겸직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지현 스님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조계사를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원명 스님에게도 "신도들과 화합해 봉은사 숙원불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원명 스님

지현 스님

정문 스님

또한 자승 스님은 10월 7일 보문사 재산관리인에 정문 스님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중앙종회 다선의원이고 보경사 등 사찰 소임과 종단 사회부장 업무 경험으로 보문사 소임을 보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게 정진해 기도도량으로서 보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南北불교, 합동법회 열고 평화 모색

조계종 · 천태종, 신계사 · 영통사 복원 기념 법회 잇달아

남한의 조계종과 천태종이 북한 불교계와 함께 공동 법회를 열고 평화 통일 모색한다.

남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은 10월 2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남북한 불교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8.25 합의에 대해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형성을 위해 남북불교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을 맞아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오는 10월 1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에는 남북불교도들의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6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차금철 서기장과 3명이 참석했다.

조불련과 합의…北 현지서 법회
조계종, 신계사 복원 8주년 맞아
오는 10월 15일 금강산서 법회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해
천태종 오는 11월 3일 법회 개최

천태종(총무원장 춘광)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이 공동으로 2005년 복원한 개성 영통사가 오는 10월 31일로 복원 10주년을 맞는다. 이에 11월 3일 남북한 공동으로 영통사서 기념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10월 3일 개성 시내서 실무회담을 열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측은 1박2일간의 방북 일정을 천태종에 제안 했으며, 방북단 규모도 영통사 복원 10주년에 담긴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천태종도 이 자리서 11월 16일 구인사에서 열리는 대각국사 914주기 열반다례재 초청장을 조선불교도연맹 측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청소년체육대회의 연내 개최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선불교도연맹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회담에는 천태종서 총무부장 월도 스님, 사회부장 설혜 스님, 복지국장 덕중 스님, 나누며하나되기 신면관 사무국장이, 조선불교도연맹에서는 차금철 서기장 외 2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한국 천태종을 개창했으며, 영통사는 의천 스님이 35년 간 주석하면서 수도한 사찰이다. 이런 뜻을 기려 천태종은 16세기 화재로 소실된 영통사에 2003년부터 2년 간 16회에 걸쳐 기와 46만여 장과 단청재료, 중장비, 조경용 묘목, 창틀 · 유리 등 복원에 필요한 마감재를 육상 수송을 통해 지원해 1만8000여 평에 총 29개 전각을 복원한 대작 중창불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성 영통사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일에 맞춰 다례재와 영통사 복원 기념법회를 공동으로 봉행해왔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전남불교, 지역포교 위해 머리를 맞대다

조계종 포교원 7일 광주불교회관서 종책 연찬회

단일화된 지역 포교 창구 필요
광주전남포교협의회 구성 제안

광주 · 전남불교의 중흥을 위한 대화마당이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불교회관에서 '광주 · 전남 포교의 중심,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 64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향후 포교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협의체 가칭 '광주전남포교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하며,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 큰 의미를 가졌다.

광주전남지역 교구본사(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연찬회는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의 '호남 종교지형의 변화와 광주 · 전남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제의 모두발제와 현진 스님(대흥사 교무국장)의 '광주 · 전남 지역현황 및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본사의 역할', 양행선 사무국장(광주불교연합회)의 ' 광주 · 전남 포교과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이어 법일 스님(완도신흥사 주지), 이재언(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 조영훈(증심사 사무장)씨가 나서 지역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모두 발제문을 발표한 고명석 연구원은 "광주전남지역은 개방성과 진취성이 강한 지역이며 문화예술을 비롯한 인문학적 토양이 기름진 곳으로, 호남지역의 불교가 다시 꽃피우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고 새롭게 변모한 신(新)불교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현진 스님은 "포교활성화를 위해 단일화 포교 창구가 필요하며, 교구본사 중심으로 각 지역 주지연합회를 설치해 포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구체적 방안으로 포교원의 발빠른 대응과 젊은 층의 포교, 지역 인프라 활용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양행선 사무국장(본지 광주전남지사장)은 구체적 실행과제로 △인구가 많은 곳에 사찰 이전 및 신축 △우수한 종무원 채용 △1개의 사찰에 1개의 비영리단체 설립 △지역 출가자와 활동가의 교류활동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종단에서는 신도 수행프로그램의 개발, 교구본사는 도심위주의 포교사업 진행과 포교사찰에 대한 인센티브, 사찰에서는 우수종무원 채용 및 단체를 운영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날 연찬회는 최근 들어 광주전남지역 구체적 불교현안에 논의하는 첫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발제 요약 전문 A31면〉

"선학원 문제, 해결책 제시하겠다"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자민 스님 공약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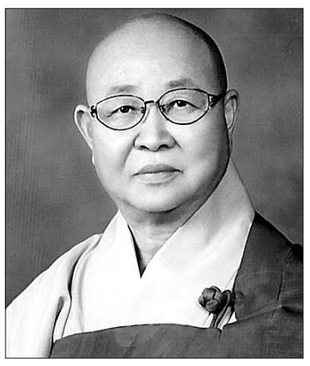
비구니 총림 체재 구축 등 3대 운영기조 공약으로 제시

전국비구니회 1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자민 스님(사진, 기호1번)이 공약 사항으로 선학원 문제 해결을 내놨다.

자민 스님 후보추대위원회는 10월 2일 자민 스님의 출마의 변과 프로필 등을 배포했다. 자민 스님은 '출마의 변'을 통해 △선학원 문제 해결 △비구니 총림체제 구축 △총재와 원로위원회 중심의 비구니회 운영이라는 3대 기조를 제시했다.

선학원 문제 해결에 대해 자민 스님은 "선학원 문제는 조계종과 선학원이 현재처럼 평행선을 달리기만해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양측의 대결구도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소납이 전국비구니회장이 되면 가장 먼저 조계종-선학원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비구니 총림과 관련해서는 "우리 승단이 그동안 비구승 위주의 종단 운영이었기 때문에 비구 총림은 많은 반면, 비구니 총림은 하나도 없다"며 "종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몇 개의 비구니 총림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민 스님

자민 스님은 "이제 전국비구니회는 반목과 질시를 넘어 스스로의 권익을 신장하고, 각종 난제들을 해결해 비구니스님들의 실질적인 해결사 노릇을 해주어야 한다"며 "4년 동안 수고하신 현 집행부는 겸허한 자세로 내재된 한계를 자인할 줄 알아야 하고, 비구니회 개혁을 위해 모임까지 결성한 '열린비구니모임' 도 그 열정과 쇄신안을 보다 건설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보문종 "회장 선거 참여 않겠다"

하지만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문종이 10월 12일 열리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문종은 10월 8일 배포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선거인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비구니회 제10대 임원진이 10월 5일 열린 제43차 임원회의에서 보문종 스님들에게 제11대 비구니회장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보문종에 선거인명부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보문종은 입장문에서 "지난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때부터 조계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종단을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인단에서 제외하고 선거를 치렀다"면서 "이러한 결과가 정기총회를 통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해야 하나 공론화 되지 못하고, 단지 전국비구니회 임원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식적인 논의 없이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선거인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종도들은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 선거에 그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회장 선거 차주상보〉

선학원과 법인법 갈등 100인 공사 의제되나

추진위, 대중공사 논의 제안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가 선학원 문제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선학원 문제의 대중공사 부의를 결의했다.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스님은 "일단 위원회 동참을 약속했다면 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참하는 것이 위원들의 책무"라며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선학원 이사회의 정관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신청할 예정이다. 분원장 스님들의 소송 동참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스님들은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하며, 선학원 문제를 종도들과 공유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주제로 부의할 것을 결의했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스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종단이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과 함께 선학원을 상대로 진행중인 정관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동참을 요청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일륜 총무부원장 보원
원로위원 혜초 수진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무상 자광 능관 법원 명운 현수 지광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춘명 현수 정운 무공

종학원장 옥천 법규원장 무상 고시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의전실장 석해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서응 울산교구원장 지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북교구원장 경오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북부원장 성죽
제주교구원장 법원 강원교구원장 성암

총무부장 혜진 재무부장 천수 교육부장 도선 문화부장 대호
사회부장 해인 포교부장 성우 복지부장 원해 의전부장 무해
규정부장 무종 기획부장 법민 사회국장 보문 규정국장 남주
복지국장 법선 의전국장 향적 사무국장 도현 조사국장 최석주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TEL : 054)743-0700

축 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한국불교언론의 중심인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의 기상으로 불법을 외호하며
불법홍포의 목표를 성대히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대한불교원효종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사찰 경내에 첫 '요양병원' 들어서다

동행의료재단, 김포 용화사에 '보리수요양병원' 개원

사찰경내에 요양병원이 들어서 눈길을 끈다. 김포 용화사 경내에 약 300평부지 전문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면 뒤편 법당서 불경소리가 들려올 만큼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이사장 지관)은 지난 7월 1일 김포 용화사 경내에 '보리수요양병원' 을 열고, 공식 개원식을 앞두고 있다. 건축연면적 4,494㎡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137병상을 보유 중이다.

보리수요양병원은 운양산을 등지고 한강하구를 바라보는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췄다. 이사장 지관 스님은 "현재 병원 앞에 공사 중인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완공되고 용화사IC가 개통되면 교통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인근에 위치한 김포한강신도시 생태조류공원을 활용한 걷기 명상 등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라 설명했다.

또한 나무 손잡이, 한옥창살, 나무벽 등 건물 내 모든 시설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일반 병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 벽에 형광등이 아닌 베이지톤, 자연광등을 사용해 환자들의 안정감을 고려했으며,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층 바닥 난방을 가동한다.

특히 1인실에는 편백나무 욕조가 설비됐으며, 6~7인실에는 디지털도어락이 설치된 개인 사물함 및 냉장고가 마련됐다. 복도 포함 전 병동서 산 또는 강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관 스님은 "우리 병원에 '메디텔(메디컬+호텔)' 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다"며 "병원 구석구석에서 풍겨오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리수요양병원은 '요양원' 혹은 '노인병원' 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치료를 요하는

300평부지 5층 규모, 137병상
'산 아래 한강조망' 자연적 입지
재활 · 한방 · 가정의학 등 진료
바닥난방 · 한옥창살 시설 '눈길'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 · 한의과 · 가정학과 · 신경과 등이며, 재활치료실 등 부속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으로 승인받아 교통사고 등 산재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마련될 계획이다. 옥상에는 원예 등 활동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병원과 연결된 108평 규모 명상센터서는 심리명상 등 불교적 치유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지관 스님은 "주사, 약 등 물리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불교적 치료요소 등 도입함으로써 질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지관 스님은 평소 불교계 요양병원이 이웃종교보다 부족해 스님 혹은 불자 환자들이 정서에 맞지 않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점에 안타까워했다. 또한 최근까지 김포종합사회복지관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6개 기관을 운영하며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두기 시작한 것도 계기중 하나다. 이에 요양병원을 건립할 원력을 세우고 일본을 수차례 오가며 요양병원의 운영방향, 경영철학 등 습득했다.

지관 스님은 "의료와 보건, 복지 3가지는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며 "간혹 벌어지는 비인간적, 비윤리적인 의료 행태에 맞서 환자들의 건강과 쾌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요양병원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김포 용화사= 박아름 기자


보리수요양병원 전경.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은 지난 7월 1일 김포 용화사 경내에 '보리수요양병원' 을 개원했다.

"김시습 사리, 감사 통해 되찾겠다"

문화재제자리찾기, 10월 5일 반환 감사청구

율리사지 석탑은 도쿄서 조정 결렬
본안 소송 불가피, 日불교계와 연대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상임대표 영담)와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10월 6일 서울 공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일 감사원에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장 중인 설잠 스님(김시습) 사리를 원봉안처 부여 무량사로 반환하라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담 스님과 혜문 스님은 "국립부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충남 무량사에 위치한 매월당 김시습 부도로부터 사리를 임의로 가져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며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라 유골의 일부 △사리와 사리함, 부도는 불가분의 일체물 △국립부여박물관의 사리 보관 태만 등을 들어 반환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와 문화재제자리찾기는 9월 16~18일 두 단체가 일본에서 진행한 율리사지 석탑 반환 운동 경과도 밝혔다.

9월 17일 도쿄 스미다구 간이재판소에서 열린 조선불교도연맹과 오쿠라문화재단의 율리사지 석탑 반환 요청에 따른 2차 조정에서 도쿄재판소는 "석탑 반환은 국제관계적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혜문 스님은 "석탑 반환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전일본불교연합회에 율리사지 석탑 반환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 상임대표 영담 스님, 공동대표 혜문 스님, 위원인 부명 · 각명 · 도응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태종 황룡사, 100일 기도로 통일기금 마련

1명당 매일 1000원씩, 통일나눔펀드 지원

인천 황룡사가 100일 기도를 통해 통일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동참을 원하는 신도들이 매일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리며 1000원씩 모아 100일 후에 기부한다는 것이다.

황룡사(주지 세운)는 10월 4일 경내 특설무대서 '2015 민족화합문화제' 의 일환인 음악제를 개최하고, 통일기금 조성 후 통일과나눔재단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지 세운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정성이다. 한 번에 10만원을 내고 잊는 것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일 정성 들여 1000원씩 100일간 모은 기금이 훨씬 소중하다"면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동참하고, 이 운동이 전국 천태말사에 퍼져 천태종이 한반도 통일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룡사는 이에 앞서 통일과나눔재단 통일나눔펀드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100일 기도 회향 후 모연된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내에 통일범종을 조성해 내년 초파일 전 타종식을 열고, 타종체험 등을 통해 통일기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음악제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감사원장 용암 스님을 비롯해 이학재 국회의원, 강범석 인천서구청장,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지역 소외계층, 군인, 불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황룡사는 10월 4일 경내 특설무대서 '2015 민족화합문화제' 의 일환인 음악제를 개최하고, 통일기금 조성 후 통일과나눔재단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 '마음나눔' 바자

10월 14일~15일 조계사 일대서 광장 기금 마련 캐리커쳐 展도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은 10월 14일~1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 및 조계사 일대서 '제8회 다함께 마음나눔 바자' 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여성불자 108인들의 애장품 및 미술 작품,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이 기증됐다.

특히 불교여성광장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캐리커쳐전도 함께 열렸다. 바자 기간동안 나무갤러리서 전시된 캐리커쳐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한 70여 명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여성의류, 약초, 전통 장류, 건어물, 젓갈류, 대추 · 생과자 등 판매 부스를 비롯해 김치전, 연잎밥, 생강대추차 등 즉석 식품 판매 코너도 마련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2의 개국불사로 세상 밝힐 것"

선상신 BBS 9대 사장 10월 8일 취임식 개최

"개국 당시의 감동과 환희를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제2의 개국불사를 펼쳐나가겠습니다."

BBS불교방송은 10월 8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9대 선상신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과 홍사덕 민족화해협력의회 대표상임의장, 강창일 국회정각회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구상에 현존하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실천적 자비와 지혜로 맑은 세상이 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불교방송의 미래 비전"이라며 "취임 전 밝힌 바대로 6대 목표와 28대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 'BBS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음악FM 확보 · TV 시청권 확대'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역량 확보' '남북 불교교류 협력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방송 공채 1기 출신으로 방송 근간을 만들기 위해 진력해온 선상신 사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부처님 법음 전파와 중생 보살화, 사회 정토화를 통한 새로운 인류문명창조의 설립이념을 되새겨 더욱 발전하는 불교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상신 사장은 1989년 불교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이사, 한반도선진화재단 아태전략연구소장 등을 맡았다.

신성민 기자



BBS불교방송은 10월 8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9대 선상신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학 장 덕민
부 주 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정수 재 무 성명
사 회 정빈 포 교 탄경
문 화 성요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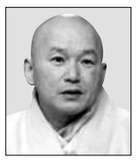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불국로 38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일 주 문



전국불교소리축제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10월 15일 오후 2시 금산사에서 전국불교소리축제를 개최한다. (063)542-0048



법주사 울화통 캠프

현조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10월 17~18일 경내에서 보관 스님과 함께하는 '울화통캠프'를 개최한다. (043)543-3615



정무 스님 4주기 추모다례재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 스님은 10월 15일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정무 스님 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053)766-9088



성철스님 백일법문 강의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는 12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인천불교회관에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강의한다.



시집 〈안직수의 대화〉 발간

지난 1996년 월간 〈문학공간〉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안직수 불교신문 기자는 최근 첫 시집 〈안직수의 대화〉를 발간했다.

'세계법왕 일붕문도의날' 기념 대법회

10월 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600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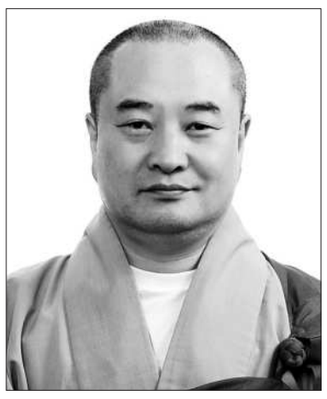


공익법인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총재 무찰)는 10월 7일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통일기원 및 제44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 봉축대법회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붕문도 총재 무찰 스님, 대한불교임제종 종정 용화 스님, 한국불교 조계종 종정 각성 스님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청파 스님의 도감 아래 일붕스님을 추모했다. 제2부 행사로 법요식이 진행됐다. 법요식에서는 일붕문도회 수석부회장 청파 스님의 상축문 낭독과 함께 수도암 광명심 최혜숙 원장의 발원과 자비실천운동본부 이사장 해광 스님의 경과보고, 일붕문도회 부회장 법광 스님의 일붕스님 행적보고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일붕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이 소개됐다.

〈이전〉 법보신문은 10월 9일 서울 종로1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25-7014

"불교 상담 대중화·전문화 이끌 터"

불교상담개발원 신임원장 도성 스님 임명



10월 2일 이사회서 '만장일치' 승인 부설 '자비의전화' 내실 강화 '박차' 불교상담심리 통합연구시스템 구축도

"마음 치료에 대해서는 불교는 그 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 물질문명의 발달 속 사회적 병폐는 더욱 깊어지는 와중,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상담개발원 신임 원장에 도성 스님이 임명됐다. 제34차 불교상담개발원 임시이사회서 논의된 '불교상담개발원 임명의 건'에 따른 결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10월 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서 제34차 불교상담개발원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상담개발원 이사 도성 스님이 신임원장으로 추천된 가운데,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차기 원장 자리에 도성 스님이 앉게 됐다.

도성 스님은 중앙승가대 불교학과를 졸업해 동국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 석사, 불교대학원 명상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현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리상담센터 객원연구원, 지장선원 주지, 불교중앙박물관 국장 등 역임 중이다.

도성 스님은 "불교상담 대중화 및 전문화를 위해 불교를 대표하는 상담가 양성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며 "당면과제인 교육관 확보 불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한 부설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사회참여와 나눔의 실천을 도모할 것"이라 다짐했다.

도성 스님은 취임 후 핵심 사업으로 불교상담개발원의 부설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내실 강화를 꼽았다. 스님은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자비의 전화는 상담개발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역사와 명칭에 걸맞은 전문적 시설로 발돋움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부스 등 설치하고 서울시 최고 상담실로 거듭날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불교상담심리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학술활동도 개재할 계획이다. 도성 스님은 "간화선、위빠사나 등 수행법과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면접상담, 집단상담 등에 적용키 위해 통합연구、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 문제로 인한 자살, 폭력 등 병폐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도성 스님 취임식은 10월 30일 상담개발원 세미나실서 개최된다. 이날 前 원장 도현 스님 이임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생명나눔·중앙승가대 '생명나눔확산' 업무협약 체결

10월 5일 승가대 참석자 전원 장기기증 희망등록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중앙승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식 참석자 전원인 161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이끌어 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은 중앙승가대(총장 원행)과 10월 5일 경기 김포 중앙승가대 대강당서 '생명나눔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한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전원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했다. 또한 생명나눔 측은 중앙승가대에 학교발전기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생명나눔과 중앙승가대는 앞으로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등 생명나눔운동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해 나간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협약식을 계기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공동홍보에 나서면 불교계에 더욱더 큰 생명나눔운동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원행 스님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를 작성한 후 "앞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일조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생명나눔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중앙승가대와 함께 공동 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 등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불자가수 김흥국 대한가수협회 제5대회장 취임



불자가수 김흥국씨가 10월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이취임식서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흥국 회장은 취임사서 "회장으로서 대중음악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불자가수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수들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노력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가수대통합, 가수회관건립, 방송출연료 현실화, 가수피해 고발센터 운영, 복지정책 수립 및 활성화, 대한민국가수대축제 연례화, 소외계층 위한 사회봉사 등을 향후 추진사업으로 제시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성 스님, 3000여 장병에게 수계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10월 3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훈련병 3000여 명에게 수계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도선사에서 1000만원을 후원했다.

현성 스님은 "계는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근본이 되고, 범부를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라며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기틀이 된다"고 설했다. 또 삼귀의 오계를 받은 훈련병 불자들에게 군인으로서,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운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취임식



청도 운문사 운문승가대학은 10월 2일 제44차 총동문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경내 선열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강주 일진 스님, 주지 진광 스님, 운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금타 스님, 운문승가대학 신임 총동문회장 종호 스님 외 많은 동문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제20회 신임 총동문회장 종호스님의 인사와 회주 명성 스님의 환영사가 있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진각봉사단 경주 온정마을과 MOU



위덕대 위덕진각봉사단(단장 임성옥)은 10월 6일 경주시 강동면 온정마을에서 사회복지법인 은혜원 경주온정마을(원장 손대호)과 산학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주온정마을과 위덕대 위덕진각봉사단은 장애인복지관련 교육과정 운영협의 및 자문, 교육실습을 위한 상호 교류를 진행한다. (054)760-105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 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도 원로원장 석법령 종회의장 석혜령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원로위원 석석천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영덕중앙종무원장 석지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김천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풍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만허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보성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성진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심진화(차영란)
임 원 대도심(어월순)
임 원 법화심(김막두)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강원부장 성월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될 일 하겠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서 열린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법회에서 “앞으로 관음종은 복을 비는 종단이 아니라 복될일을 하는 종단이 되겠다”고 500여 사부대중 앞에서 서원하고 있다.



이날 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 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법회가 끝난 뒤 2부 행사로 열린 (사)선아예술단의 전통춤 공연. 난타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율동이 인상적이다.

관음종 창종 50주년 법회… 10월 7일 서울 탑골공원서 봉행

“복을 비는 종단이 아니라 복될 일을 하는 종단이 되겠습니다. 종교적 활동은 물론이고, 문화적 가치 창조를 통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 종단이 되겠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이같이 앞으로의 계획을 힘찬 어조로 밝혔다.

대한불교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창종 50주년을 맞아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탑골공원은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홍선 스님이 한국전쟁 이후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2년 여 간 거리설법을 펼쳤던 장소라 의미가 크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상징인 탑골공원에서 큰 스님의 독립운동의 뜻을 다시 한 번 상기함과 동시에 태허 스님께서 설법하셨던 저 팔각정을 바라보며 새로운 관음종의 50년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우리 관음종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그늘진 곳을 찾아 꿈과 희망을 그리고 빛을 비추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홍파 스님은 “태허 조사는 절박한 현실인식과 문제 의식으로 새로운 흐름, 새로운 불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1965년 관음종의 창종을 선언하시고 그 첫 외침으로 겨레를 위해 등불과 눈이 되겠다고 종도들의 맹서를 세상에 펼치셨다”고 회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축하메시지를 통해 “자비와 원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관음종 선대 조사들과 종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사회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도 축사를 통해 “태허 관음종 조사는 복을 구하지 말고, 복된 일을 스스로 찾아 성취하자고 주창하셨다. 태허 조사의 이러한 일성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며 “관음종이 한국불교의 중견 종단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그 꽃을 피워주시길 당부드린다. 태허 조사께서도 새로운 조류와 역사에 맞는 불교를 주창하셨듯이 이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맞는 불교를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번 관음종 창종기념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 불교협회 관계자 스님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한중일 불교 교류에 앞장섰던 홍파 스님과의 친분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지타 타카시 조지 한일불교교류협회장은 “1977년에 불교흥융과 우호친선을 서원하며 일본에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가, 한국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설립되면서 관음종은 그 중추적 역할을 짊어지고 오셨다”며 “홍파 스님은 협의회 발족이래 뜻을 함께하는 우인으로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사이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음종의 융창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탑골공원, 개산조가 2년여 거리설법 펼친 곳
中·日 불교협회 임원진 대거참석 ‘눈길’
법회후에는 (사)선아예술단 춤공연 선사

야오장 중국불교협회 부회장도 법회를 위해 방한해 축사했다. 야오장 스님은 “한국 관음종은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으며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대승사상을 봉행하며 , 중생을 교화하고 불법을 펼치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치하했다.

법회가 끝난 뒤 2부에는 한국무용의 전통적 깊이와 대중과의 예술적 소통을 위해 춤을 사랑하는 전공자들로 2011년 창단된 (사)선아예술단이 ‘개벽’ ‘희망 그리고 꿈’ ‘기원’ ‘화합’ 등 총 4막으로 구성된 전통춤을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는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다케시 각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김영종 종로구청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명종 △관음종가(관음종합창단) △개회선언(관음종 포교원장 대흥 스님)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관음종 원로위원 법륜 스님) △대회사 △관음종 약사 소개(관음종 종회의장 법명 스님) △축사 △축하공연(선아무용단) 순으로 진행됐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관음종 주요 연혁 (2015. 10. 02 현재)

1957 03. 10	일승 불교 현정회 설립
1965 12. 05	대한불교불입종 개산 태허당 홍선 대법사 1세 종정 추대
1965 12. 08	불교재산 관리법 하에 대한불교불입종(1988년 관음종 개명) 창종
1971 02. 25	한국 불교도 남북통일기원 대법회 (서울운동장)
1973 01. 15	월간 〈범성〉 창간호 발행
1979 07. 17	대한불교관음종(불입종) 1세종정 태허당 홍선 대종사 열반(음 6.24)
1979 11.	대한불교관음종(불입종) 2세종정 백상 경조 선사 추대
1988 01. 15	제3세 철운 종현 대선사 종정 추대
1988 05. 28	대한불교관음종으로 종명 개명
1989 06. 12	제1회 국제보살계 수계식 및 영산 대법회
1989 11. 10	제4세 운호 대천 대종사 종정 추대
1990 09.	제1회 국제학술강연회
1993 06. 27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영산대법회
1995 06. 27	광복 50주년 기념 및 생전예수재 영산대법회
1998 07. 10	국난극복 및 생전예수재 영산참회 대법회
1999 10. 26	제5세 운공 혜웅 대종사 종정 추대
2003 06. 07	총본산 낙산 묘각사 복원불사 준공
2003 11. 19	제6세 남천 죽산 대종사 종정 추대
2004 10. 08	태허대종사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보살계 법회
2006 03. 10	세계평화기원 영산대재 봉행(미 샌디에고 해병대사령부)
2007 04. 06	서울불교문화대학 개원
2009 08. 14	태허 조사스님 열반30주기 다례법회 봉행
2009 10. 15	재미교포 한국불교전통문화 체험 사업(4박5일)(문광부 후원)
2010 02. 10	불교성전 발행(8회증보판) 전국 사·암 배부
2010 11. 23	개산조 태허 조사 “일대사 인연을 말하다” 논문집 발간 및 학술발표 대회
2011 12. 04	제5회 국제보살계 봉행(창녕 법성사)
2012 10. 10	태허 조사 탄신 108주년 국제학술대회 봉행
2012 10. 10	원통보전 11면 관세음보살 봉안 및 템플스테이 전용관 개관(낙산 묘각사)
2013 04. 15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초청 기원대법회 봉행
2013 10. 10	“현대불교 되돌아 본 50년 그리고 깨달음” 국제학술대회(문체부 후원)
2014 01. 10	창종 50주년 기념사업 실행위원회 발족
2014 10. 17	“한국불교문화의 전승과 실제 학술대회” 개최
2014 11. 01	순천 조계산 선암사 태허 조사 탑비 부도 봉안
2015 05. 06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을 관음종복지재단으로 명칭 변경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의 법문 모습



1988년 홍파 스님이 판문점서 조불련 대표와 접촉 이행하고 있다.



1973년 〈범성〉 창간호 표지



2006년 3월 8일 미국 해병대사령부서 열린 평화기원 영산재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0월 7일 ‘대한불교관음종 창종 50주년 기념 대법회’를 성대히 봉행하였습니다.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참석해 주신 교계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과 제방의 큰스님들 정부인사 및 사회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화환과 축전 등으로 축하를 해 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아울러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널리 혜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9(2015)년 10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 홍 파

사찰 아닌 '문화원'서 부처님 만나요

수원 아리담문화원, 10월 3일 공식 개원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부처님 가르침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불교는 신앙을 넘어 심리학 · 윤리학적 가치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종교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써 포교하기 위한 공간이 탄생했다. 사찰이라는 개념서 벗어나 비불자들도 불교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도 '절'이 아닌 '문화원'이다.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이 10월 3일 공식 개원했다. 점안의식, 개원법회, 문화공연 등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각성 스님, 조계종 호법부장 세영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을 비롯해 수원법조인불자연합회 등 재가불자 150여 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법문에 나선 각성 스님은 "부처상을 점안하는 것은 조각상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부처님 지혜와 자비 덕성을 교감하겠다는 상징"이라며 "오늘이 바로 닫혀있던 가슴을 자비의 마음으로 여는 날이다.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행복하게 하는 큰 서원을 이루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아리담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뜻하는 '아리아 담마(ariya dhamma)'의 준말로, 교육 · 수행 · 치유 방법을 통해 불법을 전파하겠다는 송탁 스님 원력으로 시작됐다.

1998년~2009년 인도 뿌나 대학에서 불교심리학을 전공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송탁 스님은 평소 사람들이 불교를 쉽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다. 스님은 "아리담문화원은 불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해진 규칙과 방법이 없다. 누구든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할 수 있고, 나는 사람들이 고귀한 삶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이 10월 3일 공식 개원했다. 개원법회에 앞서 목조불상 점안의식이 진행됐다.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제작한 아리담문화원 목조상은 수령 800년~1200년 된 녹나무를 사용해 다른 화학처리 없이 그대로 조각됐다.

문화공연 등 150여 명 참석
국내최초 '녹나무' 목조불상도
원장 송탁 스님 "불교, 하나의 문화"
4월경 법조인법회 · 키즈농부 등 시작

실제로 아리담문화원은 지난 4월부터 신도들의 요청 또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개설해왔다. 수원법조인불자회도 송탁 스님을 먼저 찾아와 법회를 제안했고, 그 후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문화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손수일 수원법조인불자회 고문은 "이 전에는 수원 일대 사찰들을 오가며 법회를 열었는데 문화원이란 공간이 생기니 회원들의 참여도 훨씬 활발해졌다"며 "스님께서 원시불교 등 교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매우 신선하다"고 흡족해했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었다. 불교경전을 통한 심리상담, 인성교육, 키즈농부 등이다.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시작하는 '키즈농부'는 기존 어린이법회 형식에서 벗어나 문화원 한 켠에 아이들이 직접 농작물을 키우며 텃밭을 가꾸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유해종(서울미아초6 · 남) 학생은 "다른 절에서 하는 일요법회랑 다르게 문화원에서는 배추, 고추 등 농작물을 직접 키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재밌다"며 "명상 프로그램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니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웃어보였다.

또한 이날 공식개관과 함께 '명상의 방'도 문을 열었다. 축하의 발길로 떠들썩한 1층을 지나 2층에 오르자 주황빛 조명의 작은 방이 자리했다. '입문(入門)'이라 적힌 방문을 열면 '무(無)와 상(常)'을 모티브로 그려진 그림 2점과 함께 박문정 음악가의 고요한 음악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학업 · 직장 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혼자 명상할 수 있도록 내어진 공간이다. 11월 30일까지 모두에게 개방되며 오전 6시~오후 10시 이용가능하다.

그림을 제공한 오숙진 작가는 "모든 것이 항상 하지 않다는 부처님 가르침인 무상(無常)을 마음에 새기면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강건해질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며 "소리와 그림, 빛이 어우러진 작은 방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되돌아보고 치유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리담문화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목조불상'이다.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제작한 목조상은 수령 800년~1200년 된 녹나무를 사용해 다른 화학처리 없이 그대로 조각했다. 제주도가 원산지인 녹나무는 향료, 방충제, 강심제 등 만드는 원료로 쓰이며, 잘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아 옛날부터 왕족의 관을 만드는데 주로 이용됐다. 일본에선 불상 등 신성한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된다.

송탁 스님은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소재가 자연친화적인 '나무'일거란 생각에 목조상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벌레가 먹거나 혹은 날씨에 따라 나무가 변형되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다. 세상만물이 영원한 것 없이 항상 변화하듯 부처님 삶과 모습 자체도 마찬가지란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불국사 창건설화 담은 '에듀-텔링' 앱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황금돼지 금황이' 10월 6일 출시

동국대는 10월 6일 불국사 창건설화를 담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황금돼지 금황이'를 출시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김정환)이 '대원불교문화기금'의 지원을 받아 문화원형 콘텐츠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한 것이다.

'황금돼지 금황이'는 이무기로부터 불국사를 지켜내는 황금돼지 금황이의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닌 본인 스스로 지닌 가치'라는 교훈을 통해 아이들이 쉽게 자기인식과 자존감 등을 배울 수 있는 에듀-텔링(Edu-telling) 콘텐츠로 제작됐다. 또한 흥미진진한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미니게임을 접목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영숙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교수는 "전통과 스마트미디어의 만남으로 아이들에게 흥미와 동시에 불교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e-book을 만들게 됐다"며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 및 유 · 아동의 흥미 유도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국대는 불국사 창건설화를 담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황금돼지 금황이'를 출시했다.

한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은 2011년 '사천왕 캐릭터 매뉴얼 북'을 만든 데 이어 2013년 '사천왕 틀린 그림찾기' 등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바 있다. 2014년에는 e-book '용궁에서 온 보물'을 출시하는 등 꾸준히 스마트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행 · 포교 소식

금강강독회, 법화경 강의 실시

매달 둘째 주 화요일… 10월 13일 개강

금강카페 금강강독회(회장 한창호)는 10월 13일부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두산위브빌딩 9층 승우당서 〈법화경〉 강독을 실시한다. 이번 강독회는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강사로 2017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매달 일정 챕터를 예습 후 합독 시간을 갖는다. 스스로 공부하며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강사와 질의 응답, 참석자 간 토론을 통해 습득한다.

교재는 홍정식 前동국대 교수의 〈법화경〉 번역본을 사용한다. 금강강독회는 교재에 대해 "여느 법화경 번역서와 달리 장황한 해설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권말에 수록된 사진들은 법화경 배경과 생성과정, 불교사상, 내용해설 등 본문 번역만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배광식 강사는 선학원 중앙선원 선정회장, 도봉산 광륜사 신도회장, 서울대교수불자회 회장,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제포교사회장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사)참수레 이사장이며, 금강강독회서 격주 수요일 저녁 7시 '영어능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가을 숲으로 '힐링여행' 떠나자

인드라망, 10월 23일~25일 귀정사 일대서 '숲 여행' 실시

단풍이 곱게 내리앉은 가을을 맞이해 인드라망생명공동체숲살림원이 불자들을 숲 여행으로 초대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숲살림원은 10월 23일~25일 남원시 산동면 귀정사 일대서 '10월 만행산 숲 · 치유 · 명상으로 초대'를 진행한다.

귀정사 및 만행산 숲 체험을 통해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치유하고자 함이다.

프로그램은 △자연차 그리고 호흡 명상 △오감걷기, 침묵으로 만물과 온전한 일체되기 △물, 바람, 소리, 향기로 존재의 진실 깨우기 △자연에너지와 교감, 호흡하기 △깊은 밤 숲에서 우주와 삶의 근원 들여다보기 등 마련된다.

신청은 귀정사 홈페이지 및 이메일(lgs10259@naver.com), 전화로 할 수 있다. 참가비 20만원(단, 인드라망 회원 및 사회단체활동가 15만원). 문의 (063)626-0106

박아름 기자

"佛心모아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겠습니다"

공무원불자연합회, 10월 3일~4일 창립15주년 기념법회 봉행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새로이 불심을 다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서원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10월 3일~4일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서 창립15주년 기념 합동수계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입재식에는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롯해 공불련 회원 및 가족 3백여 명이 함께했다.

법문에 나선 무상 스님은 "공무원 불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할 때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원한 마음으로 자신과 주위 모든 일에 밝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김상인 회장은 "공불련 회원 모두가 개인의 불심을 한데 모아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15주년 법회를 계기로 공불련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 다짐했다.

입재식에 이어 수련관 어린이법당에서 진행된 대의원총회서는 2016년도 사업계획안 등 논의했다. 공불련은 내년 주요사업 중 하나로 각 불자회 법회 운영, 지도법사 현황 등 조사를 실시한다. 송남출 간사는 "이를 통해 공불련 뿐만 아니라 전 불자회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도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튿날에는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취소된 합동수계법회가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을 계사로 봉행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본조계종

원로위원 용 담. 지 연. 법 우
종 정 회 암
사서실장 중 현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부원장 법전
고시원장 범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구달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혜산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현덕. 도일.
경담.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송현.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정현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석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대안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스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5번지 성라원 정안사
전화 02)3436-0796-7 팩스 02)745-1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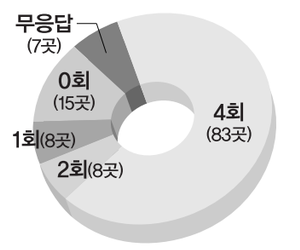
새싹불자 전법거점 '싱크홀'로 전락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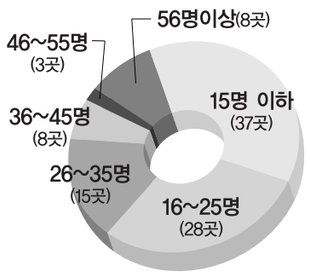
포교원은 2009년부터 어린이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 청소년전법중심도량을 지정, 운영해 왔다. 이에 본지는 10월 3일~6일 어린이 · 청소년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된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매월 4회 정기법회를 운영 중인 어린이 · 청소년전법중심도량 경기 의왕 청계사에서 5월 10일 열린 제6회 연꽃문화제에 참가한 남양주 동원정사 어린이법회 어린이들 모습.

전법 중심도량 121곳 전화 전수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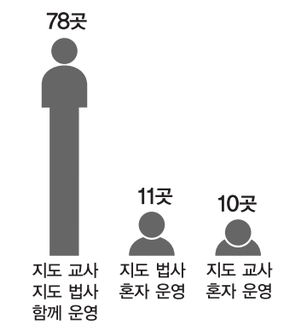
어린이법회 월 횟수



어린이법회 참가자 수 비율



법사 및 교사 운영 현황



조계종 포교원에서 어린이 · 청소년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한 전국 121곳 중 15곳, 약 12.4%가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포교원 관계자가 본지에 "어린이 · 청소년전법중심도량 121곳 전부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포교원은 2009년부터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거점 사찰을 지정하고, 종단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을 추진하는 전법도량을 운영해왔다. 이에 '전법중심도량운영및관리에관한령'을 제정 · 공포하고(2011년 7월 5일), △종단 개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 우선적 지원 △사찰과 연계한 종단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지원 △중심도량의 중요 지역사업 또는 불사시 종단 포교사 자원봉사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포교원 관계자는 "전법중심도량 운영을 위해 연간 약 2500만원 예산이 책정된다"며 "우수도량 부상, 포교자료 및 프로그램 발간, 지역간담회 개최 등 진행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시행 후 6년이 지난 현재, 야심차게 시작한 전법중심도량은 관리부실 속에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본지가 전화로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99개 사찰 중, 평균 법회 참석인원이 15명 이하인 사찰이 36곳으로 약 37.3%에 달했다. 이 중에서 6곳은 참석률이 10명 미만에 그쳤다. 또한 지도법사와 지도교사가 함께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78곳, 지도법사만 있는 사찰이 11곳, 지도교사만 있는 곳은 10개로 집계됐다.

'전법중심도량운영및관리에관한령'에 의하면 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된 사찰은 △지정 당시 기준 및 요건 유지(제12조 1항) △당해 분야 포교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동조 3항) 등 의무가 있다. 또한 포교원은 지정된 사찰에 연 1회 이상 당해 포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제14조).

이에 의하면 포교원이 전법중심도량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체계는 연말 제출하는 보고서뿐이다. 하지만 포교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내지 않는 사찰에 대해 제출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는 사찰도 있다"며 "전법중심도량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사찰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B사찰 관계자는 "상부기관서 하부로 지원해준다는 명목 하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데, 지원이 없는데 왜 보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1년 간 포교 성과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종단과 일선 사찰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법중심도량, 무엇이 문제인가?

인력 공급 시스템 체계화 필요

현재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지정된 사찰들이 가장 심각히 겪고 있는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비단 지역사찰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사찰들도 입 모아 인력 문제를 토로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교육할 젊은 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자원봉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찰 주지스님이나 상좌스님이 혼자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 C사찰 주지 스님은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 3년 동안 어린이 법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 법회를 열고 싶은데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은 "종단에서 각 사찰에 어린이전문포교사들을 의무적으로 파견하고 지원과 관리가 체계화 돼야 한다"며 "포교사에게 사명감을 심어야 한다. 단 1명의 아이가 오더라도 그 아이가 훗날 100명을 포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 문제도 거론됐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자모들 혹은 사찰 종무원들이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전담하기도 하며, 사찰 불교대학을 졸업한 포교사를 동원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법중심도량 지정 사찰 중 산하 어린이집을 둔 곳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대로 주말 법회를 진행한다. 불교 산하 어린이집이지만 체계적 불교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경상도 D어린이집 교사는 "선생님이 100퍼센트 이해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사실 불자가 아니다보니 배울 시간 없이 법문 등 가르칠 때가 있다. 선생님들이 설법 시간을 가장 곤혹스러워 한다"며 "교사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지도자 자격고시 연 1회, 자격취득자들 대상 연수프로그램 연 1회 등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 필요성 부재, 홍보 미비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종단 자격증 없이도 어린이청소년 법회 교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이청소년지도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종단 차원 '인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포교원서 시행한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방안 프로그램 공모사업'서 대상을 차지한 '조계종 취업지원센터'는 종단 차원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청년 불자들의 구인 · 구직 활동을 도움으로써 불교 인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어린이법회 교사 등 인재 발굴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의왕 청계사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법사 명원 스님은 "어린이청소년 법회서 봉사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경로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며 "'조계종 취업지원센터'가 운용되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템플스테이' 처럼 홍보마케팅 펼치자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에 대해 어린이 법요집, 108어린이마음거울CD, 청소년인성계발프로그램 등 포교 자료를 우선 지원했다. 포교원은 어린이법요집을 새롭게 발간하고, 108어린이마음거울 CD와 함께 지난 8월 전국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에 4천여 부 배포했다. 또한 해마다 우수전법도량을 선정해 노트북, 피아노, 빔프로젝트 등을 지원해 왔다.

121곳 中 12.4% 어린이법회 '미실시'
참석률 15명 미만 37.3% 달해
예산 · 봉사자 지원 등 '유명무실'
인재풀 · 홍보마케팅 등 필요
"주먹구구식 사업운영 안 돼" 한 목소리

고양 흥국사 박임숙 사무장은 "사찰 자체 법요집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포교원서 법요집을 보내줘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전사 서은주 원감도 "108배 절수행법을 담은 어린이마음거울CD는 어린이불교학교 활용하니 아이들이 훨씬 재밌게 108배에 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괄적 프로그램 배포보다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처럼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구 E사찰은 "각 사찰마다 이미 특화된 어린이청소년법회 프로그램이 있다"며 "전국 단위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소개하는 '홍보 마케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포교원이 산하기관과 연계해 연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축제 및 행사에는 평상적인 법회보다 아이들 참여율이 높아 가능한 참여하고 싶지만 거리상, 재정상 문제로 불가하다는 이유다.

충남 F사찰은 "간혹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에 행사 소개 공지가 오지만 대부분이 수도권, 강원도, 경상도 등서 열려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며 "차량만 이라도 지원이 되면 좋을 텐데 아쉽다"고 안타까워 했다.

'예산지원' 조항 존재하긴 했나?

전북 G사찰은 사찰 재정 1천 2백만 원을 들여 경내 앞 공원부지에 컨테이너 간이 건물을 두고 어린이 법회를 운영했다. 하지만 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 법회 용품을 사찰 요사체에 보관 중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3~4명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법회는 지속하고 있다.

비단 G사찰뿐만 아니다. 경남 H사찰은 "사찰 재정이 매우 열악해 포교사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 간식비 1만원씩 보태며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심 내 일선 사찰들도 재정 문제에 시달리긴 마찬가지다. 서울 I사찰은 "아이들을 위해 난타, 천연염색, 탁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 선생님들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면 미술, 음악 등 전공하는 봉사자들을 소개해주는 제도라도 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 지정시 사찰과 연계한 종단 사업시 우선 선정 및 예산지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121곳 모두 예산지원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예산을 지원한 사찰은 없었다"면서 "지역 사찰마다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 J지역 어린이법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법사 K스님은 "포교원 아래 산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행사들을 하나로 합치하면 예산을 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며 "단체들마다 따로 캠프를 열고, 예산을 쪼개 받는다. 예산을 받기위해 주먹구구식 시행하는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산되는 예산을 모아 어린이청소년전법중심도량 등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궁극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다.

또한 스님은 "산발적으로 열리는 행사 및 캠프는 아이들의 참여율도 찢어 놓는 결과를 낳는다. 행사는 많은데 참가하는 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1년에 하나를 하더라도 각 단체마다 특화 항목을 정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른들 입맛에 맞춰놓고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면 먹겠느냐"며 "아이들이 원하는 포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노덕현 · 박아름 · 이계섭 수습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불.법.승

대한불교삼보조계종

단기 4348 을미년 대한민국
불교통일 불국토운동 전파정진

1세종정 멸공 대종사
부 종 정 회천 원로원장 금산 원로부원장 정공
총무원장 법장 호법원장 법천 종 회 의 장 대행

부 원 장 법경 고시원장 해룡 교육원장 홍인 문화원장 도광
감찰원장 법도 복지원장 지공 염불원장 청산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각원. 용현. 법융. 지훈. 법송. 지원. 도연. 도륜. 천광. 정륵. 수원. 해국 (16교구)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재무부장 법진 포교부장 혜수
호계부장 청파 규정부장 도철 교화부장 법보 총무국장 지일
문화국장 도엄 포교국장 도원 교육국장 도선 조사국장 도석
사회국장 도암 홍보국장 강천 염불국장 진각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 무 장 손은진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4 (2층) ☎ 055)338-0089
전국무료전화 ☎ 080-333-9009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총무원장 만공 호조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화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어린이 전법 활성화 방안은?

“종단 시스템 전면개편 필요”

조계종은 2005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위기라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높다. 전법도량과 같이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경우가 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주문했다. **특별취재팀=노덕현 · 박아름 · 이계섭 수습기자**

“종합 전법도량으로 확대해 지원 집중해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어린이 포교의 핵심은 이를 이끌어갈 인재에 있기 때문에 전법도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전담 재가자나 스님을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명하는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 많은 사찰들이 전담 인력조차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아이들은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어한다.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법회 때만 소통해서는 아이들이 사찰로 오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일선 사찰의 경우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직화 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스님들이 주축이 되야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로 인해 정작 젊은 스님들을 찾기가 힘든 것 또한 사찰들의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가자들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잘하는 사찰을 보면 젊은 불자부모 조직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 특징으로 부모들이 가진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을 사찰로 이어지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주말 학원과 스포츠 등의 발달로 종교활동을 배제하는 요소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과 문화교실 등을 병행하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전법도량 선정에 있어서도 종단이 고령화 등 지역의 인구 · 연령변화를 분석해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일산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지역에서 노년 지역으로 바뀌었다. 전법도량으로 선정해 지원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린이 법회가 쇠퇴할 수 밖에 없다”며 “젊은 세대가 많은 신도시 등에 전략적으로 전법도량, 거점사찰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법도량 시스템을 전면 검토해 종단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김 교수는 “한국불교는 현재 대학생, 중고등학생, 어린이 포교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로 이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어린이 포교도 자연히 살아난다”며 “결국 어린이 전법도량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까지 전법을 함께하는 전법도량에 대한 의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어린이포교 종책, 가지치기 할 시점”



최미선 동련 사무처장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는 전법단 · 전법도량 · 불교스카우트 · 동련 등으로 다양화된 체계가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미선 동련 사무처장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법도량, 지역으로 구분된 전법단 이외에 불교스카우트연맹,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포교단체인 동련 등이 있다”고 먼저 설명했다.

최 사무처장에 따르면 일선사찰에서 법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교사들이 줄어들고, 그에 다양한 종책이 겹치며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 사무처장은 “한마디로 잘하는 사찰은 모두를 해야하고, 안되는 사찰은 어린이들이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다 주지 스님이 안한다면 바로 중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최 사무처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종책이 나왔지만 이제는 통합정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처장은 “관리를 일일이 포교원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종단의 어청위만 하더라도 직원이 없어 동련에서 파견하고 있다. 나무가 위로 크려면 가지를 치듯 종책도 가지를 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사무처장은 불교계가 포교활성화에 다시금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사무처장은 “현재 대학생, 청년 포교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어린이 포교 또한 그 연장선”이라며 “사찰에 내재된 포교의 문제를 종단만이 이끌어 가기란 한계가 있다. 불교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동네 전법도량

속초 원각사

본사와의 협력, 인적 · 물적 자원 지속 후원

토요아카데미 인기리에 운영

신흥사(주지 우송) 포교당인 속초 원각사는 어린이 법회와 함께 ‘체험을 통해 희망을 꿈꾸는 즐거운 토요일’ 을 주제로 8년째 토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원각사에 모인 아이들은 먼저 법당에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명상과 법문 등 10여 분 동안 법회를 진행 한 뒤 1시간 동안 토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다시 불교대학생과 원각사봉사단으로 이뤄진 점심공양팀이 마련한 점심공양 후 회향한다.

토요아카데미에서는 승마와 축구, 체육, 댄스&에어로빅, 도예, 난타, 클레이, 블록피아, 아동미술 등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토요아카데미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어린이법회 활성화로 이어진다. 법회에는 총 24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다. 이 어린이들의 수는 속초지역 초등학생의 약 5%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원각사는 사전조사를 통해 매학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원각사는 본사인 신흥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인 것이 특징이다. 본사인 신흥사 산하 어린이집 강사와 교사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일선사찰에서 운영 애로점으로 꼽히는 인력문제를 해결 한 것이 크다.

최정수 토요아카데미 팀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전문가”라며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도 다양하다. ‘포교발전기금을 위한 1080 연등’ 동참비에 신흥사의 지원, 속초시 등 외부기관의 지원까지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토요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양하고 셔틀버스 5대를 운영하는 등 편의성을 더하고 있다.



신흥사 토요아카데미교실의 승마교실. 승마 외에도 도예, 난타 등 9개 프로그램이 진행돼 인기다.

원각사 측은 “아이들이 먼저 사찰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본말사 차원에서 어린이 포교가 불교 미래이며, 사찰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홍법사

배움과 놀이의 장 탈바꿈… 출석장학금 지급

자모회와 역할 분담 성공

부산 홍법사는 어린이법회를 배움과 놀이의 장으로 탈바꿈 시킨 곳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회비를 받는다’ 는 것. 법회 이후 진행되는 플루트 강습 등 프로그램에는 매달 1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출석장학금으로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사실상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셈이다.

이 같은 체계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홍법사 자모회에 기인한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홍법사 어린이법회는 총 3부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 먼저 10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어린이법회가 진행된다. 법회 프로그램과 함께, 교리공부와 사경, 놀이수업 등이 매주 다양하게 진행된다. 2개월에 1번은 요리법회가 진행되며 3개월에 1번씩은 생일법회가 진행된다. 법회가 끝나면 점심공양 시간, 이후 프로그램은 선택제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사물놀이, 플루트 강습, 방송진행 체험, 난타, 가야금과 기타 강습이 그것이다. 2부 강습 이후에는 3부로 어린이 합창단 수업이 진행되며 이 수업이 끝나면 3시가 된다. 2부와 3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1부인 어린이 법회에 참석해야 하기에 평균 45명 가량의 아이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문화관 총무로 불리는 자모회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을 분담한다. 어린이법회 교사는 4명에 불과하지만 문화관 총무로 불리는 자모회 어머니들이 법회관장팀, 문화팀, 자모봉사팀으로 나뉘어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강습은 전문지도자를 유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김경숙 청소년교육연구소 소장은 “회비를 받는 대신 출석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준다.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책임감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법사에 강습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도 어머니들의 요구 때문이다. ‘토요일 아이를 학원에 보낼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끼리 힘을 모아 아예 사찰에서 선생님을 모셔와 원하는 것을 배우게 하자’ 는 취지다. 여기서 강습을 받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봉축기간이나 사찰 행사때 경연 등으로 배운 것을 뽐낸다.



홍법사 어린이 합창단 공연 모습. 합창단 수업은 어린이법회와 특별활동 이후 진행되지만 어머니들의 호응이 높다.

홍법사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교육연구소도 2008년부터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홍법사 측은 “부산과 양산의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2년 전 창건과 함께 문화활동을 도입했다”며 “어머니들의 요구에 부응한 점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 황룡사

봉사점수 받는 청소년이 1:1로 아이들 관리

청소년성취포상제 활용 ‘인기’

울산 황룡사는 청소년과 어린이법회를 통합관리하는 사찰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멘토링으로 어린이를 1:1로 보살피는 것이 특징이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황룡사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후 어린이 · 청소년 모임인 ‘리틀붓다’ 를 진행한다. 이 ‘리틀붓다’ 는 인근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해 어린이 25명, 학생 25명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된다. ‘리틀붓다’ 는 매달 주제를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켈리그라피 교육을 비롯해 축구, 영화보기 등이다.

‘리틀붓다’ 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매년 늘고 있다. 이는 황룡사 측이 법회 후 진행되는 어린이 명상학교 등을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봉사단체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현미 지도교사는 “학생들은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보다는 젊은 선생님을 선호한다. 중고등학교 언니오빠들과 함께 활동하며 중고등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며 “법회 때문에 사찰을 찾는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다. 학교의 학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활동하면 여가부 장관상 등을 받다보니 와서 인근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도 활동에 참여한다. 형제들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 등으로 어린이 수도 늘고 있다.



리틀붓다에서 참선명상을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리틀 붓다에는 중고등학생이 멘토로 참가한다.

이 지도교사는 “처음에는 신도 자녀로만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친구들과 동생들을 데리고 온다”며 “아이들을 위해 명절 외에는 꾸준히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원장 범준
위 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총무원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앙종회의장 보장 부의장 수운. 호경
중앙종회의원 서봉. 삼자. 혜언. 원철.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부원장 지성 사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원장 보단 포교부장 법공
중앙교육원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원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원철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앙법사단장 무진 법사단부단장 혜등 법사단총무 혜련
비구니회회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제교화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청송 청파 고문 법성 혜암
총무원장

감찰원장 동일 학봉 기획실장 영산 동우 종회의장 대공 동곡
문화원장 원효 동암 총무부장 동공 종회부의장 도진 동영
교육원장 백천 동담 종회의원 일동
포교원장 혜각 동성 부산교구 동암 원효
사회원장 덕진 도광 충남교구 도진
복지원장 선법 태산 경남교구 대비
사서실장 동판 경기교구 덕진 도광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3장,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23-0108 /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불교와 잘맞는 한국인 유전인자”

오스트리아 추기경문화회관 초청강연

소설가 정찬주

소설가 정찬주씨가 9월 2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KKH(Kardinal Koenig Haus, 추기경문화회관)서 초청연사로 초대받아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과 불교’ 를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정찬주 소설가는 ‘독일 불교문학의 아버지’ 라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 영향을 받은 바그너의 오페라 대본 〈승리자〉에 대해 언급했다. 정찬주 소설가는 “〈승리자〉는 불교경전인 〈법구경〉 중 ‘자기를 극복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 라는 가르침서 착안된 것”이라며 “불경 속 남녀 간의 사랑을 토대로 불교의 윤회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정찬주 작가는 … 불교적 사유가 배어 있는 글쓰기로 오랜 기간 명상적 산문과 소설을 발표해온 정찬주는 195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하늘의 도〉 〈다불〉 〈만행〉 등이 있다. 1996년 행원문학상, 2010년 동국문학상을 받았다.

한국의 옛 왕국 고조선

한국의 역사는 B.C 2333년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의 역사서로서 1천 년 전에 발간한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의 저서입니다. 저자인 스님은 고조선 건국을 설화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연스님은 왜 고조선 역사를 실화(實話)로 쓰지 않고 설화(說話)로 기록했을까요? 일연 스님이 살았던 당시는 대제국 중국의 원나라가 조그만 나라인 한국의 고려국 주권을 사사건건 간섭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연 스님은 강대국 중국을 의식하여 고조선 건국을 설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뿌리를 밝히는 것은 한국의 정신을 일깨우는 일이므로 중국이 견제하는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황제인 환인의 아들 환웅은 하늘을 숭배하는 강력한 부족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아들과 곰이 결혼하여 사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부족과 작은 부족이 결합했다는 상징일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았던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겠지요. 곰은 인내와 덕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용맹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을 점령해야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단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억울하더라도 곰처럼 인내하면서 평화를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은 잦은 침략에도 어느 강대국 문화에 흡수당하거나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한국인은 왜 불교를 좋아하는가

불교는 B.C 5세기경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입니다. 교주는 붓다이고 교리는 붓다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불교는 생로병사를 하는 삶이 고통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제거해야 합니다. 불교에서의 구원과 행복은 그 방법 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나 아닌 신이나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불교는 신본주의(神本主義)의 종교가 아니라 인본주의(人本主義)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세상의 계급사회를 부정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폈습니다.

붓다가 살았던 당시의 초기불교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었습니다. 붓다가 열반한 이후에 나타난 대승불교는 진리를 구한 뒤(上求菩提)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下化衆生)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승불교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지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삼습니다. 대승불교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불교는 인본주의 종교
통합과 융합 평등의 가르침
나와 이웃 함께 행복 ‘추구’

쇼펜하우어는 독일불교 아버지
바그너 · 니체 등 제자도 영향 받아

그 근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소멸하므로 이것이 소멸한다’ 는 상호관계적인 붓다의 논리입니다. 내가 없으면 꽃 한 송이도, 구름도, 별도 없는 것이 됩니다. 해와 바람과 비가 없으면 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고, 남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요.

한국의 불교전래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방의 고대국가였던 고구려 소수림왕 2년(A.D 372)에 중국으로부터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학설입니다. 또 하나는 남인도 아유타국의 허황후가 A.D 48년에 신천지를 찾아 나선 끝에 남방의 고대국가였던 가야국에 불교를 전래했다는 설입니다. 어쨌든 한국에 불교가 전해진 기간은 1600년이 넘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뒤 왕실과 민간사회에 빠르게 전파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투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에게 불교라는 옷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의 한국에는 원시신앙과 도교와 유교가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러한 것들과 갈등하지 않고 다 포용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절에 가면 도교의 흔적인 칠성각이 있고, 산신을 봉안한 산신각이 있고, 유교의 선비들이 남긴 시문(詩文)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란 상대와 하나가 되는 일원론의 사랑입니다. 결코 나와 남을 구분하여 베푸는 이원론의 사랑이 아닙니다. 불교의 철학적 깊이와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허공 같고 바다와 같은 일원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와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융합이 불교의 특성인 것입니다.

둘째, 인내심이 많은 한국인에게 불교라는 옷이 잘 맞았습니다. 불교의 시간관은 현실만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은 지극히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시간관은 한국인의 느긋한 성품과 잘 들어맞았습니다. 한국인은 어른이 죽었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고 합니다. 즉, 오늘 이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갔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우주관도 태양계만 있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태양계와 하늘이 있습니다. 붓다도 여러 하늘 중에 하나인 도솔천(兜率天)에서 호명 보살(Bodhisattva)로 살다가, 인간들이 스스로 번뇌를 소멸한 ‘완전한 행복’ 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과거와 미래를 믿으므로 현재의 고난과 역경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잘 극복해왔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는 생명력의 유전인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인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야말로 미래의 행복을 위한 저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도 인과(因果)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나 공평할 뿐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한국인의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도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불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의 〈법화경〉 중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그것은 오늘 받는 이것이요,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그것은 오늘 짓는 이것이라네.

셋째, 한국의 문화재 중 80%는 불교가 남긴 유산입니다. 한국문화와 한국 사상을 말하면서 불교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한국정부가 불교문화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통사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국가정책이기도 합니다.

왜 불교문학을 하는가?

한국의 불교문학은 한국의 고대국가인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합니다. 7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초반까지 불교를 소재로 한 시(詩)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즉 10세기 초반부터 14세기 후반까지도 불교문학은 풍성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문학은 7세기 중엽부터 14세기 후반까지 한국의 중심부 문학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5백 년 동안 불교문학은 유교문학과 쌍벽을 이루며 발전했습니다. 불교문학이 한국예술의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것은 서구문학이 밀려들어온 근현대의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불교문학 혹은 불교예술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통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근현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불교문학이 한국문학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이 외국의 불교문학이 한국에 소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인도의 대문호 간디의 시와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장편소설 〈싯다르타〉 등이 그 예입니다.

불교에 심취했던 저는 붓다에 관한 여러 전기나 소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헤세의 〈싯다르타〉는 붓다의 일생 중에 반만 그린 소설입니다. 소설 〈싯다르타〉는 카필라왕국의 왕자인 싯다르타가 출가하여 진리를 깨달은 자인 붓다가 되기 전까지만 다룹니다. 인간 싯다르타의 고뇌와 사랑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동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싯다르타는 우리들과 같이 고뇌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시절에 헤세로부터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도 작가는 인간을 이야기해야만 독자들에게 공감을 더 얻을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독일문학을 연구한 동국대학교 전 총장이자 저의 스승 홍기삼 선생님에게 쇼펜하우어는 유럽에서 ‘독일 불교문학의 아버지’ 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수업 중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불교적 영향을 받은 두 제자가 있는데 니체와 바그너입니다. 바그너가 구상했던 오페라 대본 〈승리자(Die Sieger)〉는 불교가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자〉는 불교의 〈법구경〉에서 착안한 것이 확실합니다.

천민의 딸이자 여주인공인 프라그리티는 붓다의 제자인 아난다의 외모에 반해서 에로스적인 사랑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붓다에게 ‘전생에 브라만의 딸이었던 프라그리티가 천민의 추장 아들이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를 조롱하며 거절한 과보(果報)로 금생에는 천민의 딸로 태어나 사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라는 설법을 듣고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뒤 아난다와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진리의 자매(姉妹)가 된다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극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를 극복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바그너는 영적인 친구 마틸데 베젠동크(Mathilde Wesendonk)에게 보낸 편지에 ‘세계가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현상은 ’ 세계정복자(Welteroberer)’가 아니라 ‘자기극복을 통해서 외계를 극복한 자(Wetuberwinder)’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는 바그너가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강조하는 불교의 교리에 얼마나 빠져들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그너는 죽기 전에도 오페라 대본에 불교 소재를 많이 차용하여 작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73 (해운대 로데오아울렛)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마음 편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행복공감평생교육원

주 지 하 림
사부대중 합장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 (051)253-8687~8
www.mitazen.net

"한국 재가불자 신행 체계 전면개편 필요"

불광사 불광연구원 창립 41주난 '재가 신행론' 학술연찬회서

최근 한국불교계는 남방불교와 티베트불교, 서양불교까지 유입돼 있는 다불교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불교전통의 신행체계를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불교의 상황에 맞는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광사 불광연구원은 10월 7일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에서 창립 41주년 기념 '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불자의 신행론'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황순일 · 고영섭 · 양승규 · 김진무 · 조성택 등 학자들이 불교의 시대별 재가자 수행에 대해 현재 불교계의 세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토론을 진행했다.(발표순 정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초기불교=남방불교 인식 바꿔야"

–황순일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최근 한국불교계에 불고 있는 남방불교 수행 우선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황 교수는 '초기불교 재가자의 신행' 에서 "우리들은 오래 전부터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구분해왔다. 특히 남방불교의 경우 초기불교가 큰 변화 없이 그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인도에서 있었던 초기불교와 현재의 남방불교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장소와 시대를 달리하며 발전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특히 초기불교의 〈웨산따라 자따까〉에 대한 당시 재가자들의 신행활동을 예로 들었다.

황 교수에 따르면 당시 재가자들은 〈웨산따라 자따까〉를 하루 종일 낭송 또는 합송하는 것을 듣고 끊임없는 보시행을 하여 공덕을 쌓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 재가자들은 그리하여 미래의 붓다인 마이뜨레야(Maitreya)가 세상에 나올때 인간으로 태어나 마이뜨레야의 면전에서 출가하여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겼다.

황 교수는 "남방불교 재가자들의 신행과 정토사상의 신행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가중심 대승정신 되살려야"

–고영섭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사부대중의 대승불교 구성의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대승경전을 통해 본 재가불자 신행론' 에서 "재가불자의 신행론은 삼귀의와 오계, 팔재계와 십선계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며 "현재 불교계에서의 출가자 외호 역할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대승불교는 교화와 각행(覺行)까지 원만히 갖춤을 역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출가와 재가는 상호의존적 존재로 발달했다. 특히 유마거사의 불이법문과 승만부인의 10대수와 3대원을 아우르는 일대원을 통해 일승의 수승함과 중생이 지닌 여래장의 본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특히 '보살' 의 개념이 사부대중을 넘어 수행자라는 개념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출가자는 '수행' 과 '교화' , 재가자는 '생업' 과 '수행' 에 집중하며 모두 수행을 하는 입장에 있다. 대승불교는 '승속양행' 즉, 출가자와 재가자의 삶을 겸행하고 그 우치를 자재하여 하나라는 입장으로 제시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현대 재가불자들에게 유마의 불이와 승만의 일원은 신행이론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화엄의 10바라밀은 재가보살의 회향 실천법이자 수행법으로 자리한다"고 말했다.

"티벳불교 도차제, 한국불교서 유용"

–양승규



양승규 티벳대장경역경원 전임연구원은 '도차제의 가르침과 재가신행체계' 발표에서 티벳불교에서 재가자의 근간에 따라 수행방식을 달리한 도차제가 한국불교에 접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티벳불교의 보리도차제에서는 일시적인 훌륭한 몸을 증득하는 작은사람, 윤회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해탈을 증득하는 중간사람, 일체지를 증득하는 큰사람으로 나눈다.

양 연구원은 "도차제는 근간에 따라 구분하지만 출 · 재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 체계에서는 재가자도 불교교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도차제에서는 특히 관찰행을 할 것을 밝히는데 이는 관찰하는 지혜로 분석해 수행한다는 것으로 재가자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도차제의 의도는 큰 사람의 도차제를 통해 작은 사람과 중간 사람의 도차제를 섭수해 결국 큰 사람의 도차제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대사회에서 일체지를 증득하는 목표가 처음부터 설득력을 얻기란 쉽지 않다. 예비수행에서 설명하는 기회와 원만한 조건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행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거사는 부패척결 원동력"

–김진무



김진무 절강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 객좌교수는 중국에서 선종 유행한 계기가 통치의 효용성이라는 정권의 의도가 숨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불교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거사들이 활동했음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현대 불교계에 있어 재가불자의 활동과 역할이 보다 확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선종에 있어서 재가불자 역할과 그 의의' 에서 "거사들의 역할은 크게 호법, 재시, 새 교의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선종에 있어 고급관료 거사들의 선택이 두드러진다"며 " '안사의 난' 이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불교의 구태에 식상한 수많은 고관들이 우두선에 귀의했다. 회창법란이 오히려 우두선에 매료된 거사들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김진무 교수는 특히 회창법난 당시 승상의 지위에 있었던 이덕규의 역할이 불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했음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들의 눈에는 기존불교가 '부처를 팔아 사람을 현혹시키는 무리' 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며 "화엄과 천태, 도교 등 당시 최고 전성기를 이루던 사상에 대한 반성을 현재 재가불자들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깨달음 · 간화선 지상주의 버려야"

–조성택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재가불교 수행론' 에서 전통과의 새로운 관계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모범답안은 좋은 것은 계승하되 그릇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라며 "때로는 버림으로 계승하는 것이 진정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불교현대화에서 많은 활용방안을 이야기 하지만 그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지식이 필요하다"며 "이 선지식이 한 종류일 까닭은 없다. 많은 방식이 있으며 다시 말해 '간화선' 만 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재가불자들도 굳이 간화선일 필요는 없다. '난 깨닫지 못했는데…' , '범부중생인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냉소주의에 가까운 회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깨달음에는 삶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것들이 있다. 결국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은 모두 깨달음이라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은 시작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끝으로 "광덕 스님이 시작한 불광운동은 한편으로 부처님 이래 전통을 계승하면서 21세기 한국에 적실한 새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 64% "국보 1호 훈민정음 더 낫다"



훈민정음 혜례본

국민 10명 중 6명은 국보 1호로 숭례문보다 훈민정음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우리문화지킴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월 5~6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4.2%가 "숭례문과 훈민정음 중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훈민정음 대신 숭례문을 꼽은 사람은 20%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70.7%)와 50대(70.5%)가 훈민정음을 택한 비율이 높았고, 19~29세(57.4%)와 60세 이상(55.8%)은 낮았다.

국보와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문화재 지정번호제에 대해서는 57.4%가 '폐지에 찬성한다' , 25.9%가 '폐지에 반대하다' 고 답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우리문화지킴이,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와 함께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와 훈민정음의 국보 1호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만해硏, 심우장 꽃밭 복원 기념식

동국대 만해연구소(소장 고재석)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15 만해축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만해와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만행(萬行)' 을 개최한다.

먼저 만해연구소는 10월 16일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 1부 행사인 '심우장 꽃밭복원 기념식' 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김영배 성북구청장, 유승희 국회의원 등 50여 관련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재석 만해연구소장의 문학강연과 꽃밭복원, 문태준 시인과 윤고은 소설가의 시낭송회, 현여울 씨의 클래식 기타공연 등이 이어진다.

고재석 동국대 만해연구소 소장은 "만해 스님이 심우장의 작은 꽃밭에서 꽃들을 키우면서 '만유의 이법' 을 묻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 을 보듬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만해 스님이 평생 추구했던 깨달음의 꽃향기를 마음껏 맡고 그가 남긴 투명한 유산을 내면화할 수 있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와 함께 만해연구소는 2부 행사로 17일 '백담사 순례와 문학강연' 을 만해마을에서 개최한다. 오전에는 학생들과 교수 및 각계 인사들 100여 명이 모여 단풍으로 물든 백담사까지 순례하면서 만해의 사상과 문학을 음미하고, 오후에는 문학강연을 듣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감상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반야학술상 공모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제5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반야학술상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논문상과 저역상 두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저역상 분야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한다. 저자 및 역자 중 1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한다.

논문상 분야는 2년 안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학술지 〈동아시아불교문화〉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해 우수 논문 저자 1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및 추천 마감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노덕현 기자

국립해양문화재硏 '해양 실크로드' 강좌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인문학 강좌 '대륙과 해양의 실크로드 여행' 을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한다. 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심화 강좌 프로그램이다.

주요 강좌 일정은 △실크로드와 동서문화 교류 △실크로드의 불교미술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와 해양 실크로드 △동서문명의 교류–실크로드와 유목제국 △몽골제국과 동서문화 교류 △실크로드를 통한 복식문화 교류 △정화의 남해대원정 △실크로드의 거점, 고군산군도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제3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5년 10월 31일까지

■ 시상내역 : 2명 (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로 63번 길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 문의 : 051) 510-2076 / 팩스 051) 517-7101
사무국장 010-9317-9199 / david1080@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5년 12월 28일, 세주 묘엄 스님 추모 다례제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인도로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선무도 공연◈
매일 오전11시 30분,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 수련원◈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불교학 연구기관 무엇이 있나?

한국불교 지평 확대 '일등공신' … 40여 곳 활동

근현대 불교학 발전의 뒤에는 여러 연구소들의 역할이 있었다. 동국대 내 불교문화연구원, 선학연구소, 전자불전연구소와 보조사상연구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성철선사상연구원 등의 학술회의 및 각종 세미나는 불교학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학자들의 모임인 학회의 창립과 활동은 불교학자의 활동반경을 넓혔다. 한국불교학회로부터 인도철학회,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등의 활동과 저널 간행은 한국 사회에 불교의 지평을 재인식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이에 창간을 기념해 불교학 연구의 각 기관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티벳장경연구소가 2013년 8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개최한 '2013년 하계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의 모습.


불교학연구회가 2012년 동국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열반 사상의 전개와 쟁점〉에서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국제불교학회(IABS) : 1976년 창립한 국제불교학회는 구미와 아시아의 주요 불교학자들이 대다수 참여하는 학회로, 세계 불교학계의 중심단체이다. 학술지로는 국제불교학회지(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를 발간하고 있으며, 3년 마다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2002년에 방콕, 2005년에 런던, 2008년에 아틀란타, 2011년에 타이완, 2014년에 비엔나 등에서 열렸으며, 2017년에는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이다. 학회 본부는 현재 스위스 로잔에 위치해 있다. 학회 본부는 현재 스위스 로잔에 있다.

한국불교학회 : 1973년 창립된 국내 최초 불교학회로 대표적인 불교학계 단체다. 매년 춘 · 추계 2회의 학술대회와 하 · 동계 2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으며 1975년 〈한국불교학〉을 창간한 이후 매년 3회 발행해 오고 있다.

불교학연구회 : 불교학연구회는 열린 학문 마당을 기치로 토론 중심 학회를 지향하기 위해 2000년 5월 창립됐다. 연 2회 학술대회, 연 2회 논문발표회, 연 2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학술지 〈불교학연구〉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한국선학회 : 한국선학회는 선학의 기초이론 정리, 수행방법 고찰 등을 위해 2000년 2월 창립됐다. 춘계와 추계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한국선학〉을 연 3회 발간하고 있다.

인도철학회 : 1988년 창립된 인도철학회는 연 2회 학술발표회를 열고 있으며 학술지 〈인도철학〉을 발간하고 있다. 회원 중 교수는 30명, 석 · 박사 과정의 전공자는 60명, 인터넷 회원이 420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정토학회 : 불교 교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정토 실현의 현실적 실천방도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1988년 창립된 한국정토학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학술지 〈정토학연구〉를 펴내고 있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 2002년 창립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한국불교학과 세계불교학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영문저널 IABTC(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02)581-3137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2006년 창립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춘 · 추계와 하계 연 3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 3회 〈동아시아불교문화〉을 펴내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악미술사학회 : 동악미술사학회는 2000년 창립 이후 불교미술사학 및 유형문화재에 관한 연구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학회지 〈동악미술사학〉을 매년 1회 발간하고 있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 2007년 불교,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학회로 심리치료의 불교적 적용을 모색하는 곳이다. 현재는 불교심리치료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02)2260-3722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불교문화연구원은 동국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1962년 3월 불교문화연구소로 설립됐다. 1963년 학술지 〈불교학보〉 간행을 비롯하여 불교학술 강연회와 전시회 개최, 〈한국불교전서〉 편찬 등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선정돼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연구'를 수행하게 됐으며 2007년 교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됐다. 2011년 8월 인문한국(HK)연구단이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 종학연구소는 동국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조계종의 정체성 확립 및 불교 발전과 한국 정신문화의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2011년 개설됐다.

동국대 경주 불교사회문화연구원 : 1997년 개원한 이후로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중심 연구원으로 세계불교학계와의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02)6713-5139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 2003년 개소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금강대 건학이념의 학문적 전개와 함께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한 불교학 발전에 나서고 있다. (041)731-3114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 밀교학의 교학적 연구를 견인하기 위해 2010년 창립된 이후 회당사상 및 진각종학 연구와 홍보, 학술회를 개최하고 있다. (041)731-3616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 불교학연구원은 승가대 산하 연구기관으로 불교사학연구소, 불교사회복지연구소,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불전국역연구원, 한국비구니연구소 등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2008년 개원한 이후 2009년 제1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후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 2009년 〈불교사상과 문화〉 발간해 연 1회 펴내고 있다. (031)980-7777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선리연구원의 기원은 선학원으로 1922년 선우공제회에서 시작한다. 1931년 〈선원〉 창간 후 1934년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으로 인가받았다. 선리연구원은 선학원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불교사 연구 등에 매진하고 있다. 매년 2회 학술회의와 학술총서 발간, 월례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조사상연구원 : 1987년 개원하며 보조 지눌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렸다. 특히 돈점논쟁의 주요한 논의가 연구원에서 진행됐다. 매월 월례학술발표회와 연 1회 학술세미나, 〈보조사상〉을 펴내고 있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 :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연구원으로 1974년 개원한 이래 총 35회의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다. (043)423-7100

대각사상연구원 : 1996년 대각회가 설립된 이후 백용성 스님의역경, 포교, 복지, 불교현대화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관련 연구서 출간을 위해 1998년 개원했다. 〈대각사상〉을 펴내고 있다. (02)581-3138

한국불교사연구소 : 한국불교사 연구를 위한 연구소로 2005년 개소했다. (02)2260-3583

한일불교문화학회 : 2009년 문을 연 일본불교사연구소가 2015년 발전적 해체 후 결성한 학회다. (063)462-5366

고려대장경연구소 : 고려대장경연구소는 1993년 설립된 이후 1996년 고려재조대장경의 전산화 시작으로 2000년 〈고려대장경이체자전〉, 2004년 〈고려대장경감교록〉을 발간하는 등 대장경 전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02)926-8144

전자불전연구소 : 1997년 불교전적 전산화와 사이버박물관 구축, 디지털 도서관 구축 등 제분야의 연구를 위해 출범했다. 국제전자불전학회 한국지부이며 1999년 제1회 전자불전 세미나 이후 매년 학술회의와 〈전자불전〉을 펴내고 있다. (02)6713-5138

원효학연구원 : 1996년 원효 스님의 생애와 저술을 연구하기 위해 창립됐다.

한국불교연구원 : 한국불교연구원은 불연 이기영 박사(前 동국대 교수)가 1974년 설립한 재가불교 중심의 불교학술 및 신행단체다. (054)742-9922

성철선사상연구원 : 성철 스님의 유지를 잇는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연구원이다.

불광연구원 : 불광연구원은 2009년 대중포교의 선구자였던 광덕 스님의 원고와 저작을 집대성한 광덕 스님 전집 발간을 계기로 2010년 개원한 단체다. '광덕 스님의 사상과 불광운동'을 주제로 1차 학술연찬회를 연데 2012년부터 〈전법학연구〉를 펴내고 있다. (02)941-3537

한일불교유학생협회 : 일본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며 불교를 연구한 한국인과 한국에 있는 대학서 유학해 불교를 연구한 일본인들의 모임이다. 지난 2010년 창립해 1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도쿄대, 붓교대, 고마자와대, 다이쇼대, 릿쇼대, 하나죠노대, 류코쿠(龍谷)대 등에서 수학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1993년 개원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을 편찬하고 불교원전 전문학림 삼학원 운영 등 불교전문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판 교화사업 및 동행포럼도 운영하고 있다. (02)765-5673

성보문화재연구원 : 불교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전통불교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자문, 조사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02)701-6830

불교문화재연구소 : 2007년 문화재 보존과 보호활동을 위해 조계종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문화재보존 및 보호활동과 함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문화재 자료집 발간, 문화재 연구인력 양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폐사지에 대한 각종 문헌 조사와 정밀현황조사 결과를 집대성한 〈한국의 사지〉를 발간하고 있다. (02)735-9944

초기불전연구원 : 초기불전연구원은 빨리 삼장의 한글완역을 발원하여 2002년 설립됐다. 디가 니까야(2006년)와 상윳따 니까야(2009년)를 완역했으며 2012년 4부 니까야를 모두 완역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2017년까지 율장(위나야 삐따까)과 논장(아비담마 삐따까), 빠알리-한글 대사전 · 빠알리 술어 대사전도 출간할 예정이다. (055)321-8579

티벳대장경역경원 : 달라이라마가 인도 망명시 가져온 티벳대장경 중 1질이 1967년 청담 스님을 통해 동국대에 기증됐으며, 2009년 이를 연구하는 티벳장경연구소가 설립됐다. 이후 2014년 티벳대장경역경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티벳대장경의 역경불사와 함께 총서 제작을 하고 있다. (054)770-2893

화엄학연구소 : 화엄학연구소는 한중일 교육문화교류협회 부설기관으로 〈화엄경〉과 관련된 화엄교학을 연구하고 보급선양하고 있다. 2000년 연구소 창립 이후 2004년과 2008년 국제세미나를 열고 〈범망경〉 〈원각경〉 등의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02)2123-2400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龍 珠 寺

사부대중일동



www.yongjoosa.or.kr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구. 송산동 188번지)
전화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가흥대장경,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단면

조선 숙종은 왜 유마경을 읽었을까

가흥대장경은 중국 명나라 말기부터 약 100년 간 절강성을 중심으로 간행됐던 최초의 방책본 대장경이다. 가흥대장경은 조선 후기에 유입돼 불교사학과 출판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으로도 수출돼 황벽대장경으로 복각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 복각된 가흥대장경의 유입 경로와 불서 간행 등의 정황이 이종수 순천대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장의 논문을 통해 발굴되고 있다. 이 센터장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총의 불서 간행' 과 '조선후기 가흥대장경의 복각' 등 두 편의 논문을 함께 묶어 정리했다. 정리= 신성민 기자

조선 숙종 7년(1681) 6월 5일, 큰 태풍이 몰아쳤다. 한양 근처 산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뽑혔고, 함경도와 경상도에는 폭우로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전라도 암자도에는 중국 선박이 표류해 왔다. 표류선에는 살아남은 중국 선원과 무역 물자가 실려 있었다. 나주 관아는 배에 실려 있던 각종 물품을 수습해 조정으로 올려보냈다. 〈숙종 실록〉에 따르면 불서는 1천여 권이 있었고, 불기(佛器) 등도 다수 존재했다.

실록 등에 따르면 숙종은 조정으로 올라온 표류선의 불서를 왕실 창고에 두고 틈틈이 읽었다. 문제는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의 왕이 정사는 멀리하고 불서를 탐독한데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숙종의 불서 탐독을 경책하는 신하들의 이야기가 기술돼 있다.

정승 판서 중 한명인 민정중은 숙종에게 "이번에 전라도에서 건져 얻은 서책은 모두 불경입니다. 오래도록 궁궐에 둔다면 바깥사람들은 반드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어 주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숙종은 "알았다. 내가 평소에 내어 주고자 하였다. 책의 글자가 바르고 돋으니 아낄만 하다. 근래의 물건 같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숙종이 대신들의 질타를 받았을 정도로 읽었던 불서는 무엇일까? 이는 성주암(聖住庵)에서 간행한 〈유마힐소설경직소(維摩詰所設經直疏)〉의 중권에서 수관거사로 불렸던 이충익의 글에서 숙종이 읽은 책의 출처를 알 수 있다.

"숙종 7년 표류한 배에 불서가 가득 실려있었다. 일부는 바다에 가라앉았고 남은 것들은 수레에 실어 서울로 보냈다. 그 당시 판서를 역임한 임상원이 승지로 있었는데 많은 불서를 압송하고 있어서 음내전이라 불렸다. 임금이 유마힐경을 보다가 임상원에게 해설해달라고 명했다. 그러자 임상원이 사양하며 '신의 직분은 경연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어전에서 불서를 강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옳게 여기고 불서를 모두 남한산성 개원사에 보냈다."

숙종 7년에 표류한 중국 무역선에는 1천권에 달하는 불경이 있었다. 하지만 먼 바다에서 표류된다면 배에 있던 물건들이 해안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기록에는 당시 상선이 표류해 칠선도에 이르러 파괴됐고, 불서를 가득담은 수많은 목함들이 파도에 따라 해안가에 밀려왔다고 기술돼 있다. 나주관아에서 수습한 것은 1000권에 불과했지만, 당시 가흥대장경은 1만여 권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마저 매료시킨 난파선 佛書
신하들 요청에 사찰로 보내기도
난파선 불서는 가흥대장경서 비롯

수습 못한 일부, 성총이 수집 · 간행
총 12종 197권 5000판에 이르러
조선후기 화엄학 · 정토신앙 유행 계기
"韓中日 불서 유통 연관성 주목해야"

관아가 수집하지 못한 가흥대장경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사람이 바로 백암성총(栢庵性聰, 1631~1700)이다. 성총은 13세에 출가해 16세에 법계를 받았으며, 18세에 지리산에 들어가 수행 정진했다. 그 후 30세부터 경전을 강의하기 시작했으며, 명산을 두루 돌아다녔다.

1681년 표류선이 임자도에 표착했을 때 성총은 인근 지역인 영광 불갑사에 있었다. 그래서 중국 선박이 나주 앞바다에 있는 임자도에 표착했다는 소식을 비교적 빨리 접하게 됐다. 1766년 김상복이 찬술한 '백암당성총대선사비문' 에는 "일찍이 바닷가 나루터에 큰 선박이 와서 정박한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실려 있는 것은 봤는데 190권의 불경이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관아로 올라간 불서를 제외하고 해변 곳곳에 떠내려온 불경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당시 성총의 나이가 51세였는데 55세에 수집한 경전을 가지고 징광사로 갈 때까지 4년 동안 곳곳에 흩여진 불서들을 수소문해 수집했던 것이다.



화개 칠불사 백암성총의 부도. 시문이 뛰어났던 스님은 선종과 교종에 두루 통하였을 뿐 아니라 정토문(淨土門)에도 귀의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했다. 또한 스님의 참선 공부법은 철저히 임제종(臨濟宗)의 것을 따라 후학을 지도하였으며, 유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유사(儒士)들의 배불론에 대해서는 철저히 변호하기도 하였다.

징광사에서 판각을 시작한 성총이 제일 먼저 판각을 마친 것은 〈정토보서〉였다. 이 책은 가흥대장경 속장에 있던 여러 정토서적의 내용을 발췌해 엮은 것으로 정토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성총은 총 12종류 197권 5000판의 책을 간행했다.

성총은 징광사에서 4종의 지험기를 복각하고 합철해 '사경지험기' 라는 제목으로 유통시켰으며,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편〉, 〈대명삼장법수〉, 〈대방광불화엄경소초〉를 복각해 보급했다.

성총은 1694년 전남 용흥사에서는 가흥대장경의 〈성원제전집도서〉를 복각했다. 용흥사는 당시 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 강원교육을 위해 이 책을 복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흥대장경의 〈화엄현담회현기〉는 총 40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계파성능이 주도해 1695년 지리산 쌍계사에서 복각했고, 서문과 발문을 성총이 썼다. 두 스님의 가흥대장경 복각사업은 제자인 인담에게 이어진다. 인담은 〈주화엄법계관문〉과 〈임명입정리논해〉를 1713~14년 지리산 왕산사에서 복각했다.

1724년 지리산 화엄사에서는 함경도 안변 석왕사에서 온 용곡일심이 가진 가흥대장경인 〈보왕삼매염불직지〉, 〈귀원직지〉, 〈준제정업〉 등 3권의 책이 복각돼 간행됐다.

26년 후인 1750년 함월해원은 안변 석왕사에서 가흥대장경 〈대승백법명문론〉과 〈성상통설〉을 합쳐서 발행했다. 이 논서들은 유식학의 논서로서 조선 후기 불교 교학의 수준과 경향을 가늠하는 데 매우 주목되는 책이다.



담양 용흥사 소장된 가흥대장경. 성총은 1694년 전남 용흥사에서 가흥대장경의 〈성원제전집도서〉를 복각했다.



성총은 1681년부터 1696년까지 낙안 징광사에 머물면서 가흥대장경을 복간해 징광사와 쌍계사에 봉안했다. 사진은 쌍계사 전경. 징광사는 200년 전 조실됐다.

가흥대장경의 복각은 1769년 안동 봉정사에서 다시 이뤄진다. 봉정사에서 복각된 가흥대장경은 〈보살계의소〉, 〈사분계본여석〉, 〈기신론소필삭기〉 3종으로 계율 관련 2종과 강원 교재 1종으로 나눌 수 있다.

가흥대장경 복간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성총은 많은 저본을 남겼다. 이 중에서 〈화엄소초〉는 8세기 이후 불교계에 화엄학이 유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총은 직접 〈정토찬〉 이라고 하는 100수의 시를 지었는데 이 책은 〈정토보서〉와 더불어 18세기 정토신앙의 유행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총의 불서 간행에 의해 18세기 삼문수학(三門修學)이 일반화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말부터 불교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선의 경절문에 원돈문과 염불문이 더해져 불교계가 더욱 풍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총이 간행한 불서의 종류를 보면, 총 12종류의 불서 중에 사집(四集)을 포함한 9종류가 당시에 성립되어 가던 이력과목과 직접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치문경훈〉은 사미과, 사집은 사집과 〈대승신기론필삭기회편〉과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편〉은 사교과, 〈화엄소초〉는 대교과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이들 서적들은 모두 이력과목의 참고서로서 18세기 이력과정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종수 순천대 남도불교연구센터장은 논문을 통해 "성총의 불서 간행 속에는 조선 사회를 넘어 중국과 일본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조선후기 불서에 대해 접근할 때, 단순히 국내의 유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연적 교류이기는 하지만 표류선에 의한 불교 교류는 이후 삼국 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주 명 성
학장 일 진
주지 진 광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TEL 054)372-8800 FAX 054)371-0359
www.unmun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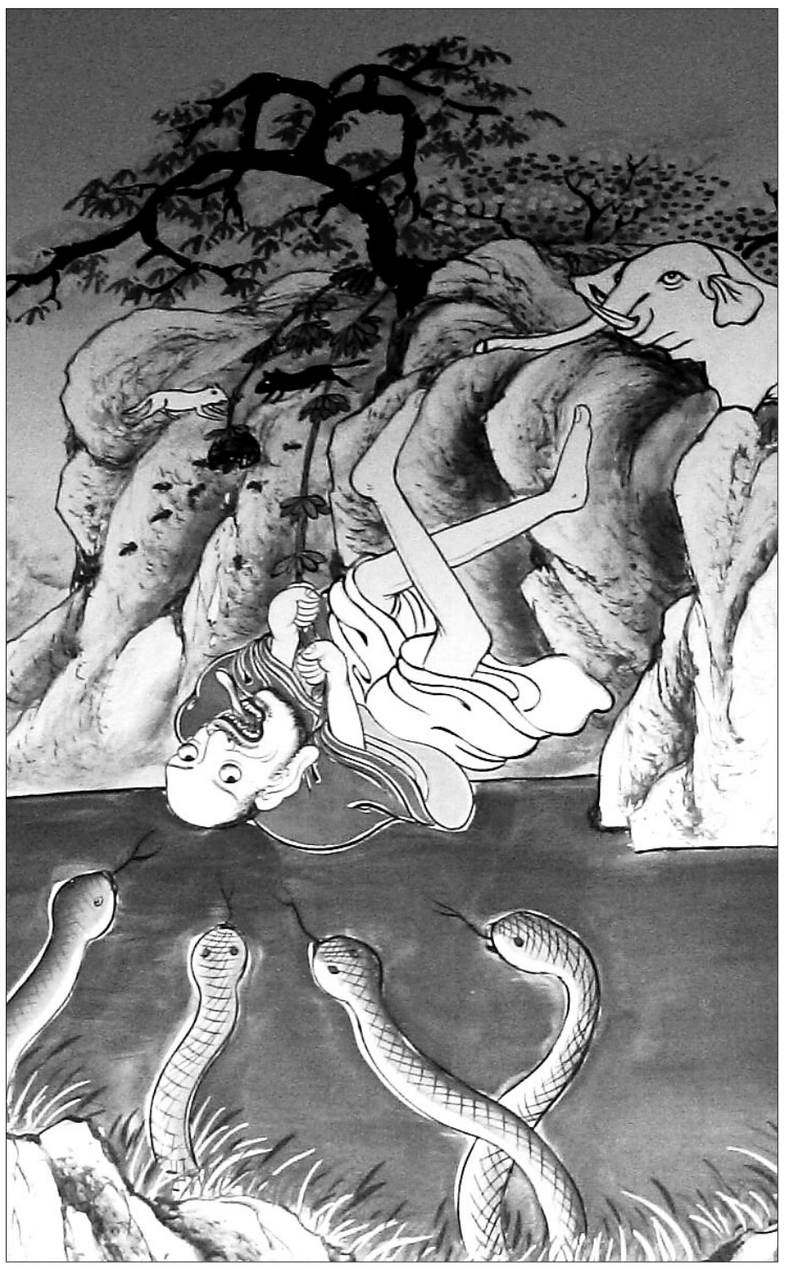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실 현봉근일
회주 송암혜승
동주 당원각성
주지 종원조호
부주지 남등전운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연수국장 돈현
우주선운해견
석선도등원구
이호걸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사찰음식체험관 관장
연화마을관장
안동장애인복지관 관장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청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둘째 · 넷째주 토 ~ 일(1박 2일)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 116)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붓다 교설의 원점 '탐·진·치'



박태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1〉
울산대 철학과 교수

불교는 근본적인 세 가지 번뇌로 탐욕(貪慾) · 진에(瞋恚) · 우치(愚癡)를 꼽는다. 이를 삼독심이라고 한다. 열반이라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삼독심을 끊어내야 한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탐욕 · 분노 · 무지의 철학적 읽기' 의 논문에서 탐 · 진 · 치의 연기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삶에 새겨진 탐 · 진 · 치의 결(理)과 무늬(彩)를 철학적 시선에서 음미한 박 교수의 논문을 10회에 걸쳐 발췌 ·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불설비유경〉에 있는 '안수정등(岸樹井藤)'의 비유. 오도 가도 못하고 언제 칡넝쿨이 끊어져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눈앞의 번뇌와 욕망을 탐닉하는 인간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욕망을 바로 보고 넘어서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1. 탐욕 · 분노 · 무지

붓다의 언어는 다양한 매듭이 중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하나의 새끼줄이다. 다양하게 꼬여진 언어의 새끼줄을 모두 수렴하여 묶는 매듭, 새끼줄 꼬기를 출발시키고 마무리하는 매듭들이 다채롭게 배열되어 있다. 탐욕 · 분노 · 무지는 붓다의 언어 새끼줄에서 목격되는 수렴과 발산의 대표적 매듭이다. 불학의 구성은 탐욕 · 분노 · 무지에서 출발하고,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사유의 결(理)과 무늬를 다루는 철학적 읽기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탐욕 · 분노 · 무지의 문제를 음미해 본다.

탐욕 · 분노 · 무지(이하 탐 · 진 · 치로도 표기)의 문제는 붓다 교설이 발산하고 수렴되는 원점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붓다는 수행의 과제와 목표를 일관되게 탐 · 진 · 치를 중심으로 설하고 있다. 니까야에서 확인되는 붓다의 탐 · 진 · 치 관련문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한다.

탐 · 진 · 치의 그침이 무위(無爲: 行에서 풀려남)인 열반이며 청정범행의 완성이고 불사(不死)의 지평이자 최상의 평화이다. 세존은 자신을 일컬어 '탐 · 진 · 치를 멸진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사람' 이라고 한다. 불 · 법 · 승 삼보(三寶)는 탐 · 진 · 치 지멸의 상징이며, 탐 · 진 · 치와 지혜의 눈(혜안)이 유익한 법의 쇠퇴 여부를 결정한다.

탐 · 진 · 치는 모든 업의 근원으로서, 업은 탐 · 진 · 치에서 생기는 것과 탐 · 진 · 치 없음에서 생기는 것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탐 · 진 · 치 때문에 일어난 업은 '해롭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다른 업을 일어나게 하고' '업을 소멸하게 하지 않으며' , 탐 · 진 · 치 없음에서 일어난 업은 '유익하고' '비난받을 일 없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고' '다른 업을 일어나지 않게 하며' '업을 소멸하게 한다.' 또 탐 · 진 · 치는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인데 비해 탐 · 진 · 치 없음은 세 가지 이로움의 뿌리이고, 탐 · 진 · 치가 좋음 · 유익함(kusala, 善)과 좋지 않음 · 해로움(akusala, 不善)을 나누는 기준이다.

감각능력(六根)과 대상(六境)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느낌(즐거운 느낌 · 괴로운 느낌 · 즐거움과 괴로움에 쏠리지 않은 느낌)은 각각 탐욕 · 분노 · 무지의 잠재적 경향의 발전과 연관되며, 대상(육경 · 경계)을 탐 · 진 · 치로서 경험하는가 아닌가가 해탈수행의 핵심이다.

식(識)이 감각능력(육근)과 감각대상(육경)의 관계를 '빠져 듦과 종속' 으로 처리하게 되는 조건 · 원천 · 이유가 탐 · 진 · 치이다. 탐 · 진 · 치에 묶이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탐 · 진 · 치에서 풀려나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두려움과 공포, 슬픔은 탐 · 진 · 치에서 오며, 사유의 그릇인 개념도 탐 · 진 · 치에 물들어 있다. 오온을 탐욕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여래4구(四句, 사후 여래에 대한 존재 · 비존재 · 비존재 · 비비존재의 판단)의 개념환각에 빠지고, 오온을 탐욕의 대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여래4구의 덫에 빠져들지 않는다.

판단 · 평가 · 이해의 인식을 가능케 하는 초기조건인 표상(nimitta, 相)은 탐 · 진 · 치의 산물이며, 동시에 아름다운 표상(相)은 탐욕(감각적 욕망)의 조건이고 적의의 표상은 분노의 조건이 된다. 탐욕 · 분노가 발생하고 증폭하는 원인 · 조건은 '아름다운 표상 · 적의의 표상' 및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 (不如理作意)이고, 무지 발생과 증폭의 원인 · 조건은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 (不如理作意)이다. 그리고 탐욕 · 분노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 것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 · 조건은 '부정(不淨)의 표상 · 자애심' 및 그것을 '지혜롭게 마음에 둠' (如理作意)이고, 무지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 것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 · 조건은 '지혜롭게 마음에 둠' (如理作意)이다.

탐욕은 허물은 적지만 천천히 사라지고, 분노는 허물은 크지만 빨리 사라지며, 무지는 허물은 크고 천천히 사라진다. 탐 · 진 · 치는 계 · 정 · 혜 삼학 수행의 구조와 맞물려 있다. 중생은 계행 · 마음 · 견해의 결함이 있는데, 오계를 범하는 것이 계행의 결함, 탐욕과 분노는 마음의 결함, 연기법을 외면하는 것은 견해의 결함이다.

따라서 오계를 준수하면 계행의 구족이고, 탐욕과 분노가 없으면 마음의 구족이며, 연기 정견을 지니면 견해의 구족이다. 견해의 결함이 곧 무지이라는 점에서, 탐욕 · 분노는 정학의 대상이고 무지는 혜학의 대상인 셈이다.

선천적 탐 · 진 · 치 경향의 강약과 5근(信 · 精進 · 念 · 定 · 慧) 강약의 상호관계에 따라, 수행 진보의 난이와 최상의 지혜 성취의 더디고 빠름이 결정되기도 한다. 위빠사나 관법으로 수행할 경우, 탐욕은 부정관, 분노는 자애관, 아만 · 무지는 무상 · 무아관으로 대처한다. 사마타 선정수행으로 보면, 초선(初禪)의 경지에서 탐욕과 분노의 잠재적 경향이 풀리고, 제4선(第四禪)의 경지에서 무명의 잠재적 경향이 풀린다.

박태원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원효, 선(禪), 니까야 대장경을 실존적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그 성과를 글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학문적 성과로 제1회 대정학술상과 제2회 원효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설렘으로 집착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늙으면서 병이 들고 병으로 인해 죽어간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더디게 가는 방법이 있다.

첫째 늙지 않는 법, 정확히 말하면 더디게 늙는 법은 설렘이다. 설렘은 세포조직의 활동마저 설레게 하여 온몸이 밝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된다. 설렘은 오장육부에까지 전달되어 그 맡은 바 임무가 활발해진다. 설렘은 게으름을 멀리한다. 온몸의 동작을 부지런하게 만든다. 설렘은 잃었던 입맛도 되돌아오게 한다. 낮잠을 즐기지 않아도 온몸이 가뿐해진다. 설렘은 만남이 없어도, 이룸이 없어도, 수확이 없어도 생각만으로도 행복하다.

둘째는 병들지 않는 법이 아니라, 드물게 병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다.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진정으로 크게 비우면 병 또한 큰 걸음으로 저만치 물러설 수밖에 없을 터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 생각을 일으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성자(聖者)가 되기도 한다. 요부(妖婦와 열녀(烈女)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생각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이되고 탈이 나는 법이다.

당뇨를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과당을 많이 섭취해서도 아니요, 과잉영양 쪽도 아니다. 그리고 이성(異性)쪽을 밝혀서도 아닐 터이다. 제일 큰 원인은 사업 실패나 절망감, 좌절감 등으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을 때 생체리듬은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 집착하지 않는 것 쉽게 잊어버리는 것, 용서하며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병은 더디게 온다. 병이 죄송스러워 자신 감 앞에서는 졸아들게 되어 있다.

셋째는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편히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음을 많이 지켜본 의사나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Hospice)가 입을 열어야 할 것 같다. 모든 경험은 할 수 있으나, 죽음 경험은 없기 때문이다.

살아생전에 버리고 비우며 나눔을 생활화 하면 그는 덜 후회하며 덜 아파하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언제나 세계의 주인

하루의 절반은 밤이다. 사람이 70년을 살 경우 누워 지내는 절반의 밤을 빼면 35년이다.

그렇다면 누워서 지내는 기간도 35년이라는 계산이다. 사람은 서 있을 때만이 사람이 아니다. 누워 있을 때도 사람은 사람이다.

서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를 생각하면 신체 중 제일 높은 곳이 머리가 될 수 있고, 가운데 손가락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누워서 보면 여자일 경우 유방이 될 수 있겠고, 배불뚝이 중년 남자의 경우 배꼽이 신체 중에 제일 높은 곳이 될 터이다.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은 중도사상(中道思想)이다. 중도란 쉽게 말해서 좌우의 양변이 아닌 중앙을 의미한다. 흔히들 선(善)에도 치우치지 않고 악(惡)에도 치우치지 않는, 강(强)과 유(柔)를 조화시킨 중간의 의미로 중도(中道)를 설명하고 있으나 불충분한 설명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중도에 대한 인식은 유교의 중용사상(中庸思想)에 머물고 있는

버리고 비우며 나누면 덜 아프다
너는 곧 세상의 중심에 선 주인공

수순이다.

유교의 중용사상이 양변불락(兩邊不落)에 머물고 있다면 불교의 중도사상은 양변무애(兩邊無碍)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 사상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中道)에는 좌우의 양변이 없다. 서 있는 곳이 언제나 중심(中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 서, 남, 북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좌(左)와 우(右)도 없는 것이다. 처음과 끝도 없는 것이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자 세계의 주인공 자리인 것이다. 불교에는 수처작주(數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가볍게 그 뜻을 풀이하자면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스스로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뜻일 게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네가 곧 부처이니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너는 곧 세상의 중심에 선 주인공' 이라는 뜻임을 알아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불교는 신(神)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종교이다. 신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네 스스로 부처임을 일깨워 주는 종교이다. 마음을 열고 보면 양변(兩邊)도 중심(中心)도 둘이 아닌 하나이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2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한번 그 여자 그 남자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찾기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전북 교구본사간 불교기구 구성하자”

전북 사부대중 10월 3일 100인 대중공사 개최

어린이 · 군포교 등 문제점 제기
사찰운영 활성화 및 경영혁신 제시
교구별 군진흥회, 해외입양 등 눈길



전북불교계는 10월 3일 고창 선운사에서 100인대중공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불교계 포교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전북불교계의 사부대중이 10월 3일 ‘전북의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를 고창 선운사에서 개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전북 사부대중 대중공사는 ‘전북지역 포교활성화 방안’ 에 대한 주제로 진행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5개 모둠으로 나뉘어 진행된 개별토론에서는 전북지역 포교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포교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사찰들의 포교활동 사례도 제시됐다.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산촌 사찰의 경우 정기법회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안 고림사의 경우 산골절의 특성상 사람이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마을별로 날짜를 정해 각 지역의 경로당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군포교의 경우 공통적으로 종단과 교구본사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군불자들의 경우 전역 후 대불련이나 청년회 등 신행단체로 흡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각 교구별 군 진흥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은 사람들의 설득을 얻었다.

이밖에 포교를 위한 튼튼한 조직구성과 포교기금마련,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불교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 가족법회 활성화, 어린이 템플스테이 활용 등의 방안과 사찰 수익사업 진출, 소득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포교기금 마련 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타 의견으로 해외 입양아를 절에서 입양하는 방안과 다문화 가족 흡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은 △사찰운영위 활성화 △선운사와 금산사 양 교구간 불교기구 구성 △포교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 △지역별, 계층별 포교, 문화포교 활성화 △조직포교 활성화 △사찰 재정 투명화와 경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부의안’ 을 제시했다.

한편, 대중공사 입재식은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렸다. 입재식에는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 스님들과 불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입재식은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부안 성황사 주지 시견 스님의 ‘전라북도 지역별 불교현황보고’ 와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 김대성 법사의 ‘군 포교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재 모습은 1,700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며 “하지만 그동안 내실에 치중하다보니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의식을 다룰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 고 진단했다. 스님은 이어 “이제는 한국불교도 세상을 바라보며 훨씬 대범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안락하고 행복하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 불교의 진면목” 이라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지난번 대중공사에 이어 전북의 현실에 대해 대중스님들과 신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며 “전북불교와 전북의 미래를 위한 꽃을 피우기 위해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다.

조동재 전북지사장

호남지역 최초 불교모금 ‘화제’

빛고을나눔나무 ‘2015불교모연아카데미’ 개최

현대적 모금기법 보급 취지
11월 6일까지 총 6회 진행



빛고을나무 모금 강연에 참석한 스님들이 밝게 웃고 있다.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만의 특화된 모금을 위한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호남지역 최초의 불교모금 강좌란 의미도 지닌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는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2015불교모금 아카데미’ 를 진행한다.

광주전남지역 사찰 스님과 불교관련 실무자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강좌는 5일 입재식과 첫 강의 ‘불교모금(모연)의 개념과 이해’ 를 시작으로, 10월 12일 ‘모금 계획의 수립’ 이 진행됐다. 이어 △10월 19일 ‘기부자(보시자)의 선정과 조사’ , △10월 26일 ‘제안 요청의 요령과 기술 및 제안서 작성법’ , △11월2일 ‘후원개발 사례 발표’ , △11월 9일 ‘후원개발 즉문즉답’ 이 진행된다.

입재식에서 이사 보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불교계 실무자를 위해 꼭 필요한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다” 며 “이번 강좌를 통해 보다 현대화된 불교모금이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광주전남 불교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번 모연강좌는 사찰 및 불교단체 실무자와 체계적인 불사모연에 대해 배우고자하는 불교활동가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 소장은 “불교의 모연(모금)은 수행의 과정으로 보시자의 마음과 모금 기획자를 연결하는 것” 이라며 “이를 통해 보시자의 마음속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으로 광주전남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에 창립한 비영리단체이다. 불교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인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각 사찰에 불교단체 설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불교의 다양한 영역들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에 진력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등 포교 취학지대와 해외구조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빛고을나눔나무는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 부처님오신날 프로그램 공모행사를 통해 전체 4000여 만원을 불교계단체에 지원했으며, 네팔 지진피해 돕기 등을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진행에 2015년에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해외구조활동에 지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꽃무릇 시화공모전 시상식



동백이 유명한 선운사 꽃무릇 시화전의 시상식이 10월 3일 선운사 극락교 앞 숲길에서 열렸다.

올해로 12번째 맞이한 선운사 꽃무릇 시화전은 300여 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했다.

꽃무릇 시화공모전 대상은 이은(정읍)씨의 ‘상사화’ 가 차지했으며 유인상, 최병철 씨 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신승호(고창북고)군이 고등부 금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을 비롯해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의장 등 지역 기관장들과 고창문인협회, 고창문화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꽃무릇은 동백과 함께 선운사의 대표적인 꽃으로 수많은 문인들을 통해 예술의 중심으로 승화돼왔다” 며 “꽃 무릇 시화전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꽃무릇 시화전 입상작들은 선운사경내와 생태탐방로 등지에 전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문도의 날 법회

20대 회장단 이취임식 법회도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회장 만주)는 10월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홀 대강당에서 ‘제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법회 및 제20대 회장단 이취임식’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불교법왕 의륜 대승정, 문도중앙회 이사장 겸 회장 만주스님, 문도중앙회 명예회장 용담스님,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대원스님, 민족불교광덕종 종정 조연스님 등 문도중앙회 회원 500여명이 동참했다.

회장으로 취임한 만주스님은 취임사를 통해“20대 회장직을 맡아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일붕존자의 법맥을 이어받은 각 종단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하나된 단일 교단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세계불교법왕 대승정 의륜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문형제들을 서로 보살피고 이해하며 문도회 발전을 우선시 해야 할 것” 이라며 “회장단의 나아가는 방향에 적극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고 설했다.

신성민 기자

도원사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화순 도원사(주지 진철)는 10월 3일 특설무대에서 ‘개원 11주년 기념 및 제6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진철 스님은 지역 내에서 힘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15가구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사는 원정스님(선각종 종회의장), 진철스님, 오찬열 신도회장, 최옥경 화순군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해 500여 신도들이 참여했다.

진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힘든 가정생활에도 항상 밝게 생활하는 청소년 가장들에게 작은 희망과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며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 고 말했다.

원정스님도 격려사에서 “도원사가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하며,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도량이 되길 기원한다” 고 했다.

올해 개원 11주년을 맞이하는 도원사는 지난 2007년 창건한 후 매년 지역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승가회

이사장 성대 무공

회 원 일 동

■ 주 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 화 : 055)855-1772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고 문 자용. 법운
명예회장 벽담 학명
수석부회장 혜정. 혜진
자문위원 진우. 청암. 덕인
회 장 광혜 무문
부 회 장 원행. 귀영

사무총장 지담
총무부장 지련
재무부장 지선
기획실장 법정
대 변 인 진성
수석감사 덕성
감 사 종산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혜성
학술분과위원장 성담
포교분과위원장 보덕
연화(무료결혼)분과위원장 광덕
기획분과위원장 혜인
문화분과위원장 혜진
의례분과위원장 명원

사무총장 지담 010-2313-5671

“불교 영어로 쉽게 소개하는 계기 될 것”

부산 · 울산지역 포교사들, 영어 교재 만들어 화제

“그동안 국제포교사로 활동하며 불교를 소개하는 교재가 없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현직 포교사들이 힘을 모아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교재가 영어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국제포교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두루 읽히길 바랍니다.”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국제포교사로 활동 중인 이두석(11기) · 박종안(14기) · 심지영(20기) 씨는 최근 불교영어교재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를 편찬했다.

이두석 씨는 “영어 뿐만 아니라 한자와 팔리어, 산스크리트어까지 구체적으로 실어 통역오류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일반 불자들이 불교상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는 △불(Buddha)-부처님의 일대기 △불교문화(Buddhist Culture) △법(Dharma)-불교의 교리 △승(Sangha)-불제자의 모임(사부대중)과 상가(승가)로 구성됐다.

부처님의 일대기 편은 출생부터 열반에 이르기 까지 부처님의 행적과 수행까지 세세히 담았다. 인명, 지역명과 관련한 전문 불교 용어를 모두 영어로 재번역하고 설명해 둬 불교 공부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영어를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돋보인다. 또한 사용한 영어 어휘도 간결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중학생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평가다.

성인을 위해서는 영어 뿐 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 사용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자료와 주석을 함께 달았다. 불교 문화편에서는 사찰에서 외국인을 위해 통역을 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읽고 공부 할 수 있도록 사찰 건축과 문화에 대한 전문용어도 수록했다. 사찰 장식의 의미에 대한 해설을 다루기도 했다.

이 책은 불심이 깊은 저자들이 포교를 위해 자신들의 사비와 시간을 들인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이두석 씨의 경우 현재 국제포교사회 부산 · 울산 · 경남지부 명예회장으로 이 지역에서 전무했던 국제포교를 2007년부터 개척해온 장본인이다.공동 저자이자 박종안 씨의 경우 현재 불교영어 아카데미 원장으로 포교사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심지영 씨는 영문학 박사로 현재 홍법사에서 국제부 활동, 법회 동시 통역 등을 맡고 있다.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와 책의 공동 저자인 이두석, 심지영, 박종안 국제포교사(왼쪽부터).

영어학원 학원장 · 영문학박사 한데 뭉쳐

쉬운 기초영어로 편집해 〈선재동자와…〉 출간

봉사자 교육 · 외국인 대상 사찰 홍보에 활용

현장에서 포교하는 이들의 손으로 만들어 졌기에 이 책은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박종안 씨는 “무역업도 병행하는데 업무차 방한한 외국인들에게는 사찰건물과 그에 관련된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재는 이런 부분에서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의 저자들은 이번 책 발간과 함께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교를 소개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공서와 연계해 부산 · 경남에 위치한 사찰의 안내와 홍보를 진행한다. 또 사찰 소개 앱, 영문 불교관광가이드 발간, 영어 어린이법회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공동저자 심지영 씨는 “국제포교사들 중에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원력에 비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더욱 많은 사찰에서 국제포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축구로 하나 되는 佛心 한마당”

10월 4일, 제1회 범어사배 축구대회 개최

출재가가 함께 하는 ‘제1회 범어사배 축구대회’가 시작됐다. 부산 범어사는 10월 4일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축구대회 개회식을 연데 이어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양산 일대 경기장에서 대회를 진행한다. 4일 개회식에는 대회장 수불 스님,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 회장 및 범어사, 통도사, 축구사랑, 홍법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암사 등 24개 팀과 1000여 응원단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선수단의 입장으로 시작해 대회사 및 내빈들의 축사, 봉행사 ,특별초청팀 부산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축구부 사인볼 전달 및 시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 범어사 측은 범어사의 유래를 상징하는 금샘(金井)과 금어(金魚)를 상징하는 앰블럼을 제작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출재가가 함께하는 ‘제1회 범어사배 축구대회’에는 1000여 대중이 참가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뿜어댔다.

축구대회는 경기는 10월 4일 16강전, 11일 8강전이 열렸으며 18일 4강전 및 결승전이 연이어 진행된다. 폐회식은 10월 18일 오후 3시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하성미 기자

김천 청암사승가대학 동문회 산사마당 개최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는 10월 4일 제231회 정기법회를 연데 이어 ‘가을속에 진리속에 마음열고 환희롭게’를 주제로 산사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잔치에는 청암사 율원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교무 혜명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지형 스님은 “정법을 만나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 생활”이라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항상 현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풀잎농장을 경영하는 이학용(법공) 거사가 청암사 학인 스님 5명에게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성관음사 신도회장 취임법회 봉행

대구 성관음사(주지 일우)는 10월 6일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연꽃마을이사장 수진 스님과 제주 혜관정사 관효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3대 신도회장으로는 법심 보살이 취임했다. 일우 스님은 “부처님의 품 속에서 생활의 활력을 더하여 어떤 삶이 진실된 삶인지를 참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생활 속 수행과 생활 속 기도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주지 일우 스님의 신간 〈삶의 브릿지〉 출간 기념 사인회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대구 대성사 48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화산)는 10월 1일 대성사 창립 48주년 기념법회를 경내 서원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교육부장 장우 스님 등 천태종 스님들과 임응호 대구 동대사 신도회장 및 각 지역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화산 스님은 개회사에서 “현 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초대 주지로 1967년에 대구 동성로에서 출발한 대성사는 현재 10여 개의 신행단체와 2만여 명 천태종도가 운집한 대가람”이라며 “현시대의 분열, 대립이 화합될때까지 기도정진이 지속되어 질 수 있는 귀의처가 되고 선행하며 더 열심히 살자”고 발원했다.

춘광 스님은 “신심과 원력으로 48주년을 맞게 된 그 공덕이 법회가 되고, 중생의 복덕된 것”이라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佛都, 개산 맞아 환희의 야단법석

불도

통도사 10월 17~21일, 개산조당영고재

범어사 10월 17일, 법요식 및 팔관회

홍법사 10월 25일 대광명전 부처님 점안식

부산 · 경남의 대표사찰인 통도사, 범어사, 홍법사가 산개산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370주년 개산대재’를 맞아 10월 17~21일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개산대재에서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기 위한 ‘개산조당영고재’가 21일 오전 8시 개산조당에서 재현된다. 문화행사로는 9월 23일 국화장엄을 시작으로 10월 17일 체험부스, 가사배견, 어린이 수계식, 재롱잔치,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및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18일에는 괘불이운, 괘불헌공, 다문화 공연이 개최된다. 20일에는 박물관에서 괘불전 특별전과 부도전에서 부도헌다 의식이 진행된다. 21일에는 개산조당영고재에 이어 법요식으로 마무리된다.

범어사는 ‘1337주년 개산대재’를 맞아 10월 17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법요식을 개최한다. ‘귀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요식은 ‘범어사 칠성도 귀환’을 기념해 문화시대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에 기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범어사에서 마련한 바자회 및 불교문화 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범어사는 개산대재와 함께 ‘2015 팔관회’도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팔관회는 17일 범어사문화광장에서 ‘호국영령위령재’, ‘호국기원법회’, 대웅전에서 ‘팔관재계 수계법회’, 백희가무 순으로 진행된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개산 12주년을 맞아 10월 25일 오전 10시 대광명전에서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을 증명 법사로 개산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홍법사는 제1차 가람불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광명전 삼존불 점안식도 개최한다. 이어 광복 70년 기념 ‘통일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홍법사는 개산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18일 부터는 경내 일대를 국화로 장엄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청소년 고민 ‘Talk Talk’ 털어버려요

부산 삼광사, 10월 3~4일 청년토크콘서트 개최

부산 삼광사는 청소년토크콘서트 ‘공감 스케치’를 10월 3일 지관전에서 200여 중고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삼광사 청소년 캠프 첫 시간으로 마련된 이번 토크 콘서트는 ‘게임’, ‘이성교제’, ‘학업’ 및 ‘꿈’에 대한 토론 과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패널로 주지 무원 스님을 비롯해 삼광사 총무국장 도선 스님, 부산 가정법원 소년부 천종호 부장판사, 소아청소년 신경 정신과 박세현 박사 등이 참석했다.

게임에 집착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청소년의 질문에 도원 스님은 “모든 것은 생각이 원인이 된다. 신구의를 잘 살피는 불교의 마음공부는 그래서 필요하다”며 “일반 공부 뿐 아니라 마음을 공부 하는 자리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현 박사는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시간을 정해두고 자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한 패널들은 자신들의 청소년기를 나누며 “누구나 비슷하게 겪는 문제이며 고민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좋은 자산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석준(16) 학생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미래를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을 해야 겠다”고 전했다.


부산 삼광사는 청소년 토크콘서트 ‘공감 스케치’를 10월 3일 지관전에서 200여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한편, 삼광사 청소년 캠프에서는 10월 3~4일 △희망진로체험 △문화공감 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55개국 거쳐 경전 가져온 선지식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⑳ 구법승 현장, 그는 누구인가?

몇 년 전에 실크로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접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거의가 사막인, 정말로 뜨겁고 뜨거운 길들이었지요. 그 가운데 있지 못할 추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화염산(火焰山)에서 수박을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수박 먹은 것이 무슨 사건이냐구요? 아닙니다. 분명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죠. 평생 그렇게 맛있는 수박은 처음 먹어봤다고 할 정도로 강렬하게 수박의 맛을 느꼈으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화염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손오공과 함께 지나야 할 곳입니다. 거기서 아주 지독한 요괴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하고, 그 타오르는 불을 식히기 위해 또 엄청 고생을 해야 하는 곳이지요. 그 뜨거운 화염산 지역을 한 시간 남짓이나 돌아봤을까요? 섭씨 40도를 웃도는 더위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집결지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곳에 냉장한 수박, 정말 크기도 우람하게 큰 럭비 공 모양의 수박을 잘라 놓았더라구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 년 강수량이 30mm 정도인 곳입니다. 또 태양 빛은 얼마나 강렬하구요. 그런 곳에서 잘 익은 수박이니 얼마나 달겠습니까? 화염산의 뜨거움에 달구어진 저에게, 냉장했던 수박의 온도는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정말 천상의 맛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황홀한 기분으로 수박을 먹었던 기억~.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침이 넘어가고, 그때의 속이 시원했던 기분이 느껴집니다.

어헛! 나칠계님! 상태 이상에 빠지셨군요. 벌어진 입하고 흐르는 침하고…. 심각한 상황이군요. 당장에라도 화염산으로 날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요. 그렇지만 나칠계님,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수박이 아닙니다. 수박 타령을 하려던 것이 아니고 화염산 타령을 하려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수박으로 빠졌지만요.

바로 현장법사가 지났던 곳이지요. 한낮에 자동차 보닛에 계란을 깨어 얹으면 바로 계란 프라이가 된다는 곳이지요. 그 뜨거운 곳을 지나면서 현장법사는 시원한 수박 한 덩이나 드셨을까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현대 문명의 혜택을 듬뿍 누리면서, 자동차로 여행을 해도 파김치가 되는 그곳을 그 옛날에 어떻게 지나셨을까요? 인도로 구법을 떠나는 현장법사를 그린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등이 휠 정도로 무거운 지게 같은 것을 지고 있더라구요. 홀몸으로도 힘들 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나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또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유사하에 뜨는 해골로 비유해서 말했었지요? 18년간의 인도 구법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경전을 전해 주신 현장법사야말로 그러한 은혜를 끼친 분들 중에서도 첫손가락을 꼽을 만한 분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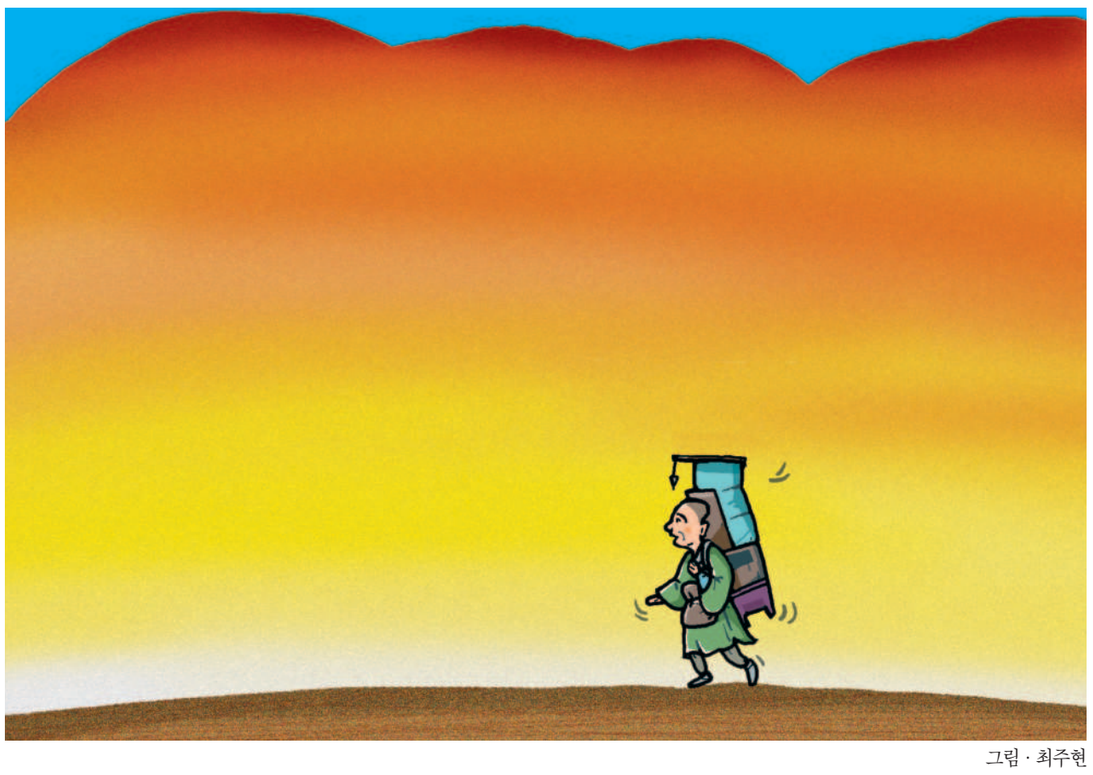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돌아와서도 큰 존경을 받았고, 또 융숭한 대우를 받았다 합니다. 그런 속에서 역경 사업이 진행되었지요. 그렇지만 출발할 때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관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가는 상황이었지요. 그 당시에 허락 없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숨고 밤에만 이동했다 하지요. 실제로 국경을 넘기 직전 첩자로 고발. 다행히 불심 깊은 지역 관리의 도움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당의 국경인 옥문관을 넘어 고비사막으로 들어섭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의 시작이었다지요. 모래 폭풍이 불면 옛길은 사라지고 새 길이 생기는 곳, 햇살이 바늘처럼 얼굴을 찌르고, 바람에 날린 모래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 그곳을, 닷새 동안 물 한방울 먹지 못하고 헤매기도 했다 합니다. 그렇게 힘든 인도로의 여행길에서도 가장 힘들었을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화염산 지역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험난한 자연을 극복하고 인도에까지 다녀온 우리의 영웅, 바로 서유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현장법사가 등장하는 대목이지요? 이 대목이 되니 자연스럽게 그 현장법사가 걸었던 길을 다녀온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야기가 한참 헤매 돌았군요. 현장법사가 처음부터 큰 기대를 등에 업고 화려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구법여행 떠나는 현장법사를 그린 그림처럼 무거운 등짐만을 지고, 그 험한 자연 속을 헤쳐나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던진 여행길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결코 시작도 할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새기어야 합니다. 그러한 뜨거운 구도심의 덕분으로 우리가 불법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8년 구법으로 경전 전한 공덕 '으뜸'
서유기와 달리 출발부터 고난
손오공도 현장법사의 한 측면 대변

물론 서유기에는 현장법사의 출발을 화려하고도 장엄하게 각색하고 있습니다. 현장법사의 기구한 운명과, 구속에 깃든 인과응보의 진실을 말하는 이야기가 한참 전개되죠. 그리고 당태종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설화가 나오고 또 당태종의 동생인 공주가 흔백이 뒤바뀌는 이야기 등의 신비한 설화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여 불교를 숭상하게 된 당태종이 뛰어난 승려를 선발하게 되고, 거기에 현장법사가 발탁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전개의 마무리에 관세음보살이 등장하여 교묘한 경로를 통해 현장법사에게 부처님께서 전한 금란가사와 구환석장을 전하고,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것을 부촉하게 됩니다. 뒷이야기를 위해 마지막 대목만을 간단히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장법사가 황제가 연 법석에서 설법을 하는데 문득이 승려로 화현한 관세음보살이 꾸짖습니다. 왜 대승교법은 모르고 소승만 강설하느냐고. 그래서 소란이 일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관세음보살이 법단에 오릅니다. 그리고 보살의 참모습을 드러내지요. 손에 버들을 꽂을 정병(淨甁)을 든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을 모습으로요. 모든 사람이 찬탄 예배하는 가운데 관세음보살은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떠나시고 허공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지요.

"대당국(大唐國)의 임금님에게 올립니다. 서방에는 오묘한 경전이 있습니다. 십만팔천 리 먼 길이지만 이 대승의 진리를 구하십시오. 만약 이 법을 구하러 나서는 이가 있다면, 바른 과보를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당태종은 서방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구하러 갈 승려를 찾게 되고, 현장법사가 거기에 자원합니다. 당태종은 감복하여 현장법사와 의형제를 맺고, 그를 어제성승(御弟聖僧), 즉 '임금의 아우인 성스러운 스님' 이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길한 날을 잡아서 서방으로 경전을 가지는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서유기 작자의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런 거창하고도 화려한 출발이 아니라, 몰래 국경을 빠져나가기 위해 고생을 하며, 목숨을 걸고 출발한 구법의 여행이었다는 것을…. 그래도 이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법사 당시에 이미 불교가 전하여져, 상당히 융성한 교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렇지만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전해지지 않았고, 특히 대승의 높은 법문이 전해지지 않았기에 그것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현장법사가 인도로 경을 구하러 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실제로는 대승불교가 이미 전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중국에는 애초부터 대승불교가 전해졌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실크로드 쪽을 통해서인데, 그 경로로 전해진 것은 대승불교라 부르는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소승불교라 부르는 흐름은 대체로 동남아 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흐름은 중국에 바로 전해지지 못 하고 북방을 통해 대승불교가 전해진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북방을 통해서 대승불교를 접하게 되었지요. 문제는 산발적으로 불교가 전해지다 보니, 그렇게 전해진 경전의 온전치 않았고 번역에도 오류가 많았으며, 또 통일적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현장법사에게 직접 인도로 가서 불교를 전체적으로 깊이 배우고, 또 많은 경전을 가져와 온전한 번역을 하고자 하는 뜻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 이야기를 소재로 할 것이기에 이번 이야기는 현장법사 이야기를 좀 건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건조하게 현장법사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지요.

현장법사의 속명(俗名)은 진위(陣禕)입니다. 하남성(河南省) 출신이지요. 낙양의 정토사(淨土寺)에서 출가를 하였고, 그 다음 장안(長安)-지금의 서안(西安)이죠-의 장엄사(莊嚴寺)로 옮겨갔다가, 사천성을 거쳐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는 행로를 보입니다. 그 과정 15년 동안 외국어와 불경을 배우고 나서 인도로 구법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 627년의 일이고, 현장법사의 나이 26세 때의 일입니다. 인도에 이르는 동안 55개 정도의 나라를 거쳤다 하지요. 그리고 10년 남짓 인도의 나란다 불교대학에서 수학하면서 많은 고승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식학(唯識學), 종파로는 법상종(法相宗)이라 불리게 된 계통의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지요.(현장법사는 중국 법상종의 개조입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불경 640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다시 장안에 도착하기까지 18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 왕복하는 동안 거친 거리는 대략 1만6천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당나라로 돌아와서는 당태종에게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출국할 때 몰래 도망치듯 나간 것하고는 매우 달라졌죠? 그리고 그런 왕실의 칭송과 후원 아래 불경 번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불경 번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현장 스님의 번역이지요. 그리고 인도 여행의 경험을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은 당시 중국과 실크로드, 그리고 인도의 문물을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하, 아주 건조하죠? 삼쾌선생도 이렇게 건조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크! 돌팔매 날아올 것 같아 중지하고 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역사에 남을 큰 사건입니다. 물론 인도에 갔거나 다녀온 많은 스님들이 있지만, 현장법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지요. 같은 사건을 겪어도 남긴 자취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 같네요. 얼마나 깊이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불경을 구해서 돌아왔느냐, 그 경전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번역했느냐, 인도에서 배워온 불법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하였느냐…. 이런 여러 측면에서 현장법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시절부터 그 험한 길을 다녀온 현장법사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의 소재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지고 하여 결국 명나라 때의 소설가 오승은(鳴承恩)에 의해 서유기라는 소설로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오공 등은 모두 현장법사의 어떤 한 측면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손오공 삼 형제의 활약이 바로 현장법사의 활약이라는 거,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의장등록

사업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돼,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개업선물, 사업성공의 선물로 품격

▶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문의 : (02)723-4533
▶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사찰 · 스님 20% 할인)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얻고 평생부자로 살게!!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에나멜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별도로 옴자로 된 교통카드 꽂이도 있다.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장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23-4533
(사찰 · 스님 20% 할인)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www.kapilla.co.kr ※ 공휴일 접수 가능

앞면 뒷면 의장등록

호신불규격직경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용 호신불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 · 스님 20% 할인)
문의 : (02)723-4533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부처를 마음에 품고 매화를 그려내니…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⑤ 호산 조희룡



조희룡의 '매화서옥도'(간송미술관 소장). 그의 '매화도'는 부처를 현현한 것이니 자신의 호를 불노(佛奴)라고 했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호산 조희룡(1789~1866)은 조선 후기 문인화를 지향했던 화가로 여항시사를 이끌었다. 차를 즐긴 그는 초의와도 교유하였다.

본래 그의 집안은 양반 출신이었다. 그러나 조부 때부터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고 그 또한 여항인(閭巷人)들과 어울린 화가였기에 중인으로 분류한다. 그의 자는 이견(而見), 치운(致雲)이다. 학계에 알려진 그의 호는 우봉(又峰), 철적(鐵篴), 호산(壺山), 단로(丹老), 매수(梅 叟), 수도인(壽道人)이지만 필자의 소장본 자료인 조희룡의 〈일정화영(一庭花影)〉첩을 통해 '불노(佛奴)'라는 호가 있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헌종의 총애를 받았던 그는 1813년 식년문과(式年文科)의 병과(丙科)로 급제한 후 벼슬길에 올라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에 진종(眞宗)의 조천(祧遷)에 반대하는 권돈인과 이 일에 연루된 추사와 가장 가까운 인물로 지목되어 임자도로 유배된다. 완숙한 예술미를 완성한 것은 절해고도, 임자도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거처를 '만구음관(萬鷗碰館)'이라 하고 그림에 몰두한 결과였다. 병약했던 그는 '마치 학이 가을 구름을 타고 훨훨 날아가듯이 길을 걸어 다녔다' 할 정도로 약골이었기에 그리 오래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다. 하지만 그는 천수를 누렸다.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에는 자신의 호를 수도인(壽道人)이라 한 연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키만 훌쩍 크고 야위어, 옷을 걸치기에도 힘겨울 만큼 약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오래 장수할 상(相)이 아닌 줄을 알았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열네 살 무렵에 어떤 집안과 혼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내가 반드시 일찍 죽을 것이라 하여 퇴짜를 놓고 다른 집안과 혼인하였다. 그런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그 여인은 과부가 되었다. 내가 이제 70여 세가 되었고 많은 아들, 딸과 손자, 증손자들을 두었으니 이제부터는 노인이라 큰소리칠 만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수도인(壽道人)이라는 호를 지었다.

이처럼 키만 크고 병약했던 그가 70세에 '수도인(壽道人)'이란 호를 지은 것은 자축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에게 장수의 묘약은 매화이었다. 그가 쓴 화제(畵題)에 "장수할 상이 아닌데 늙은 나이가 되었고, 매화를 사랑하여 백발이 되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매화를 탐닉한 연유는 분명하였다. 그의 매화벽(梅花癖)은 〈석우망년록(石友忘年錄)〉에는 자세한데 내용은 이렇다.

내가 그린 매화병풍을 둘러치고 매화를 읊조린 시가 새겨진 벼루와 먹은 매화서옥장연(梅花書屋藏烟)이라는 것을 썼으며 〈매화시백영(梅花詩百詠)〉을 지어 큰 소리로 읊다가 목이 마르면 매화편차(梅花片茶)를 다려 마셨다. 나의 거처를 매화백영루(梅花百詠樓)라 하였고 (나의)호를 매수(梅 叟)라고 하였다.

온 종일 매화 향기 속에 묻혀 살았던 그는 꿈속에서도 매화 몽(梅花夢)을 꿈꿨다. 그 실제 상황은 그의 '한와헌제화잡존(漢瓦軒題畵雜存)'에 "대룡과 소룡이 연지에서 일어나 푸른 산호를 다투어 움켜쥐며 붉은 여의주를 토해내고 있었다"고 하였고 다시 "깜짝 놀라 깨어 보니 크고 작은 홍매화가 작은 방안에 다투어 피고 있었다"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뿐만 아니라 벼루벽이 있었던 그는 선화난정연(宣和蘭亭硯)이나 임길인풍자연(林吉人風字硯), 기효람옥정연(紀曉嵐玉井硯)과 같은 명품 벼루를 수집하였다. 그가 애지중지했던 벼루는 기효람옥정연(紀曉嵐玉井硯)인데 우연히 골동상에서 구하게 된 명연(名硯)이다. 그가 기효람옥정연(紀曉嵐玉井硯)이라 이름



조희룡 친필본 〈일정화영〉(박동춘 소장)의 부분. '불노(佛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나는 '부처님의 노비'라고 자청한 것으로 보아 신심이 매우 공고했음을 알 수 있다.

문인화가로서 초의 · 추사와 교류
"그림으로 불사는 나로부터 시작"
'佛奴'가 호, 스님과 법교 자청도

을 붙인 사연은 바로 벼루 후면에 수사고전서지연(修四庫全書之硯)이라 글자와 기윤(紀昀)이란 쓴 글자 때문이었다. 기윤(1724~1805)은 원래 이 벼루의 소장자였던 청 중기의 학자로 〈사고전서〉 총찬수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자는 효람(曉嵐), 춘범(春帆)이고, 호는 석운(石雲)이다. 따라서 조희룡은 기윤이 〈사고전서〉를 편찬할 때에 쓰던 벼루임을 한눈에 알고 '기효람옥정연(紀曉嵐玉井硯)'이란 명명했던 것이다. 당시 중국 고기(古器)와 예술품을 수집하는 풍조는 조희룡뿐 아니라 문인이나 문인 취향을 가진 중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조희룡의 예술적 취향은 추사의 문하에서 더욱 그 가치를 빛냈다. 개방적인 인품의 소유자였던 추사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승려나 중인들과도 널리 교유하며 사제의 연을 맺었다. 조희룡 또한 추사의 문하에서 그림과 글씨를 본받아 추사체를 방불(彷佛)할 정도이지만 그의 글씨는 추사에 비해 금석기가 덜하고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희룡은 난초를 치는데도 일가를 이뤘다. 그의 '한와헌제화잡존'에 "문형산(文衡山)과 진백양(陳伯陽)은 난초 그리기를 좋아했다. 나하고 천 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았다. 나는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 30폭을 쳤다"고 한다. 그리고 "두 선생에게 그 풍격을 묻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하루 종일 난초를 쳤던 그의 그림에 대한 열의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성스런 문형산과 진백양의 인품을 흠모했던 그는 이들에게 자신의 난초 치는 격을 묻고 싶었지만 천 년 전의 사람에게 어찌 물으랴. 다만 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다"라고 한 것에서 그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추사는 그의 난을 치는 법을 신뢰하지는 않았다. 추사가 아들 상우에게 보낸 글에서 "난을 치는 법은 예서(隸書) 쓰는 법과 가까우니 반드시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가 있었던 다음에야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어 "난치는 법은 화법(畵法)대로 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 만약 화법대로 하려면 일필(一筆)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추사는 "조희룡은 내가 난을 치는 솜씨를 그대로 배웠지만 한 가지 화법만을 쓰는 폐단을 면치 못했다. 이는 그의 가슴 속에 문자기(文字氣)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사가 조희룡의 재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인의 제자 중에 조희룡을 으뜸으로 여긴 정황은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불교와 친숙해진 정황은 아무래도 추사와 초의를 통해 연향을 받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가 친 불교적인 문인화가였음은 '불노(佛奴)'라는 호에서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노(佛奴)'라는 호는 조희룡이 초의에게 보낸 〈일정화영(一庭花影)〉첩에서 확인되었다. 이 시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겉표지엔 조희룡의 친필로 '초의노사사수(草衣老師 査收)'와 철적도인이 보내다(鐵篴道人寄)라는 글씨가 있다. 첫 장에는 해남에서 소치도인(허련)이 자신이 그린 관음상과 글을 보내왔기에 시로 사례한다(小癡道人 自海南貽書 兼寄自寫觀音像 以詩謝之)는 부제와 함께 시문이 있으며, 그가 해악(海嶽: 금강산)에서 돌아온 후 초의와 포연상인(蒲蓮上人)에게 보낸 시문이 있다. 마지막에는 초의스님에게 일중공안을 참증 해달라는 부제가 붙은 시문으로 구성되었다. 지면 관계상 그가 초의스님과 포연스님에게 법교를 청하며 지은 시를 소개한다.

도로 향하는 착하고 좋은 남녀가(向道善男與善女)
번뇌와 고통을 다 없애려고(煩惱苦趣共欲除)
머리를 조아려 금강저에 비네(稽首願乞金剛杵)
내 생애 천하의 책을 다 보지 못하고(吾生未窮天下書)
누가 장차 이런 지경을 글로 쓸 수 있으랴(誰將是境下箋疏)
신선의 땅, 부처의 세계를 유생이 올라(仙都佛界登楮墨)
도랑에서 흰 연꽃 피웠다는 소식 듣지 못했네(未聞自成白芙)
비바람을 맞고 파도에 휘날릴까 두려워(恐被風雨飄烟瀛)
유선에 숨을 수 있을까 나루에 묻는 마음(可惹遊仙問津情)
댕그랑 패옥 소리 울려도 머물 곳이 없어서(環 dn冷無處所)
다만 노을 바라보고 마음대로 가지 못하네(只見雲霞無恙橫)
황괴가 일어나도 큰 붓이 없어서(發皇愧無大手筆)
공연히 세상을 향해 무리 지은 쇠파리라(空向海內擬 肴)
세간의 문자란 오목한 절구 구멍(世間文字是臼 a
어찌 모양 밖을 다 들 수 있을까(安能象外可擧悉)
만약 천고에 통한 사다리와 배를 만든다면(若使千古通梯航)
이에 공덕을 노래해 황왕을 칭송하리(功德向此頌皇王)
칠십이가를 봉선한 일이니(七十二家封禪事)
빛나는 옥문갑에 금니를 모으리(玉檢金泥聚煌煌)

그가 "홀로 헐성루(금강산 정양사)에 올랐지만 이 묘체를 증명할 사람이 없어 이것을 기록하여 포연상인에게 보내니 돌려서 초의선사에게도 보냅니다. 아울러 법교를 청합니다(獨上歇惺樓 無人證是妙諦 錄此寄示蒲蓮上人 轉呈草衣禪師 Æ¥請法敎)"라고 하였다. 그리고 "초의법사께서 금강산을 돌아보시고 쓴 시는 지금 저에게 있으니 때때로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해악(海嶽)에서 돌아 온 후 처음으로 산을 보는데도 삼매(三昧)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草衣法師金剛望遊詩 今在余所 時復取讀於海岳 歸來之後 始知爲看山三昧)"고 하였다. 그가 "그림으로 불사를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以圖畵作佛事 自我始也)"라고 한 사실에서도 그의 불교적인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의 '매화도'는 부처를 현현한 것이니 자신의 호를 불노(佛奴)라고 했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실로 그는 부처를 마음에 둔 화가였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禪·敎 상호 경쟁 발전… 종파불교 전성시대

12. 교종과 선종의 공존

475년간의 고려시대 전체를 놓고 볼 때 전기에는 교종이 우세하였고 후기에는 선종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종과 선종이 서로 공존하면서 경쟁, 대립하는 구도였다. 교종은 화엄종과 법상종이 양대 종단을 이루었고 왕실과 문벌귀족 세력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 발전하였다. 선종은 고려 초에 9산 선문이 성립되면서 토대가 다져졌고 11세기 말 선종의 하나로 천태종이 개창되면서 교종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후기에는 교종이 쇠퇴하고 선종인 조계종이 융성하였고 고려 말에는 임제종 법맥 전수가 유행하고 간화선풍이 일세를 풍미하였다.

교종 중에서 화엄종은 7세기 이후 의상 계통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사상적 성과를 내면서 교단의 주류 세력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졌다. 그러나 9세기 전반부터 선종이 도입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화엄 쪽에서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후삼국이 대치하던 10세기 초에 화엄세력 안에서 왕건을 지지하는 북악파와 후백제 견훤을 후원하는 남악파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이후 균여(923~973)가 분열을 극복하고 광종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면서 중앙 무대에서 화엄종이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균여는 의상 계통의 화엄학을 계승하면서 화엄교학을 재검토하였다. 그는 의상의 스승인 지엄, 그리고 동문인 법장의 교학사상에 의거하여 화엄일승의 절대적 우월성을 천명하였다. 또한 그 나름의 화엄학 교리체계를 완성하여 고려 화엄사상의 심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또한 당시 부상하던 선종을 의식하여 성상(性相) 융회, 그리고 화엄의 우위를 전제로 한 교학체계를 세웠는데 이는 새로 개설된 승과 시험에 반영되었다. 균여는 또한 화엄의 신중신앙과 보현신앙을 강조하고 의상에 의해 처음 제시된 5척 관법을 행하는 등 실천도 중시하였다.

이후 화엄종에서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나오면서 고려 불교계를 주도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불서 간행과 유통에도 큰 업적을 세웠다. 의천은 문종의 4째 아들로서 11세에 화엄종에 출가하였고 13세에 교종의 최고 승계인 승통이 되었으며, 이후 화엄종과 왕실의 관계는 확고해졌다. 의천은 고려와 국교가 단절 중이던 송에 비밀리에 건너가서 14개월간 머물었고, 송대 화엄종을 중흥시킨 진수 정원에게 화엄을 직접 배웠으며 구할 수 없었던 불교 전적을 서로 주고받았다. 당 말의 폐불과 5대 10국의 전란을 겪으면서 중국에서 사라진 불서들 중 고려에서 전해지던 책들이 당시 역수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광종대에 보내진 천태학 전적과 의천 때의 화엄 전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의천은 징관이 지은 〈화엄경소〉에 주해를 붙이고 〈화엄경〉과 같이 합본해 간행한 정원의 〈화엄경소〉 등을 얻어서 왔는데, 이 또한 고려 화엄학이 교학적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다.

의천은 교학의 습득과 관행의 실천을 함께 하는 교관겸수를 강조하였다. 이는 불교의 교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심성의 본래 모습을 체득하는 관행을 중시한 것으로, 일심의 체득을 강조한 징관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송대의 불교는 선종을 중심으로 정토, 화엄, 천태, 〈능엄경〉, 〈대승기신론〉 등이 두루 중시되는 등 융합적 · 포괄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징관과 함께 종밀의 사상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의천도 화엄의 별교일승을 강조하면서 화엄의 우위를 주장한 법장이나 균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대신 징관의 교관겸수 및 포용적 자세를 승계하였다. 의천은 또 신라의 화엄조사 의상과 함께 원효를 선양하였는데, 특히 원효의 회통적 사상을 강조하고 계승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의천은 교학 학습을 소홀히 하는 선종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어서 종밀이 주창한 선교일치까지는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 화엄에서 정통설이 된 조통설은 진수 정원이 세운 마명-용수-두순-지엄-법장-징관-종밀의 7조설이었다. 이에 비해 의천이 주장한 화엄 9조설은 7조설에 천친(세친), 불타, 광통 혜광을 추가하고 마지막의 종밀을 뺀 것이었다. 여기서 종밀을 제외한 것은 의천의 선종 기피 인식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또한 화엄교학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지론학 계통 조사들을 앞에 대거 포진시킨 것에서 의천, 나아가 고려 화엄학계의 독자적인 불교사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고려의 법상종은 유식학에 기반을 둔 종단이다. 유식학은 인도 유가행파의 조사 마이트레야(미륵)에서 시작된 것으로 미래불인 미륵과 이름이 같아 그 화신으로 추앙되었다. 그로 인해 고려 법상종의 신앙은 미륵신앙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동시에 통일신라 진표 계통의 점찰 신앙 또한 계승되었다. 특히 진표가 미륵에게 직접 받았다고 전해지는 점찰 간자를 석충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치고 후원을 받으면서 법상종은 종파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법상종이 주요 교단으로 위상을 다지게 된 것은 목종이 원찰로 숭교사를 창건하고 다음 왕인 현종(재위 1009~1031)이 현화사를 짓고 법상종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면서부터였다. 현종은 부모가 불미스러운 일로 죽임을 당한 뒤 외삼촌인 성종의 배려로 궁에서 살았는데, 아들 목종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천추태후의 압박을 피해 숭교사로 출가하였다. 이후 천추태후의 암살 음모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현종은 목종에 이어 다음 국왕이 되었고 부모의 명복을 빌면서 원찰로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현화사에는 송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이 수입되어 봉안되었고 진신사리를 안치하는 등 법상종 종찰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이처럼 법상종은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교종의 주요종단으로 부상하였다.

고려 초기 교종 · 후기 선종 '우세'
의천, 천태종 창종… 교종 발전 견인
광종 시기 전후해 구산선문 확립

한편 고려의 최고 문벌귀족 가문인 인주 이씨 출신이자 문종 비의 동생인 소현(1038~1096)이 승과 합격 후 최고위 승직을 맡게 되면서 법상종은 더욱 발전하였다. 소현은 금산사에 광교원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유식학 문헌 32종 353권을 간행하였고, 중국 법상종 조사 현장과 규기의 상을 안치하였다. 또 현화사에는 해동 법상종 조사 6인의 상을 봉안했는데, 그 중에는 신라 유식학의 거두 태현과 함께 원효가 포함되었다. 당시 문종은 다섯째 왕자 왕규를 소현에게 출가시켜 화엄종에 이어 법상종 교단마저도 왕실이 주도하려 하였다. 하지만 왕규가 역모에 연루되어 쫓겨나면서 왕실과 법상종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다. 대신 문종은 자신의 진전사원으로 화엄종 종찰격인 흥왕사를 창건하였고 이후 화엄종과 왕실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다. 법상종 또한 인주 이씨 출신 승려가 종단을 이끌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많은 정치적 부침을 겪고 12세기 중반 이후에는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선종은 9세기 전반부터 도입, 정착되면서 지방의 산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고려 초에 여러 산문들이 정리되면서 주요 산문을 중심으로 한 9산 선문이 성립되었다. 개경 지방의 유력한 토호 출신으로서 강고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던 고려 왕실도 원래부터 선종에 대한 후원에 적극적이었다. 더욱이 새로 고려를 창업하면서 중앙과 지방 세력을 연결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 데 선종을 적극 활용하였다. 9산 선문은 광종대(재위 949-975)를 전후해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산조의 활동 시기로 볼 때 도의의 가지산문이 제일 처음 생겨났고 희양산문, 실상산문, 동리산문, 봉림산문, 성주산문, 사굴산문, 사자산문, 수미산문의 순으로 성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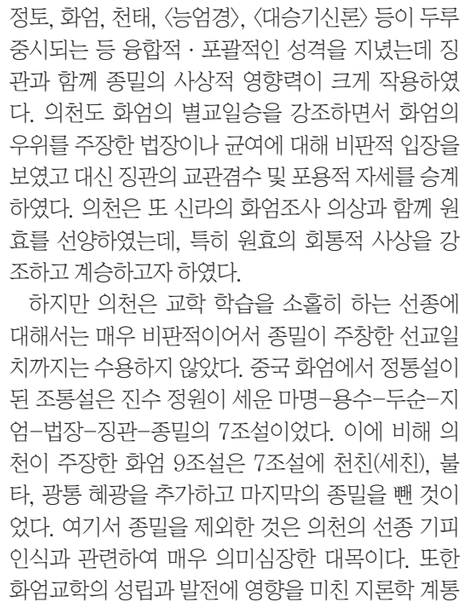
고려 선종은 임제종, 조동종처럼 선의 기풍에서 차이가 나는 중국의 선종 5가와는 달리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적 사승관계를 기준으로 한 산문 전통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희양산문의 개조로 추앙되는 도헌은 북종선을 표방하였지만 그 손제자 긍양은 남종선을 선양하였다. 이처럼 산문의 적전 계보 안에서 선풍이 서로 다른 경우도 나타났다. 한편 고려 중기에는 9산 선문을 통틀어 선적종이라고 표현한 기록이 전하며, 의천에 의해 선종으로 천태종이 개창된 후에는 그와 구분하기 위해 기존 선종을 조계종이라고 칭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 선종의 5가 선풍이 모두 유입되었다. 그 중 법안종이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광종이 선발한 선승들을 중국에 유학 보내 도입해 오게 하였다. 당시는 정치적 통합과 함께 분열된 불교교단의 통합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광종은 남악과 북악으로 대립해 오던 화엄종의 갈등을 균여를 통해 해소하려 하였고, 여러 산문이 난립하던 9산 선문의 선종은 법안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법안종은 〈종경록〉을 지은 영명 연수의 선교일치, 선과 정토의 겸수 사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종이면서 교학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사상과 교단의 통합 및 조화라는 불교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었다. 하지만 광종 사후 법안종은 중앙 종단으로 세력을 키우지 못했고, 이후 의천의 천태종 개창 때 인적 풀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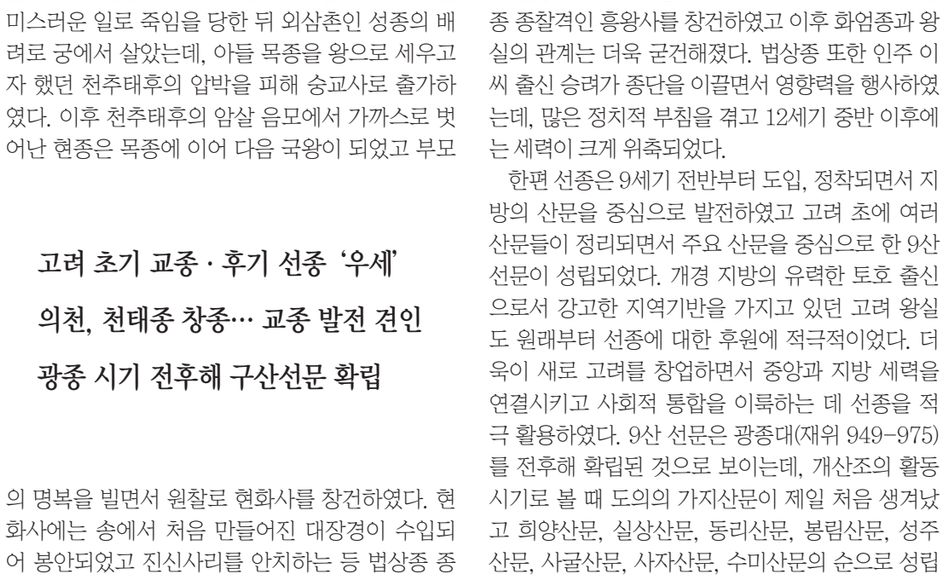
고려 중기에는 중국에서 유행하던 공안선이 도입되었다. 뒤에 국사가 된 담진이 공안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문자선을 수학하였고 제자 탄연은 임제종 계승을 자임하였다. 공안선은 임제종 간화선 수용의 전 단계로서, 심성 문제를 다룬 〈능엄경〉, 〈기신론〉 등이 중시되고 거사불교가 성행했던 송의 시대적 조류에서 배태된 것이었다. 고려에서도 문벌귀족 사이에서 거사불교와 공안선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조동종 선풍도 고려에 전래되어 고려 말과 조선 초까지 그에 대한 주석서가 나오는 등 선사상 및 수행기풍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고려 전기까지는 화엄종, 법상종, 선종이 불교교단을 대표하는 3대 종단이었다. 그런데 의천이 천태종을 세우면서 12세기부터는 4대 교단 체제가 확정되었다. 법화 천태사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중시되었으며, 광종대에는 고려에 전해오던 천태학 전적을 중국의 오월에 보내 송대에 천태종이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고려 출신 승려 의통(927-988)은 중국 천태종의 16대 조사가 되었고 제관(?~970)은 천태 교판을 정리한 천태학 입문서 〈천태사교의〉를 지어 중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고려에서 천태종 종단은 의천의 모후 인예태후와 형인 숙종의 후원에 의해 1097년 국청사가 창건되면서 성립되었다. 이전에는 승과를 화엄종, 법상종, 선종에서 각각 치렀는데 이제 천태종 승과가 별도로 추가된 것이다.

의천은 송에 유학하였을 때 화엄 뿐 아니라 천태를 수학하였고 중국 천태종의 개조 천태 지의의 탑을 참배한 후 천태종을 널리 펼 것을 서원하였다. 이는 천태의 교관겸수 가르침에 공감하였기 때문인데, 의천은 이론의 탐구나 참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여 균여 계통 화엄과 함께 당시 선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특히나 선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어서 천태종을 창설하게 된 이유 가운데 선종의 개혁이라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 천태종에는 법안종 계통을 포함해 기존의 선종 승려들을 회유하여 끌어들였는데, 당시 선종의 대표자 중 하나인 가지산문의 학일은 이를 거절하면서 선과 교가 뒤섞이는 것을 반대하였다. 의천과 숙종 사후 기존의 선종이 다시 세력을 되찾게 되면서 천태종 내에서 의천계가 약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천태종은 고려 말과 조선 초까지 교와 관행의 겸수를 내세우며 주요 종단으로 존속하였다.



순천 선암사의 대각국사 의천 진영. 왕족으로서 출가한 의천 국사는 고려 전기 교종 계열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2005년 복원을 마친 개성 영통사의 전경. 대각국사 의천은 11살에 출가해 영통사에서 수학했다. 이후 의천은 송에 유학하였을 때 화엄 뿐 아니라 천태를 수학했고 중국 천태종의 개조 천태 지의의 탑을 참배한 후 천태종을 널리 펼 것을 서원하기도 했다.

원순스님께 듣는
부처님 마음으로 본 대승기신론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강의기간 | 2015년 10월 19일 ~ 2016년 2월 29일
장 소 | 부전동 묘광선원(부산불교실업인회법당)

마명보살은 각자 다른 근기의 중생들에게 삼세에 여일할 '진여'의 성품에 대해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망념을 여의어 바르고 큰마음을 일으키라'며 「대승기신론」을 지술하셨습니다.

「대승기신론」에는 우리가 진여의 문에 나아가야 하는 까닭과 방편, 그로써 얻어질 수승한 이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잘 수지하여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 비로소 시방세계 두루 비추는 지혜의 가르침에 감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훈습의 장이 부산 도심에서 열립니다.

원순스님께서 들려주는 『대승기신론』 강의가 오는 19일부터 4개월간 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심 있는 불자님들과 진여의 세계를 찾아가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함께 자리하시어 법을 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교재 |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 - 대승기신론 원효 소 · 별기 - 원순스님 역서 (강의장에서 구입가능)
수강료 | 월 5만원 문의 | 열린불교아카데미 (051 - 244 - 0263 / 010 - 3564 - 3725)

※ 주차 차량은 묘광선원 바로 옆 유료주차장에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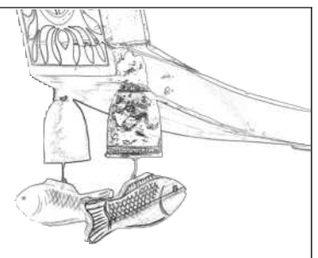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온갖 형상을 그릴 때에 좋고 추한 것이 화공을
따르듯이 착하고 착하지 못한 업의 인연은
모두가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네.

- 제법집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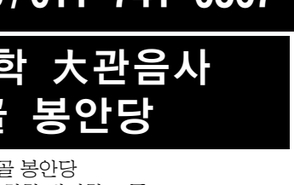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길명상
(학인 및 수련생 모집)
- 쉽고 알차게 배우는 경전공부
- 기(氣),명상수련
(우울증,케어중심)
대구시 아양교 근교/팔공산 용수동
010-7200-0108
010-7199-0118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림
010-4630-8005

인 연 명 리
삶은 인연생, 인연멸입니다!
· 영가 찾고 보는 법 /
매화역수, 속성반 모집
· 명리기초반 (10월 개강)
· 명리 통변반 (현재 강의 중)
* 지금 내앞에 있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
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 상담환영

문하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강사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대구길상사 주지
- 주소 : 대구중구대봉2동 744-21
-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여법하게 염불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안양, 50대)
031-471-66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우대
(강원)
010-3568-15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광주시)
010-8961-5498

60대 불심깊은 독신자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9571-6559

공양주 보살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포항)
010-3376-6601

불교무용 특별지도
바라춤,극락무,나비춤,
살풀이,법고,승무 등
30년 경험 선생 직접지도
수강료 : 십만원/월(선착순)
010-3711-5072
부산 서면역 부근 반야선원

49재, 천도재, 점안식
영혼천도를 잘하는 스님
이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작법무,회심곡,살풀이)
최고의 의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0-5482-2091

비법 중의 비법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전문사찰
화 엄 선 원
타로 무료 수강생 모집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시는 큰 부의 문이 되며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 문수사리정률경 -

사 찰 안 내
▶ 관광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년된 벽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1,650평
- 가액 : 10억 5천인수(은행 5억 별도) ※ 물물교환도 가능함※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경주시 급 양도 사찰
- 청정계곡 접 토지 약 6400㎡
- 기와단청법당.단청산신각.지장전.요사채
- 양도금액 : 9억(융자 5억 있음)
- 실인수가액 4억. 주변산세 좋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 ◎ 위치:경기
◎ 대지:120평 ◎ 종교용지:220평
◎ 법당:60평 ◎ 법당:50평, 요사:60평
◎ 요사:90평 ◎ 차량진입
◎ 양도:18억원 ◎ 양도: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단양시토굴 암자 급 양도
* 요사채 80㎡, 토지 4500㎡. 과실수 있음
* 뒷편은 산이고 전망좋은 토굴겸암자
* 양도가 : 2억 7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송추계곡 근방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백만원
- 시설비 : 추후 결정

010-8725-3196

사 찰 안 내
60년 전통의 경기인근 충북의 사설사암 비영리단체등록 수행도량
- 서울에서 1시간거리의 조용한 복숭아 과수원의 전원마을
- 종교용지~720평 (별도 국유지100평 점유사용)
- 대웅전~ 56평의 전통 3포양식의 닷집 단청 삼성각.종 각 5층 석탑.관세음 보살 석상 다보탑.석가탑.석등.포대화상. 요사채 2동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320 (다음 지도검색 에서 로드뷰 로 확인 하시길)
- 가액: 8억 5천 만원

010-6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지하철 역세권 도보 3분거리
- 교통 주차좋음 125평, 1, 2층 슬라브 3층 조립식
- 가액 : 2억 7천 (대출 1억 2천 승계가능) 안고 실구입 1억 5천만 (협의후 절충해 드림)

010-9150-8633

아담한 암자 안내
- 위치 : 대북 왜관 시내에서 7분 거리
- 지목 : 대지 75평, 전 85평
- 전체 160평
- 마당까지 차진입
- 법당,방3칸,큰거실,화장실2개 산신각3평
- 한꺼번에 50명 대중공양 가능
- 가액 : 7천만원

010-4503-350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논산시
- 목조법당 42㎡, 목조 공양간 40㎡, 스님실 8㎡ 요사 50㎡,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마을 주변 조용하고 깨끗함
- 가액 : 1억 2천만원 (3천 4백만원 융자있음)

010-9918-7937

사 찰 안 내
- 유동인구 많은 안산시내 위치좋은 역세권 큰길 대로변, 전철, 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4층 전체(엘리베이터, 옥상포함), 실평수 60평
- 법당, 요사채, 상담실, 주방, 욕실, 다용도 주거겸용 쾌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90만원 시설비 2,800(가격절충 가능)
- 절살림 준비 잘되어있어 바로 여법하게 법회가능
- 단골 신도 포교하기 유리한 최적지

010-5913-7239 일연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농가주택(토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건물 2동
- 가액 : 4천 5백만원
- 문중땅이며 건물만
- 건물 등기 있음

010-9849-7727
덕산 합장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후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시 중구
- 한옥 독채, 토굴 세놓음
- 인법당(후불탱화,신중탱화, 법당종, 인등, 관세음보살, 앰프 시설)
- 마당에 산신, 용신, 2자반, 창고 2개
- 보증금 500만원, 월세35만 시설, 비품대 1200만원

010-4056-5677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시 중구 대흥동 491
- 3층 47평, 방 3칸 화장실 2개, 거실
- 가액 : 보증금 5백 월 30만원 시설비 절충

010-7205-50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010-2384-0327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건물 중 2층 60평
- 아미타, 관음, 대세지, 지장 보살
-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큰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관음인등 100불, 영가인등 100위, 산신인등 50불, 호신불 72불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30만원 법당 시설물 2,500만원
- 인연닿는 스님께 조건에 맞게 절충가능

010-6278-1488

사찰 싸게(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로 (화왕산 군립공원입구) IC에서 8분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25평, 부지532평(종교부지,3필지)
- 요사채(50평) 칠성각,산신각,석탑, 심야보일러,창고,텃밭 경작
- 산밑에 도로인접(뒷산, 소나무울창)150m 암반수및상수도
- 양도금액 : 3억5천(7천융자포함)꼭하실분만 연락바람

연락처 : 010-3149-4478
(스님건강상 010-8664-8259)

사 찰 안 내
- 위치:전북 익산시 논산 훈련소 부근 (주변 조용하고 깨끗함)
- 부지면적 총880㎡(226평)
- 지목별-종교용지:179㎡(54평)
- 대지:701㎡(212평)
- 건물별-사찰1층 69.34㎡(21평) 요사 74.9㎡(23평)
- 가액: 1억 7천만원 (5천만원 융자있음)

010-6334-0251

포교원 안내
- 위치: 포항시 북구 용당로
- 단독주택 2층에 2층(23평)
- 가액 : 보증금 300만 월 35만 시설비 1,000만원
- 인연되시는 분께 위와같이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2727-0895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290평, 대지200평, 전90평
- 법당: 통나무로된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다실 4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5천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 갓바위 부근
- 법당, 요사 약 70평
- 텃밭 약 130평
- 가액 : 보증금 2,3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514-5569
*시설완비,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이전 (법회관계) 오후 2시 이후

건물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 5층 건물 3,4,5층은 포교원
- 지하1층, 지상 1, 2층은 임대
- 가액 : 32억(절충)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010-8988-3418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동대구역 동대구 시장부근
- 대로변, 교통요지, 철학 및 포교의 최상위치
- 평수 60평, 4층 건물의 4층
- 법당 큰방1, 친견실1, 거실, 주방 화장실2
- 시설 올수리, 난방 도시가스 사용
- 법당 집기류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정살림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250만원

053-943-5959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 방+ 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010-3487-00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대출 4천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안락동
- 평수 약 50평, 방2, 부엌, 욕실
- 4층 중 3층. 삼존불, 소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본찰 업무상 관계로

010-4541-1140
051)532-114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천장산로 13길 82(안기부 후문)
- 내용 : 법당, 야외법당, 방4개, 주방, 옥탑방, 반지하방 등
- 동불 : 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특수 금 탱화 신중특수탱화, 불구, 비품일체, (총 150평) (즉시 개원양호)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세1년간 3백만원,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3329-1131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대창면
- 사찰 200 평, 임법당 1동 황토방 1동
- 가액 : 7천 5백만원

010-3595-9856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2-297-3379
010-4576-22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2대가능, 터는도깨비터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2개월동안 깨끗이 수리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놓여 있음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4646-363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부시장 경남 양산시 중부동 429-7(2층)
- 평수 : 80평
- 대법당 삼존불 탱화
- 실내화장실 3개, 부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9945-2030

토굴겸 임법당
- 위치 : 경북 김천 단독주택 깨끗함
- 건물 22평 실제30평 이상됨
- 대지 129평, 정남향
- 방 3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 임법당, 삼존불, 탱화, 관음소불 100불
- 노스님 시봉관계로 급 안내
- 가전 집기 일체 양도 정말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5,500만원, 대출 안됨

010-4323-3579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 특징: 전통방식 시공
- 주차편리, 역세권, 집기완비
- 52평, 법당, 상담실, 공양간, 내실
-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 내부 전체 원목시공, 단층
- 시설비, 보증금, 월세 절충 가능

010-2591-4589
몸만오시면 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5천만원 (대출 2억5천 안고 양도금액 3억)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하장실 등등 건물 총 13동
- 대형버스주차장,소형차주차장 등
- 가액 : 3억 9천만원

010-4628-5699
스님 건강 문제로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소불, 인등, 연등, 후불탱화
-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일부 보시함 약 40평
- 가액 :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능 전세금 삼백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랍니다 명리, 철학 호 조건

010-4609-4377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1〉 파욱수행이란 무엇인가

신체를 순간순간 관찰… 속성을 알자

이 책은 저자 전현수 전문의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미얀마 파욱 전통의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느낀 경험을 기록한 체험담이자 수행 보고서다. 선정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선정을 경험할 수 있는지 등을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정리했다. 전현수 전문의는 "붓다는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했다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지 못했다 하고, …(중략)… 안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 9가지 성스러운 언어표현이라 했다"며 "독자 스스로 수행을 점검하는데 도움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분명히 내 경험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직접 체험한 불교 공부와 수행 통해
정신 치료 가능한 것 깨달아
보편적 진리 토대 위에서 치료하면
정신 고통 해결에 큰 도움

전현수 박사는



부산대 의대를 졸업해 순천향대 병원서 신경정신과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됐다. 한양대 의대 대학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불교, 심리학, 정신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싹이 되어 2007년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가 창립됐다. 2009년과 2013년 미얀마를 오가며 몸과 마음의 작동원리를 탐구했으며, 현재는 그동안의 통찰을 바탕으로 '불교심리치료' 체계를 세우고 있다.

이 수행의 길에 나서기까지

나는 불교와 정신치료의 두 길을 걸어왔다. 정신과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대화나 분석을 통해 치료하는 정신치료가 있다. 나는 정신치료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1985년도에 내 첫 번째 불교 스승인 고(故) 고익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 이후 지금까지 두 길을 걷고 있다.

고익진 선생님은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자이면서 깊은 수행 체험을 한 수행자였다. 그때 서른 살이던 나는 정신과 전공의 2년 차였다. 고익진 선생님은 첫 만남에서 내가 정신과 전공의라는 말을 듣고는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고, 정신의학은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는 시스템이다. 불교의 고통 해결 시스템을 용어만 바꾸면 훌륭한 정신의학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 기회가 되면 선생님께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선생님께 지도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업설'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업설은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 강의를 듣고 '아!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이해되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듯했고, 불교가 진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업설이 진리이고 나와 정신과 환자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서 '내 자신의 삶과 정신의학, 정신치료를 위해 불교 공부와 수행을 평생 해야겠다.' 는 결심을 했다.

처음에는 불교와 정신치료를 통합하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교 공부와 수행을 통해 불교에 눈을 뜨고서는 불교가 그 자체로 훌륭한 정신치료임을 깨달았다. 불교와 정신치료는 둘이 아니다. 불교는 인간 존재를 포함한 이 세상의 실제 모습과 세상의 구성 및 작동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앎을 바탕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한다. 정신 치료도 실제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알게 한 후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작업이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돌아가지 우리의 생각이나 희망에 따라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과 달리 돌아가는 우리의 생각이나 희망은 고통의 원인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와 정신치료 모두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지금, 나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을 불교로 치료하는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를 세우고 있다. 불교 공부와 수행을 통해 경험한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내 경험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확신이 들면 그것을 환자와 나누고 있다.

불교의 정신치료적 기능

1985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불교 공부와 수행 그리고 정신치료의 길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익진 선생님께 업설을 배워 이해하면서 불교에 확신을 가진 시기다. 이때 불교 경전의 원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를 배워 불교를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

두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을 순간순간 관찰하면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게 된 시기다. 이 시기에 불교 교리 중 근본이 되는 삼법인, 즉 무상, 고, 무아를 확실히 알았다. 이 앎은 나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06년부터 2년간 '4부 니까야'를 읽으면서 불교를 확실히 알게 된 시기다. 초기불교 경전인 니까야는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붓다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담겨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니까야는 5부 니까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된 내용은 4부 니까야에 들어 있어 4부 니까야를 2년간 읽었다. 4부 니까야를 읽는 모임은 불교학자 및 수행자들과 함께했다. 니까야를 각자 읽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했다. 4부 니까야를 읽을 때 다음 두 가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첫째, 붓다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그중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불교가 정신치료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목표를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달성했다. 니까야 속에서 붓다는 자기 경험이 보편적인 진리인지를 철저히 검증했고, 진리라는 확신이 섰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 제자들도 깊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붓다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했다. 마치 실험실에서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듯이 붓다가 경험한 것을 제자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붓다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진리임을 증명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육도를 윤회하면서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붓다의 가르침과 수행이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수행을 하며 많은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많은 것들이 붓다의 가르침과 통하고 있었다. 혼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것이 경전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선정'과 '윤회'를 비롯한 중요한 것들을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4부 니까야를 통해 불교가 완벽한 정신치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붓다는 물론 아라한들도 모두 훌륭한 정신치료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내가 수행을 통해 경험한 것이나, 붓다와 제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 모두 붓다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 보편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정신치료를 한다면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네 번째 단계는 파욱 전통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한 시기다. 이 수행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선정과 윤회의 과정과 메커니즘을 파욱 전통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파욱 전통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은 파욱 사야도(파욱 센터의 큰스님)가 평생에 걸쳐 붓다 당시의 수행 전통을 복원한 것이다.

수행을 통한 특별한 경험

파욱 사야도는 방에 니까야, 주석서, 복주서를 쭉 펼쳐놓고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수행에 수행을 거듭해서 오늘날의 파욱 수행법을 찾았다고 한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수행하던 어느 날 제2대 파욱 센터 선원장 스님이 파욱 사야도를 불러 자신이 죽고 나면 제3대 파욱 센터 선원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파욱 사야도는 그것을 수락했고 제2대 선원장은 며칠 되지 않아 입적했다. 파욱 사야도는 40대 후반에 파욱 센터 선원장이 되고도 숲 속에서 수행을 계속했다. 전통수행법을 복원하는 작업은 63세까지 이어졌다. 63세에 〈열반에 이르는 길〉(Way of Practice Leading Nibbana)이라는 5권짜리 두꺼운 책을 완성하는 것으로 파욱 사야도의 전통 수행법 복원은 마무리되었다.

그때부터 파욱 사야도의 본격적인 전법 활동이 시작되었다. 복원된 수행법을 따라 수행을 해서 지금까지 수백 명의 수행자가 파욱 사야도가 경험한 것을 같이 경험했다. 물론 경험에 정도 차는 있을 것이다.

파욱 수행을 하기 위해 나는 두 번에 걸쳐 문을 닫았다. 파욱 수행은 강도가 세서 진료와 수행을 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2009년에 파욱 사야도의 지도를 받은 시기다. 그 기간에 선정을 경험했는데, 스스로 판단하기에 선정의 깊이가 얕고 쉽게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6개월 만에 수행을 중단했다. 다시 병원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해서 2013년 11월에 다시 수행에 나설 때까지 4부 니까야를 제외한 나머지 니까야를 읽었다.

2013년 들어 실험적으로 한 달에 일주일씩 절에 가서 수행을 했다. 이 시기에 3개월 걸쳐 연속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첫 달에는 호흡을 지켜보는 중에 호흡이 점점 줄어들더니 완전히 없어지면서 아래쪽 배에서 엄청난 기운이 위로 올라왔다. 그대로 내 몸이 솟아올라 법당 천정에 부딪힐 것 같았다.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 희열과 감격이 있었다. 호흡을 지켜볼 때 항상 빛은 있었지만 이때 빛이 특별히 더 밝았다. 집중된 상태였고, 수행을 한 이래로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었다. 이 경험 후 배에서 위아래로 회전하는 기운이 돌았다. 지금까지도 항상 그렇다. 또 앉으면 저절로 바른 자세가 되었다. 2009년에 선정 경험을 할 때도 특별한 현상은 있었다. 좌선을 하는데, 거인이 내 온몸의 뼈를 맞추는 것처럼 뼈와 척추가 맞춰지고 난 뒤에 저절로 아주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시간 가면서 그 상태가 유지되지는 않았다.

다음 달에는 좌선 중에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척추를 감싸면서 척추를 따라 흘렀다. 그다음 달에는 좌선 중에 두 개의 기 흐름이 있었다. 첫 달 이후로 있는 배의 기와 코 주위에 생긴 기였다. 코 주위에 기가 형성되자 처음에는 상기가 될까 염려되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코 쪽의 기와 배 쪽의 기가 하나가 되었다. 코로 숨을 쉬면 기가 바로 배 아래쪽 깊숙이 들어갔다. 말로만 들었던 단전호흡이 떠올랐다. '아! 이런 것이 단전호흡이구나.'

이렇게 3개월에 걸쳐 연속으로 변화가 진행되었다. 사실 나는 내 속에서 뭐가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모른다. 기 수련을 한 적도 없고 그 분야의 책을 읽은 적도 없었으며,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다. 다만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 그저 자연스러운 호흡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지켜보았을 뿐이다. 이 경험을 통해 호흡을 보는 것이 몸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알았다. 이 경험 후, 앉아 있는 것이 어렵지 않고 앉는 자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선정 수행을 위해서는 오래 앉아 있을 필요가 있으므로, 선정 수행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직감이 왔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 후, 파욱 수행을 마친 도반을 만났다. 도반의 이야기를 듣고 파욱 수행이 나까야에 나오는 수행법 그대로임을 알았다. 파욱 수행에서는 먼저 선정을 닦고, 선정의 힘으로 궁극 실재인 물질과 정신을 보고, 그 토대 위에서 12연기(十二緣起)를 경험한 후 물질, 정신, 연기를 대상으로 위빠사나를 한다. 이 도반은 12연기 수행을 할 때 자신의 과거 생을 끝없이 봤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한 경험을 나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에 나는 예순을 앞둔 시점에 마지막 수행을 할 결심을 했다. 니까야도 거의 다 읽었고 기가 통해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수행을 통해 확인하여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를 세우고 싶었다. 그렇게 2013년 11월 병원 문을 닫고 수행의 길에 나섰다. 그때부터 2014년 9월까지 미얀마와 한국 절에서 수행을 했다. 이번에는 주로 우 실라 스님에게 지도를 받아 선정, 궁극 물질, 궁극 정신, 연기, 위빠사나를 경험했다.

이 글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 易學강좌
논리로 푸는 사주학 과학역학 '석하명리'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음양오행과 사주학의 모든 이론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과학역학 '석하명리'
성공과 실패의 10주년 패턴 '석하리듬'

구 분	요 일	시 간	개 강
초급(주간)	매주(火)	15:00 ~ 17: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火)	19:00 ~ 21:00	10월 20일
초급(야간)	매주(水)	19:00 ~ 21:00	10월 21일
중급(주간)	매주(木)	10:00 ~ 12:00	10월 22일

■ 기간 14주 과정 / 수강료 20만원
■ 교 수 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심원 남상용 교수, 교원 설운스님, 강세명 교수
■ 강의장소 : 선정릉역 2번출구(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 자격증 과정 겸비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명리진로적성 상담사/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하원정미래학회 석하명리 동문자격(서울 29기)
· 성격특성, 진로적성, 성공과 실패의 시기 분석
서울벤처대학원 FCA
• 문의 : ☎ 02)3443-4984

영남 범음. 범패 제5기 학인모집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실용의식 : 천도재 및 49재의식, 실전강의, 각 사물 등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개강일시 :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2층)
◆문 의 처 : 010-5065-5690
근 화 학 당
◆역학교실 : ① 교양반 ② 전문반
◆강 사 : 추송 ◆수강료 : 월 10만원
◆문 의 처 : 010-8948-7948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7시까지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 역학을 집중 지도함
영남범음 범패원장 제 봉
근화학당 역학원장 추 송 합장

영 남 범 패 학 인 모 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개강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요일〉 오후 3시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문의전화 : 055)587-8419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사) 대 한 불 교 불 음 원
원 장 원 명 합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영명사
• 주지 : 만파 • 창건주 박소임(정각행)
• 주소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유생길 61 (구주소 : 교리 18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나로 인해 주변을 행복하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님께 자주 말씀드리겠어요

I will share what's going on at school with my parents.

'출필곡出必告 반필면反必面'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告는 뵙고 청한다는 뜻의 '곡' 으로 읽습니다.)

나갈 때는 부모님께 갈 곳을 알리고, 돌아오면 얼굴을 보여드린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편안한 얼굴로 돌아온다면 부모님은 '밖에서 아무 일도 없었구나' 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집에 돌아왔을 때 입으로만 인사하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일은 없나요?

부모님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일은요?

부모님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 보세요. 부모님께 기쁨을 주고 효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나요?
* 부모님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자주 말씀드리나요?
* 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척의 올바른 호칭을 알아두고 집안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겠어요

I will be on my best behavior when I visit my grandparents, aunts, and uncles.

대가족 사회였던 옛날에는 가문이나 집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큰일은 반드시 상의했고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도 함께 했습니다. 집안만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지켜 나가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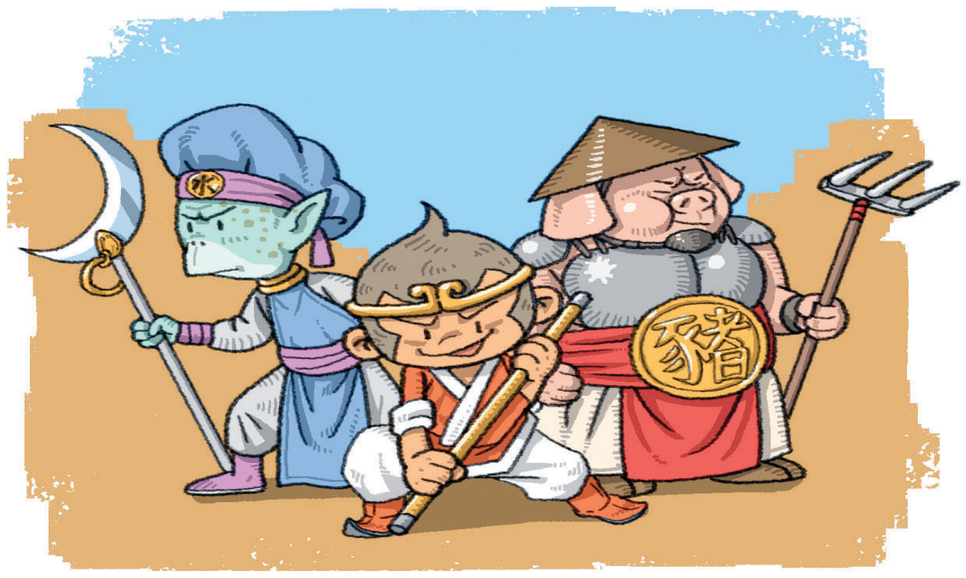
그러나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친척과의 사이가 예전만큼 가깝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로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이 듭니다. 친척끼리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촌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참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친척 중에 또래가 있으면 비교당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비로소 빛이 납니다. 우리 속담에 '좋은 일에는 남이요 궂은일에는 일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남들이 먼저 찾아와 축하를 하지만, 궂은일에는 일가친척이 먼저 찾아와 진심으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친척이 으뜸가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척을 만나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빠지려 하지 말고 집안 행사에는 꼭 참석해 보세요. 우리의 전통을 경험하는 일이자 전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 친척들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 친척들은 어느 때 주로 만나나요?
* 친구를 만날 때와 친척을 만날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나와 친구들은 잘하는 일이 한 가지씩 있어요

Everyone has something they are good at.

『서유기』는 고대 중국의 소설입니다. 당나라 때의 스님인 삼장법사가 제자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천축국(인도)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천축국으로 가는 도중에 득실거리는 요괴들을 물리치고 스승님을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형님, 아우 하던 셋은 개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손오공은 변신을 잘하는 지혜로운 원숭이였고 저팔계는 먹을 것을 밝히지만 용감한 돼지였습니다. 사오정은 조용했지만 삼장법사가 타는 말을 잘 끌었습니다.

세 주인공은 성격이 서로 달라 투덕거리면서도 마침내 삼장법사가 불경을 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이 셋의 성격이 모두 같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셋 다 지혜로웠다면, 셋 다 용감했다면 과연 삼장법사를 도와 불경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남의 성격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말라. 매끈한 돌이나 거친 돌이나 다 제각기 쓸모가 있는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나와 다른 점이 많다고 해서 밀어내거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 개성이 강한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해 보아요.
*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 말해 보아요.
* 모든 사람이 성격이나 장점이 같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홍익이념으로 같이 불사 지어나갈 여법한도량 인연 원하며 비구 비구니 거사 보살님 등께서 운영하시는 사암모두 상관하지 않습니다.

경남 양산시 삼호로 74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전화 010-3854-8107.055)388-3878

불자 세상보기

가족도 이해 · 배려가 필요합니다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예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추석연휴에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그 중에서도 제사지내기와 재산나누기 등으로 가족 간에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빚어진 몇몇 사례들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동안 쌓여 있던 해묵은 갈등이 하필이면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폭발하는 사회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경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이런 일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빈번해질 것이 분명하다. 새삼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 추석을 계기로 명절과 가족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다.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 혹은 한가위는 음력으로 팔월 보름날을 일컫는다. 한 해 동안 지은 농산물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내면서 가족 간의 화목을 되새기는 뜻 깊은 날이다. 알다시피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이맘때쯤이면 고향집을 찾는 귀성차량들로 전국 방방곡곡의 도로가 주차장이 되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그러나 명절을 전후하여 가정폭력과 이혼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명절 나기의 사회적 의미를 의심케 하는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도대체 명절이 뭐 길래', '제사가 뭐 길래', '땅이 뭐 길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명절날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사음식이나 재산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삿대질을 하며 다투던 집안 어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의 행동이 참으로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마다 부엌에서 상심하고 한숨짓던 종부 어머니의 축 늘어진 뒷모습이 지금도 가슴 먹먹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명절날의 고향나들이는 또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한다. 모처럼 만난 친인척들은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취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가슴에 큰 구멍을 뚫는다. 이는 도회지에서 학업을 마친 자식들이 점점 더 고향집 찾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종류의 불편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명절과 고향의 의미가 뭔가. 취직이나 결혼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도 고향은 언제나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내려간 고향집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성가시고 짜증나는 말이나 들어야 하는, 감옥 아닌 감옥이 되고 만다면 젊은이들에게 고향과 명절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소외되고 말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명절과 고향의 의미를 절대적인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에서도 볼 줄 아는 인간적 여유를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얼마 전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은 우리사회의 가족관계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입법사례가 아닐 수 없다.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늙은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학대까지 당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실로 착잡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통칭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명절 혹은 효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름다운 명절전통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되새기는 균형감 있는 삶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평등한 인간관계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발언대

호남 포교 활성화 어떻게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불교회관에서 '광주 · 전남 포교의 중심,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 라는 주제로 '제 64차 포교종책연찬회' 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향후 포교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협의체 가칭 '광주전남포교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주요 발제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주〉

광주·전남포교위원회를 만들자



현진 스님
대흥사 교무국장

광주 · 전남지역은 4개의 교구본사와 200여개의 사찰 수에 비해 포교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서로 다른 포교노력은 일관성 있는 포교의 방침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허공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소리를 가슴 속에 이제 불교가 화답해야 할 때 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관성 있는 포교방안의 강구를 위해서 광주 · 전남지역의 4개 교구본사의 유대관계를 위한 통합적인 의결기구 광주 · 전남지역 포교위원회(가칭)조성을 하루 빨리 이뤄야 한다.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 신행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이 만들어 지는 광주 · 전남지역 포교위원회(가칭)에 편입하여 일관성 있는 포교의 목소리를 내야할 시기이다.

오늘날의 불교는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포교' 를 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는 변화해야 한다. 광주 · 전남지역의 옛 정신을 살려 대중 속에 있는 불교, 항상 곁에 있는 불교를 위해 문화와 예술부분부터 친숙한 불교의 이미지 변화를 해야 한다. 광주 · 전남지역 사찰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포교를 시작해야 광주 · 전남지역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호남 맞춤형 살린 포교 필요



고명석
조계종 포교연구실
상임연구원

광주 전남지역은 개방성과 진취성이 강한 지역이며 문화예술을 비롯한 인문학적 토양이 기름진 곳이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수용성 또한 타지역보다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호남지역에서 다시 꽃피우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고 새롭게 변모해 나가는 신(新)불교 운동을 전개해 내야한다. 호남불교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종교적 신념과 희망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호남의 지역정서에 맞게 호남불교가 새로운 구원의 종교요 서민들을 위한 개혁의 종교임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급속도로 고령화로 접어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015년도에 실시한 전남지역 사회변화 통계를 보면 전남도민이 생각하는 최우선 복지정책은 '노인복지' 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 정도가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도심사찰에 쉼터를 마련하여 지역민과 신도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인구 분포 맞는 사찰 배치돼야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처장,
본지 광주전남지사장

전남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불교신자와 사찰수의 문제이다. 인구 1만 명이 되지 않은 지자체에 본사 급의 전통사찰이 존재하지만, 정작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정상적인 외형을 갖춘 사찰을 보기 힘들다.

이는 공급과 수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인구 분포와 더불어 사찰이 발전해야 하지만, 도시지역의 신규사찰의 증가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천주교와 기독교를 보더라도 도시지역에 일정정도 외형을 갖춘 종교시설에는 신자들이 방문한다.

광주전남지역 불교의 활성화는 결국 인구분포에 맞는 사찰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 사찰에서 포교의 다양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계층별, 세대별, 직능별 등 다양한 단체와 프로그램의 운영하는 것이 호남불교 발전의 기초가 된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시설의 완비가 중요하겠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사회다. 불교는 교리적으로 보면 네트워킹 사회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다. 지역불교의 발전은 결국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각 분야별 상설협의체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社說

우리말 한글, 불교가 지켜가자

최근 신조어를 보면 100% 이해하기가 어렵다. '낄끼빠빠', '버카충' 등을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언어는 시대마다 바뀌고, 신조어들이 국어사전에 등재되고 있지만 그 변화 수위가 높다. 한글을 지켜가는 데 불교계의 역할은 지대했다.

범어사에서 출가했던 불교지성인 허영호 前 동국대 학장의 친필원고 〈조선어기원론〉이 공개됐다. 허영호의 〈조선어기원론〉 친필 원고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직후 한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활동한 불교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1914년 당시 부산 범어사는 한글 역경화 사업을 위해 조선어 강습으로 한글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 총 24명의 한글교사 및 전문가가 배출됐으며 허영호 선생도 그 중 하나였다. 이후 범어사 조선어 강습 졸업생들은 불교 중요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는데 앞장섰으며 특히 허영호 선생은 〈불교성전〉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 그 외 많은 불서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세종대왕이 우리말인 한글을 창제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이 불교계 학승들이었다. 정광 고려대 문화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한글의 발명〉에서 이 같이 주장한다. 정광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는 고대 인도에서 발달한 음성학인 '비가라론(毘伽羅論)', 즉 성명학(聲明學)이 알려진 상태였다. 정 교수는 그로 인해 신미 대사를 비롯한 많은 스님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스님들은 역경가이자 음성학자였다. 각 국의 스님들은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또는 자신의 나라말로 옮기며 음성학에도 조예가 깊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참여했고, 또 인도음성학, 불교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갔다. 훈민정음 〈언해본〉에 불서인 〈월인석보〉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이유다. 또한 〈월인〉 및 〈석보〉 간행에 신미대사와 김수온의 두형제를 비롯해 여러 학승들과 불교를 숭앙하는 유생들이 참여했고, 〈월인석보〉 신편을 간행할 때는 신미, 수미, 설준, 흥준 등 10명의 스님들이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한글 창제 이후 불교는 한글을 지켜가는 역할을 했다. 언어 파괴가 심각한 상황인 지금,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한 불교 교류 꾸준히 지속돼야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다. 그래서 어느때보다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최근까지 남북관계는 녹록지 않았다. DMZ 지뢰폭발 사고와 대북 심리전 재개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극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돼 이산가족 상봉을 눈앞에 두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도 남북교류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선 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10월 15일 금강산 신계사서 복원 8주년 기념 및 조국통일 기원 남북한 공동법회를 함께 진행한다. 양측이 10월 2일 개성서 실무회담을 열고 지난 8. 25 합의에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형성을 위해 남북불교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개성 영통사를 복원하는데 지원한 천태종도 역시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11월 3일 남북한 공동으로 영통사서 기념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도 10월 3일 개성 시내서 실무회담을 열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측은 1박2일간의 방북 일정을 천태종에 제안했으며, 방북단 규모도 영통사 복원 10주년에 담긴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져 잔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상태다. 불교는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 전통문화요 종교다. 이번 공동법회가 일회성 단순 행사에 그치지 말고 남북한 화해무드 조성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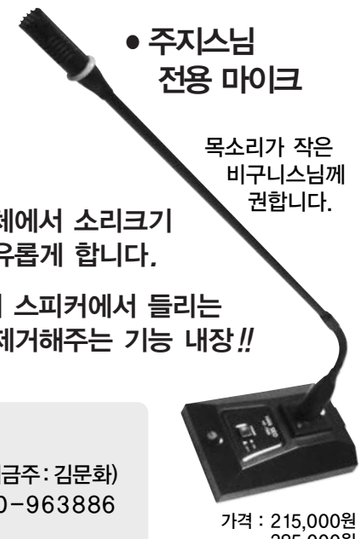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봉 불교조계종 교육 26주년 기념 봉행 재가불자 가요제 축



계율 청정 불교조계종에서는 '교육 26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봉축하고자 종단 원로 대덕스님 큰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모시고
산사음악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금번 행사에 수희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가피와 법음이
온누리에 두루 충만하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교조계종 종도스님들께서는 종단에 애종심을 발휘 하시어 많은 신도님들과
함께 동참하시어 종단의 큰 견인차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겸 총무원장 혜인 합장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11월 1일 일요일 오전11시 ~ 오후3시
- **장 소** : 여주 보금산 백화사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1165-4 소재)
- **문 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02-511-2026
- **행사일정** : 오전 11:00 ~ 식전행사
  12:00 ~ 점심공양
  오후 1:00 ~ 법회 및 재가불자 가요제
  3:00 ~ 시상식 및 폐막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불교조계종 종합의료건물 CL 타워
(건평 7,000평-지상 10층 지하 3층)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현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선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상산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법안
규정국장: 영암, 지산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법성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법산
감찰2국장: 동오
감찰3국장: 인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재무: 도은, 정해
교무: 본각,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수옥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현타
복지: 향인, 화광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상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지안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권소라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동방국제지주 대표 : 김연태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김준자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당신에게 타인을 혐오할 권리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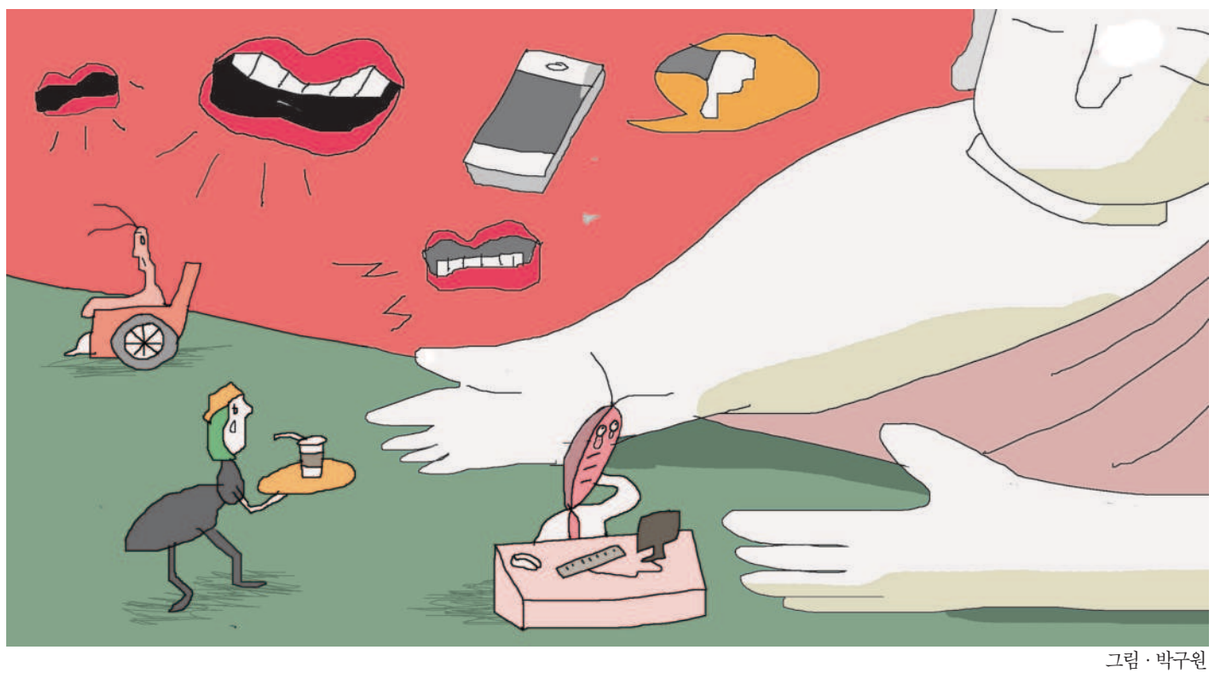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한국은 지금 '혐오'로 몸살 중

맘충, 노인충, 급식충, 자전거충, 김치녀, 극혐 등을 아십니까? 이 같은 말들은 SNS 등 온라인에서 흔히들 찾아볼 수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표현이다. 특정 계층과 집단을 벌레(蟲) 등으로 낮춰 부름으로서 조롱 ·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증오가 알게 모르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혐오사회'로의 진입 단계에 서 있다.

들불같이 번진 여성 혐오

올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폭발력을 보여준 혐오는 여성에 대한 혐오다. 일각에서는 올해를 '여성 혐오 폭발의 원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맘충'이다. 엄마를 뜻하는 맘(mom)에 벌레 충(蟲)을 합성한 신조어로 원래는 커피전문점 · 식당 등에서 뛰어다니거나 떠드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민폐 엄마들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증폭되면서 사용 범위도 넓어졌다. 이제는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만 가도 '맘충 극혐'이라는 혐오 표현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다. 아예 '아이엄마 손님'과 '일반손님' 간 갈등이 커지면서 일부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만들고 어린이를 입장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도 '여성 혐오'를 부추긴다. M.net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4' 참가자 송민호는 랩배틀을 통해 산부인과를 여성들이 다리를 벌리는 곳으로 묘사해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블랙넛 역시 과거 발표한 높은 수위의 여성 비하 랩으로 문제가 됐다.

우리는 언제부터 '벌레'가 됐나

'맘충'을 비롯한 여성 혐오는 한국사회에서의 혐오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정 계층을 혐오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공감 · 동조하고 이견을 제시하면 이 역시도 멸시하는 악순환이 문화가 되고 있다.

혐오의 악순환은 '~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리를 타박하는 노인이나 의식 없는 어머니에 대한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을 벌레로 매도한다. 자신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여부는 상관이 없다. 눈에 거슬린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충'을 만들고 '극혐'이라는 수식을 단다. 말 그대로 극도로 혐오한다는 뜻이다. 젊은 층들에게는 혐오 표현은 유머이자 해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거나 진지하게 접근하면 이 역시도 '진지충'이라는 '극혐'의 대상 되어 버린다.

'극혐' · '~충' 등 혐오 표현 급속 확산
온라인부터 대중문화까지 '혐오' 고착
10~30대의 상태적 박탈감이 분노로
사회 약자 · 다른 가치에 무분별적 증오
한국도 '증오범죄방지법' 필요성 대두

문제는 '~충'에 대한 혐오가 단순히 표현에 그치지 않고 정치 · 사회 영역으로 확산된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문화 혐오인 '제노포비아'와 '노인충'으로 대표되는 노인 혐오다.

다문화 혐오는 다문화 정책 반대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안티다문화 인터넷 카페만 수십개이며, 총 회원은 수 만명에 달한다. 대표 안티다문화 카페인 '다문화정책반대'는 회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노동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카페 안에는 중국인을 '짜장', 파키스탄인을 '파퀴벌레'라고 비하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넘쳐난다.

노인혐오도 마찬가지다. 선거 이후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노인들에게 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부터 '경로 무임승차 없애라', '노인들은 신분증 검사도 거부한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이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는다. 혐오의 고착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속 '혐오', 세상으로 나오다

한국사회의 혐오 문화 중심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도 비슷한 사례다. 2009년 만들어진 일베는 현재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자신의 입지를 키워가고 있다. 일베의 게시물들은 지역 · 여성 · 진보진영에 대한 비하와 혐오로 점철돼 있다.

박가분이라는 필명을 쓰는 저자가 〈일베의 사상〉을 통해 지적했듯이 일베 이용자들은 여성, 지역 등의 혐오를 일종의 '문화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반말이나 시비조의 말투가 일상 문화로 이뤄지는 '상호 비존중의 원칙'으로 굴절돼 나타난다.

이에 대해 박가분은 "일베는 혐오문화를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 세계관, 상호 인정의 질서를 만들어낸 인터넷 커뮤니티"이라면서 "관리자 역시 그 점을 인식하면서 '의외성'의 재미 그리고 남고생들 특유의 '말초적'인 쾌감을 발견한다"고 비평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의 일베가 세월호 참사를 기폭제로 오프라인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단식투쟁에 맞서서 폭식투쟁을 한 것이다. 일베 유저의 폭식투쟁에 우익 계열 청년단체와 시민들이 연대했으며, 한 50대 사업가는 피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신은미 · 황선 콘서트에 한 고등학생이 사제 폭탄을 제작해 테러하는 사건에 일어나기도 했다. 일베 등 극우 단체들은 이 학생을 '열사'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분노 해방구 없는 한국사회

왜 한국사회는 '혐오'로 놀이를 하고 이를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사회학자 오찬호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를 보면 자신이 가르친 대학생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인서울= 정규직', '지방대= 비정규직'과 같은 차별의 등식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 계발 담론에 매몰된 20대에게 차별은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의 수단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 레이스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요소나 반사 이익을 받는 다문화, 여성, 노인 등에 계층에 대한 제거가 우선적인 생존본능으로 자리잡았다.

배려와 관용이 부족한 사회풍토도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장애인노동자 관련 법률 수와 타인에 대한 관용 · 외국인 비율 등으로 구성된 '관용사회지수'와 실업률 ·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 노령 고용률 · 도로사망률 · 건강지출비율 · 자살률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수의 순위는 31개국 중 31위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피해의식이 젊은 세대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배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존중 이런 것들이 이미 무한경쟁사회에서 사라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증오범죄방지법 대안될 수 있나

혐오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법적 제재 조치인 '증오범죄방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증오범죄방지법은 종교,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과 증오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경우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보수 개신교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사회도 증오범죄에 대한 경종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혐오 문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만당 스님은 "우리 사회는 이미 혐오와 차별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갈등의 골이 폭력적 폭발한 뒤에 바로 잡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한국 사회도 이 시점에서 조속히 증오범죄방지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도 부처님의 생명존중과 자비의 정신을 실생활에 구현하고 삶속에 체화시킬 수 있는 운동과 교육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혐오 문화는 불교계만으로는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모든 종교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발벗고 나설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성택 교수는 "입법 취지가 공적 영역에서의 증오 · 차별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 법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공간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을 다시 광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기성세대 역시 일방적 훈계가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 한 불 교 천 태 종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변춘광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지설혜
규정부장 이갈지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김형구

감사원
감사원장 김용암
감사위원 엄행주

종정사서실장 박덕수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 총장 한광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전화(043)423-7100 / 전송(043)420-7399 / www.cheontae.org

부처님은 혐오를 어떻게 대처했나

바른 말은 청정한 믿음을 주고 우리의 앎을 깊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넘쳐나고 있는 '혐오'라는 감정은 불교적으로는 '탐 · 진 · 치' 삼독심 중 분노로 해석할 수 있다. 분노가 혐오를 이끌고 언어를 통해 표출함으로서 구업(口業)을 짓는 구조이다. 부처님은 이 같은 분노의 연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초기 경전인 〈앙굿따라니까야〉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벗들이여,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으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성냄이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성냄이 더욱 많아지고 증대하는 것인가? 혐오스러운 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혐오스러운 인상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을 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성냄이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성냄이 더욱 많아지고 증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 이러한 조건으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성냄이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성냄이 더욱 많아지고 증대하는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 전재성 역〉

혐오의 감정이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을 하면 분노가 확산된다고 부처님은 말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혐오 문화 역시 특정 대상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방적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데에서 부처님의 교설을 되짚어봐야 한다.

부처님의 일생에 있어서도 탐 · 진 · 치 삼독심으로 인해 스스로 자멸한 인물은 많다. 그중 대표적 인물이 마간디야이다.

쿠루국의 한 바라문의 딸이었던 마간디야는 뛰어난 외모로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 자라 성품이 오만했다. 그런 딸에 어울릴 만한 멋진 남자를 찾기 위해 아버지는 노력했고, 하루는 거리에서 탁발을 하고 있던 부처님을 만난다. 아버지는 아름답게 장식한 마간디야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딸과 결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라고 해도 똥오줌으로 가득 차 있는 주머니"라고 일갈에 잘라 말했다. 부처님의 대답을 들은 마간디야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며 분노했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후 마간디야는 우데나왕의 왕비로 시집을 가게 되지만, 오만한 성격과 불같은 질투심은 그녀를 평온하게 두지 않았다.

제1왕비였던 사마와티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제거할 기회를 노렸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결국 어느 날 왕이 적국에 병난이 일어나 스스로 출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간디야는 숙부와 공모해 사마와티와 시녀들을 모두 한 방에 가두고 불에 태워 죽였다. 음모는 곧 발각됐고, 우데나왕은 마간디야의 숙부는 외국으로 추방하고, 마간디야는 땅속 굴에 유폐시켰다. 마간디야의 일화는 분노를 비롯한 삼독심이 어떻게 인간을 자멸시키는 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분노의 감정을 누르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엇을 해야할까. 부처님은 자애심을 강조하고 있다.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으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성냄이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성냄이 사라지는 것인가? 가애로운 마음에 의한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자애로운 마음에 의한 해탈에 대해서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탐욕이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성냄이 사라지는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 전재성 역〉

혐오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화이다. 올바른 대화 방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설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집착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이 대화의 목적이고, 대담의 목적이고, 관심의 목적이고, 귀를 기울임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설했다.

"분노로 가득 차 대화를 하네. 화를 내고 오만하고 고귀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네. 악담을 하고, 무례를 범하고 혼란스럽고, 상대를 짓밟는 것을 대화에서 서로가 즐겨하니 그것은 고귀하지 못한 것이네. 〈중략〉 집착없는 정신으로 화내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질투함이 없이 성급함이 없이 현자는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는 질투를 여읜 마음으로 올바른 앎을 말하네. 잘 말해진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 말해진 것이 있어도 비웃지 않네. 바른 말은 청정한 믿음을 주고 우리의 앎을 깊게 하네." 〈앙굿따라니까야, 전재성 역〉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혐오사회, 우리나라 만의 문제 아니다

증오범죄방지법 필요성과 외국 사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근대화에 실패하면서 식민지를 경험하였고, 해방이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져 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침으로 인하여 전쟁의 아픔도 겪었다. 그 이후에도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민주화를 위한 많은 희생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 굴곡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분쟁과 갈등이 양산되었다. 남북의 분단은 좌우의 대립과 이념적 갈등을 촉발하였고, 정치적 불안정 및 권위정부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역감정이 발생하였으며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나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갈등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면서 유발된 종교적 갈등이나,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인종적 갈등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런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오나 혐오하는 현상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어떤 사회이든 인간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분쟁이나 갈등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해결한다. 분쟁이나 갈등은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의 자율적 기능을 통하여 해소되기도 한다. 물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더구나 사회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될수록 구성원의 요구는 복잡해지고 증가하게 되며,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는 신장되었지만, 이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되었다. 오랜 기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었고, 소위 떼법과 국민정서법이 국가의 실정법을 부정하면서 법치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준법정신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0년대 후반의 미국산 쇠고기협상으로 인한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해소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은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장소를 찾지 못하여 한동안 애를 먹었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폐장, 밀양송전탑, 청성산터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에서 볼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는 실정법이 구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민은 국가공권력을 불신하여 꺼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와 다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SNS를 통하여 손쉽게 견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혐오범죄나 증오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201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상정됐으나 보수 개신교의 집요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다른 가치와 존재에 대한 증오 · 혐오
미국 등에서는 증오범죄로 간주해
美 1969년 法 제정… 최대 사형까지
싱가포르 종교에 대한 증오는 징역형
韓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했으나 무산

사회갈등으로 인한 증오가 범죄화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민족이 유입되면서 인종적 · 민족적 갈등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종교로 인한 종교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런 갈등은 증오범죄로 이어지면서 미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소위 증오범죄는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성, 동성애 등 자신과 다른 집단의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유 없이 차별행위나 학대행위를 하는 범죄로 잔혹성과 집단성의 특성을 가진다. 증오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미국은 1969년 연방증오범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증오방지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서는 벌금형 및 1년 이내 구금, 총기 등 무기사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징역, 납치 · 성폭행 · 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형 또는 사형 등을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싱가포르는 1990년 종교화합유지법을 제정하여 종교적 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다른 종교단체에 대한 적대감, 증오, 악의, 또는 적개심을 일으키는 자와 이를 종교단체나 기관을 선동하거나 부추기거나 장려하는 자에 대하여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함께 적용하여 처벌한다. 그리고 재범자에게는 2만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함께 적용한다.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도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의 예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법의 제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세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정치적 ·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종교적 갈등이나 민족적 갈등 그리고 문화적 갈등 등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반복 · 심화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로 변하는 양상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찬반으로 가르는 흑백논리나 적아로 구분하여 편을 가르는 진영논리 등이 독선과 편견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생각이나 행동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의 수준을 보려면 교통질서상황을 보면 된다고도 한다. 도로상황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은 수시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다보니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여 다른 방향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으로 끼어들기를 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경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더구나 난폭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급기야 정부는 다른 운전자를 도로주행에서 위협하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성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감성에 호소하여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 대화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고, 그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수에 승복하고 소수를 존중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갈등의 해소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신뢰해야 한다.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공감 · 배려의 성찰… 혐오사회 극복 '응급약'

혐오 사회 극복 어떻게?



만당 스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종교 혐오, 종교 목적 몰이해로 발생
한국 사회 內 혐오 · 차별 심각한 수준
증오범죄 인식 개선할 法 제정 필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종교 갈등에 정부 · 사법부는 뒷짐만
훼불 등 증오범죄는 반사회적 행위
공존위해 증오방지범죄법 제정돼야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미움과 혐오는 나에게 돌아온다
자존감 낮아진 젊은이들과 대화를
자학 문화, 자기 존중으로 이끌어야

한국 사회에서 '혐오' 라는 말은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혐오 문화의 중심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에는 김치녀 · 보슬아치(한국 여성 비하), 홍어(전라도 비하), 좌빨좀비(진보 진영 비하) 등의 혐오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고 이는 온라인 상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혐오, 경쟁사회가 만든 괴물

전문가들은 혐오 문화의 확산이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혐오 현상은 단순히 가해자의 일방적 억압, 분노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상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면서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서 현재 젊은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피해의식이 젊은 세대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존중 등이 이미 무한경쟁사회에서 사라지게 됐다"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도 안되고 연애 · 결혼도 못하는 현실에서 누구를 배려할 수 있겠니"라고 지적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혐오는 폭력 현상임을 분명히 하며 그 원인을 사회 구조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택 교수는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고 이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상당하다. 분노로 인한 공격 대상을 사회 구조가 아닌 자신보다 하위 계층에서 찾는다"면서 "지적과 비판이 아닌 일방적인 증오는 소통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일베 등에서 이뤄지는 혐오는 자폐적인 폭력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가부장제와 양성평등 사이에서

최근 여성혐오가 문제되고 있지만 여성계에서 여성 차별과 혐오는 낯선 용어가 아니다.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같이 여성혐오의 역사는 깊기 때문이다. 옥복연 소장은 현재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년 전만해도 군가산점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등 여성운동이 활발해졌고 남녀차별금지법, 성폭행예방법 등이 잇달아 제정됐다. 서구사회에서 1백여 년에 걸쳐 이뤄낸 성과를 10년만에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들에게 한국 여성은 그냥 '김치녀' 다. 일베 등에서 돌아다니는 김치녀에 대한 담론은 주로 연애관계에서 나온다. '데이트 비용을 왜 전부 남자가 내느냐' , '결혼할 때 집을 왜 남성이 사야 하는가' 등에 대한 비판들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남성들은 호응한다.

옥복연 소장은 "공적인 부분에서 여자에게 피해를 보는데 사적인 부분마저도 여자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노가 젊은 남성들에게 많다"면서 "남아사상으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과 무한 경쟁의 사회구조 등 모든 것들이 여성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시 된 모성까지 여성 혐오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는 게 옥복연 소장의 주장이다.

옥복연 소장은 "6.25가 끝난 후 남편이 없어도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강인한 모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오늘날 엄마의 모습은 로드매니저에 가깝다"면서 "젊은 세대가 '헬조선' 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기성세대도 뒤돌아봐야 한다. 너무 물질 중심적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는 여성과 남성, 젊은이와 노인 등 모든 세대가 모인다. 특히 불교는 자비희사의 종교인만큼 일단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듬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가 먼저 '다문화' 를 품자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현상인 '제노포비아' 도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 안티 다문화 카페를 살펴보면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한국 서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파다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불교국가에서 왔지만, 불자들의 인식은 다문화에 포용적이지 않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4년 설문조사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불교계가 3대 종교 중 낮은 응답률(39%)를 보였고, 가까이하고 싶지 않다는 질문에도 가장 높은 응답률(12%)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모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으로 이방인을 차별한다면, 우리 역시 타국에서 차별받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런 만큼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노포비아' 와 같은 외국인 혐오는 공멸의 길을 걷게하는 것이라고 무원 스님은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교계가 먼저 다가가 동체대비 사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무원 스님은 "서울 명락사 주지 당시 '다문화 사찰' 을 표방하고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쉴 곳을 만들고 관련 행사도 많이 했다"면서 "사찰에도 다문화인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훼불은 끊이지 않을까

종교에 대한 혐오도 한국 사회에 이뤄지는 현상이다. 특히 이웃종교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뿌리는 깊다. 이는 최근까지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땅밟기 등의 훼불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종교로 인한 전쟁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으나, 그에 못지않은 종교 갈등으로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면서 "특히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불교계 공격은 도를 넘어 사회의 지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보다 더 근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행태를 수십 년 간 지속해온 데는, 국민들이 종교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방치해온 잘못 또한 크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만당 스님은 종교 혐오는 종교의 근본 목적을 잘못 알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종교의 근본 목적 가치는 사람의 존귀함을 일깨우고, 사람들의 근심 걱정 불안 번뇌망상을 소멸하여 참으로 행복하고 안락하게 하는 데 있다"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맹신주의적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종교를 목적에 두고, 사람을 종교를 위한 수단화해서 차별과 증오, 혐오를 키워 왔다"고 주장했다.

이제 증오범죄방지법이 필요하다

박광서 대표는 종교로 인한 차별이나 증오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 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증오범죄에 대해 더 이상 개개인의 양심과 상식에 맡기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박광서 대표는 "불상, 불화 훼손 등에 '재산손괴죄' 로 사찰 땅밟기에는 '주거침입죄' 로 다루는 것은 부족하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공존의 원리를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생의 원리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앞장서서 증오범죄방지를 위한 법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에서처럼 증오범죄를 타인의 인격권과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보아 좀 더 강력하고 정교한 형사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만당 스님 역시 "우리 사회는 이미 혐오와 차별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갈등의 골이 폭력적으로 터진 뒤에 그 때 가서 잡으려고 해서는 늦는다"면서 "서구 국가들도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미연에 막기 위해서 증오범죄방지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증오범죄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와라. 이야기를 하자

전문가들은 증오범죄방지법 제정 이외에도 사회 구조적 개선과 젊은 세대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끊임없는 대화와 경청이 자학의 문화를 자기긍정의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우리 사회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미움과 혐오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면서 "극단은 극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분노의 불을 자비의 물로 끄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는 청년 세대들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공업의 공동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자존감이 낮아진 젊은 세대의 자학 문화를 자기긍정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택 교수는 "법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공간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을 다시 광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기성세대 역시 일방적 훈계가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당 스님은 "혐오와 차별의 확산은 현실의 무력감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불만의 왜곡된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불교계는 부처님의 생명존중과 자비의 정신을 실생활에 구현하고 삶속에 체화시킬 수 있는 운동과 교육활동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무원 스님
천태종 삼광사 주지

글로벌 시대, 외국인 혐오는 공멸의 길
'易地思之' 의 마음으로 넓게 사고해야
사찰에도 다문화를 위한 공간 만들어야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혐오는 소통 無… 자폐적 폭력 현상
불확실한 미래, 젊은이들 분노 표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 필요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혐오 문화, 무한 경쟁 사회서 기인
'맘충' 나온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불교가 전 세대 공론의 장 만들자

힐링사찰 삼광사가 자비희사로 중생들을 마음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삼광사 신도회 창립 46주년 **기념대법회**
불기2559(2015)년 11월 1일(일) 오전 10시 삼광사 지관전
주최 천태종 삼광사 | 주관 천태종 삼광사 신도회 | 후원 대한불교 천태종

선율로 소통하는 계층화합 **천태예술제**
불기2559(2015)년 10월 31일(일) 오후 7시 삼광사 마당
주최 대한불교 천태종 | 주관 천태종 삼광사 | 후원 천태종 삼광사 신도회



삼광사에서 봉행하는 법회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법 회	날 짜	시 간	장 소
정 기 법 회	매월 1일, 2일	오전 10시	지 관 전
간 부 법 회	매월 25일	오전 10시30분	지 관 전
새 신 도 법 회	매월 2·4 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문 화 실
대자비실버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문 화 실
청소년인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소년단실
법 우 회 법 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소년단실
청 년 회 법 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문 화 실
외 국 인 법 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문 화 실

• 주 지 김 무 원 스님
• 총 무 박도선 스님
• 교 무 허자룡 스님
• 재 무 손형선 스님
• 노 전 정회명 스님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051)808-7111~6 FAX.(051)803-1332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붓다선을 수행하라

세계승가회는 "출생을 묻지 말고 다만 그 행을 물어라"라는
평등무차 가르침에 따라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붓다수행법 공개특강 : 매월 첫 째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 견불선원(분당선 태평역 2번출구에서 750m 직진. 070-7717-2276)

마하 상가라자 **뿐냐싼또.** 총 재 **수밋다**
회 장 **수완나(光越禪師)** 승왕비서실장 **싯달라**
의전국장 **설원** 연수국장 **태현** 복지국장 **능공**
문화국장 **도원** 상담국장 **임덕** 포교국장 **여원**

세 계 승 가 회
(www.worldsangha.org)

쉽고 친숙한 불교 진화 '절실'

설렘으로 가득한 스무 살을 지나, 번뜩 떠오른 진로 고민으로 눈앞이 막막한 21살. '다포세대'라 불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심(佛心)으로 우뚝 선 청년 불자들은 꿈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21살 청년들의 바람을 들었다.

신성민 · 노덕현 · 박아름 기자

21살 청년들이 말하는 한국불교

"불교, '친구 손잡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혜정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스님이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왔으면"
김경민 동국대 불교학과

"모심기하며 생긴 불심, 생태 전문가 꿈 키워"
유인재 동아대 철학윤리문화학과

"상담전문가의 꿈, 불교가 큰 힘"
이강빈 5사단 일병

"불교는 '학문의 집합체'라 생각합니다"
장성주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고3때 받은 위안으로 불교신자가 됐죠."
김지연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한혜정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불교종립학교인 동국대여자부속여자중 · 고등학교에 진학해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불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은 '청소년 포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혜정(21 · 여)씨에게 학창시절 불교학생회 활동 경험은 하나의 '전환점'이다. 친구들과 함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여름 캠프, 템플스테이 등 참여하며 청소년 포교에 관심가지기 시작했다. 같은 종교를 가진 또래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커서 청소년 불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나란다축제(은정불교문화진흥원 주최) 교리경시대회 참가하려고 공부한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교리라고 해서 지겨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재밌었고, 그래서 불교를 전공하게된 것 같습니다."

한혜정씨는 현재 동서심리과학연구원 경북지부 우리얼문화포럼에서 심리상담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서 교직이수를 준비하면서 훗날 교법사로서 청소년 포교 일선에 뛰어들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공부중인 심리상담사자격증이 대학원생 과정이라 어렵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법사는 물론이고 청소년 포교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학 복수전공도 계획하고 있어요. 불교를 '친구 손잡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김경민 동국대 불교학과

"종립대학을 다니다보니 저는 스님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경민(21 · 여)씨는 한국불교에게 바라는 점으로 '대중화'를 꼽았다. 일반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교는 아직도 어려운 옛것이고 다가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찰=스님'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해요. 수행자로서 근엄한 위의를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는 것도 스님들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20대의 '취향 저격' 포교 프로그램이나 문화 행사들을 불교계에서 개발해주길 바랍니다."

부산 출생인 김경민 학생이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게 된 것도 어릴 적 영향이 크다. 어머니를 따라 김해 대법륜사를 다니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차담을 하며 불교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대학 전공으로 불교를 선택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신행'으로서 불교와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막상 불교학을 접하니 꽤 어렵네요. 최근에는 인도철학이나 종교학 등 관심 있는 분야가 조금 변하기도 했습니다. 1학년 때 들었던 마가 스님의 '부처님 사랑해요' 수업도 재미있었습니다. 명상 등을 직접 해보면서 즐겁게 불교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이면 대학 생활의 반환점을 도는 김경민 학생은 요즘 고민이 많다. 불교 전공자로서 가지는 취업, 진로 문제가 주된 고민의 요소다. 3학년을 마치고 1년 휴학도 고려해보고 있다. 어학 등 자기 계발에 매진하기 위해서다.

"학교와 학과에서 취업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과연 불교 전공자로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근 들어 고민하게 됩니다. 불교와 철학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실용학문'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럼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재 동아대 철학윤리문화학과

"전 사실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가 하는 생명평화실천단 1기로서 모심기, 템플스테이 등 활동하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동아대에 재학 중인 유인재(21 · 남)씨는 없어졌던 불교학생회를 다시 살리고 부회장을 맡아 신입생을 유치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유 씨조차 처음에는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유 씨는 "생태 · 환경에는 관심이 있었기에 생명평화운동을 하며 불교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봉사활동을 위해 '파라미타'에 가입해 회장을 맡으며 더욱 신심이 깊어졌다"고 소개했다.

유 씨의 경우 생명평화 실천운동을 하며 교육감 상을 받고, 파라미타 활동 당시에는 선운사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유 씨는 "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을 권유할 때 단순히 불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저와 같이 자신이 꿈을 꾸는 방향에 불교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저의 경우는 현재 불교철학과 생명윤리, 환경을 공부하는데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해 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이법회 · 동아리 등 불심 키워
캠프 등 참여하며 인맥도 UP
"'취향저격' 문화콘텐츠 개발해야"

유 씨는 N포세대라 불리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준비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있으며, 불교는 이들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교리를 알려주고 법문을 들려주는 것보다는 명상과 힐링법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불교가 고등학교, 대학생 포교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강빈 5사단 일병

5사단 광복 통일사에서 현재 군종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빈 씨(21 · 남)는 군대에 와서 불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제대 후 심리상담 전문가의 꿈을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다 군에 입대한 이 씨는 평소에 듣는 법문 속에서 심리상담의 이치가 담겨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매주 법당에서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힘든 군 생활을 어루만지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대 후에는 학업을 열심히 하여 대학원에도 진학할 생각입니다.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씨는 군부대에서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열심히 군복무 중인 동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 후나 복학 후, 또 취업 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 또한 이런 걱정들이 많았지만 불교를 알게 되고 걱정을 덜하게 됐다. 군대 내에서도 많은 장병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씨와 같은 청년 불자들에게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씨는 불교가 청년 불자들에게 열린 종교가 되고, 이를 통해 불교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년들이 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알고 보면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전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감성을 다독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이 수천 년이 지나도 쓰이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불교를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이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논리적이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주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장성주(21 · 여)씨는 요즘 불교 공부에 푹 빠져있다. 유년 시절 어린이 법회에 다니며 막연하게 배웠던 불교 교리를 대학 진학 후 깊이 있게 공부하며 재미를 찾은 것이다. 1학년 때는 학문으로서 불교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 전과나 복수전공 등 고려했지만 현재는 불교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불교를 공부하면 확실히 얻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여타 전공수업처럼 활자를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닌 마음공부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종교 그 이상의 철학 · 심리학 · 역사학적 요소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집합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불교를 공부하면 모든 학문들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장성주씨가 이번 학기 가장 흥미롭게 듣고 있는 수업은 '생태학과 불교'이다.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배우며 불교의 상호관계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로 어우러져 있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해치고, 파괴된 자연은 또 다시 인간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러한 불교학적 생태계 순환구조를 배워가며 부처님의 연기(緣起)법와 윤회사상을 깨닫습니다."

불교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싶다는 장성주씨에게는 하나의 바람이 있다. 대만 불광산사 1967년 성운대사가 설립한 불광산사는 대만불교의 총본산으로, 산 전체가 불교문화 단지로 조성되어있다. 장성주씨는 "불광산사는 불교를 현대인들에 맞게 응용해서 명상, 수행 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학문적 견해를 넓히고 싶다"고 전했다.

▲김지연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연(21 · 여)씨는 고등학생 때 까지만 해도 불교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학생이었다.

김지연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책을 읽었는데 우연히 읽은 불교 에세이집에서 위안을 얻었다"며 "낯가림이 심해 대학에 들어온 후 대외활동을 하고 싶어 연희단 활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불교활동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씨는 현재 대불련 문화부 소속으로 덕성여대 동아리에서 1주일에 한번 씩 법회를 주관하고 영캠프 등 대학생 불자모임에서 공연을 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씨는 불교계 활동을 하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다.

"선후배들과 소통하며 특히 대인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출판 쪽으로 진로를 생각했는데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얘기도 하며 문화계 쪽으로도 진로를 변경할 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활동을 하며 공연 기획 등을 하는 것도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지연씨는 불교 안의 '재미'를 살려야 젊은 불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사실 '불교' 하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게 있다"며 "굳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김 씨는 "불교를 쉽게 접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스스로 '아, 이것이 불교구나' 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한다. 이런 흥미부터 생겨야 공부도 하게 된다"며 "좀 더 친숙한 종교로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선으로 가는 길 (대,소)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

쉽고 친숙한 불교 진화 '절실'

설렘으로 가득한 스무 살을 지나, 번뜩 떠오른 진로 고민으로 눈앞이 막막한 21살. '다포세대'라 불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심(佛心)으로 우뚝 선 청년 불자들은 꿈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21살 청년들의 바람을 들었다.

신성민 · 노덕현 · 박아름 기자

21살 청년들이 말하는 한국불교

"불교, '친구 손잡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혜정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스님이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왔으면"
김경민 동국대 불교학과

"모심기하며 생긴 불심, 생태 전문가 꿈 키워"
유인재 동아대 철학윤리문화학과

"상담전문가의 꿈, 불교가 큰 힘"
이강빈 5사단 일병

"불교는 '학문의 집합체'라 생각합니다"
장성주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고3때 받은 위안으로 불교신자가 됐죠."
김지연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한혜정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불교종립학교인 동국대여자부속여자중 · 고등학교에 진학해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불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은 '청소년 포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혜정(21 · 여)씨에게 학창시절 불교학생회 활동 경험은 하나의 '전환점'이다. 친구들과 함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여름 캠프, 템플스테이 등 참여하며 청소년 포교에 관심가지기 시작했다. 같은 종교를 가진 또래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커서 청소년 불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나란다축제(은정불교문화진흥원 주최) 교리경시대회 참가하려고 공부한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교리라고 해서 지겨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재밌었고, 그래서 불교를 전공하게된 것 같습니다."

한혜정씨는 현재 동서심리과학연구원 경북지부 우리얼문화포럼에서 심리상담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서 교직이수를 준비하면서 훗날 교법사로서 청소년 포교 일선에 뛰어들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공부중인 심리상담사자격증이 대학원생 과정이라 어렵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법사는 물론이고 청소년 포교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학 복수전공도 계획하고 있어요. 불교를 '친구 손잡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김경민 동국대 불교학과

"종립대학을 다니다보니 저는 스님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경민(21 · 여)씨는 한국불교에게 바라는 점으로 '대중화'를 꼽았다. 일반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교는 아직도 어려운 옛것이고 다가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찰=스님'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해요. 수행자로서 근엄한 위의를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는 것도 스님들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20대의 '취향 저격' 포교 프로그램이나 문화 행사들을 불교계에서 개발해주길 바랍니다."

부산 출생인 김경민 학생이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게 된 것도 어릴 적 영향이 크다. 어머니를 따라 김해 대법륜사를 다니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차담을 하며 불교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대학 전공으로 불교를 선택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신행'으로서 불교와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막상 불교학을 접하니 꽤 어렵네요. 최근에는 인도철학이나 종교학 등 관심 있는 분야가 조금 변하기도 했습니다. 1학년 때 들었던 마가 스님의 '부처님 사랑해요' 수업도 재미있었습니다. 명상 등을 직접 해보면서 즐겁게 불교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이면 대학 생활의 반환점을 도는 김경민 학생은 요즘 고민이 많다. 불교 전공자로서 가지는 취업, 진로 문제가 주된 고민의 요소다. 3학년을 마치고 1년 휴학도 고려해보고 있다. 어학 등 자기 계발에 매진하기 위해서다.

"학교와 학과에서 취업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과연 불교 전공자로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근 들어 고민하게 됩니다. 불교와 철학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실용학문'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럼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재 동아대 철학윤리문화학과

"전 사실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가 하는 생명평화실천단 1기로서 모심기, 템플스테이 등 활동하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동아대에 재학 중인 유인재(21 · 남)씨는 없어졌던 불교학생회를 다시 살리고 부회장을 맡아 신입생을 유치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유 씨조차 처음에는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유 씨는 "생태 · 환경에는 관심이 있었기에 생명평화운동을 하며 불교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봉사활동을 위해 '파라미타'에 가입해 회장을 맡으며 더욱 신심이 깊어졌다"고 소개했다.

유 씨의 경우 생명평화 실천운동을 하며 교육감 상을 받고, 파라미타 활동 당시에는 선운사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유 씨는 "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을 권유할 때 단순히 불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저와 같이 자신이 꿈을 꾸는 방향에 불교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저의 경우는 현재 불교철학과 생명윤리, 환경을 공부하는데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해 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이법회 · 동아리 등 불심 키워
캠프 등 참여하며 인맥도 UP
"'취향저격' 문화콘텐츠 개발해야"

유 씨는 N포세대라 불리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준비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있으며, 불교는 이들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교리를 알려주고 법문을 들려주는 것보다는 명상과 힐링법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불교가 고등학교, 대학생 포교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강빈 5사단 일병

5사단 광복 통일사에서 현재 군종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빈 씨(21 · 남)는 군대에 와서 불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제대 후 심리상담 전문가의 꿈을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다 군에 입대한 이 씨는 평소에 듣는 법문 속에서 심리상담의 이치가 담겨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매주 법당에서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힘든 군 생활을 어루만지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대 후에는 학업을 열심히 하여 대학원에도 진학할 생각입니다.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씨는 군부대에서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열심히 군복무 중인 동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 후나 복학 후, 또 취업 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 또한 이런 걱정들이 많았지만 불교를 알게 되고 걱정을 덜하게 됐다. 군대 내에서도 많은 장병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씨와 같은 청년 불자들에게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씨는 불교가 청년 불자들에게 열린 종교가 되고, 이를 통해 불교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년들이 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알고 보면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전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감성을 다독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이 수천 년이 지나도 쓰이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불교를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이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논리적이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주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장성주(21 · 여)씨는 요즘 불교 공부에 푹 빠져있다. 유년 시절 어린이 법회에 다니며 막연하게 배웠던 불교 교리를 대학 진학 후 깊이 있게 공부하며 재미를 찾은 것이다. 1학년 때는 학문으로서 불교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 전과나 복수전공 등 고려했지만 현재는 불교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불교를 공부하면 확실히 얻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여타 전공수업처럼 활자를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닌 마음공부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종교 그 이상의 철학 · 심리학 · 역사학적 요소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집합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불교를 공부하면 모든 학문들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장성주씨가 이번 학기 가장 흥미롭게 듣고 있는 수업은 '생태학과 불교'이다.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배우며 불교의 상호관계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로 어우러져 있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해치고, 파괴된 자연은 또 다시 인간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러한 불교학적 생태계 순환구조를 배워가며 부처님의 연기(緣起)법와 윤회사상을 깨닫습니다."

불교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싶다는 장성주씨에게는 하나의 바람이 있다. 대만 불광산사 1967년 성운대사가 설립한 불광산사는 대만불교의 총본산으로, 산 전체가 불교문화 단지로 조성되어있다. 장성주씨는 "불광산사는 불교를 현대인들에 맞게 응용해서 명상, 수행 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학문적 견해를 넓히고 싶다"고 전했다.

▲김지연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연(21 · 여)씨는 고등학생 때 까지만 해도 불교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학생이었다.

김지연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책을 읽었는데 우연히 읽은 불교 에세이집에서 위안을 얻었다"며 "낯가림이 심해 대학에 들어온 후 대외활동을 하고 싶어 연희단 활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불교활동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씨는 현재 대불련 문화부 소속으로 덕성여대 동아리에서 1주일에 한번 씩 법회를 주관하고 영캠프 등 대학생 불자모임에서 공연을 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씨는 불교계 활동을 하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다.

"선후배들과 소통하며 특히 대인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출판 쪽으로 진로를 생각했는데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얘기도 하며 문화계 쪽으로도 진로를 변경할 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활동을 하며 공연 기획 등을 하는 것도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지연씨는 불교 안의 '재미'를 살려야 젊은 불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사실 '불교' 하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게 있다"며 "굳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김 씨는 "불교를 쉽게 접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스스로 '아, 이것이 불교구나' 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한다. 이런 흥미부터 생겨야 공부도 하게 된다"며 "좀 더 친숙한 종교로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선으로 가는 길 (대,소)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

“매일 숨막히는 생활 ‘산지기 외딴집’을 찾자”



샛별의 선물

윤후명(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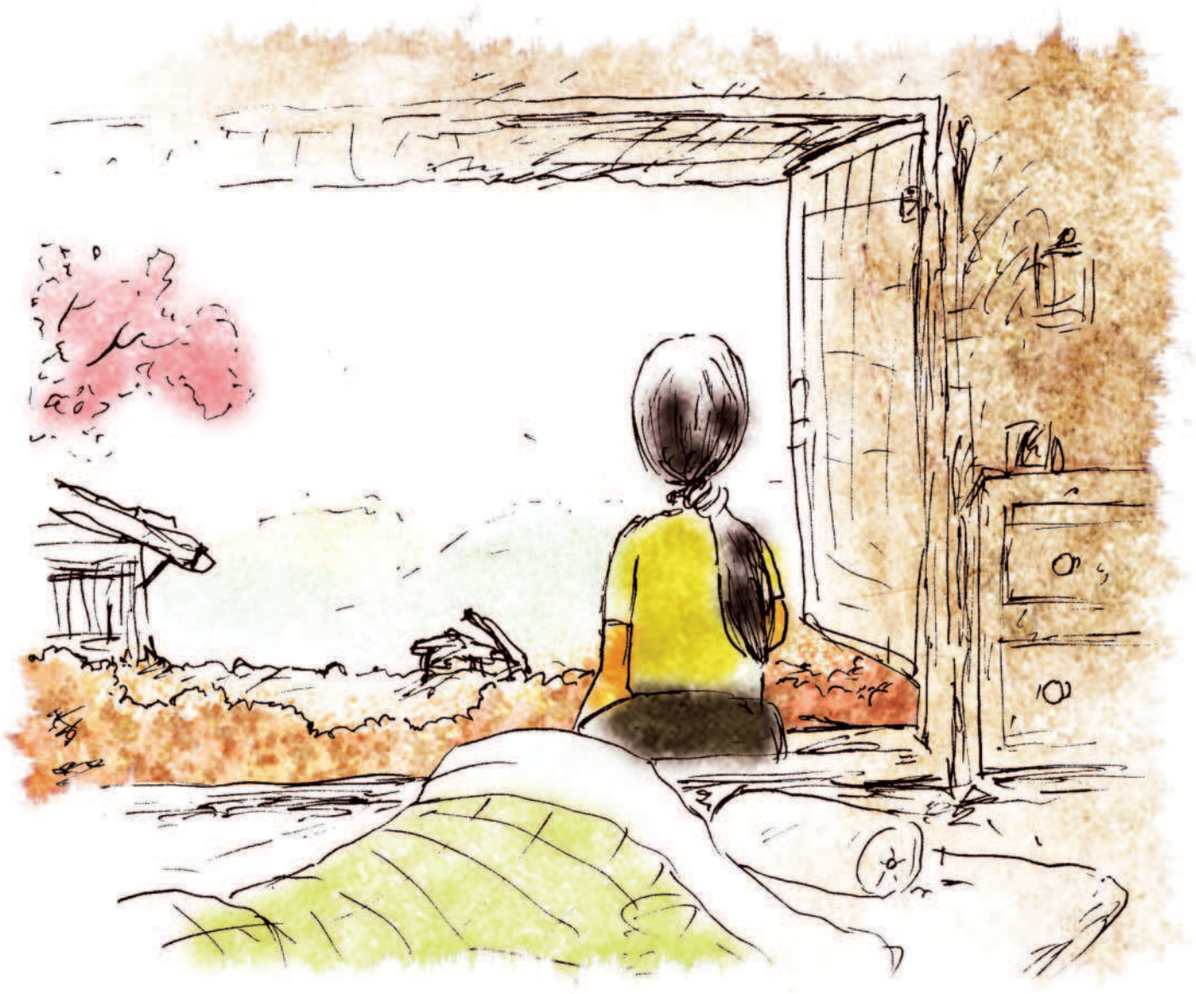


그림 · 김병호

우리는 외딴 봉우리를 지나고 다시 또 다른 외딴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외딴 봉우리라고 했지만 나지막한 언덕이라고 해도 그만이었다. 때를 맞추어 와서 가끔 송홧가루가 날리기도 했다.

“저것이 혹시 산지기 집?”

아저씨는 기대에 차서 말했다. 이 ‘아저씨’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꽤 많은 글을 써야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살다가 남북이 갈리는 통에 서울에 남아 우리 집에 출입하게 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아닌 남이었다. 그러나 일가붙이가 워낙 없었던 터에 마을 사람조차 거의 없었던 터라 우리 집에 살다시피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일본 유학도 했다 하는 ‘인테리’로서 내게 여러 가지 지식을 불어넣어주기도 했다.

그가 내게 시를 읽어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중국의 이태백이나 일본의 마츠오 바쇼의 이름을 몇 번 듣기는 했었다. 이것은 아버지도 그랬으므로 두 사람은 아마도 같은 교육을 받자 않았나 생각되었다.

그가 가르키는 곳을 자세히 살피니, 아닌게 아니라 언덕 아래 흙으로 지은 작은 집이 눈에 들어왔다.

“저게 산지기 외딴 집일까요?”

작은 집이라 해도 반쯤은 허물어진 채였으나 나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누군가로부터 언덕을 넘으면 웬 흙집이 있다는 말에 찾아온 것이었다. 요새도 그런 풍경이 있다는 사실만이 신기할 뿐이었다. 나는 그런 풍경을 본 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되었다. 마치 과거에 도착한 듯하기만 했다.

“암. 이제야, 이제야 성공.”

아저씨는 짧게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송홧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1946년에 태어난 나는 1967년에 시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스물 한 살에 시인이 된 것이다. 〈현대불교〉로부터 창간 21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써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뜸 그러겠다고 받아들인 건 그런 배경이 먼저 다가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21세의 내 출발을 21주년의 신문과 함께 놓고 본 것일까. 그것을 같은 운명으로 본 것일까. 아무튼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어도 여기에는 스물 한 살의 어린, 젊은 시인이 있다. 그는 아마도 앞으로 50년 가까이 시를 쓰며 시인으로서 삶을 굳건히 일구어나갈 것이다. 나는 그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어야 한다.

시인이 된 그해 봄에 나는 아저씨로부터 좀 유별난 제의를 받았다. 내가 시인이 되자 당선작을 처음 읽어준 것이 그무렵 집에 와 있던 ‘아저씨’였다. 내가 시인이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뜻밖에 우리나라 박목월 시인의 이름과 시 〈윤사월〉이 그의 입에서 나왔으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 시는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였다. 그러나 그가 우리 교과서를 읽을 나이는 아니었다. 어디서 그 시를 읽고 알았을까 나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물을 계제가 아니어서 나는 듣고만 있었다.

“외딴 봉우리, 산지기 외딴 집이라….”

그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 눈빛이 아련해졌다. 나는 왜 그러냐고 묻고 싶었지만 웬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외딴 봉우리야 산악국가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을 것이었다. 그러나 산지기라는 게 아직 있을까는 나로서도 아리송했다. 나도 한때는 산지기라는 직업이 있다면 그렇게 산속에 묻혀 살고 싶기도 했다.

이렇게 그가 내 당선작을 읽고 〈윤사월〉을 이야기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되었고, 소나무가 꽃을 피워 송홧가루 보얗게 날렸다. 그런 어느날 집에 온 그는 느닷없이 내게 제안했던 것이다.

“산지기 외딴 집을 찾아보자구.”

“네?”

정말 무슨 말일까 싶었다. 그러자 나도 어디론가 그런 풍경을 찾아 떠나고 싶다는 열망이 불현듯 솟구쳤다. 하루하루 옛 모습을 잃어가는 풍경에 섭섭함이 지나쳐 걱정이 들던 참이었다.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는데, 늘 눌러앉아 지지부진한 일상을 살고 있는 내가 답답했다.

“매일 숨막히는 생활이란 말야.”

그의 말은 내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세상이 더 변하기 전에 가봐야 해.”

그의 말은 나를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하기에 충분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곧 준비해서 집을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가 이끄는 대로 지방의 소나무 우거진 ‘외딴 봉우리’를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오랜 준비를 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흙집에 다가간 우리는 간단하게 챙겨온 야영도구를 그 안에 설치하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간 행운이 아니었다. 흙집이 반쯤 허물어졌다고 했는데, 한쪽은 제법 든든하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싶었다. ‘눈먼 처녀’가 과연 있어서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밝힐 수도, 밝힐 필요도 없었다. 그런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그만이었다. 예전에 방이 없어서 오늘은 어디서 보낼까 걱정해본 사람만이 그 집의 가치를 알 것이었다. 방이 없는 사람은 바닷가의 소라게조차 부럽기 그지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이다. 한 편의 시를 써서 비로소 시인의 이름표를 단 사람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를 노래하면서도 목이 멘다.

우리는 준비해온 빵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흙집 안에 누웠다. 왜 내가 그러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또한 왜 내가 그러고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했다. 그 ‘밤으로의 여로(旅路)’야말로 내가 바라던 행로였다. 그가 아니었으면 그 이상한 여행은 없었을 것이며, 나는 인생의 중요한 하룻밤을 놓쳤을 것이었다. 이 또한 그해 내 21세의 시인됨의 뜻이었다. 나는 그것을 그의 선물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는 그렇게 내게 ‘외딴 봉우리’를 선물해주었다. 더군다나 나는 그날 밤 잠깐 잠을 깨어 하늘의 별빛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 있다. 그무렵 열심히 읽은 어느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하고 노트에 옮겨놓은 구절에는 그날의 별빛이 빛나고 있다고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별빛을 간직하는 방법을 배웠다.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상한 여행은 끝났다. 그러나 이 글은 ‘꽁트’로 청탁받아 쓰고 있으므로 이제 ‘반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나는 반전을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리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른 새벽, 즉 여명의 때라고나 할까, 그때 깨어나 샛별이 어디에 있는지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내 앞에 나타난 사내의 이야기는 빠트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하늘이 희붐히 동터오는 그때까지 눈에 띠게 크게 빛나는 별이 있다면 그게 샛별이라고 했다. 아직 곯아떨어져 있는 아저씨 옆에서 일어나 살그머니 밖으로 나온 나는 과연 샛별이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걸 보았다.

“아.”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러자 웬 사내가 이미 내 곁에 다가와 있었다.

“누구십니까?”

내가 묻는 순간 그도 비슷하게 묻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뚫어져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산지기 외딴 집’을 찾아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듣고만 있던 그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듯 눈을 꿈벅이더니 ‘이 집은 ‘산지기 외딴 집’이 아니라 ‘상엿집’이라고 했다. 마을의 상여를 넣어두었다가 혹시 쓸 일이 생기면 꺼내 쓰기 위해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의 개발과 함께 상여도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 집이…”

전혀 모르던 시골의 풍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과 같은 집에 기어들어가 하룻밤을 묵은 셈이었다. 상여가 시골길을 가던 풍경을 본 지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걸 넣어두던 상엿집….

그러고 보면 새벽에 나타난 그 사내가 진짜 산지기였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 있는 듯해서 그는 일부러 와보았노라고 밝혔던 것이다. 그의 등장은 〈윤사월〉에 나옴 직한 모습과는 연결은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찾던 ‘외딴 집’은 아니었을지언정, 그러나 그 여행의 모든 것, 그 흙집, 그 별빛, 모두가 하나같이 내게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아저씨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어도 내게 그토록 소중한 선물을 남겼다.

그와 함께 나는 최근에 읽은 〈아함경〉을 펼친다. 문득 다음과 같은 글이 눈에 들어온다.

샛별이 나타날 때 부처는 태어나셨고
샛별이 나타날 때 숲속 고행을 벗어났으며
샛별이 나타날 때 가장 높은 도를 얻었고
샛별이 나타날 때 니르바나에 드셨다.

〈장아함2 유행경〉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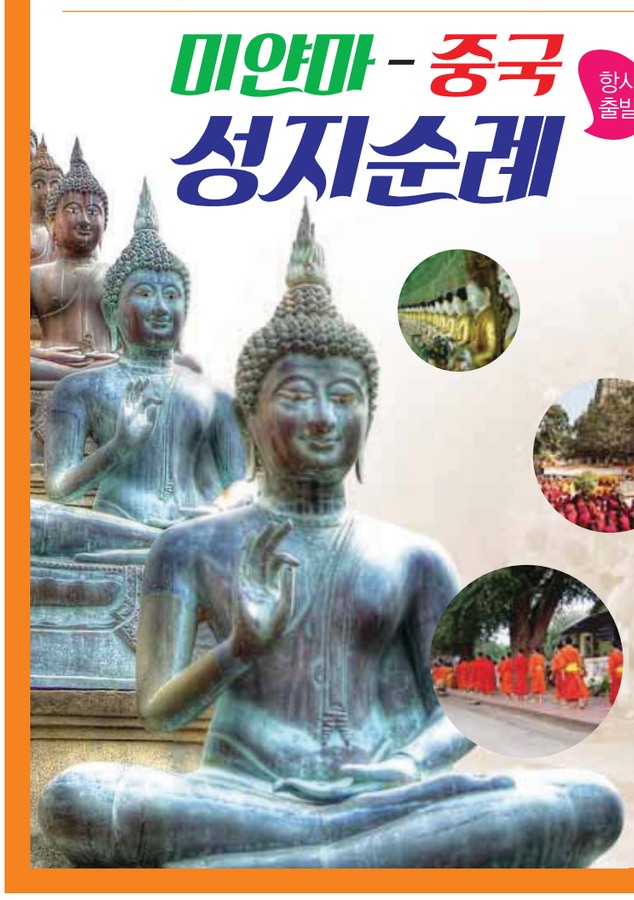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10월 20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10월 31일,11월 21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출발일: 12월 2일, 12월 30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Myanmar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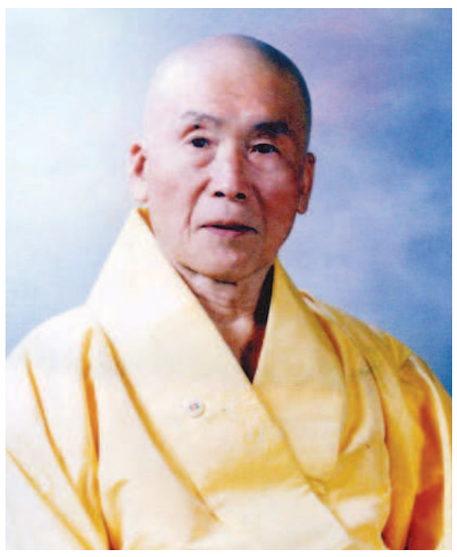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제 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및 제20대 회장단 이취임식 대법회

-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성황리에 열려 -





(사)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만주)는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홀 대강당에서 **'제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및 제20대 회장단 이취임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이하 문도중앙회)는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을 초대 법왕으로 모시고 초대법왕을 기리기 위한 문도회로 이날 행사를 주최 주관하게 된 것이다.



세계법왕 의륜 대승정 法語

佛法有傳 一平生 (불법유전 일평생)
한평생 불법을 전하고 전하며
傳法一鵬 滿衆生 (전법일붕 만중생)
만 중생에 일붕이 있었다네
聖人本來 大衆心 (성인본래 대중심)
중생 마음이 본래 성인의 마음이라
諸法滿有 覺虛妄 (제법만유 각허망)
만 가지 모든 법이 허망한 것을 알아
一切衆生 願解脫 (일체중생 원해탈)
모든 중생 해탈의 도 얻으리
今日佛前 滿衆生 (금일불전 만중생)
오늘 이 자리에 대중들이 모여
佛法有傳 一心願 (불법유전 일심원)
부처님 가르침이 유전되기를 한마음으로 원하나니
時委大衆 願正覺 (시위대중 원정각)
이 자리 모든 대중이 원하는 바 바른법 이뤄
貪慾 一時滅 (투도탐욕 일시멸)
탐욕과 다툼으로부터 멀어지고
無常正覺 必成就 (무상정각 필성취)
부처님의 바른 법 반드시 성취하여지리다

일붕문도의 날 봉축 및 20대 회장 만주 스님 취임

이날 행사에는 세계불교법왕 의륜 대승정, 문도중앙회 이사장 겸 회장 만주스님, 문도중앙회 명예회장 용담스님,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대원스님, 민족불교광덕종 종정 조연스님,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문도중앙회 상임부회장 청파스님, 대한불교법왕청종 종정 청호스님,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용주스님, 대한불교조계종민족중흥회 만공스님, 연합불교방송 총재 향덕스님, 대한불교영축조계종 총무원장 향산스님, 대한불교법흥종 총무원장 무학스님, 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문도중앙회 이사 법천스님, (사)한국불교태조종 김홍근 창종주, 세계불교조계종 불광사 현성스님, 미륵사 주지 다정스님, 세계불교수덕선원 보현 원장, 세계평화사랑연맹 한한국 이사장, 문도중앙회 신도회장 지향숙 보살 등 문도중앙회 회원 500여명이 동참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1부 불국토의 향연에서는 예봉국악단과 축하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어 법회의 문을 열고 2부 본 행사는 중앙문도회 이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법천스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국민의례, 반야심경, 내빈소개, 발원문, 일붕존자행장보고, 대회사, 취임사, 청법가와 법어, 격려사, 축사, 결의문낭독, 만세삼창, 사홍서원, 폐회선원,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륵사 다정스님의 발원문에 이어 문도중앙회 이사 겸 대변인 법천스님은 경과보고에서 "일붕존자님의 빛나는 행장은 익히 알고 있는 바 오늘 일붕존자님의 큰 뜻을 기리는 대법회에 전국 원근각지에서 수희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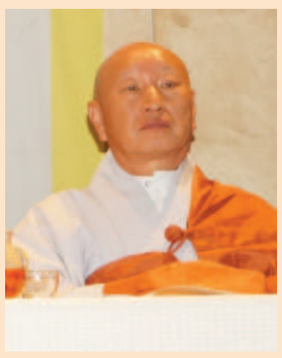
이어진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대원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신임회장 만주스님과 회장단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대법회를 계기로 문도들이 다시 뭉치고 화합하면서 우리 문도중앙회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불교법왕청도 더욱더 중흥시켜 세계불교사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가진 이,취임식 행사에서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한 만주 스님은 취임사(우측 내용 참조)를 통해 "일붕존자님의 뜻을 받들어 문도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불교법왕 대승정 의륜스님은 법어(위 전문)를 내리고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받들기 위해 전 문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화합과 희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승정 의륜스님의 법어(좌측 전문)에 이어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각계 내빈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으며 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성대히 대법회를 마무리하고 3부 연수원 식당에서 합동 공양이 이어졌다.





20대 회장 만주스님 就任辭

"20대 회장직을 맡아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일붕존자의 법맥을 이어받은 각 종단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하나된 단일교단으로 불교중흥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또한 본회를 창회하신 의륜 존자님의 뜻을 잘 받들어 본회가 한국불교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각오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각 종단의 대덕큰스님과 문도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일붕존자님의 향훈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과 기념문집 발간 등 차근차근 이뤄낼 것입니다. 또한 (사)한국불교태조종 창종주 김홍근님께서 문도회관 건립을 위해 2천평의 부지를 기증해 주신데 대하여 문도중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에서 정리)







격려사

민족불교광덕종 종정 조연스님

한국불교의 혁신운동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 문도들은 다 함께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자타불이 사상을 실천하여 너와 내가 구별되는 개념을 벗어나 하나의 운명체며 공동체라는 혼연일체의 사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문도중앙회 회장단은 외형이 아닌 내실에 가치를 두어 자비나눔을 실천하여 중생의 빛이 되는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로 거듭나자.

축 사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용주스님

오래 전부터 의륜스님께서 종파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 지도자 양성과 중소종단의 위상제고를 위해 매년 대법회를 문도라는 인연의 끈으로 묶어 봉행하도록 해오신 큰 뜻에 찬사를 드리며 종단 종파를 초월하여 하나의 구심점으로 기틀을 잡으신 용담스님과 전임 회장단에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책임을 맡으신 만주스님 이하 회장단에 무궁한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발원한다.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상임부회장 청파스님

오늘 뜻깊은 대법회를 통해 우리 문도중앙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세상이 더울 평화롭기를 바라는 여법한 법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공덕만 두루 하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바란다. 우리 문중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선 서로 다른 주장과 방법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원융회통의 전통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자.

(사)대한불교법왕청종 종정 청호스님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성실히 받들기 위해서는 일붕문도들이 일치단결하여 육화의 참마음으로 화합종단, 화합문도의 참모습을 갖춰야 하며 바로 오늘이 그런 법석인 것이다. 불교계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의 징후가 일어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사부대중에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형제 모두 청정한 자비희사의 수행종풍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연합불교방송 총재 향덕스님

우리라는 인식이 절실한 지금, 불심도문으로 전체를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교의 중흥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시대와 사회가 변해도 부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삶의 최고의 가치인 승가 공동체는 우리 현실의 귀의처이며 중생을 구원할 원력을 가진 가르침으로 부처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공동체임을 믿어 의심치 말자.

대한불교영축산조계종 총무원장 향산스님

부처님의 진리는 현실과 미래가 공존하는 것. 땅위에서 살아있는 현실의 세계도 있고,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미래의 세상이기도 하다. 오늘 새로이 출범하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삶으로 인도하고, 문도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횃불이 세계만방에 밝은 빛이 되리라 굳게 믿으며 신임회장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만주스님께 축하인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문도중앙회가 더욱더 화합 단결하여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불교계 민영교도소를 보은지역에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중이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불교계 종교지도자님들의 각별한 질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사)대한불교법흥종 총무원장 무학스님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음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분쟁은 그 모두가 신뢰하고 의지할 가치관의 상실에서 오는 것으로 종교과 종파를 초월하여 중생들을 위한 중생의 종교로서 역할을 다할 때 자비와 이해화 화합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오늘 불법의 진리를 가슴 뭉클하게 맞을 수 있는 뜻깊은 대법회에 감사드린다.

이날 행사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1일 오전 9시와 12일 낮 12시, 13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 행사 사진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공익을 실천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및 모든 케이블TV 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전국 olleh 지역 233번 tv 지역 555번 TV 전국 180번 www.btn.co.kr | m.btn.co.kr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한국불교 최대 법인단체 314종단 가입)

증명법사 **성해** / 총재 **각성** / 회장 **무산** / 전국지부종단관리위원장 **무공** / 대외협력위원장 **성철**

한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광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무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지광 등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서울지부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구지부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인천지부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광주지부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전지부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울산지부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남부지부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북부지부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남지부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북지부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전남지부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충남지부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아산
대한불교마야종 종정 정암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선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총본산법천사
불교대학,불교출판사,무차회,보리회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 혜승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박정희 육영수추모제례진흥회 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 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 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반야의세계진법불교조계종신선등지문화복지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만공 호조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제성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대광대사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 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 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성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협회장 운봉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율원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경보
포항시불교사암승가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강원도교 구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 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종정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본부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종정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 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동인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 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등육영수여사탄신숭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 동방
국제불교조계종직할제1교구본사 청일사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대각
국제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고미술국제진흥원 이사장 도현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복지재단자비원 원장 강현자
지장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한국불교조계종사회복지실천자비원 원장 명진
대한불교승가문화예술진흥회 회장 현불
대한불교칠불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원응사 회장 진해
대한불교칠여래종 총무원장 진성
대한불교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전국불자총연합회태승사복지재단
재단장 혜원
대한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연운
한국불교조계종총본산태승사 총무원장 혜원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혜봉
세계불교선불종 총무원장 무성
한 · 중고미술국제진흥원 원장 도현
사회복지법인수암사마야복지재단 총무원장 운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전통민족불교소원사 총무원장 소원
자비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륜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천불
대성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각
마니산천부단복원추진위원회 회장 대경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덕공
사회복지법인화정토원복지재단 회장 원오
대한불교혜명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 태함
호국불교선미륵종 종정 효진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총무원장 원덕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고산
행복나눔종교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법성
행복나눔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한국초능력협회 회장 도광
사회복지법인금조복지재단 이사장 일경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대표이사 윤기순

110-8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909호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kntga.or.kr

불교, '탄생지' 인도서 왜 사라지는가

스리랑카 언론 'LankWeb', 불교 쇠퇴 원인 '주목'

인구 12억 중 1% 못 미쳐
승가 부패 · 학살 등 의견 대두
브라만교 의해 카스트제 흡수돼
불교 성지 등 빼앗기며 퇴락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국 인도서 해마다 불교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가민주연합(NDA)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2011년 기준) 인도 인구 약12억 1천만 명 중 불교도는 약 84만 명인 0.7%에 그친다. 이는 힌두교 9억 6630만 명, 이슬람 1억 7220만 명, 기독교 약 278만 명, 시크교도 208만 명 등에 비해 1%도 못 미치는 적은 수치다. 이마저도 티베트 국경지역인 히말라야 산맥 인근 고산지대에만 분포해 있다.

스리랑카 언론 'LankWeb'은 10월 3일 '인도에서 불교의 사라짐- 감춰진 이야기'를 제목으로 인도서 불교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LankWeb'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국인 인도서 불교의 완전한 사라짐은 희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라며 "이 비극적인 소멸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앞 다퉈 출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거론되는 견해 중 하나는 '승가 부패와 타락'이 불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LankWeb'은 "계를 대하는 승려들의 마음가짐이 느슨해지며 불교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면서 "그러나 일부 승려들의 행실만으로 불교의 완전한 몰락을 초래했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아랍과 터키의 침략으로 많은 불교도가 죽어나갔기 때문이라는 이론도 있다. 이에 대해 'LankWeb'은 완벽하게 증명될 수 없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이어 'LankWeb'은 "분명한 것은 불교도가 더 부패한 브라만교로 전향한 점"이라며 "이로써 브라만교의 재부활이 초래됐다"고 주목했다.

브라만교는 힌두교의 전신으로, 인도 계급체계인 '카스트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설파함으로써 반(反) 카스트제도 성행을 이끌었다. 이것은 당시 주류 사회였던 브라만 계층이 불교를 탄압하는 단초가 됐다.

'LankWeb'은 "브라만들은 위태한 브라만교 헤게모니를 지켜내기 위해 불교 박해 캠페인으로 대항했다"면서 "불교도를 카스트 제도의 하층 계급(수드라)에 배치하고, 부처님을 힌두교 신 중 하나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불교가 카스트 제도 아래 최하층민으로 흡수됨으로써 불교의 종말이 초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만교는 자신들에 대항하며 평등사상을 주창하며, 다수의 하층민들을 매료시킨 부처님 사상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불교의 미세한 부분들을 적절히 흡수해갔다. 예를 들면, 힌두교 원칙을 어기고 소고기를 섭취하던 브라만교인들이 채식주의자로 돌아서고, 인기 있는 불교 의식을 라마(Rama)와 크리슈나(Krishna) 등 힌두교 신들을 위한 제 의식에 적용했다.


마하보디(Mahabodhi) 사원 복합단지는 붓다의 생애와 관련된 4개 성지 중 하나로, 특히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13세기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한 뒤 불교 탄압 속 몇 세기 동안 점차 폐허로 변했으나 19세기 이후 사원복원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출처=7wonders

'LankWeb'는 "〈마하바라타(the Mahabharata, 산스크리트로 어로 '바라타 왕조의 대서사시'라는 뜻으로 인도 2대 서사시 중 하나)〉 기존판에는 이 시기부터 불교의 감소가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브라만 계층은 불교 융합을 시도하는 한편, 불교도가 포함된 수드라 계층은 베다(Veda, 고대 인도 브라만교 성전의 총칭)경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전했다.

이밖에도 'LankWeb'는 불교 탄압으로 인한 불교 성지들의 파괴와 도용 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부다 가야(Bodh Gaya)에 위치한 마하보디 사원은 사이바이트(Shaivite, 시바신을 믿는 힌두교도) 사원으로 변형시켰고,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인 쿠시나가르 열반당(The cremation stupa of the Buddha Kushinagar) 등이 비슷한 논란 속에 있다.

이에 대해 'LankWeb'는 "아요디아(Ayodhya), 사바리마라(Sabarimala), 티루파티(Tirupati) 등 지역에 분포한 유명한 힌두교 사원들이 이전에는 불교 사원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무슬림단체 미얀마 대통령에 소송 제기

뉴욕서 '로힝야족 집단 학살' 혐의

무슬림 단체 연합이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을 상대로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혐의는 소수 민족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했다는 것이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으로 올해 박해를 피해 대규모로 미얀마를 떠나 해상 난민 문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무슬림 단체 연합의 소장에는 "로힝야족은 극단주의 불교 수도승들과 테인 세인 정부가 불붙인, 결국 집단 학살로 이어진 혐오 범죄와 차별의 주된 대상이 돼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962년부터 불교를 지향하는 정부는 배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통치를 해 왔다"면서 "로힝야족은 그들의 신념과 뿌리 때문에 잔인하게 박해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장에는 테인 세인 대통령과 우나 마웅 르윈 외교 장관, 그리고 다른 장관들도 소환해 달라는 요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을 제출한 구르팟원트 파눈 변호사는 아직 대통령이 소환장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21일간 응답 기간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제출된 소장으로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얀마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 변화 중심에 '종교' 있다"

술락 시바락사, 9월 30일 UN본부서 강연

세계적 불교사상가이자 사회비평가인 술락 시바락사가 '자본주의 꽃' 뉴욕서 자본주의를 비판해 이목을 끌고 있다.

'Lion's Roar'는 "태국의 불교지도자 술락 시바락사가 지난 달 30일 UN 산하 국제적십자위원회 초청으로 UN본부를 방문, 현대 사회 병폐로 꼽히는 소비주의와 개인주의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지목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인류주의의 통합(Uniting Around the Principle of Humanity)'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회의에는 술락 시바락사(Sulak Sivaraksa · 태국), 라마와티 후세인(Rahmawati Husein · 인도네시아), 테레제 메마 마펜지(Therese Mema Ma-penzi · 콩고) 등이 초청 강연에 나섰다.

술락 시바락사는 "소비성향 물질주의에 길들여진 우리는 불행하게도 욕망의 노예로 전락했다"며 "그 결과 현대사회는 자원을 남용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한 경쟁 체제로 내딛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는 증오심만 늘었다. 다른 이들을 경쟁 상대가 아닌 친구로 받아들일 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술락 시바락사에 따르면 '욕망'은 상업광고로 더욱 깊어진다. 광고는 보는 이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주변을 돌아볼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즉, 탐진치 삼독에 뿌리를 둔 망상이 시작되는 순간인 셈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탐욕을 보시로, 폭력을 자비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며 대안을 제시한 술락 시바락사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긍정적 자세만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이런 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태국 불교지도자 술락 시바락사가 9월 30일 UN본부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초청으로 강연에 나섰다.

즉,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사회도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한 술락 시바락사는 "부탄의 행복지수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데, 이는 산업발전만이 좋은 것은 아니며 그 대안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술락 시바락사는 BBC 프로듀서와 런던대학 조교 등을 거쳐 시민사회운동에 투신한 지식인이다. 정부 비판 활동으로 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검거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1994년~1995년 2년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Right Livelihood Award'를 받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코트 데 네주, 사찰 증 · 개축 허가할까

加 몬트리올서 '사찰vs시당국' 법정 공방
관음사 '요청'에 '불허'하며 9년간 씨름

캐나다 몬트리올서 사찰 증 · 개축 문제로 시 당국과 사찰 간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CJAD News'는 10월 4일 "사찰 증 · 개축을 위해 9년째 시 당국을 설득해온 베트남계 사찰 관음사가 결국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코트 데 네주(Cote-des-Neiges)의 관음사는 9년 전 사원 옆 부지를 구입하고, 시 당국에 사원 증 · 개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관음사 내 주거 공간이 있어, 신앙 공간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시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계 불교 공동체 규모는 커졌지만 사원 규모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관음사 주지 Phuoc Tuē 스님은 "시 당국은 사찰에 주거 공간이 공존한다는 이유로 증 · 개축 을 불허하고 있다"며 "수행자가 숙식해야 하는 사찰 건축의 전통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몬트리올 주의 코트 데 네주 시에는 베트남계 캐나다인이 많이 살고 있다. 관음사 일요법회에 2백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베삭(Vesak) 등 불교 축제가 열릴 때면 2천여 명의 불자들이 찾아올 정도다. 그러나 사원 경내 공간이 부족한 탓에 신도들의 신행 공간 역시 부족한 상태다.

샹탈 판(Chantal Phan)씨는 최근 관음사서 할머니 장례를 지냈다. 판 씨 할머니는 코트 데 네주 베트남계 불교 공동체에서 '관음사의 역사'로 통했다. 슬하 가족 모두 관음사 제적신도다. 그런데 할머니 장례식에 가족 3분의 2가 경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경내가 너무 좁은 탓이었다. 판 씨는 "장례식 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몹시 서운해 했다"며 "우리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세상사 모든 일을 관음사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Phuoc Tuē 스님은 최근 줄리어스 그레이(Julius Grey)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 당국과 법정 공방을 결심했다. 청원운동 사이트 'petitions24'에서 '몬트리올 스님을 위한 정의(Justice for Buddhist Monks in Montreal)'를 주제로 온라인 탄원도 전개했다. 온라인 탄원에는 1,178명이 서명했다.(9월 7일 기준)

'CJAD News'는 "사찰은 교회와 달리 신앙 공간 외에도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소송의 초점"이라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고, "불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사찰도 늘어날 것"이라며 "종교 시설 관련법에 대한 법률적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의 '늘 한마음'



불화가 전연호 씨의 '금니천수 관음도'



한경혜 작가의 '물고기의 단풍놀이'

가을 불교 전시 3色 3題

'무념무상' 시간 포착하고 싶다면 사각의 佛畵 앞에 서보자

제45회 한국불교미술협회전 '동행'

10월 20일까지 인사동 아라아트 5층서

한국불교미술협회는 불교미술의 전통을 이어가고 올바른 현대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1980년에 결성됐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역량 있는 불교미술 작가와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까지 꾸준히 전시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동국대 불교대학에 불교미술전공이 개설된 지 45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 이다.

25회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동행' 이라는 부제로 10월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5층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협회 이사장인 문명대 명예교수,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지도교수이자 협회 회장인 김창균 교수,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순형 소장 등 학자들을 비롯해 불교미술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상배 · 박경귀 작가 등 60여명이 120여점을 출품해 예술성 높은 불교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려한 민화적 색채가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김창균 교수의 '존자도', 여백의 미가 강조된 강순형 소장의 선화 '늘 한마음', 몬드리안의 색채 구성을 연상케 하는 김선태 작가의 '무제'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

박경귀 작가 등 60여 명 120여 점 선뵈

'한가정 한 佛모시기' … '1평 옥션전'

이번 전시회는 선 · 후배간의 교류 및 후배사랑, 현대인들과의 소통이라는 특별한 목적아래 개최하는 만큼 좋은 의미를 남기고자 다양한 형식으로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처음부터 협회서 내세우는 '한 가정 한 佛 모시기' 목표를 보다 적극 실행하고, 대중 누구든 부담 없이 품격 있는 불교미술작품을 만나게 하고자 '1평옥션전' 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일부는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후배사랑 장학금' 으로 다시 회향할 예정이다.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김창균 교수는 "우리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불교미술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방향 모색하고 있다" 며 "그간 회원들의 노고가 담긴 작품을 모아 전시를 열게 되어 기쁘다" 며 소감을 전한다. 한편 한국불교미술협회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동국대 출신 작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불교미술분야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열 김석곤 김수정 고승희 권지은 박철종 양선희 등 한국불교미술계에 영향을 주는 작가들과, 문화재 일선 현장의 정인선 이정선 김선희 우지성 등 보수기술자와 단청기술자들, 또한 불교계 문화 및 문화재 연구원 등 불교미술 전분야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02)733-1981

제5회 '불화이야기' 대구 전시회

10월 18일까지 문예회관, 25일까지 대구 불광사

불화가 전연호 씨가 이끄는 불화가들 모임인 '불화이야기' 가 대구서 다섯번째 전시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각각 연다. 불화이야기(회장 조인숙)는 10월 1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제 13전시실서 첫 번째 전시를, 19~25일까지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서 제5회 불교미술본연문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28명 회원들이 참여해 50여점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 작품은 '석가모니삼존도' (김미경), '보라잔불' (남유정), '지장보살도' (민규리), '선재동자' (손영이), '산신도' (손혜영), '관세음보살' (양순애), '서방광목천왕' (영관 스님), '석가모니삼존도' (이경목), '금니 홍탱 증장천왕' (이금순), '관음 42수 연화, 금령, 보인' (이인숙), '불(佛)' (최병훈), '감로탱화' (최우경), '사천왕' (추복조), '동진보살' (전유진), '조왕탱화' (전진봉), '붓다고행상' (조인숙) 등이다.

28명 회원 참여, 전통 및 현대불화 50여 점

18년째 활동… 2006년부터 2년 마다 전시

또한 전연호 씨의 '금니 천수관음도' 를 비롯해 김성희의 '석가탄생도', 조해종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최윤석의 '문수 보현보살도', 이문희의 '무량정사 묘관스님 진영', 장부영의 '제석탱화', 장은수의 '수월관음도', 권필선의 '신중도', 이승규의 '신중탱화', 지용 스님의 '아미타불' 등 기성작가들의 불화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한편 '불화이야기' 는 본연(本然) 전연호 선생의 지도 아래 1998년 대구불교방송의 불화교실에서 출발,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불화가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불교미술 연구모임인 '불교미술본연문도회' 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2년 마다 전시회를 열고 있다.

'불화이야기' 조인숙 회장은 "불화를 그리고 싶은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불화 모임이 어느덧 18년째를 맞고 있다" 며 "불화의 창작 과정은 수행으로 이어져 자신의 마음을 닦고 자신의 행복을 일구는 의미있는 일" 이라고 소개한다.

전연호 작가도 "예로부터 불화를 그리는 사람을 불모 또는 금어라 칭하며 존경했다. 그것은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되는 성상을 탕생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산중을 중심으로 불모를 양성했지만 지금은 승속 구분없이 누구라도 불화를 즐길 수 있게 돼 많은 사람들이 불화에 매료돼 있다" 며 "이번 전시회가 불교문화의 뿌리인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053)606-6114, 대구 불광사 (053)792-1353

제8회 불화가 한경혜 展

10월 18일까지 운현궁 기획전시실서

절 수행을 통해 뇌성마비를 극복한 불화가 한경혜씨 전시회가 10월 18일까지 서울 운현궁 기획전시실서 열린다. 이번이 여덟 번째 개인전으로 주제는 '물이 품은 자연' 이다.

물과 돌의 작가로 잘 알려진 한씨는 수 년 동안 물에 잠긴 돌을 정성껏 그려왔다. 특히 전통 한지에 수묵담채로 계곡의 물속이나 바닷속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물속 돌의 존재를 부각시킨 수묵담채화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 작가 이력을 되짚어보면 불가와의 인연이 깊다. 한 살 때 앓은 뇌성마비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다 일곱 살 때 성철 스님을 만나 3천배로 장애를 이겨내 화공의 길을 걷고 있다.

한 작가는 또한 2004년 절 수행으로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담은 책 오체투지를 출간해 주목받았고, 2009년 홍익대 대학원에서 '동양회화에 나타난 물 표정 연구' 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씨는 설악산, 거제도 등 전국 명산과 섬을 찾아다니며 사생한 물과 돌에 얽힌 이야기를 사실주의 기법으로 화면에 되살려낸다. 최근에는 그림에 야생화 이미지를 살짝 끼워넣어 생명의 무한함을 강조한다. 그의 작품에는 돌과 물, 수초 등이 가득하다.

물과 돌 사실주의 기법으로 화면에 되살려

농담과 필선, 수묵화도 십분 활용 인상적

화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제 물에 잠긴 돌을 보는 듯한 체험을 안겨준다. '교체되는 시간들' '수초 도시'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 '물의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다' 등은 계곡에 고인 물속의 생태를 사실적으로 잡아낸 작품이다. 한국화 고유의 농담과 색채를 표현하면서도 필선과 수묵의 효과를 십분 활용했다. 특히 물에 잠긴 돌과 수초의 자취에서는 동양적인 생명사상을 엿볼 수 있다. 물에 떠 유유히 흘러가는 붉은 단풍잎은 한발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잔잔한 물살은 덧없는 인생의 깊이, 맑은 물속 예쁘게 닳은 조약돌 옆에서 몰려다니는 물고기떼는 삶의 활력을 준다. 자연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이서 기운생동의 필력이 돋보인다. 한 작가는 "시간을 가두고 싶지만 시간은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고 물처럼 흘러 흘러간다. 바람의 형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옷깃을 스치고 몸에 부딪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다. (02)766-909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강경애 작가의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31 변상도'.

붓 끝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담다

사경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과 바탕지에 담는 수행법이다. 사경 수행의 결과물로 남은 경전은 불교의 삼보중 하나로 예로부터 법사리로 존숭돼 왔다. 그 이유는 경전 없이는 광선유포를 통한 교육과 전법 등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설하는 진리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온전히 전해지는 바탕에는 사경이 있다. 사경 없이는 수지 독송 위인연설이 있을 수 없다. 사경을 하게 되면 자기정화가 되는 공덕을 받을 수 있어 일반 불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

사경작가인 강경애 씨는 뉴욕 정명사와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링컨대 불상의 복장에 전통 사경을 봉안했으며, 세계서예전 북비엔날레 사경전에 2회씩이나 초대될 만큼 정통이 나 있다. 강씨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조성한 사경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린다. 강 작가는 10월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미술세계 4층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사경과 현대사경 작품 등 30여 점이 벽에 걸린다. 전통사경 작품은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31 변상, 〈금강경〉 절첩본, 〈금강경〉 선장본, 〈천수경〉, 〈보협인다라니경〉, 〈불설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발심수행장 등 8점이 벽에 걸린다.

또한 현대사경품으로는 '화엄일승법계도' '보리방편문' '신묘장구대다라니' '계초심학인문' '의상조사 법성게' '금강경 병풍' '아미타경 보탑도' '관세음보살 수주수진언' '팔정도 육바라밀 만다라' 등이 전시된다.

사경작가 강경애, 첫 개인 사경전
10월 20일까지 인사동 미술세계서
전통과 현대 사경 등 총 30여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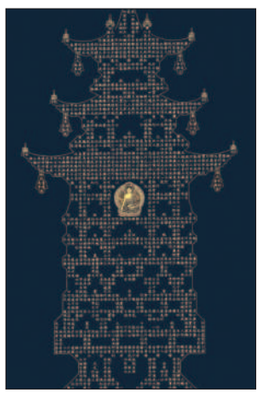
이번 작품들은 백지, 감지, 황지 등에 먹이나 금니 은니로 공경의 뜻을 표현하며 보다 세밀히 다루기 위해 세필로 글자 크기를 1.5센티미터를 넘지 않게 한 것이 특징이다.

강경애 작가는 "제 사경작품은 고려 전통 사경에 바탕을 두고 재 표현하려고 힘쓴 것들입니다. 많은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고 현대 사경의 의의를 다룸으로써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얻고 사경의 예술성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작가는 "사경은 경전을 옮겨 쓰는 행위이므로 시작부터 끝 마무리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며 "그래서 가장 마음이 차분하고 맑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서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전통사경 기능전승자는 강경애 씨의 사경작품세계에 대해 "현재 금니와 은니를 선생처럼 맑게 구사하는 사경수행자는 국내에 몇 안된다"며 "강경애 작가가 도달한 사경수행의 예술적인 경지는 국내외 서예계의 가장 권위있는 행사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에 2회 연속 초대받는 것만으로 충분히 증명 됐다"며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노익장과 불심으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 1시간 참선명상을 한 뒤 사경 수행에 임한 강경애 작가의 작품들은 예술성을 뛰어넘어 불자들에게 환희심과 초발심을 불러 일으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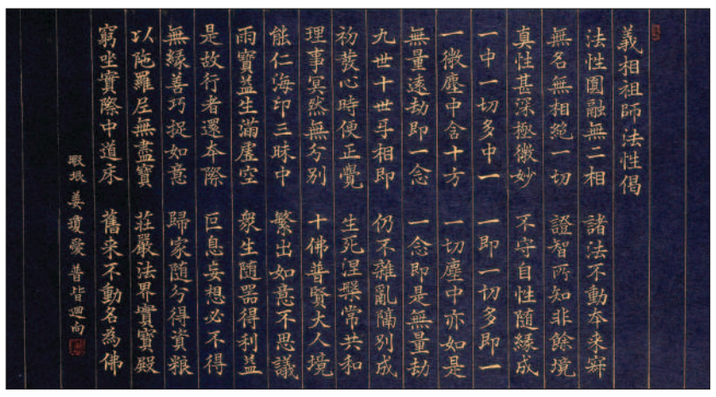


사진 왼쪽은 '감지금니 아미타경 보탑도', 오른쪽은 '감지금니 의상조사 법성게'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IT혁신의 아이콘 배경은 '선불교'

스티븐 잡스 사망 4주기
즈음하여



생전의 스티브 잡스(1955년 2월 24일~2011년 10월 5일)의 모습. 미국 애플사의 창업자로 맥킨토스 컴퓨터를 선보였으며, 이후 애플을 잠시 떠나 있기도 했다. 애플 CEO로 복귀해서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출시하며 전 세계 IT 시장을 선도했다. 이런 그의 바탕에는 젊은 시절부터 심취했던 선불교가 있었다.

스티븐 잡스 사망 4주기(10월 5일)를 맞아 각종 언론에서 그의 삶과 정신에 대해 보도하였다.

많은 젊은이가 인생의 멘토로 스티븐 잡스를 꼽는다. 부자였기 때문일까? 성공했기 일까? 아니다. 창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대학을 나오지 못한 어머니와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입양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자신도 대학을 나오지 못하였다. 심지어 자신이 설립한 애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기에 성공하였고 다시 애플사를 이끌었다.

췌장암으로 죽기 몇 년 전인 2005년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은 이렇게 끝이 난다.

"완벽은 보탤 게 없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이다"

"끊임없이 갈구하라. 바보짓을 두려워 말라."

스티브 잡스는 마이다스(Midas)의 손을 지녔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인수하여 이름을 픽사로 바꾼다. 그리고 10년 동안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할리우드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로 성장시킨다. 10억 달러의 적자를 낸 애플사를 1년 만에 4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내도록 운영하기도 했다. 애플 리사(Lisa),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그가 만든 제품들은 모두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티븐 잡스의 제품들은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공통점은 단순하다는 것이다.

스티븐 잡스는 아이팟을 만들면서 전원 버튼을 없애라고 지시하였다. 스티븐 잡스의 발상은 실로 놀랍다. 스티븐 잡스는 모든 기기에는 전원 버튼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스티븐 잡스의 발상이 혁신적인 이유는 명상수행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스티븐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후 사과 농장에서 일하다가 오토가와 고분 치로라는 일본 승려를 만났다. 스티븐 잡스는 인도 히말라야에서 7개월 동안 수행을 하기도 했다. 스티븐 잡스는 명상수행 경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라고 명명할 정도였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내놓은 제품들. 왼쪽부터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모두 아이콘을 최대하게 단순화 했다.

"완벽이란, 더 이상 무언가를 보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무언가를 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스티븐 잡스의 이 말은 대단히 선적(禪的)이다. 삶도 무엇을 더 보태려고 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무언가를 뺄 것이 없을 때 완벽해진다.

소동파와 양대라 하여 소 · 황(蘇 · 黃)이라 불렸던 송대 시인인 황산곡(黃山谷)은 회당(晦堂) 조심(祖心) 선사를 찾아가 선법의 요체를 물었다. 그러자 회당 선사는 "나는 자네한테 숨긴 게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

황산곡이 회당 선사의 말에 사족을 붙여가며 풀이하려고 하자 회당 선사는 "그게 아니다." 고 꾸짖었다.

어느 날 황산곡이 회당 선사를 따라 산행을 가게 되었다. 때마침 물푸레나무꽃이 만개하여 그 향기가 계곡에 가득하였다. 회당 선사가 황산곡에게 물었다.

"물푸레나무꽃 향기가 나지 않나?"

"예, 납니다."

"나는 자네한테 조금도 숨긴 게 없네."

그 순간, 황산곡은 도(道)의 편재성(遍在性)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깨쳤다고 한다. 이처럼 선(禪)은 정신세계를 소조(塑造)하는 과정이다.

스티븐 잡스는 진정한 창의력은 욕망할 때가 아니라 지족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회당 선사는 숨김없는 마음이 바로 지극한 깨달음임을 일깨워준다.

유응오 작가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불사추진위원장 김홍중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 무 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세계평화와 국태안민을 위한 수륙대재"

금번 본 종단에서는 2015년도 수륙대재를 봉행 하오니 모든 종도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참례를 바랍니다.
- ◆행사일시 : 2015년 양력 10월 18일(셋째 일요일) 10시
- ◆행사장소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78-6 조선해양문화관
- ◆문의전화 :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010-3565-2462번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0.1~2015.10.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2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3	금강경을읽는즐거움	일감스님	민족사
4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7	모든 숨마다, 나	틱낫한/김성희	아이넷북스
8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9	선한마음(나를바꾸고세상을바꾼다)	오갠틴래도제	지영사
10	시끄러운원숭이잠재우기	아잔브라흐마/각산	나무옆의자



영화는 세대 초월한 영원한 古典… 꿈꾸는 내밀한 침상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삶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
김숙현 지음
오션 펴냄
1만 7천원

다양한 글쓰기로 필명을 날리고 있는 김숙현 희곡 작가(오른쪽 사진)가 영화관련 에세이 서적을 한권 펴냈다. 제목은 〈삶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이다. 100여 편의 영화에 대한 감동과 설렘 등 감상평이 담겨진 이 책은 저자의 필력과 사고를 간파할 수 있게끔 만든다. 특히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으면서도 영화를 텍스트로 한 이 책은 영화 소재 저술에 대한 김 작가의 해박한 식견과 테크닉을 읽게 해준다. 이는 영화에 대한 그의 애정 및 활동과 무관치 않다.

김 작가는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BIFF) 출범 당시 부산일보사 논설위원으로서 BIFF의 자문위원직을 맡아 오늘까지 20년간 '영화의 바다' 현장을 지킨 명실공히 비프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어도 항상 영화 관련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았다.

〈삶 가운데 영화가 있었다〉에는 언론인이자 인문학도인 김 작가가 그의 눈을 스쳐간 수천여 편의 영화 가운데 가려 뽑은 영화의 줄거리와 명장면, 그의 인문학적 소양 들이 특유의 소담스런 문체에 알맞게 버무려져 있다. 또한 삶의 지표 등을 영화 캐릭터의 희로애락에 비춰 날카롭게 천착한다.

저자의 영화사랑은 여중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에 대한 첫 사랑은 바로 로렌스 올리비에 주연의 〈애정〉을 서울 마포의 한 영화관서 본 이후부터다. 저자는 이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영화바람이 단단히 들었다고 고백한다. 학생시절 영화광들에게 한두 번쯤 붙는 수난의 꼬리표가 김 작가에게도 있었다. 서울 명동극장서 성인영화인 다니엘 다류 주연의 〈보봐리 부인〉을 보러 갔다가 감시반 선생님에게 들켜 '정학' 위기를 겪었다. 이쯤 되면 김 작가에게도 영화광이란 칭호가 무리는 아닐 듯 하다. 이 소녀 영화광에겐 슬플때도 한편의 영화는 큰 위로가 되었다. 마치 영화 시네마천국의 토토가 그랬던 것처럼. 대입시험에 낙방했을 때 김 작가는 마리나 메르쿠리와 안소니파킨스 주연의 〈죽어도좋아〉를 보면서 울었다. 김 작가는 이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영화필름이 몇바퀴 회전한 뒤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던 슬픔이 까맣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가기전 암담함과는 또다른 차원의 미래가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배짱이 생긴 탓일까요?"

김 작가에게 영화는 팍팍한 현실이 주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해방구이며 소심한 자에게 허용된 무한대의 일탈과 환락의 공간이었다. 그 환상과 기적의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할 사랑이 없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도 없었다. 그 세계에서는 무모한 싸움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최악의 나락에서도 불사조처럼 소생하는 대단한 존재가 됐다.

김 작가는 "어차피 인생의 10분의 몇은 이루지 못한,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들로 이뤄졌으니 영화세계 안에서 꿈꾸었던 세상을 맘껏 구가해 본들 어떠랴" 라고 영화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독서로 비유하자면 김 작가에게 학생시절이 영화에 대한 다독의 시기 였다면 앞서 밝힌 것처럼 BIFF 자문위원직을 맡고 난 이후를 본격적인 영화감상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즉 그때부터 김 작가는 영화의 정독을 한 셈이다. 해마다 3백여 편의 세계 각국 출품작들이 지구촌 각지에서 몰려오니 20년 동안 김 작가가 감상한 편수를 계산하면 어림잡아 6천 편은 족히 넘을 듯 하다. 숱하게 김 작가의 눈에서 명멸한 그 많은 필름 가운데 뽑혀진 이 책의 영화들을 살펴보니 저자의 취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주인공이 추구하는 진실과 그의 낱낱의 행위가 과연 인간으로서 가치를 지닌 것인가 아닌가 등 인문학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BIFF 위원 시절때 본격 영화감상
100여 편 영화해설과 칼럼 등 묶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수십 편의 희곡과 수천 편의 칼럼 에세이를 집필한 50년 문학인생 동안 저자가 줄기차게 추구한 테마 역시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자긍심, 진실을 향한 의지 등 그 뿌리가 인문학적 통찰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제 책을 들여다 보자. 책은 비프서 만난 영화, 인문학적 탐색과 성찰, 스며드는 사랑, 금기의 사랑, 예술혼을 위하여, 존재의 환상과 실체 사이, 천개의 눈에 비친 삶의 여적 등으로 챕터를 나눠 사랑의 본질, 예술 창작의 비의(秘意), 자유혼을 잃지 않은 인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과 통찰을 보여준다.

총 6부로 나눠진 구성에서 김 작가는 저널리즘 비평의 오브제를 넘어 '비프에서 만난 영화' '인문학적 탐색과 성찰' '스며드는 사랑, 금기의 사랑' '예술혼을 위하여' '존재의 환상과 실체사이' '천 개의 눈에 비친 삶의 여적' 등으로 책을 채웠다. 앞서 다섯 챕터는 영화 관련 이야기고, 마지막 장은 칼럼과 단상 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책을 좀더 분할해서 소개하자면 우선 1부 'BIFF에서 만난 영화' 편에서는 중국 일본 스페인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의 감독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제시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빚어내는 일상적 드라마의 진정성에 대해 일러준다.

5부 '존재의 환상과 실체 사이'에서는 '국제시장' '타인의 삶' 등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를 보여주며 등장하는 주인공의 희로애락과 인간의 삶을 비춰준다.

글 꾼 김숙현은 이 책속에서 영화 장면도 몇 개 기억시킨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기자들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는다. 영화 버퍼 김숙현이 이끌고 가는 100여 편의 영화는 그래서 소설처럼 끌리고 시처럼 담백하며 간결하다. 영화를 직접 보지 않았어도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눈앞에 스크린 속 장면이 펼쳐지는 이유다.

얄미운 지식덩어리로 포장하지도 너무 많은 인터넷 식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으면서, 음식으로 치면 딱 알맞은 맛의 요리, 김 작가의 글은 평범을 가장 하지만 생각과 사고를 조출시키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 그래서 그의 글들이 불교계를 비롯해 여러매체서 관심을 두는 이유인 것 같다.

아무튼 이 책은 재미있게 부담 없이 교양과 인문학을 챙길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풍부한 감성과 낭만도 한층 끌어 올려주는 훌륭한 인문교양서다. 또한 우리가 흔히 영화관서 보지 못했던 영화들도 다수 소개돼 있어 영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읽는 재미가 쏠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영화계의 대부인 김동호 BIFF 명예집행위원장의 추천사는 이 책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낙관과도 같다. 김 위원장은 "작가인 김숙현 위원의 글은 쉽고 간명(簡明)하다. 그러면서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움이 도사리고 있다. 행간 도처에 인문학적인 해석과 비유가 곁들여 있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의 풍부한 독서량과 현장체험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저자 김숙현 작가는?

동국대와 경남대서 연극영화학과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일보사 논설위원으로 명칼럼들을 발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서 13년째 칼럼 집필을 하고 있으며 희곡집으로는 〈외줄위의 분장사〉(1978), 〈바이올렛 왈츠〉(1984), 〈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1999),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다〉(2015)와 칼럼에세이집 〈가슴에 폭탄을 품은 여자들〉(2001)등이 있다. 또한 한국희곡문학상(1980), 현대문학상(1988), 봉생문화상(2001), 올빛상(2009)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철북이와 법운스님의 '자기 이름 찾기'



양철북
이산하 지음
양철북출판사 펴냄
1만 1천원

양철북은 책의 주인공 이름이다. 열아홉 살, 고 3 문학소년이다. 철북이는 방학 때마다 부산을 떠나 경산의 깊은 산속에 있는 수구암에 들어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곤 했다. 이 절의 주지 스님이 외할머니기 때문이다. 1978년 여름 방학 이곳에서 철북이는 서른 살 중반의 법운 스님을 처음 만난다. 도보고행 중 수구암에 스며든 법운 스님은 묵언정진을 마친 뒤 생면부지의 철북이와 만행 비슷한 여행을 떠난다. 청도 운문사—법정 스님의 불일암—오대산 적멸보궁 등으로 이어지는 여행은 한 달 반 동안 계속된다. 소설 〈양철북〉은 이 여행 이야기다. 영화로 치면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시인 이산하가 고교시절에 직접 겪은 것이다. 곧, 이산하가 양철북인 셈이다(법운스님도 실존인물이다).

평범한 여행기가 특별히 다가오는 까닭은, 짧은 기간에 두 사람이 커다란 성장 이야기를 만들어기 때문이다. 소설서 드러난 법운 스님의 여행 목적은 뚜렷하다. 기어이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는 수구암에 오기 전 이미 도보 고행승이었고, 철북이와 여행 끝에 도달한 것도 '혈사경(화엄경을 혈서로 쓰는 것)' 이라는 수행이다. 여행을 통해 그 몸부림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반면 철북이의 여행은 '멋모르고 따라가기' 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평범한 문학소년인 철북이는 여행이 끝난 뒤 "펜으로 힘껏 북을 치는" 시인이 되고자 한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변태가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뒤 두 사람은 나름의 고행을 보탠 뒤 "절대고독의 중심에 우뚝 선 자, 그가 수도자요 작가" 라는 공통의 깨달음에 이른다. 이문재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양철북〉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한마디로 정돈하자면, 바로 '자기 이름 찾기' 이다. 예컨대 법운(法雲)이라는 법명은 얼마나 엄청난가. 구름처럼 자유로운 진리, 자기 밖에서 제 이름과 하나 되려던 법운은 자기 몸을 통해(혈사경)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 양철북도 다르지 않다. 이미 귄터 그라스라는 '가짜 아버지(혹은 스승)' 을 버린 철북이는 어느새 법운스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는다. 오대산서 법운과 헤어지는 장면은, 곧 귄터 그라스로 대표된 기왕의 권위로부터 벗어난 순간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모든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하나의 아버지가 되려는 성년식이다."

소설서 철북이는 법운 스님 말고도 많은 사람을 만난다. 외할머니 견성스님을 비롯한 수구암 식구들, 청도 운문사의 비구니들, 출가 전 법운 스님과 연인으로 보이는 루시아 수녀님, 법정 스님과 무불 스님, 포도밭 소녀 채송화와 아버지, 그리고 〈오적〉의 시인 김지하와 황세용 점원……. 외할머니는 철북이에게 "앞으로 세상을 착하게 살아갈라면 먼저 독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준다. 철북이는 운문사 어린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예불을 보며 비장함에 눈물 흘리고, 법정 스님의 여울 얘기를 들으며 역사와 현실을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 김지하 시인, 황세용 점원에 대한 기억은 철북이의 지금을 만든 자양분으로 곳곳에서 호출된

절판뒤 12년만에 전면 개작
성장소설에 초점… 서사미 보강

다. 사람뿐만 아니다. 어릴 적 배고플 때 먹던 감꽃, 법운스님이 그것처럼 화두를 훌쩍 뛰어넘고 싶다던 메뚜기, 죽은 사미승이 애절한 사연을 담은 상사화, 그리고 철북이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도 있다.

이것들 모두가 '알 밖에서 알 속의 새끼를 도와 껍질을 깨는 어미들' 이다. 한 생명의 성장은 결코 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온 생명이 성장의 어미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인 것이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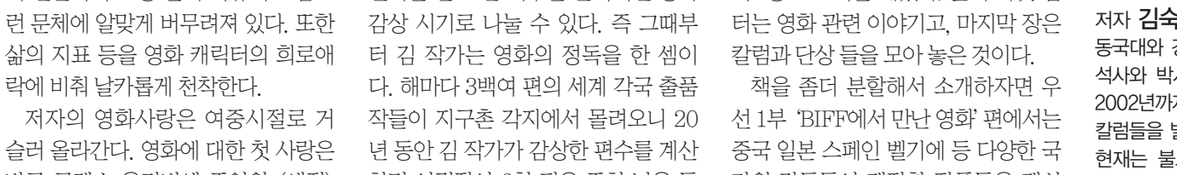
"줄탁' 의 뜻처럼 부화하기 위해서는 알 속에서 새끼가 껍질을 쪼고 알 밖에서 어미가 껍질을 쪼아야 한다. 생명은 그렇게 안팎으로 쪼아야 죽음도 외롭지 않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넓은 세상에 나오도록 밖에서 껍질을 쪼아준 나의 어미들이다."

절판 된 뒤 12년 만에 다시 나온 〈양철북〉은 이전 작품을 전면 개작한 것이다. 청소년부터 읽을 수 있는 성장소설에 초점을 맞춰 서사적 재미를 대폭 보강했다. 김주일 기자

易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기〉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대한민국 역학고수 총 집결! 동양역학, 명리 풍수 관상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권위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제1기 동양역학 최고위과정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이 시대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역학 전문가,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진 :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학선 유래웅 고려기문학회장, 박영창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백운암 노성순교수, 박청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풍수지리연구소장,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서경대 김인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외

■ 대 상 : 역학자, 명리학 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 (학력무관)
■ 일 정 : 1학기 과정(15주), 10월 19일부터 매주 월(月) 18:40 ~ 21:30
■ 수강료 : 185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275629 (예금주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특 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자격증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문화관광부 등록)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선정릉역 2번 출구 (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문의 02-3443-4984 www.gfca.kr

대한민국 새로운 장례문화 화분장묘 분재공원

한국최초 특허받은 장례묘(화분장)! 특허 제10-1467668호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어렵습니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읍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 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기타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에서 아래와같이
전국 각지역총판을 모집합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자격조건
전국 사찰 및 교회 종사자분들과 개인토지보유자분(임야/개발제한구역임야 제외 | 농지(전/답 보유하신 분) 우선권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사업주님들을 상담환영합니다.

각지역모집구역 소개
서울 | 부산(상담 중)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일부) | 경남(상담 중) | 제주도 | 대구 | 울산

한국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 회장 : 서정율 | 대표이사(특허등록자) : 김성만
◇본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09호 (역삼동,성지하이츠 2차빌딩) ◇홈페이지 : www.화분장.kr / www.화분장.net
연락처 : 서울본사 02)555-4452 / H·P 010-8911-4452

“선수행자들 마지막 관문”… 할과 방 없이 섬세한 설명만



종용록
석지현 역주해설
민족사 펴냄
전세트 5권
18만 5천원

〈종용록(從容錄)〉은 〈벽암록(碧巖錄)〉과 더불어 선(禪) 어록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공안송고평창집(公案頌古評唱集) 즉 공안에 대한 송과 평론, 주석, 해설서이다.

이 책은 〈벽암록〉보다 100년 후(1224년)에 출간된 것으로 선문의 명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종용록〉의 원제는 〈만송행수평창천동각화상송고종용암록〉이다. 북송말 남송초 천동정각(1091~1157)선사가 옛 공안 100칙을 엄선해 공안 하나하나마다 송(頌)을 읊었는데, 이를 〈천동백칙송고〉라 한다. 이 책에 만송행수(1196~1246)선사가 시중(示衆), 착어(着語), 평창(評唱)을 붙여 비로소 〈종용록〉이 완성됐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이 책이 만송행수가 연경 보은원에 종용암을 짓고 은거 중일 때 칭기즈칸 행정 비서관이자 만송행수 스님의 재가제자인 야율초재의 간청에 따라 집필한 것이다. 제작 당시 만송이 머물던 암자 이름를 따서 〈종용록〉이 되었다.

지현 스님은 “야율초재는 만송 선사 문하생으로 3년간 수행하며 인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수행자의 기백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승인 만송행수 스님에게 7차례나 서신을 보내 〈천동백칙송고〉의 평창을 요청했고, 만송행수가 이를 받아들여 〈종용록〉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율초재는 잔혹한 전장서 대량 살상을 막고 몽골인들에게 법도와 예절, 문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던 인물인데 이는 〈종용록〉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율초재는 한마디로 〈종용록〉을 기획 완성한 공로자이자 서문을 쓴 사람입니다.”라고 〈종용록〉 탄생일화를 전했다.

야율초재는 〈종용록〉 간행 이유를 서문을 통해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이 좋은 원고를 혼자서만 보기가 아깝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법열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한다.

7년여 작업 끝에 최근 〈종용록〉을 완역해 출간한 지현 스님(오른쪽 사진)은 “‘지혜의 칼’인 벽암록과 더불어 ‘훈훈한 봄바람’으로 비견되는 종용록을 곁들이지 않으면 완벽한 선자(禪者)라 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선승들은 사선으로만 알고 있는 묵조선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종용록을 읽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벽암록〉에 비해 100년이나 늦게 세상에 나왔지만 내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중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총서인 〈종용록〉이 한국불교에서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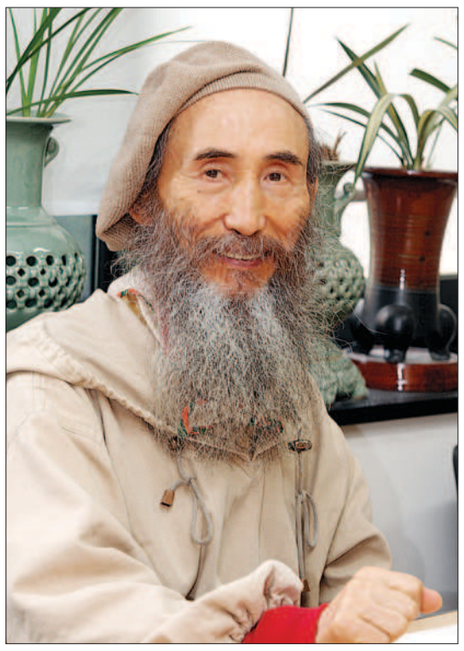
지현 스님은 “한국불교가 간화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설땅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난해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선승들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텍스트입니다. 당송 시대 사람들이 쓰던 사투리와 속어로 뒤범벅돼 있기 때문이죠. 당대 사람들의 구어체와 생활 용어들을 알기 위해 당송 시대 속어사전의 원전을 구해 공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가 번역하면서 가장 애를 먹은 부분인데 〈종용록〉속에는 많은 중국의 고사(故事)가 있어서 더욱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고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특히 중국 고사는 유교, 도교, 민간신앙까지 두루 알아야 번역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종용록〉을 중국 제자백가 사상이 집약된 지혜의 보고라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종용록〉서 시중, 착어, 평창을 쓴 만송행수 스님은 불교 외에 유교와 제자백가 사상에 정통했다. 따라서 선어록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국 사상과 한자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종용록〉의 문장들이 품고 있는 숨은 뜻을 읽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종용록〉이 〈벽암록〉과 더불어 선 수행자들의 필독서임에도 제대로 된 번역서조차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감각이 뛰어난 시인이기도 한 지현 스님은 그동안 선시와 선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에 전념했다. 원문에 토를 달고, 각 단락마다 상세한 해설과 주(註)를 달았다. 그리고 〈종용록〉서 언급된 이야기들의 출처와 고사성어의 의미를 고증해 밝혔다. 책의 마지막 권은 어휘사전으로 지금은 사용치 않는 당송 시대의 속어와 선어를 알 수 있도록 배려했다.



〈종용록〉, 칭기즈칸 측근 야율초재가 펴내
벽암록과 쌍벽…묵조식 수행법 정수 담겨
묵조선과 간화선 수행법 차이 한눈에 조망

지현 스님은 “공안집이나 선어록은 속어를 모르면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 어휘사전 한 권만 있으면 〈종용록〉에 나오는 문어체와 구어체 등 모든 용어를 풀이하고 해설 가능하므로 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묵조선은 좌선수행을 통해 우리 본성에 이미 내재한 깨달음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묵조선 수행이란 ‘내재된 깨달음을 충전하는 작업’이다. 이 때 공안은 ‘수행 깊이를 측정하는 계기판’이다. 반면 간화선은 공안을 ‘깨닫기 위한 수단 또는 도구’로 보고, 좌선보다는 공안타파(公案打破), 즉 ‘공안참구를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이런 간화선 수행의 최고 교과서가 바로 〈벽암록〉이다.

그러나 묵조선서 공안타파란 좌선수행 과정서 필연적으로 경험되는 한 현상일 뿐이다. 중요한 건 공안 타파 후에도 좌선 수행은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삶 전체가 공안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성공안이라고 한다.

이런 묵조선을 완성시킨 사람이 〈종용록〉 공안 100칙 송고를 읊은 천동정각이다. 묵조에서의 ‘묵’이란 몸을 부동의 자세로 바로잡는 것이고, ‘조’란 이 부동자세를 통해서 생각의 흐름과 감정의 기복을 관찰하는 것이다.

천동정각의 묵조선 수행법은 달마대사의 면벽 수행에 근원을 둔 재래적인 수행법으로서 좌선 그 자체를 강조한다. 이런 묵조선 수행법의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종용록〉이다.

대혜종고의 간화선 수행체계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 선가에서는 묵조사선이라는 대혜종고의 주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설로 받아들여져 내려온다. 이런 실정서 〈종용록〉은 선 수행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책이다.

지현 스님은 “손으로 A4 규격 노트에 2천여 매의 원고를 또박또박 써내려가며 손가락이 마비된 적도 있었습니다. 선어(禪語)를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해 내는 모든 과정은 깨달음으로 가는 목숨 건 사투였을 정도로 고된 여정이었습니다.”라며 “간화선은 깨달음을 강조하지만 묵조선은 이미 깨달았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인 정진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차이가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석지현 스님은 〈벽암록〉출간 후 이런 말을 했었다. “선 수행자들에게 이 책이 마지막 관문이지요. 이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용록〉 출간과 함께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선 수행자들에게 〈종용록〉이야 말로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역자 **석지현 스님**은?

스님은 13세 때 충남 부여 고란사로 출가했다.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詩) 부문에 당선돼 승려시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197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명상에 심취해 인도 네팔 미국 예루살렘 티베트 등지를 오랫동안 방랑했다.

지현 스님은 3년 동안 인도서 지내며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스님은 이 곳에서 요가를 배우며 우리나라서 주로 하는 간화선 수행과는 조금 다른 명상 체험을 했다. 특히 크리슈나무르티, 라즈니시, 묵다난다, 이사가 닷타, 라마크리슈나, 비베카 난다 등 힌두교 전통 구루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국내에 돌아와서 인도 성자들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책을 한국 최초로 펴내기도 했다.

스님은 이 ‘방랑의 시절’동안 인도의 구석구석 여행하고 네팔의 히말라야, 부탄의 산길, 예루살렘의 불타는 사막을 여행했다. 미국서 5년간 살면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필라델피아서 만난 이슬람 수피의 가르침도 인상적이었다. 다람살라서 만난 달라이 라마의 소탈함과 따스한 자비심에 큰 감동을 받았고, 달라이 라마의 스승인 트리찬 린포체를 남인도 후불리서 만나기도 했다.

지현 스님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공부했다. 이 만행의 길에서 수행과 글쓰기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었다. 스님의 저술활동이 불교 경전과 힌두교, 티베트 불교, 선어록 등 분야와 범위가 넓은 것도 바로 이런 만행 덕분이다. 스님은 독특하게도 1980년 송광사에 다시 출가했다. 출가 후 덕산 스님에게 선어록을 공부한 이래 거의 독학하다시피 해 〈선시 감상사전〉 등을 집필했다. 편역서로는 〈벽암록 전6권〉 〈법구경〉 〈바가바드 기따〉 〈우파니샤드〉 〈반야심경〉 〈숫타니파타〉 〈불교를 찾아서〉 〈선으로 가는 길〉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제일로 아파하는 마음에-관음경 강의〉 〈행복한 마음 휴식〉 등 다수가 있다.

〈종용록〉의 구성은?

각 칙마다 7개 구조로 이뤄져 있다. ①시중(示衆), ②본칙(本則), ③본칙착어(本則著語), ④본칙평창(本則評唱), ⑤송(頌), ⑥송의 착어(頌著語), ⑦송의 평창(頌評唱)이 그것이다.

–시중은 해당공안을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벽암록의 수시에 해당한다. 〈벽암록〉 수시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썼다면 〈종용록〉 시중은 시종일관 잔잔한 흐름을 잃지 않고 있다. 〈벽암록〉에는 수시가 없는 공안이 여러 개지만 〈종용록〉에는 100개의 공안 전체에 100개의 시중이 붙어있다.

–본칙은 옛 공안으로서 이 책의 핵심이다. 만송행수 스님이 옛 공안 가운데 중요한 공안 100개를 가려 뽑았다. 그런데 이 100칙 공안 가운데 29개 칙(29개의 공안)이 〈벽암록〉과 동일하다. 이 29개 칙에 대한 견해가 〈벽암록〉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때로는 〈벽암록〉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벽암록〉이 놓친 급소를 언급하기도 한다.

〈종용록〉의 이 100칙 공안은 책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 그러므로 앞의 시중과 본칙착어, 본칙평창, 송, 송의 착어, 송의 평창 등은 모두 이 본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착물인 셈이다. 이 100개 공안에는 경전 문구를 비롯해 제1칙 부처, 제2칙 달마대사로부터 개성이 다른 선승들의 선문답이 총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벽암록〉에는 없는 그 유명한 조주의 무자공안(趙州無字公案, 趙州狗子)도 있다.

–본칙착어는 일종의 촌평이다. 〈벽암록〉 착어가 기지와 익살로 넘친다면, 〈종용록〉 착어는 담담하기 이를 데 없다. 〈종용록〉의 이 담담함 속에 번뜩이는 예지와 절묘한 언어의 구사력이 돋보인다.

–본칙평창에는 본칙공안에 대한 보조설명과 배경이 기술돼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당·송·원때의 속어체로 쓰였기 때문에 기존 문장체 한문 해석만으로는 그 해독이 불가능하다. 이 점을 고려해 별권으로 〈종용록 어휘사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평창에는 고사 인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고사는 그 숨은 뜻과 출처를 일일이 밝혔기 때문에 염려치 않아도 된다.

–송(頌)은 100칙 공안 하나하나마다 붙인 천동정각의 공안시(公案詩)를 말한다. 천동의 이 공안시는 그 시상이 웅대하고 심원한 반면에 시정은 섬세하다. 시어도 투명한데 이 역시 수많은 고사가 인용된다. 고사와 시어의 이 절묘한 결합은 묵조풍선시의 절정인데 우린 예서 공안선시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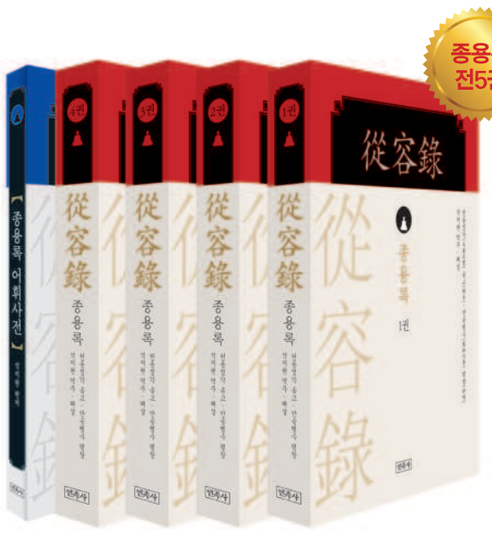
–송의 착어(頌著語)는 공안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밑에 붙인 만송의 촌평이다. 만송의 이 착어는 송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만송의 이 착어가 때로는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는 만송이 이 착어를 통해서 그 자신의 안목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읽는 이는 이를 놓쳐선 안 된다.

–마지막 송의 평창은 천동의 송에 대한 만송의 평창이다. 이 기본골격은 본칙평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창의 문장은 대체로 짧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속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

민족사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석지현 스님, 《벽암록》에 이어 《종용록》 역주 해설본 출간!

‘지혜의 칼’(벽암록)과 더불어 ‘훈훈한 봄바람’(종용록)을 곁들이지 않으면 완벽한 선자(禪者)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두 공안집(公案集)을 통해 간화선(看話禪)과 묵조선(默照禪)의 차이를 동시에 이해하면 수행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 석지현 스님



칭기즈칸의 참모 야율초재가 최초로 간행!
중국의 역사와 사상을 총망라한 지혜의 보고!
국내 최초 완역 해설본!!

종용록

전5권 값: 18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낱권 판매 불가)



선어록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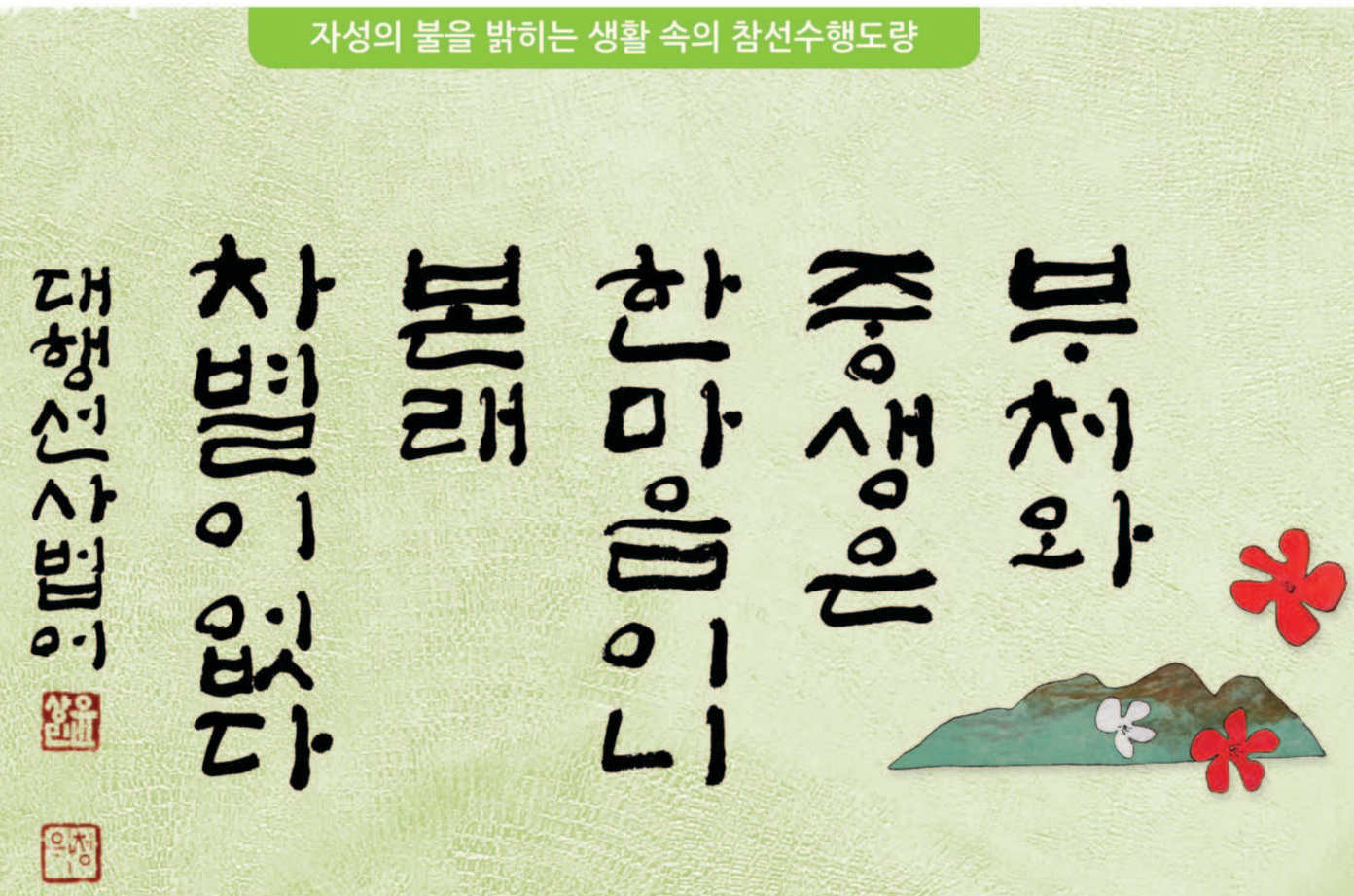
벽암록

전5권 값: 14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현대불교신문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 (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070)7882-0237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070)7554-1402, (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070)4015-228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석수동) Tel.031-470-3100 Fax.031-470-3116

관계 사이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요



그림 · 박구원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주는지 성찰

나와 이웃

상대방을 존중하는 평등사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며, 다음이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불편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가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탄생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없이 외웠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해석하면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오직 홀로 존귀하다' 이다. 갓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내용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며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이다.

불교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탄생게가 고타마 싯다르타가 했다고 해서 그 분만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 스스로가 한다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존귀한 존재이다. 존귀하게 태어났으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내 자신이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떨까? 상대방 스스로 탄생게를 외친다면 그 역시 이 세상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내 자신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상대방 역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아야 하듯 부모도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사회 역시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웃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이웃을 존중해야 한다. 존중받는 상사가 되고 싶으면 아래 직원을 존중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에 이런 가치를 갖는 것 이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평등사상이다.

연기적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

물질의 풍요는 인간사회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 끊임없이 발명되는 생활용품은 인간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것을 대변하는 단어는 '편리함' 이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과학과 기계문명의 발달은 심각한 폐단을 동반한다. 협동심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졌다.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함을 즐기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자연히 이웃에게 필요한 대화가 상실되어 버렸다.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 없게 되었다. 골치 아픈 일과 심각한 일을 싫어하는 단순한 인간으로 변해간다. 현재의 즐거움이 필요할 뿐 미래를 위한 인내심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불교의 연기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만물은 상호관계에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신도 손해를 보고, 상대방을 도우면 자신도 이익을 받는다. 또 남을 해치면 내가 죽고 남을 도우면 내가 사는 이치이다. 이런 근본 진리는 우리의 이웃과 사회는 물론 세계열강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상과 종교로 불교를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에 따라 성인이 되는 종교이다. 이런 인간중심의 종교관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가져오고,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의 시작이다

불교는 평등과 존중의 종교
'연기' 기반한 대화 필요
"大我의 삶 속에 행복이"

격조 있는 사회를 위한 불교의 역할

사회에도 격조가 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사회에도 품격이 있다. 사회의 품격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다. 격조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의 품격은 높아진다. 지금 우리가 속한 사회의 품격이 낮다면 그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낮기 때문이다.

인격이란 사람 됨됨이다. 된 사람이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자신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신보다 지식이 없어도 무시하지 않고 배울 것을 찾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인격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의 문제이다. 불교가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다.

불교는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신행하는 불자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내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며 생활하고 사회와 국가가 부강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대아의 생활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소아의 생활이다. 소아와 대아의 차이는 물질의 규모에 있지 않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세상을 살면서 느낀 것은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 편리함에 금전이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윤리나 도덕을 망각한다면 세상은 범죄로 덮이고 만다. 그러나 적은 금전이라도 남을 위해 베풀면 소아에서 대아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

"포괄주의적 태도로 타종교 만나자"

종교와 종교

종교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

오늘의 현대사회는 다양한 종교 신념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21세기는 종교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이다. 종교는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에 직면해 있다. 종교 소비자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종교전통은 소비자의 상품이 되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게다가 21세기는 지난 세기보다 산업화, 도시화, 사회구조의 재편성이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현대인의 새로운 욕구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확산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인류생존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종교 등 현대사회의 전 분야에서 고조되고 있다.

종교교리 전반의 새로운 이해 요구

오늘날 기성종교는 이와 같이 급격하게 변해해 가는 현실에 대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종교인 불교나 그리스도교도 예외는 아니다. 종교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종교는 무력하게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시 한 번 브라이언 윌슨(B. R. Wilson)은 현대사회에 있어 종교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영혼이나 내세에 대한 입장이 오로지 종교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는 자연과학적인 해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과학에서는 영혼을 두뇌활동의 산물로 보고 신체활동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뇌과학의 발달과 유전자공학의 발달은 인간영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교리 전반에 걸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과학의 성과에 종교는 맞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성과를 포괄하는 은유와 상징의 지평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종교문화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느 한 종교만이 감당하여 해결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 시대의 종교들은 독선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관용적 태도로 종교 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절실하게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종교나 배타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포괄주의적 태도를 견지한 채로 타종교와 만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적인 대화의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지녔으며, 타 종교는 자신의 가르침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결국 자신의 종교로 돌아오는 과정적 진리만을 지녔다고 보는 태도가 포괄주의적 태도이다. 이제는 이러한 포괄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시장 상황' 에 처한 종교현실
종교간 갈등은 쇠퇴 지름길
공동 목표로 시대요구 부응

즉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자신의 종교만이 가졌다는 신념에서 벗어나서, 이웃 종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오히려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이 더 깊고 넓게 이해되고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타종교와 함께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종교 간 투쟁은 종교회의감을 증가시킬 것

물론 종교는 '절대진리' 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종교의 절대성과 최고성을 주장하는 '절대신념체계' 이기 때문에 비타협적이고 다른 신앙을 무시하거나 이단시하는 위험이 있다. 현대의 다종교사회에서는 각 종교의 사상적, 교리적 편견과 독단적 배타성이 야기하는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늘 잠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있는 곳에는 종교와 종교 간의 대립과 충돌이 늘 있어 왔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분쟁이 지속되는 등 종교 간의 마찰과 대립은 그치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종교적 분쟁과 충돌로 종교가 인간 삶의 지혜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가르침으로 인식되기는커녕, 오히려 종교가 대립과 투쟁의 주된 원인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나 실망감도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직면한 문제를 의식화시키는 일이며, 그 의식화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의 혼탁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과학적 접근이나, 정치적, 사회적 접근을 넘어서 총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자각과 함께 인간의 사고의 변화를 도모하는 종교적 접근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현대사회가 직면한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을 종교적 문화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종교문화 운동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서 지구상의 생명 전체를 포함하는 운동으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와 종교가 함께 하는 공동의 목표이고, 이를 통하여 종교 간에 진정한 관계 맺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석
금강대 교수



10·27법난 제35주년 기념법회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72법난 기념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불기2559(2015)년 10월 27일(화) 오후 2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문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 무 원

관계 사이

아프다. 그리고 시끄럽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아픈 이유는 다양하다. 나와 이웃의 갈등, 종교간 갈등, 남북갈등에 국가간 갈등 등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아픈 이유가 존재한다. 관계 즉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말이 있듯 불교는 갈등과 아픔 해결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개인과 개인을 비롯 국가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연기와 화엄의 불교적 해답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그림 · 박구원

조건 없는 나눔… 함께 살아가는 길

남한과 북한

각국 패권 다툼의 경연장이 된 남북

2015년도 남한 인구는 5천1백만 명, 북한은 2천5백만 명 정도로 남북한의 인구는 도합 76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아득한 고조선으로부터 조선과 대한제국으로 이어진 수천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고유한 언어와 풍속,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전통을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에 의해 38선을 경계로 민족과 영토가 남과 북으로 양분됐다.

남북분단의 원인은 외적으로는 일본의 대륙진출과 미소양국의 세계패권주의, 내적으로는 세계정세에 둔감하고 개혁과 유신은 외면하면서 내분으로 국력을 쇠진시켜온 구한말 지배세력의 무능과 탐욕, 그리고 해방 후 극심한 사상적 혼란에 기인하고 있다. 1950년부터 3년 간 이어진 한국전쟁 이후 남한은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3대 세습체제를 통치이념 및 수단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에서 빼놓을 수없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다. 중국에 있어서 한반도는 지전략적(地戰略的) 요충지대다. 중국은 중국대륙의 목줄과도 같은 역할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제1, 2도련선(島鍊線)을 해상 방위선으로 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바, 남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통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US Rebalance to Asia)' 정책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태평양에서의 군사와 경제적 패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하려 한다. 여기에 일본은 미국의 비호아래 동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국내외적 이익의 창출을 위해 항시 발을 담그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는 과거는 물론 현대에도 열강 각축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각축상태를 탈피해서 그야말로 '남과 북'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7600만 명의 국민이 안락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남북의 위정자들 그리고 종교계 등 사회지도층은 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북이 긴장의 연속 속에서도 어떠한 형태이든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니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7.4공동선언,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과 6 · 15 공동선언 그리고 개성공단의 운영이란 성과가 있었다. 또 지금은 중단됐으나 금강산 관광이 성사 됐었다. 근자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도발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근래 '목함지뢰' 사태까지 대략 3000건이 넘는 침투와 국지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이 지향할 공유 가치 '통일'
북한 · 열강들 합의의 장 이끌어야
평화 통일 불교계 역할 모색 필요

평화통일의 남북 기조 공고해야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남북의 근본적인 이념차이로 인해 양측이 이해하고 주장하는 평화와 자유의 개념, 통일의 수단과 방법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분명코 남과 북이 올바른 관계 속에 가야할 한 방향의 길은 평화적 통일이고 통일 후에는 자유, 인권, 복지, 청정한 환경 등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들을 구현하고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이라면,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힘겨루기 중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폐쇄를 고집하며 강성군사대국으로 치닫는 북한을 어떻게 대화와 교류, 공존을 위한 합의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시키느냐가 필연적 과제다. 이 과제가 이루어져야만 남과 북은 물론 주변의 열강들까지도 자유와 평화라는 한 방향으로의 역사를 일궈 갈 것이다.

문화 · 경제 등 사업으로 신경망 연결

물론 북한과 주변 열강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일에는 위험요소들이 내재해 있으나 탁월한 외교력으로 관련 국가를 설득하고 북한과는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교류의 신경망을 연결하고 고착화시켜야 한다. 하여,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선 제안 등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호로써 통일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를 위해 북미 간 수교의 가교 역할을 하고, '동북아 평화실크로드 – 평화벨트 구상' 등을 정책의제로 삼아 중국과 통 큰 거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민간외교로써 문화교류에 적극 투자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 또한 망국의 원인인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후진 국가를 면치 못하고, 통일을 위한 경제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국방력의 우위를 점하는 힘의 논리도 중요하나 불교의 가르침과 같이 "조건 없이 베풀어라 – 함께 사는 길이다"라는 대 명제를 실천할 때 북한의 정권에까지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정권은 폐쇄정책에서 과감한 개방과 개혁만이 인민을 위하고 희망적 미래가 담보되며 세계사와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도 더 늦기 전에 체제의 이념과 통치 수단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추구해서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길은 수천가닥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푸는 일보다도 더 난해하다. 그러나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무상한 존재로서 의미 있는 삶에 나태하지 않는다면 어렵지만도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가 앞장서고 남과 북이 가야하는 평화의 길에 불을 밝혀야 한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배신의 게임을 협력의 게임으로

국가와 국가

좋은 국가로의 변화

사람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 자체가 변해야 하며 동시에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국가가 좋은 국가로 변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 관계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민족국가가 탄생한 것은 서양에서 30년 종교전쟁의 결과 맺어진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에서부터였다. 그때부터 국가의 국경선이 확정되고 군주들은 국내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다른 군주들과 원칙적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외교규칙과 국제법이 발전하였다.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는 정보통신혁명에 힘입어 지방과 개인을 각성시켜 지방화와 자유화를 촉진시켜왔다.

세계화의 물결과 지방화의 추세 속에 국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과거와 같이 권력으로 강제하고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압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게 되었다. 20세기 민주화의 물결과 21세기의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에서 일어난 반독재혁명은 정보화 · 세계화시대에 강압적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이제 국가는 자신의 역할을 공익(公益)을 실현하는 일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 내에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일, 국민을 외침으로부터 지키는 일,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호하는 역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화시대에도 국가 이외에 다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공익(公益)을 실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있으며 이런 역할에 충실할 때 국가는 세계화시대에도 위축되지 않고 번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이상과 같이 국가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주관적 조건인 좋은 국가가 되는 길은 충분히 밝혀졌다. 그럼 좋은 국가관계를 맺기 위한 객관적 법칙은 어떤 것인가?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는 달리 국가들의 행동을 강제할 권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들 간의 협의기구로 국가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행동할 뿐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약속이고 맺은 약속을 지키는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제법 철학의 제일원칙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틴어로 Pacta sunt servanda)'로 표

공익 실현이 좋은 국가의 조건
'죄수 딜레마' 극복, 신뢰 쌓아
"먼저 '좋은 국가'로 변화하자"

현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 간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을 강제할 객관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국가들에게 더 유리하게 때문이다.

게임이론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국가 간의 관계는 협력하면 상호이익이 되지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갈등과 배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적용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란 이런 것이다.

검사가 두 사람의 공범자들을 분리 심문하면서 "두 사람 모두 범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가벼운 처벌로 풀려나지만 두 명이 모두 자백하면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만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 자백한 자는 보상을 받고 석방되지만 부인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백을 권고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 경우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지만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수들은 가장 안전한 자백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반복게임일 경우 가능하다.

게임이 한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임인 경우 한쪽 편에서 배신에는 벌을 주고 협조에는 보상을 주는 전략으로 꾸준히 대응하면 배신 게임을 협조게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반복되는 게임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런 전략은 지금의 배신이 미래의 처벌을 받고 지금의 협력이 미래에 보상됨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고 그러한 전략을 물 먹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다는 사실은 국제정치 연구에서 오래전에 입증된 이론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이상의 논의결과는 현안문제인 남북한관계를 비롯한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한관계가 다시 시작될 기회가 온다면 한국은 이상과 같이 국제관계에서 잘 입증된 기본원칙과 지혜를 활용하여 남북한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쌓아갈 수 있다. 문제는 북한정권이 이런 원리를 깨달아 신뢰프로세스에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 차례의 게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게임자체에 응하지 않고 한국에서 정권변화가 올 때까지 버티고 기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관계에 제대로 적용되려면 북한이 먼저 좋은 국가로 변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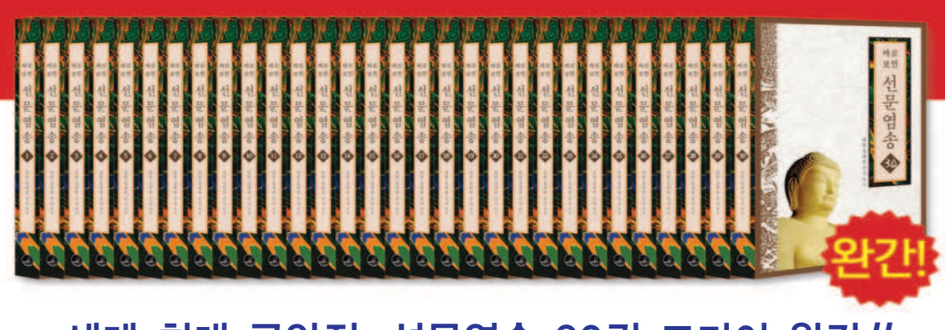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구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전화 055)932-7308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 공안의 교과서 〉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MOONZEN

비구니

한국불교
비구니 70년

수행 · 전법 · 실천 분야서 큰 발자취…



하춘생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과정 주임교수

현하 한국불교의 교단 사회에서 비구니의 위상과 권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역사적 발자취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니와, 사상 첫 경선으로 치러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0대(2011.10.17) 및 제11대(2015.10.12) 회장 후보들이 공약 일성(一聲)으로 "종단의 중앙종회의원과 교역 직에 비구니들의 진출을 확대하는 등 '비구니의 위상' 을 드높이겠다"고 이구동성 역설했던 최근의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사 공간에서 발자취를 뚜렷이 남기고 있는 비구니승가의 활약상을 조망하는 일은 작금의 차별적 교단구조의 변화에 일정한 당위를 던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다만 종이신문의 특성상 지면의 제한으로 활자화되지 못하는 내용과 비구니 선지식들의 숫자가 부지기수(不知其數)라는 점을 양해바랄 뿐이다.

수선(修禪)

역사 속에서 비구니 스스로 선풍을 호지하며 가행정진 힘써온 바 크다. 덕숭산 수덕사에 개설된 견성암 선원을 위시해 천성산 내원사 · 가지산 석남사 · 사불산 윤필암 · 오대산 지장암 등 전국 30~40여 개의 비구니전문선원에서 니승납자들의 선풍진작이 성성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선원에는 평균 800~1,000여 명의 니승납자들이 매 안거 때마다 방부를 들고 있다. 현하 총림을 비롯한 60여 개의 선원에서 1,200~1,400여 명의 납자들이 입방하고 있는 비구들의 안거현황과 비교해 볼 때 비구니들의 수선행각이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 · 현대기를 가르며 비구니선풍을 호지해온 인물로는 법희 · 성문 · 월혜 · 일엽 · 만성 · 수인 · 도준 · 정행 · 긍탄 · 상근 · 자현 · 대영 · 법일 · 진오 · 선경 · 본공 · 쾌유 · 인홍 · 천일 · 광호 · 장일 · 혜춘 · 응민 · 세등 · 봉려관 · 일조 · 은영 · 명주 · 영명 · 윤호 · 도원 · 창법 · 인완 · 지명 · 명수 · 경순 · 경희 · 상륜 · 혜해 · 현행 · 자행 · 경심 · 광우 · 묘엄 · 명성 · 진관 · 백졸 · 불필 · 도문 · 육문 · 자민(이상 무순) 스님 등이 있다.

강학(講學)

광복 이후 비구니전문강원은 동학사 · 운문사 · 청암사 · 봉녕사 등 네 곳을 비롯해 서울 옥수동 미타사 · 충남 서산 개심사 · 경기도 용인 화운사 · 전북 전주 정혜사 · 삼선승가대학 · 전남 화순 유마사 등 20여 곳에 개설되었으나 대다수 폐원되고 지금은 네 곳만 운영되고 있다.

광복과 때를 거의 같이 하는 비구니에서 비구니로의 강학전등은 근 · 현대기 비구니 3대 강백으로 이름을 남긴 금룡 · 혜옥 · 수옥 스님이 효시를 이룬다. 1940년대 초 수옥스님이 상주 남장사의 강주로 취임하면서 관음강원을 개설한 바, 이것이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교수하고 전강하는 비구니전문강원의 처음이다. 관음강원은 1944년께 일제의 위안부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았다.

광복 이후 최초의 비구니전문강원은 1956년 동학사에 개설되었다. 동학사는 1864년에 강원을 개설한 이후 10대 강주까지 비구강원으로 운영되어왔으나, 1956년 2월 비구니 대현 스님이 주지로 부임해 비구니전문강원을 개설함으로써 지금의 동학사승가대학의 전형을 갖추기 시작했다. 1977년에 비구강백 호경기환으로부터 전강 받은 일초 스님과 묘엄 스님의 전강제자 일연 스님이 동학사 비구니강주의 맥을 이었다.

운문사는 금룡 스님이 1954년 말 교단 정화운동 이후 초대주지로 부임하면서 도제양성에 진력한 결과, 마침내 1958년 종단이 공인하는 비구니 전문교육 도량인 운문승가학원으로 거듭나면서 오늘날 비구니사관학교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금룡 스님은 이때부터 주지직을 그만두고 직접 강사직을 맡음으로써 비구니가 비구니를 직접 가르치는 교육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청암사는 혜옥 스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다. 혜옥 스님은 1955년 교단 정화운동 이후 청암사 초대주지로 부임해 쇠락해가던 강원의 위용을 바로 세웠다. 혜옥 스님이 입적(1969.5)하면서 단절될 위기에 처했으나, 1987년 3월 지형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상덕 스님과 함께 강원을 복원해 지금의 청암사승가대학의 위용을 갖췄다.

봉녕사는 1971년 묘전 스님이 주지로 부임해 경내를 일신한 후 1974년 묘엄 스님을 강사로 초빙하면서 비구니승가학원을 설립했다. 1979년부터 묘엄 스님이 주지와 학장을 겸임하면서 1983년 봉녕사승가대학으로 개칭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선승가대학은 1978년에 설립자 지광 스님을 학장으로, 묘순 스님을 강사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약수선원에서 '주림승가강원' 으로 개원했다. 1979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으로 이전하면서 삼선강원–삼선승가대학으로 개명하고 유일한 통학강원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학인수가 급감하면서 2014년 3월부터 폐원했다.



2003년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수행 특강. 해방 이후 비구니 승가는 스스로 선풍을 호지하며 수행 정진에 힘썼다. 또한 경학과 율학에도 힘써 전국에 비구니 전문 강원, 율원을 세워져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노력으로 비구니 승가는 한국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행 · 교육
배출 인재 각 분야서 활동 '활발'

첫 비구니 스님 조직 우담바라회
현재 전국비구니회 결성 '견인차'
종무기관 · 중앙종회의원 진출했으나
아직도 위상과 권익 보호는 미흡해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의 전경. 전국비구니회는 우담바라회가 모태가 되어 결성됐다.



보문종 본산 보문사에 있는 석굴암. 보문종은 한국불교 유일의 비구니 종단이다.

지율(持律)

조계종 단일계단 수계산림의 전통은 비구율사 자운 스님에 의해 1981년 2월 17일 제1회 사미(니)계 수계산림을 거행하면서부터다. 이듬해인 1982년 초 자운 스님은 비구니 이부승구족계수계의식(이하 양중수계의식)의 복원을 중앙종회에 제안해 그해 6월 종법이 제정되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그해 10월 범어사 대성암에서 양중수계 의식이 처음 치러지고, 이때부터 양중수계산림의 전통이 복원됐다. 하지만 양중수계 자체가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원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비구니의 계율수학이 이뤄진 최초의 전문율원은 1999년 5월 21일 개설된 봉녕사 금강율원이다. 당시 율주인 묘엄 스님은 2007년 5월 7일 제1회 전계식을 거행해 적연 · 신해 스님에게 전계함으로써 비구니 율맥의 독립적 계승을 공식화했다. 그해 9월 14일 제2회 전계식을 통해 대우 스님에게 율맥을 전하고, 2011년 1월 18일 금강율원 졸업식을 기해 의천 스님에게 전계증을 수여했다. 묘엄 스님은 입적직전인 2011년 11월 도혜(혜정) · 선나 스님에게 또다시 전계함으로써 총 6명의 비구니율사를 배출했다.

청암사율원은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스님을 초대 율원장으로 선임하고 2007년 4월 18일 개원했다. 운문사 보현율원은 2008년 4월 4일 개원했으나, 2010년도부터 한문불전대학원으로 학사에 변화를 주었다.

포교

비구니 포교활동의 선두는 어린이포교였다. 1960년대 서울 마포 석불사 천일 스님과 삼선동 정각사 광우 스님이 사찰에 어린이법회를 개설한 것이 시초다.

화성 신흥사 성일 스님은 청소년 계층에서 교화의 원력보살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포교지침서를 직접 간행하고, 교계 최초로 1천여 평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 매년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등 1973년부터 청소년포교의 지표를 제시해오고 있다.

도심포교 분야에서는 1971년 한마음선원을 창건한 대행 스님은 포교분야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현재 15개의 국내지원과 10개의 해외지원이 설립해 사부대중이 수행정진하고 있다. 또한 150명의 단일 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조계종이 1977년 임명한 비구니포교사 제1호인 지광 스님이 일찍이 도심포교의 중요성에 착안해 서울 동소문동에 국보 제20호 분황사 모전석탑을 모델로 한 탑주양식의 대형포교당 삼선포교원을 개원했다.

상담포교는 2000년 4월 설립된 불교상담개발원이 그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 2,3대 원장을 역임한 정덕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 출범에 앞서 1990년 3월에 개통한 자비의 전화를 통해 상담포교의 포문을 열었으며, 4대 원장을 지낸 담교 스님이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5대 원장 도현 스님을 비롯해 벽공 · 혜타 · 희철 · 규정 · 선법 · 도영 스님 등 10여 명의 비구니들이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世界佛教 法王廳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함께 정진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입니다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불법을 외호하며 범 종단지로서 한국불교언론의 막중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宗團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高僧長老團.
世界佛教考試委員會. 大韓佛教大宗師聯合協議會. 韓國佛教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 팩스 02)733-5615 / H.P : 011-229-6061

비구니
한국불교
비구니 70년

한국불교 발전 원동력 '자리매김'


2007년 비구니 명사 법계 품수식. 한국불교 사상 최초의 일로 주목받았다.


치열한 교육을 통해 배출된 비구니 스님들은 복지 · 포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청암사 학인 스님들의 모습. 현대적 시설에 대중과 함께 하며 수행정진하고 있다.

복지

비구니의 복지활동은 서울 신림동 약수사 묘희 스님이 1986년 대만불교 자제공덕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발족시킨 불교자제공덕회로부터 출발한다. 불교자제공덕회는 1989년 화성에 부지확보와 1991년 4월 사단법인화에 이어 그해 10월 자제정사 양로원을 개원했다. 계속해서 2004년 7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등을 잇달아 개원하는 등 노인복지활동의 전범을 보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묘희 스님은 2007년 3월 31일 세납 72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비구니 복지의 전형은 능행 스님이 주도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를 빼놓을 수 없다. 1989년 결식아동돕기 모금운동을 시작으로 1993년 아미타호스피스회를 설립해 전문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고, 1997년에는 한국불교간병사협회를 결성해 전문 직업간병사 교육을 실시했다. 2000년에는 불교계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센터인 정토마을을 개원하고, 2014년 6월에는 완화의료전문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을 개원하는 등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출-재가의 행복공동체로서 불교복지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은 전국비구니회가 위탁받아 1988년 10월 26일 개관한 목동 청소년회관이다. 현재 지역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주민들의 자랑스러운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노인복지는 무구 스님이 서울 수효사에서 전문노인요양원 효림원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원심회에서 수화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해성 · 은성 스님이 대표적이다. 종실 스님은 아나율불교학교를 세워 〈점자불교성전〉을 간행하는 등 맹인불자들의 불교공부에 도움을 주었다.

조계종은 1995년 2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제반 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 산하에 수도권 106개, 영남 38개, 호남 23개, 충청 10개, 제주 2개 등 총 179개의 복지시설을 두고 있는데, 비구니가 시설장으로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관 5개, 장애인복지시설 4개, 노인복지시설 8개, 어린이 · 청소년시설 1개, 어린이집 3개, 노인요양시설 5개 등 총 26개이다.

문화

비구니 승가의 역량은 문화분야에서도 활발발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옥봉 스님은 죽화(竹畵)부문에서, 일선 스님은 서양화 부문에서 이름이 높았다. 최근에는 희상 스님이 수행과 불교미술을 접목한 현대조형 미술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혜담 · 수증 · 법성 · 귀산 · 선유 · 무애 스님 등도 미술계에 이름을 올렸다.

범패분야에서는 동희 스님이 단연 돋보인다. 지성 · 범조 · 묘심 · 수법 · 오공 · 무진 · 정진 스님 등은 찬불가수로 유명하다. 다솔 스님은 국악 가수로서, 정율 스님은 성악가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첼로 켜는 비구니' 로 유명한 법현 스님도 아름다운 선율로 불법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서연 스님은 '인드라' 라는 예명으로 대중가요 음반을 낸 최초의 비구니다. 꽃꽂이분야의 선도적인 인물로 기원사 지연 스님이 있다. 지연 스님은 1983년 우담회를 창립하고 불교꽃꽂이연구소를 개설했다. 지연 · 상덕 · 보명 · 정명 스님을 주축으로 1988년 한국불교비구니꽃꽂이협회를 창립했다. 보명 스님은 1988년 연화꽃꽂이회를, 정명 스님은 1991년 연화플라워회를 별도로 결성했다.

방송계에서 활약하는 비구니로는 정목 스님이 독보적이다. 불교방송에서 '차한잔의선율' 을 진행하며 방송포교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공로로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마음공부 전문방송인 유나방송을 운영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용 · 진명 · 일엄 스님도 정목 스님을 잇는 MC로서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사찰음식 분야에서는 대안 · 홍승 · 선재 · 효원 · 은우 · 운아 · 우관 · 선오 스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조직 및 종무

비구니승가공동체의 결집력을 보여준 사건으로는 문중성립이다. 1970년대 전후부터 청해 · 계민 · 법기 · 삼현 · 수정 · 봉래 · 육화 · 실상 · 보운 · 일엽 · 보문종 문중이 속속 결집했다. 이밖에도 두옥문중 · 봉완문중 · 청량사문중 · 보문동 미타사 탑골문중 · 옥수동 미타사문중 등, 독립문중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인물 내지 단위사찰 중심으로 세계를 잇고 있는 문중이 산일(散逸)해 있다.

대한불교보문종이 창종된 1972년 전후의 교단 상황은 1962년 3월 25일 출범한 조계종 통합종단을 둘러싸고 비구 측과 대처승 측의 대립으로 여전히 혼돈의 시기였다. 긍탄 스님과 은영 스님은 보문사가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기에 처하자 어느 쪽에도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비구니의 독립적인 권리와 능력을 공인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보문원을 설립하고 비구니와 여성의 권익과 위상을 높여 사회발전에 공여한다는 목적으로 마침내 비구니만으로 구성된 종단을 1972년 4월 출범시켰다.

조직 면에서 비구니들의 위상과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의 결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 2월 24일 서울 숭인동 청룡사에서 발기한 우담바라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담바라회는 당시 3대 강령으로 ①비구니총림 건립 ②포교의 합리화 ③복지사회 건설을 내세웠다. 1971년 공식 발족하고 1985년 9월 5일 석남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대 회장은 초대 은영 · 제2대 천일 · 제3대 지명스님(이상 명칭변경 이전)에 이어 혜춘(제4,5대) · 광우(제6,7대) · 명성(제8,9대) · 명우(제10대) 스님이 뒤를 이었다.

광우 스님은 숙원사업인 전국비구니회관(법룡사)을 건립 · 개관(2003.8)했으며, 명성 스님은 한국 비구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무분야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현재까지 50명이 활동했다. 총무원 문화부장에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탁연 스님이 2004년 6월 부임했으며, 수경 · 효탄 · 진명 스님이 후임자로 부임했다. 현 집행부에서는 보경 스님이 재무부장을 맡았으며, 구과 스님이 한국문화연수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금의 비구니승가는 1968년 최초의 전국 비구니조직인 우담바라회를 발기할 당시 발원한 3대 강령의 포교 합리화와 복지사회건설에 일정한 역량을 발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총림 건립과 참정권 확대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비구니 승가의 분야별 주요인물



禪 · 강원 · 율원 기틀다져 인재 양성

포교 · 복지 등 사회 분야서도 활약

근 · 현대기를 가르며 성성한 선풍을 드날린 대표적 인물은 비구니선풍을 중흥시킨 삼현문중의 법희 스님이다. 만공 스님께 법인가를 받고 최초의 비구니선원인 수덕사 견성암 비구니총림원장을 지내며 구도의 지표를 수많은 후학들에게 전했다. 범어사 대성암에 최초로 비구니선방을 개설한 만성 스님은 법희 스님의 뒤를 이어 비구니선풍을 정립시킨 인물로 이름이 높다. 실상문중의 상징인물로서 역시 만공 스님께 법인가를 받았다.

본공 스님은 제방의 비구고승으로부터 '선사' 로 공인받은 비구니다. 만공 스님께 법인가를 받았으며, 봉래문중의 태동주역으로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한 명성 · 명우 스님이 손상좌들이다. 일엽 스님은 신문학 초창기 선구적 여류문인으로 이름을 남기더니 세납 33세에 홀연히 출가해 만공 스님의 법을 잇고 일생동안 가행정진의 전범을 보여준 비구니다. 천성산 내원사에서 선풍을 드날렸던 선경 스님은 국내 니승납자들은 물론 외국인 출가자들도 다투어 제자로 입문할 정도로 경지가 높았던 비구니 고승이다. 한암 스님께 인가받은 육화문중의 핵심인물이다.

가지산 호랑이 인홍 스님은 성철 스님 회상에서 구도열정을 불살랐던 용맹정진의 표징이다. 석남사를 선수행도량으로 일신하고 전국비구니회 총재를 역임한 법기문중의 상징인물이다. 해인사 보현암선원을 창건한 혜춘 스님은 성철 스님 회상에서 촌음도 화두를 놓지 않았던 걸출한 선객이다.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한 비구니계 거목으로, 동화사 내원암 장일 스님과 청해문중을 태동시켰다. 보운문중의 핵심 주역인 수인 스님은 교단정화 이후 금룡 스님에 이어 1958년부터 1966년 12월 30일까지 운문사 2,3대 주지를 역임하며 오늘날의 사격을 갖춘 주인공이다. 90평생 참선과 간경과 주력을 놓지 않았던 비구니종풍의 근간이 된 인물이다.

비구니 교육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는 비구니 3대 강백으로 저명한 금룡 · 혜옥 · 수옥 스님이다. 이들 3대 강백의 강학을 계승해 강원교육을 선도하며 이름을 남기고 있는 강사는 광우 · 묘엄 · 명성 · 묘순 · 지형 · 일초 스님 등이다. 서울 정각사 회주 광우 스님과 운문사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은 비구니가 비구니에게 건당한 초유의 주인공들이다. 광우 스님은 1958년 금룡 스님의 법장을 전해 받았고, 명성 스님은 1983년 수옥 스님에게 위패건당하면서 전법게를 수지했다. 묘엄 스님은 성철선사 · 운허강백 · 자운율사 등 당대 비구고승으로부터 선 · 교 · 율 삼장을 모두 전수받은 비구니이다.

비구니의 율맥전승은 자운율사로부터 전수받은 정행 · 인홍 · 명성 · 묘엄 스님에 의해 비구니 전문율원이 개원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정행 스님은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전계사로서 이름을 남긴 율사다. 1982년 10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조계종 제3,4,5,6,8,9,10,11,13,16,19회 단일계단 비구니 별소계단의 전계대화상을 역임하며 비구니수계의식을 주도했다.

조직분야에서 초창기 전국비구니조직인 우담바라회를 이끈 주역들을 간과할 수 없다. 1968년 2월 발기 당시 우담바라회 초대회장에 보문사 주지 은영 스님이 선출됐다. 우담바라회는 1971년 공식 발족하면서 서울 마포 석불사 천일 스님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포교분야에서는 청소년포교의 성일 스님(화성 신흥사)이 독보적이며, 상담포교의 정덕스님(인과선원)이 많은 노력하고 있다. 도심포교에서는 대행 스님이 한마음선원을 창건해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지광 스님(삼선포교원)도 도심포교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복지분야에서는 자제공덕회 묘희 스님과 전문호스피로서 이름 높은 정토마을 능행 스님이 단연 돋보인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 을 축하합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禪本寺

선본사 갓바위 부처님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갓바위)

주소 : 경상북도 와촌면 갓바위로 699
전화 : 053)851-18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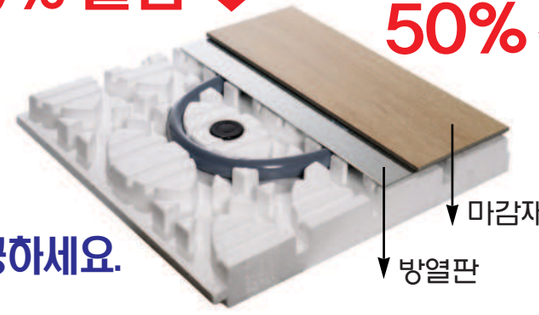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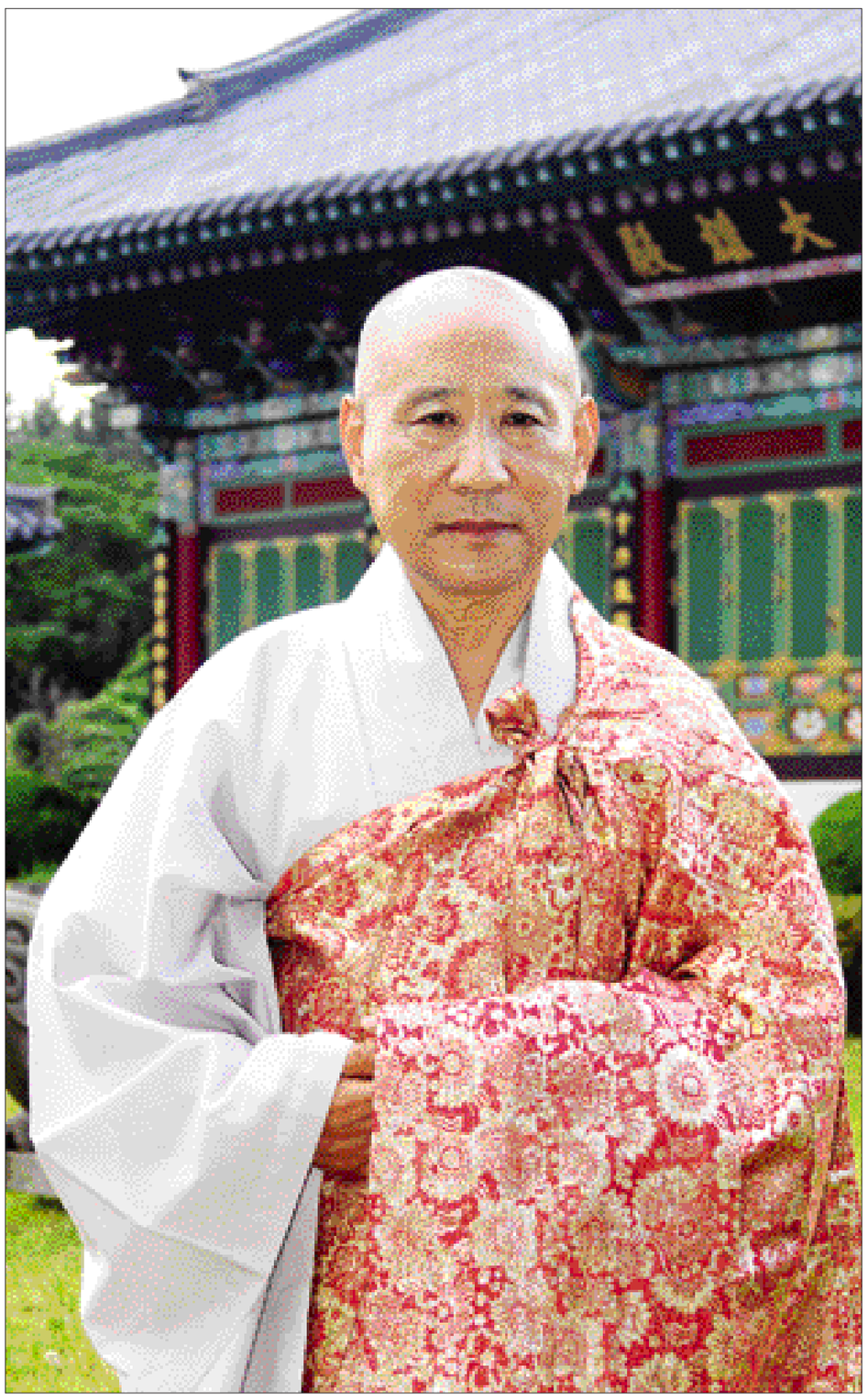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진주 : 010-3583-7139
익산 : 010-6610-2337
안산 : 010-2487-3393
화성 : 010-3168-9250
수원 : 010-5211-7260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여수 : 010-3612-7784
대구 : 010-3821-4849
남양주 : 010-9183-9729
김천 : 010-9091-4583
서광주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서산 : 010-7301-5854

“교육하지 않으면 종단 미래 없어”…

수암 스님 (태고종 원로위원 · 금붕사 주지)



수암 스님은 … 1959년 사라사서 이성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1959년 사라사서 방동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75년 서울 신촌 봉원사서 묵담 스님을 전계사로 대승계를 수지한다. 1980년 선암사 승가대학을 4년 수료했으며, 1994년 원광대학원 동양종교학과서 불교학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에는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과 제주불교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1999년 제주대 철학과 및 중어중문과 강사를 역임했다. 2000년에는 제주대 대학원 중어중문과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에는 한라불교신문(현 제주불교신문) 발행인에, 2002년에는 태고종 중앙교육원장, 2004년에는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부학장 등에 취임했다. 2006년에는 제주대학원 중어중문과서 박사학위를, 2014년에는 중앙승가대학원 서 역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위원 , 중앙강원 대교과 강주, 태고제주강원 강사와 금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금강경〉〈무문관〉 등이 있다.

‘배우니까 청춘이다’ . 이는 평생 공부 열심히 하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수 70세를 훌쩍 넘긴 초로에도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젊은이들 못지 않은 스님이 있다. 바로 태고종 원로위원이자 제주 금붕사 주지인 수암 스님이다. 그는 끊임없는 자신의 향학열을 출재가 불교 교육으로 회향하며, 수행 방편으로 삼아온 수암 스님(태고종 원로위원 · 금붕사 주지)이 그런 인물이다. 스님에게 공부는 평생 화두였다. 제주대 중문과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스님은 종단은 다르지만 지난 2008년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과에 입학해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의 대표적 학승으로 꼽히는 수암 스님은 “공부는 내 평생의 업이자 수행 방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 자체에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스님이 이렇듯 학승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은 집안 내력과도 연관이 있다. 1926년 10월 화주 김대승각 스님과 도감 이성봉 스님이 초가 법당을 세우면서 금붕사는 ‘화엄사 제주포교소’로 허가를 받는다. 김대승각 스님은 수암 스님의 증조할머니고, 이성봉 스님은 외할머니다. 특히 이성봉 스님은 제주지역에 정법을 바로 알릴 교육기관이 없음을 안타까워했으며, 민간신앙과의 융화로 변색된 제주불교의 본 모습을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불교의 근본 정신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1932년 최청산 스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주도내서 처음으로 승려교육을 실시한다. 당시 승려 교육에는 많은 도내 학인 스님들이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선대 어른들이 절을 창건하시면서 교육에 힘써 온 정신을 이어받아 공부하는 사찰 가풍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배워서 불교를 알아야 남에게 포교를 할 수 있는 법이죠. 자신이 모르는데 누굴 포교합니까? 공부하지 않고 전법에 힘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죠.”

왜곡된 불교 풍토와 일재 잔재 청산에 노력한 이성봉 스님은 제주도민들의 최대상처인 4.3 사건 당시인 1948년 토벌대에 의해 총살되는 비운을 맞는다.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수암 스님의 이모인 법인 스님이 법맥을 이었다.

1940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출신인 수암 스님은 아버지를 따라 전남 여수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1961년 금붕사서 행자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된다. 1964년 군대 제대 후, 1965년 금붕사 감원과 1973년 금붕사 주지로 취임한다. 20여 년 동안 사찰의 안정과 신도 포교에 진력하며 금붕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스님은 속세 나이 40대 중반에 들어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 신도들을 올바른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늦은 나이지만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1986년 순천 선암사 강원의 문을 두드린다.

“공부라는 놈이란 참, 녹녹치 않더군요. 만학에 뛰어들다 보니 어려움이 많더군요. 보따리를 싸고 싶을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한 내용이 이해 되지 않으면 그때만큼 속상할 때가 없었죠. 늦게 시작한 만큼 젊은 도반들이 쉴 때도 참고 견디면서 공부 했습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수마(睡魔)와 번뇌, 쉼의 유혹을 물리치며 원을 세워 공부 삼매에 빠져 정진했습니다.”

공부하다 힘들면 수암 스님은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묵담 스님을 찾았다. 그럴 때마다 큰 스님은 수암 스님이 왜 자신을 찾았는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리곤 “경전 속에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강사 스님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공부에 열중하라”고 불호령을 내리셨다.

“큰 스님께서는 논밭사서 불사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공부해서 전법에 열중하면 그게 바로 중생 불사라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경책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를 학승으로 이끌어준 셈이죠.”

이후 수암 스님은 졸업하기 어렵다는 제주방송통신대학(중어중문학과)을 4년 만에 졸업하고 1994년 원광대 동양종교학과에 입학해 ‘불교학’을 전공한다. 여기서는 ‘대승기신론’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 불이 붙은 수암 스님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았다. 다시 2000년에 제주대 중어중문학과서 ‘불전 어음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는다.

공부해야 불교 포교할 수 있다
1999년 제주도내 최초 불교대학 설립
올해까지 37기 배출… 졸업생 2천여명

복지불사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태고복지재단, ‘제주태고원’ 개원 산파
태고종 복지사업기틀… 타지방 모델

이에 앞서 수암 스님은 1998년 제주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인 ‘한자의 이해’ 강의를 제안 받고 강의에 매진했다. “처음 제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놀란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한 듯 위 · 아래로 시선을 계속 옮기더군요. 삭발염의하고 승복 입은 교수가 일반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유발시켰던 것 같아요. 수행자로 오히려 더욱더 매사 행동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후학 양성에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수암 스님은 일상 생활에 자리잡은 불교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많이 전했다. 강의는 너무 지루하지 않게 간단한 퀴즈와 농담을 섞어가며 재미있게 진행했다. 효과는 빨랐다. 200여 학생들이 스님 강의를 신청하는 등 학생들 사이에선 금방 입소문이 퍼졌다.

“강의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의외로 불교를 잘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래서 불교용어와 연계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한자를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항상 ‘걸어다니는 포교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불교적 테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오히려 종교와 상관없이 수강생들이 점차 늘어나더군요. 그만큼 우리 불교가 한국인들의 정서와 사상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암 스님은 5년의 교양강의에 이어 본격적으로 중어중문학과 전공과목인 ‘한문과 고사성어’도 가르쳤다. 철저히 불교식 교육 방법을 고집했다. 우선 공부시작 전 죽비로 시작을 알리며, 5분 동안 학생들의 ‘마음챙김’ 시간을 가졌다. 강의 커리큘럼도 〈초발심자경문〉〈치문〉〈부모은중경〉 등의 경전 가운데 좋은 글을 가려 뽑아서 학생들에게 가리켰다. 마음공부와 겸한 스님의 독특한 수업 방식 때문인지 강의 요청도 잇달았다.

제주대 철학과에서도 ‘불교철학 · 인도철학’ 관련 강의를 제안해 10년 동안 꾸준히 강의했다. 제주대 학생들 사이에선 스님의 명성을 모르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스님의 강의 그 자체가 바로 전법이요 포교활동이 된 셈이다.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름 · 겨울방학 때마다 스님이 주지로 있는 금붕사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해 대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에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바쁜 틈틈이 짬을 내 저술 활동도 했다. 지난 2003년부터 1년 여 동안 제주불교신문에 연재한 ‘금강경 강의’를 바탕으로 제주대 중문과 안재철 교수와 함께 문법풀이를 수록한 〈금강경〉을 펴내기도 했다. 이어 2007년 2월에는 중국선종 사상 최고의 저술로 추앙받고 있는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게송의 시가 형식과 선사상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이외에도 스님은 또한 탁월한 행정 개혁가였다.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을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역임하면서 종단 발전의 획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

당시 타 종교서 우후죽순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무렵이지만 태고종단의 복지사업은 수암 스님이 종무원장을 맡을 이전까지만 해도 전무했다. “그 당시만 해도 태고종이라면 조계종단의 ‘아류’란 인식 때문에 복지사업권을 따내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종단행사인 ‘방생법회’ 등에 대규모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기관단체장을 초대하면서 태고종단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략이 맞아 떨어졌지요.”

하지만 문제는 종단내부에서 불거졌다. 종단 스님들이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반대가 심했던 것이다. 결국 수암 스님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태고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제주 도지사와의 간담회도 마련해 복지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 종단 스님들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수암 스님의 끈질긴 노력 덕택에 결국 태고종단서 2억 원을 들여 토지(현 제주태고원 부지)를 매입해 (사)태고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는 이후 2005년 1월 노인요양복지시설인 ‘제주태고원’ 개원에 산파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2007년에는 미타요양원이, 2010년에는 제주도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등 태고종단 복지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는 타지방 태고종 복지사업의 모델이 됐다.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복지사업은 불교가 앞장서서 펼쳐야 할 분야로 생각해 강력하게 밀어 부쳤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심입니다. 늙고 병든 노인들과 아픈 중생들을 위해 그들이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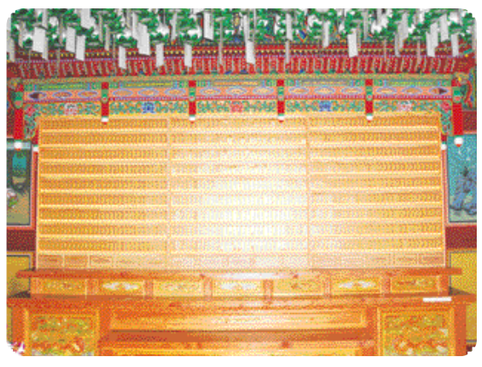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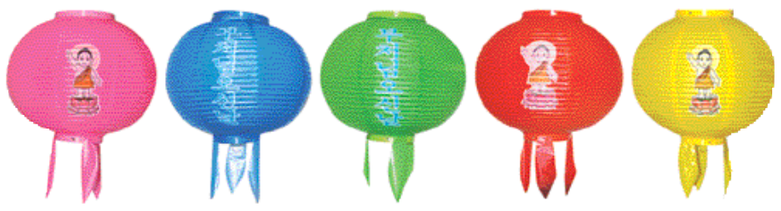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공부는 내평생 업이자 수행 방편



제주대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과목 강의중인 수암 스님.


수암 스님(맨앞줄 왼쪽서 네번째)이 제주불교대학 36기 재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태고법륜불자회와 함께 정기사찰 순례중인 수암 스님(사진 가운데).


태고제주강원 강사로 있는 수암 스님이 강원서 강의하고 있다.

편히 쉴 수 있는 병원과 쉼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불교가 반드시 해야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암 스님은 복지 뿐 아니라 학승답게 재가불자의 교육에도 힘썼다. 타 지방에 불교대학이 점차 우후죽순 생겨날 무렵 제주도에도 불교대학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느꼈다.

수암 스님은 불교교양대학을 통해 '참 불자' 를 양성하는 것이 한국불교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스님은 지금 당장이 아닌 먼 미래를 항상 바라보며 불교대학 건립에 진력했다.

수암 스님의 원력에 이어 지난 1999년 9월 개교한 도내 최초인 제주불교대학은 1기부터 2015년 7월 배출한 37기까지 졸업생 수만도 2천여 명을 넘을 정도로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은 제주불교계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에 널리 퍼져 포교 역량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그 당시 창립한 봉사단체인 '태고보현봉사단' , 신행단체인 '태고법륜불자회' , 합창단인 '태고만다라합창단' 그리고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 산하 제주불교대학산악회 등은 태고종 제주교구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포교 일선에서 신행활동에 여념이 없다.

"교양 대학이지만 학사관리 부터 철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째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특별 관리하며 일일이 독려전화를 거는 등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졸업 시킨 게 33명이었지요. 하지만 불교대학은 200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90명 정원으로 한정했지만, 수 개월 동안 기다려야 입학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죠. 졸업생들이 신행단체로 연계되면서 제주교구의 뿌리는 더욱 튼실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불교대학의 파장은 재가불자 이외에도 종단 스님들에게도 퍼졌다. 불교대학 강사로 나섰던 스님들부터 팔을 걷어 부치고 공부에 관심을 가졌다. 순식간에 면학분위기가 종단 내부에 조성이 된 것이다. 종단 스님들은 동국대 · 동방대 등 종립학교에 입학하는 등 학구열기가 높아졌다. 재가불자와 더불어 교육열기가 동반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다.

이런 공로로 스님은 점차 태고종단 중앙서도 명실상부한 학승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결국 스님이 공부에 전념한 귀결점이자 회향은 태고종단의 인재양성이었다. 수암 스님은 지난 2002년 태고종 중앙교육원장과 200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부학장 소임을 맡으면서 10년 동안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고된 일정 속에서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강의비를 모아 동방불교대학 후학들의 장학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고종단의 정치적 상황과 내홍속에 희생된 동방불교대학의 실태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야하는 아픔과 같았다고 수암 스님은 회고한다.

"교육이 없으면 우리 태고종의 미래도 없습니다. 1988년 금붕사서 백양사와 선암사 강주를 역임한 서병제 강백을 초청, '제주교육원' 을 설립해 3~4년 동안 도내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당시 공부 했던 스님들이 저를 비롯해 수열, 진주, 수철 스님 등 제주불교계에 향학열을 지피는 기둥이 됐으며, 태고종 제주교구가 타 지방보다 모범적 신행활동을 많이 펼치며 교세를 확장한 것도 바로 교육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제주교육원' 은 지난 2014년 1월 '태고제주강원' 으로 다시 태어났다. 올바른 승가사상을 구현하고 불교의 고유전통에 입각한 승가전문강원이자 도내 유일의 강원 이다. 수암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탄해 스님도 강원을 30여 년 만에 재개원한 것은 제주교구만이라도 제주불교를 책임질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배움에 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인 수암 스님은 그동안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1개를 취득했지만, 2014년 1월 다시 중앙승가대학 대학원 '불전 한어의 복음절사와 문법연구' 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 학위를 또 하나 취득했다. 이어 수암 스님은 제주대 중문과 안재철 교수와 함께 무문 혜개 선사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번역한 '무문관' 도 펴냈다.

수암 스님은 마지막으로 "역경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다른 언어로 바뀌는 것으로 이 번역과정을 통해 새로운 글자가 사용됐고 문법형식이나 수사법 등이 침투돼 언어학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중국 언어가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워 해석 연구한 것이 논문 주제입니다. 중국 언어의 역사를 완성하고 불교라는 종교의 문화적 전이과정을 파악한 것이지요."라고 최근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설명했다.

노송 주위에는 그 향기며 자태를 그대로 빼닮은 또 다른 노송들이 즐비하듯 수암 스님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 마르지 않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다.

글 · 사진=김주일 기자 · 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전법일기

백척간두진일보, 백령도에 사찰이?

백령도는 인천에서 서북쪽으로 191.4km, 북한의 황해도 장연군과는 17km 떨어져 있으며 해발은 184m에 총 인구는 5천 5백여 명, 면적은 51.086㎢, 농업 60%, 어업 15%, 기타 25%,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교회 13곳, 성당 1곳 (공회소 12곳), 그리고 서해 5도의 유일한 사찰 몽운사, 이것이 서해 최북단 섬이라고 불리워지는 백령도의 기본 현황이다.

부처님은 2600년 전 깨달음을 이루신 후, 전도선언에서 전법을 떠나기를 당부하였다. 이후 이러한 불법의 인연은 천 년의 세월을 넘어 한반도에까지 이르렀고 대한민국 불교역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백령도는 어찌된 일인지 있던 절조차 폐사 되고 200여 년 전부터는 아예 불연이 끊어졌다고 한다.

그러던 차 백령도 군법당 방문이 인연계기가 되어 2002년 11월 15일, 백령도에 가람 창건을 위한 불사 원력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사찰이 없으니 신도 또한 있을리 만무한 백령도에서의 처음 맞이하는 초겨울 풍경은 바닷가의 매서운 바람과 함께 궐기하는 모습의 부흥회 사진을 배경으로 한 현수막이 섬 주변 곳곳에 걸린 채 펄럭이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 성지 백령도에 사찰건립이 웬 말이냐! 결사반대"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백령도에서 내쫓기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백척간두 진일보, 은산철벽이 이런 감정이었을까? 1898년 설립되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오래되었다는 중화동 교회를 비롯해서 100여 명의 목사를 배출하였다는 자긍심으로 팽배한 지역적, 정서적 특징이었다.

그러던 중 백령도가 불교를 배경으로 한 심청전의 설화와 관련한 많은 부분을 담고 있고, NLL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긴장감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기에 '심청효평화축제' 를 통하여 육지의 신도님들과 관광객을 유치할 기획을 세우게 되었다.

마침 그 당시 불자 가수회 회장을 불교와 해병대의 홍대대사를 자처하는 운봉거사 김흥국씨가 맡고 있어서 백령도 위문공연을 부탁하였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어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렇게 준비하며 행사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게 된 어느 날, 신도님이 찾아와서 크게 염려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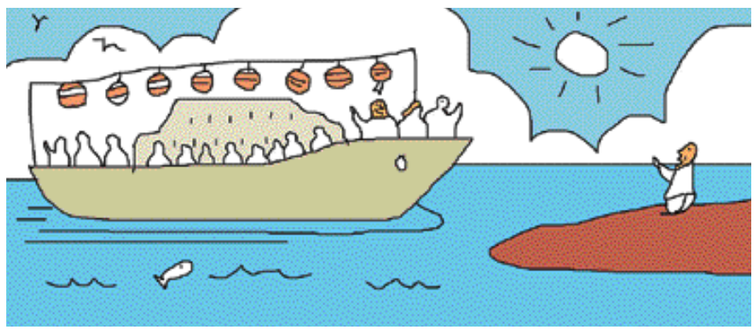
"백령도 교회들이 연합해서 축제를 못하게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사를 위한 백일기도를 합시다."

그리하여 총칼을 대신한, 보이지 않는 기도 전쟁이 시작 되었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축제일이 다가오는 동안 마음은 평온하였고 행사 진행도 차분히 준비 되었으며, 한 편으로 육지에서는 격려와 더불어 축제에 동참하고자 접수한 불자들이 오백 명 가량 되었다.


그림 · 박구원

그렇게 날은 흘러 축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오게 된 상황에 폭풍이 불어 여객선이 통제가 되었다가 전일에서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기 시작 하였다. 폭풍을 미리 맞이하고 난 축제 당일은 아마도 그 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날씨를 점지 받은 듯 했다.

불자가수회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과 손님들을 맞이한 백령도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어 들썩였다.

그리고 또다시 맞이한 부처님오신날.. 앞만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뒤돌아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법당이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몇몇이지만 신심 지극한 백령도의 불자님들과 백령도 관광으로 입도한 참배객, 신부님을 비롯한 이웃종교의 신자님들이 환한 웃음으로 축하를 해주었다.


부명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

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명예종정 일파당 각암대종사
대 종 정 고봉당 지산대종사
종 정 혜강당 능인대종사
총무원장 대웅당 혜송

사서실장 성현

문도회장 혜천 원로의장 범아 종회의장 법장 법계고시위원장 혜암
승정원장 덕암 사정원장 두현 승가대학장 지우 중앙선원장 혜광
교육원장 무아 포교원장 효천 율원원장 도안
호계원장 용진 염불원장 상호 문화원장 영봉
사서실장 청아 총무부장 인연 비구니부장 홍신 재무부장 수연 교육부장 법연
호법부장 광명 사회부장 도법 규정부장 도신 문화부장 연제
경기교구종무원장 인덕 인천교구종무원장 진각 경남교구종무원장 무척
충북교구종무원장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법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원각 부산교구종무원장 심공 울산교구종무원장 무정

종도모집중 현 종도 425명. 등록사찰수 389개 사찰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053)325-0400 팩스 053)325-4848
■ 대본산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40번지 도선사

을 축하합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민재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청량 범왕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도암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 학 장 민재 대광

총무부장 혜조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성화 홍보부장 우연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도각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대오 경남서부교구부원장 법조
대원종법사단장 수안 신풍사신도회회장 이정민(청암)
대원종신도회회장 신우연 대원종전국신도회총무 김임숙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원장 지현
중앙종회의원 대광 민재 연아 도하 법조 원효 도이
성화 법경 범수 혜인 혜조 혜성 도각
영암 지현 대언 지연 성조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스님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 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종정 정허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의 열쇠

불광출판사

정신과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파욱 수행에서 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모든 것을 담은 책. 불교 수행을 정신치료에 꾸준히 접목시켜온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가 본인의 체험을 사이사이 소개하여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깨달은 불교 수행의 정신치료적 의미를 짚어간다.

부처님의 부자수업

고려대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가 불교학을 섭렵해 완성한 행복의 경제학. 불교의 중도와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해, 시장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불교자본주의를 새롭게 구성했다.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감 트룽파가 서양에 불교 명상수행을 소개하고자 만든 수행 프로그램인 샴발라 수행을 다루고 있다. 샴발라 수행은 불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추구한다. 특히 혼자서 마음수행의 길을 가는 여정 내내 일어나는 두려움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 문의 02)420-3200

비움과 소통

아미타불 48대원 (무량수경과 정법개술)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을 담은 이 책은 『무량수경』의 아미타불 48대원에 대한 해설, 보정 서길수박사가 번역한 산스크리트 『아미타경』, 염불수행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槪述)』로 이뤄져 있다.

생사해탈의 오직 한길

역대 고승과 선사들의 가사체 왕생법문곡과 염불법문을 수록해 참선,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방편을 닦는 불자들도 염불의 깊은 뜻을 터득해 이생에 윤회를 벗어나 불퇴전지(不退轉地)에 오르는 기연을 만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선문염송요론(제1, 2, 3권)

제1권에는 30가지, 제2권에는 41가지, 제3권에는 38가지의 선문답이 각각 담긴 선화(禪話)를 바탕으로 백봉거사가 강론을 통해 생활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들은 '지금 여기' 바로 이 당체(當體)에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선종의 핵심 종지를 체득하고 삶 속에서 진실을 구현하는 깨달음의 기연을 갖게 될 것이다.

■ 문의 02)2632-8739

열림원

암자로 가는 길 1, 2

전국의 암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요한 선의 진경을 소개하고 고승의 숨결을 전하는 암자 기행문의 결정판. 저잣거리의 어지러움과 수선스러움을 놓고 상처와 아픔을 위안받는 안심의 여정을 그려낸 〈암자로 가는 길〉은 1, 2권과 곧 출간될 세 번째 책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 땅의 수행처들을 순례하면서 명상적 산문을 집필해 온 작가 정찬주의 대표 에세이.

무소유

법정스님이 태어나 출가해서 수행하며 입적하기까지의 삶을 소설화한 정찬주 장편소설. 탐욕과 무지의 세속을 벗어나 무아와 무소유의 삶을 이루는 수행의 여정과 법정스님의 따스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삶의 근원적인 의문에 사로잡힐 때 어디로 여행을 떠날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를 알기 위해 인도로 떠난 시인의 경험담. 시인의 눈과 마음으로 다가간 세상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18년간의 스테디셀러 개정판.

■ 문의 031)955-0700

클리어마인드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인가? 불교와의 대화가 나를 불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적 불자로 만들었는가?

나는 불교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교적 잔재를 아직도 쌓아 두고 있는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젊은 날의 깨달음

이 책은 혜민 스님이 계를 받고 난 후 지난 10년 동안 하버드, 프린스톤과 중국, 일본, 햄프셔 대학교등지에서의 삶을 소재로 쓴 에세이들의 모음집이다.

천년사찰 천년숲길

"천년사찰 천년숲길"은 20년 불교 전문기자가 풀어내는 걷기명상 에세이집이다. 현재 불교신문사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처음 불교에 입문한 이후로 줄곧 사찰을 다니면서 걸었던 숲길에 대한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내고 있다.

■ 문의 02)2198-5151

운주사

선으로 풀어낸 천수경

중생들을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관세음보살, 그리고 관음신앙의 결정체인 천수경. 이 책은 믿음신앙, 타력신앙의 대표격인 천수경을, 성품 을 바로 보아 돈오견성한다는 선의 안목으로

융합하여 풀어낸 독특한 해설서로, 천수경에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해줄 것이다.

불보살 영험 이야기

간절한 기도로 불보

살님의 가피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로지 간절한 믿음과 신심 하나로 자신

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뜻하는 바를 이룬 한국, 중국, 일본 중생들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모아 엮었다.

어린이 반야심경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현직 교장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펴낸 반야심경 해설서로, 최대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하였다. 또한 중간중간 예쁜 삽화들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반야심경을 쉽게 이해하고 자 하는 어른들이 보기에도 손색이 없다.

■ 문의 02)926-8361

대도대한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오랜 세월을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세상의 중심국으로서 인류에게 문명을 전해 주며 세상을 이끌어 왔던 대한민족이었다.

한국, 배달한국, 대조선에 이르기까지 7,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한 국가를 이루며 이어 왔던 대한민족이 열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과연 다시 뭉쳐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건국할 시기는 언제일까.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 문의 063)643-7285

BOOK STORE



정신과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 불광출판사



부처님의 부자수업
윤성식 | 불광출판사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감 트룽파 | 불광출판사



아미타불 48대원 (무량수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 거사 번역 | 비움과 소통



생사해탈의 오직 한길
상이암 엮음 | 비움과 소통



선문염송요론 (제1, 2, 3권)
백봉거사 | 비움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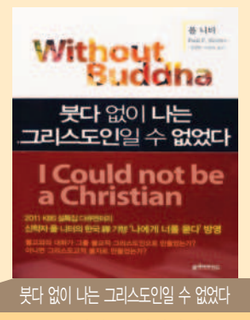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 열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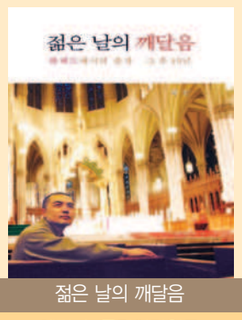
무소유
정찬주 | 열림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류시화 | 열림원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폴 니터 | 클리어마인드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 클리어마인드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 클리어마인드



선으로 풀어낸 천수경
진원 | 운주사



불보살 영험 이야기
이수경 |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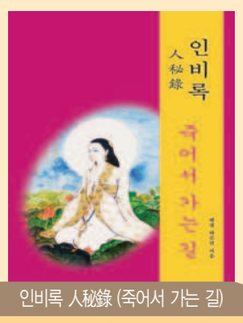
어린이 반야심경
민병직 | 운주사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대광 엘리사 | 대도대한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대광 엘리사 | 대도대한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 대도대한



대원성 지음 / 값 17,000원

대원성 보살의
피안으로 가는
70년 신행이야기

바라밀 일기

인연, 한 송이 연꽃이어라
내가 나를 버릴 때 내가 아니 우리가 되었네
우리가 내 안에 있어 더 큰 내가 되었어라.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행을 실천한 모범 불자

우리 대원성 보살님은 비록 속세에 살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불심 속에서 자라났고 70을 넘도록 불심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살님은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도 아니하고, 불행(佛行)이 아니면 행동하지 아니 했으며, 불심이 아니면 가슴과 머릿속에 넣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오신 모범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 혜인스님 (은해사 조실)

한 방울 물이 바다가 된 회향의 길

많은 불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때 삶과 수행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겠지며. 그러한 속에서 스승들의 가르침과 현실의 삶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살아온 길이 대원성 보살님의 '바라밀 일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에 바라밀을 향한 그 신심과 원력은 불자들의 귀감이라고 할만 합니다.

– 혜국스님 (석종사 선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대표전화 02-2004-8213 여시아문

올 가을 '꼭' 읽어야 할 추천 도서

BOOK STORE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 지은이
이경애 | 조계종출판사


너무 멀리서 찾지 마라
정운스님 | 조계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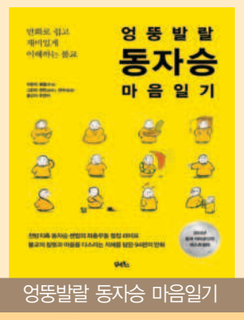

무비 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무비스님 | 조계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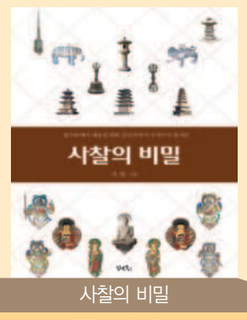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문제현 선사 | 도서출판 문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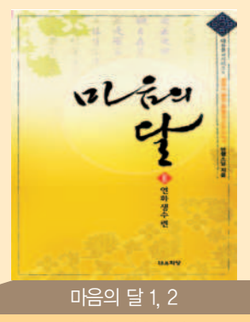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문제현 선사 | 도서출판 문젠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문제현 선사 | 도서출판 문젠


한송이 연꽃의 말없는 가르침
마스노 슌모 | 담앤북스


엉뚱발랄 동자승 마음일기
쉐청 | 담앤북스


사찰의 비밀
자현 | 담앤북스


마음의 달 1, 2
만행 | 대유학당


항복기심
만행 | 대유학당


선용기심
만행 | 대유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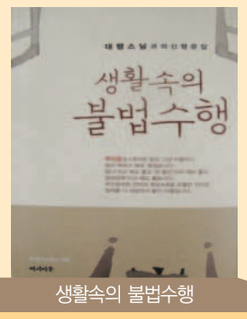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천명일 | 지혜의 나무


절로 가는 길
천명일 | 지혜의 나무


수능엄경 (상 중 하)
천명일(해설) | 지혜의 나무


그냥 무조건이야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현대불교


삶은 고가 아니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여시아문


생활속의 불법수행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여시아문

조계종출판사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

건강이 위태로운 노스님의 입맛을 찾기 위해 만든 장떡, 재료 준비만 삼 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하는 오과백미, 지리산 청정한 산골에서 꽃과 약초를 구하는 보살과의 만남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책. 그 이야기 끝에 『이야기를 담은 사찰 밥상』은 옛것을 지키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마라

수행이 어렵지 않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책. 대한불교조계종 교수 아사리이며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한 저자 정운 스님은 우리네 삶과 수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듯이 전한다.

무비 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임제종의 기초를 세운 황벽 스님의 어록이자, 조사선의 핵심이 담긴 '전심법요'. 이를 무비 스님이 생생한 강설로 풀었다. 무비 스님은 '전심법요'의 대지인 '유전일심 갱무별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처의 소질은 우리의 마음에 달렸음을 일깨운다.

■ 문의 02)733-6390

도서출판 문젠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다.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다 보면 내면 안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전등록 전30권을 5권으로 완간!
7불과 역대 조사의 말씀과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명안종사인 대원 문재현 선사가,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 문의 031)534-3373

담앤북스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리는 인생의 약상자

"살아 있는 한 계속되는" 불안과 외로움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전한다. 일본 선승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스노 슌묘의 최신작이다. 책에 소개된 38가지 마음 처방전을 따라

엉뚱발랄 동자승 마음일기

불이사(不二寺)에 사는 천방지축 동자승의 수행 일상을 담은 94편의 만화다. 동자승과 스승이 나누는 대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불교의 참뜻을 알게 된다. 또 불이사를 찾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사찰의 비밀

사찰에 갈 때마다 사찰 곳곳의 숨은 의미가 궁금했다면? 「사찰의 비밀」을 읽어 보자. 절이 산으로 간 이유에서부터 탑의 층수가 모두 홀수인 이유, 법당에 부처님이 여러 분인 이유 등 사찰 구석구석에 깃든 불교문화와 역사, 의미를 단 한 권에 모두 담았다.

■ 문의 02)765-1251

대유학당

마음의 달 1, 2

6조 혜능, 탑몽대사와의 기연!!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된 보살행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다.

항복기심

이 책은 저자인 만행 스님이 폐관을 통해 직접 체득한 수련을 여러 불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종의 불문 길잡이 책이다.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의 마음가짐과 육체 수련법을 자세하고, 심도 있게 법문하고 있다. 특히 3자명, 6자진언, 음공과 숨쉬기 등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불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신과 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선용기심

본 책은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육체수련의 방법을 득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세하고도 심도있게 법문했다. 특히 불경과 수련 그리고 보살행에 대한, 마음자세와 수련하는 방법 등은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의 심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의 02) 2249-5630

지혜의 나무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이다.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 쉽게 엮어내었다.

참 나를 찾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보는 천자문 이야기는 깨달 음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절로 가는 길

이 책은 사찰의 안과 밖의 참 면목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만나게 되듯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안내하며, 사찰의 구조적 풍광과 모든 조형의 조각물들이 모두 문자로 보이고, 형색의 도설이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들려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 해 준다.

수능엄경 (상 중 하)

이 책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이다.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 하다.

■ 문의 02)730-2211

여시아문

그냥 무조건이야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 가는길 !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실상의 가르침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속에 담긴 선지(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 참말씀

삶은 고가 아니다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중에서

생활속의 불법수행

故 대행 큰스님과의 수행 문답집. 일상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과 고통스런 의문들을 큰스님께 묻고, 그에 대한 스님의 선(선)적인 답변을 실어놓은 이 책은 어느 누가 읽어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생활참선의 지침서다.

■ 문의 02)2004-8213


이란修德華 지음 / 값 17,000원

이 시대의 승만보살로,
신사임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란 보살의 수묵화 같은 수행기

승만의 꽃다발을 당신에게

은행통장은 없어도 공덕통장을 채우고 살면 행복하다
고난은 방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부처님의 신호
승만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란 부인은 여여원을 설립하여 오랫동안 가정법회를 열어오고 사찰의 불사에도 동참했다. 이 한권의 책 속에는 교계의 향기로운 난초(蘭) 역할을 톡톡히 하며 재가 불자의 훌륭한 모델로 존중받는 이란 보살의 열정과 현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 고영섭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어머니는 우리 가족과 만은 이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주셨다.
어머니의 소리없이 자애로운 교육방식과 철학은 교육자인 나에게 어떠한 이론서부다 귀감이 되는 교과서였다. 어머니처럼 향기로운 불자의 삶을 살고 싶다.
– 이재성 (서울교대부설 초등학교 교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9-4 이가비딩 104호 대표전화 02-336-8910 사문수



대행 스님

지옥이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런 문제 등등이 나올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일은 자나 깨나 오직 정신을 거기다 두고서 이 삶의 보람을 자유스럽게 누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돌봐 주면서 다스리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것도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는 세세생생에 버림을 받아서 오간지옥에 태어나서 국내 밥내도 못 맡게 됩니다.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벌레가 돼서 산다면은 얼마나 그게 치욕적인 고(苦)입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데 벌레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고가 많단 얘깁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다.' 하니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금방 살다가 금방 딴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까지 다 두고 가지만 업식은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한 발짝도 에누리 없이.

옛날에 원주에 있을 때 이런 실질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뭘 잃어버리면 고양이를 시루에다 앉혀서 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비 틀리는 대로 그것을 집어 간 사람이 비비 틀린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 그 농촌에서 무엇을 아마 크게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깐 그 마을에서 전부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외치고는 고양이를 시루에다 안치고는 쪘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손주를 봤는데, 머리는 고양이고 몸뚱이는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가 묻어 버린 예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어 버렸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듯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아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 병은 고쳐질 수 있을지언정 그 병의 근본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화해서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어떠한 인과로서 이렇게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도리를 공부하는 데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몰라야지, 모르는 게 그냥 모르면 안 됩니다. 알고도 겸손하게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 정진하실 때도 그렇고, 어느 분이든지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기도하거나 상대를 놓고 하면은 안 되고 또 내면으로라도 '해 주시오' 하고, 당신이 있어 가지고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거기다가 '해 주시오' 하면은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마음으로 굴려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벌써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그래서 '관세음' 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 관해서 보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말하자면 네가 즉 관세음이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동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들이고 내고, 이게 모두 네가 보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딱 드잡아서 자기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다 관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달아서 완벽하게 섰다 하면은, 지팡이가 완전히 섰다 하면은, 이 몸속에 든 의식도 그게 전부 업식인데 그 업식이 한데 합쳐져서 그냥 큰 에너지덩어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력입니다.

여러분이 날더러 항상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허,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해 봤자야 어떤 때는 소용이 없이 될 때가 있어요. 금방 말하고 돌아섰는데 금방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전부 안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립니다. 행동이 그렇게 돼야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화목하고 즐겁고 좀 색다르게, 빛나게 살려면 행동부터 진실하게, 그렇게 모든 거를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하고 부딪치기도 하지.' 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전전긍긍하고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증오하고….

그리고 자식도 자기가 인연에 따라서 낳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저놈의 새끼가 누굴 닮아서 저러냐? 제 아비를 닮아서 저렇지!" 또 아버지는 "제 어미를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거는 자식의 뿌리를 북돋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싹을 망쳐 놓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거니와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고 모두가,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래로는 내가 햇빛을 주는 것이 바로 뿌리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햇빛을 주게끔 심력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지금 배움에 따라서 종교를 진짜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어디 가서 남편이 잘되게 빈다, 자식이 잘되게 빈다 하고서 산 기도를 무슨 백 일을 한다, 천 번을 절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것이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항상 그러죠. 천 번 절한 것도 바로 일정례에 속한다. 마음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서 진실로 둘 아니게 한다면 만 번 하는 것보다 일배 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랬죠. 그런데 그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들을 다 그냥 정신적으로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기도 간답시고 멸치 뭐 이런 것도 다 안 먹이고 고기도 한 칼 안 먹이면서 '백 일 동안은 먹지 맙시다.' 하고선 그냥 다 안 먹이고선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백 일이 일 초가 될 수 있어요. 일 초! 일 초가 모르면 백 일이고, 백 일이 만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 한생각을 잘하면 한 찰나에 일어설 것이고, 절룩발이가 두 다리를 다 찾을 것이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두 다리가 다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좀 보세요. 우리가 경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켜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관세음이라고 그런 게 지켜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만물 돌아가는 거를 다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관(觀)! 그래서 볼 때에 둘 아닌 도리에서 본다면 모두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있질 않아요. 내가 산으로 다닐 때 그 나무 한 그루도, 어떤 거는 목신(木神)이 인사를 해요.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신처럼, 세상에 이리 바람이 불고 저리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이래도 나중에 가을이 되면 잎이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지고 앙당한 가지만 남아도 말이 없어요. 말없이 그냥 움죽거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인내심 있게 걸어가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배움을 주는 거라고. 그 나무 한 그루가 앙당한 가지만 남아서 불불 떨면서도 인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생명이 그 뿌리를 지키면서 날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 줘서만 압니까?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네들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스승이 안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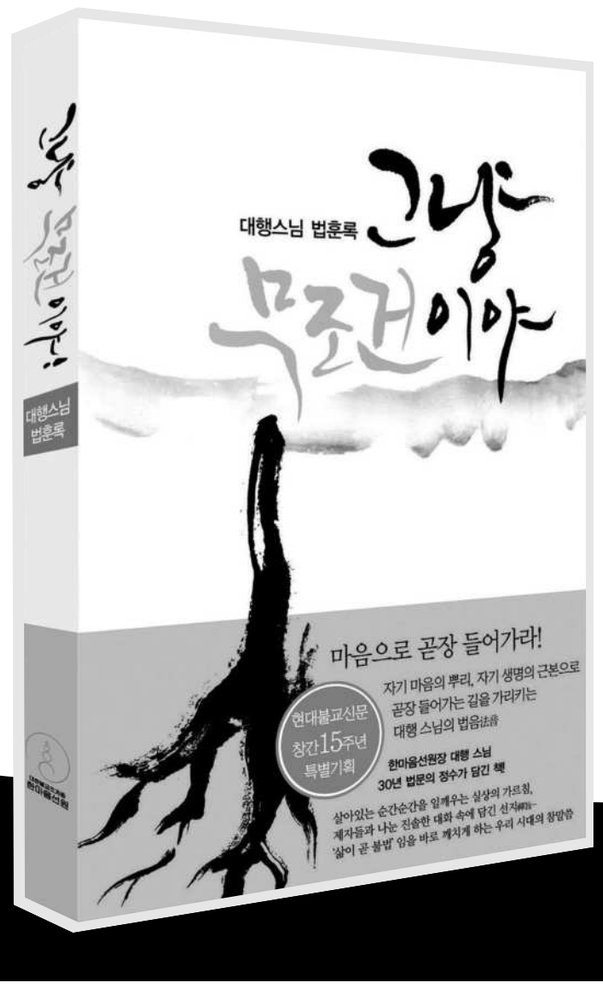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불교에서 그렇게들 하고 다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들어 보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마구니 소굴이라고, 귀신들이 들끓는 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 대고 "그 불교 속에 들어 있다." 하고선 그냥 "불교가 어느 한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불교 속에 들어 있다." 이러고는 그냥 "당신네들도 기복이야. 전부 기복이야. 여기 이쪽이 귀신이고 그런다면 너희들도 귀신이다, 그 마음이.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봐라. 상대를 놓고 빌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 A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관세음!

☞ A29면에서 계속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그럭하고 있으니까 했던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복이에요.

기복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조상들이든가 친구들이든가 죽은 영혼이 이렇게 다가와도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는 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면은 그것이 둘이 아니게끔 거기다가, 즉 말하자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뭐 쇠 부스러기가 그냥 붙어서 하나가 돼 버리는데, 그냥 자석에 한 덩어리가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탈이 없죠. 그런데 요거는 요것대로 자꾸 가깝게 와 가지고 붙으려고 하는데 자꾸 떼어 버리니까 자꾸 와서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자석이니까. 그러니까 붙으려고 하는 힘과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냥 자꾸자꾸 떼어 버리려고 하고 붙으려고 하고 떼어 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환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영계성 · 유전성 · 세균성 ·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하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너는 죽어야 해. 너는 떼어 버려야 돼. 너는 여기 없어야 돼." 이럭하고 만날 떼어 버리려고들 드니까 그냥 한시가 바쁘게 일이 생기죠. 하하하. 만날 바쁘고 만날 괴롭고. 이뿐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게 유전성이라는 건 또 오죠. 그러니까 병고가 오든 애고(哀苦)가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그 모든 걸 되돌려놔라. 거기다 놓으면은, 불에다가 불을 넣으면 그냥 하나가 돼 버린다. 불덩어리에다가 그냥 놓으면 용광로에 넣듯이 그냥 녹아 버린다.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 버린다. 그러니 탈이 안 난다. 이사를 가고 오고 삼재가 들고 오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 그런 거를 일일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재미를 보고 삽니까? 하하하. 아니, 어떻게 그걸 사람이 산다고 하고 살 겁니까? 만날 고통이지!

그래서 좀 미련한 듯한 사람이 쉬이 깨닫는다 이런 문제가 있죠. 미련하면 무조건 거기다 놓으라면 그냥 무조건 놓으니까. 그런데 약은 사람들은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그러거든요. 하하하.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라는 이름도, 불교라는 것도 이름이요, 종교들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다 이름입니다. 그건 다 이름일 뿐이에요. 나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항상 그런 말 잘하죠. 저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옹기종기 네 거니 내 거니, 내 종교니 네 종교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박치고 온통 그냥 혼란을 부리고 이게, 이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사는 겁니까, 어디? 수라장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신통(五神通), 본다, 듣는다, 남의 마음을 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가고 옴이 없이도 가고 오고 한다 이러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싹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싹 벗어나서, 아예 다 내려다보고 다 그냥 모두가 그저 사대(四大)를 다 흡수하면서 같이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래니라.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여하게 돌아간다면 여래일 것이고, 여여치 못하다면은 중생일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말을 하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한 게 여러분과 나와 둘 아니게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전구가 (천정의 전구를 가리키시고) 이렇게 쭈욱 이렇게 있죠? 너 나가 이렇게 모습은 다 이렇게 달리,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전력은 다 똑같다는 얘기 만날 하죠? 그러니까 둘 아닌 까닭에 우리가 말을 해도 이것이 '내 말이다, 네 말이다' 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있는 사실이요. 바로 내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스려 나가면서 믿어 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믿는 사람, 가톨릭교 믿는 사람은 조상들의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다 이러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의리도 도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응?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사회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 의리로 봐도 그렇고 도의로 봐도 그렇고 아, 어떻게 그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향 켜 놓고, 촛불 하나 켜 놓고, 물 하나 떠 놓고 생수 떠 놓고 참, 떡 한 조각이라도, 그 찹쌀떡이라도 하나 놓고 딱 앉아서 그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둘 아닌 자리에 함께 하소서.' 하고 그냥 하면은, 그것이 제사라고. 그리고 "오늘 어르신네 기제가 있어서 이렇게 음식을 조금 사 왔느니라. 이것들 모두 먹어라." 이러고 먹이는 것이 바로 그 어른을 대접하는 거라고. 응?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잘하죠.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수박씨가 그 속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수박씨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또 수박이 열렸다고요. 그랬는데 작년 수박씨 다르고 올 수박씨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한테 기제를 지낼 때는 그렇게 간소하게 그렇게 해도, 불을 켜 놓고…. 그 마음의 불을 켜는 거거든. 그렇게 해 놓고선 음식을 조금, 식구들이 잘 먹는 걸 사다가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씨가 그 씨요 그 씨가 그 씨니까, 하하하, 바뀌진 거뿐이니까. 아이, 그거 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위의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빛도 또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고려장 지낼 때 지게를 도로 지고 가니까 "왜 가지고 가느냐." 하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니까 고만 자기 어머니를 도로 업고 가더라는 셈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그 자식들이 그냥 본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 이 털구멍을 통해서 그냥 수없이 나갔다 수없이 들고 그럽니다. 이거 모르시죠. 악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를 예를 들어서 밉게 생각을 한다, 저것 증오한다 이러면은 벌써 이게 마음이 말입니다,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참, 둘이 아닌데 너도 둘이 아니게 여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바로 거기도 밝게 불이 들어와서 '아, 모든 게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 하고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형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하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죠, 형님뿐이 아니라.

그러니깐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이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이 져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그 증오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은 어디 국한돼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이 진리가 그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응?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촛농이 이리저리 흐르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해 보십시오.

오늘 질문 듣겠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말을 하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데서부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게, 내 몸과 자식들과 부모와 부부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시급한 일입니까?

질문자1(남) 오늘 설법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는데,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과의 구별이 어떠하신지 좀 알고 싶고, 우리 주인공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하나의 '님' 입니다. 자기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아라, 하나! 하나의 자기부터 세워라. 지팡이를 세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의에 있다고 생각하고들 찾는 것은 모두 편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성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갈 리가 없죠. 예수도 "나를 믿어라." 이랬지 언제 타의의 모든 것을 믿어라 이랬습니까? 나를 믿어라 한 것은 그때 그 시절에 그분은 '모두 각자 나를 믿어라.' 했던 건데, 모두 모르고 '자기를 믿어라.' 이러니까 모두 한군데로 몰려서 '예수를 믿으랬다.' 이렇게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잘 반성하고 고쳐 나가면서 이루어야 우리 지구도 성공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1(남)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도 우리 주인공을 찾을 때 우리 주인공이 나를 돌봐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청정한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주인공과 접할 수 있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이 안에는 자기 자신의 그 업식들, 수십억 개의 의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목록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업식 때문에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를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칩니다, 자기 업식들이. 즉 말하자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즉 신장(神將)이 됩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게 잘못할 때는 신장이 되고 잘할 때는 보살이 되고 또 더 잘할 때는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잘못하니까 신장이 될 수밖에. 신장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갔다가도 그냥 탁 치니까 넘어져서 잘못 다치기도 하고 이러는 수가 많죠.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 '아하, 이거 타의에 끄달려서 이렇구나.' 하는 거를 발딱 깨쳐서, 잘못하고 가는 구나 하는 거를 다시 가다듬어서, 그 누적이 된 거는 잘라 버리면서 이렇게 똑바로, 아까 초 심지 잘 일으켜 세우듯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야 이게 빨리 수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선 그냥 '아이고, 이런 내 팔자야. 이게 이게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기 잘못하는 건 쑥 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팔자야? 왜 이런 게 와?' 이러고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업은 두터워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잘못했으면 자기가 자기를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가 나쁘게 해서 치고 때리고 또 좋게 주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고, 잘못했다고 때리고 잘했다고 상 주고 이러는 게 없습니다.

질문자1(남) 믿음을 다시 돈독히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요? 또한 아울러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큰스님 여직껏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거, 나는 아주 그 이름 자체도 없애고 싶다고요. 관(觀)이지! 자기를 자기가 관하는 거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해서 그 신심이 돈아진다 이러는 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건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고, 남을 이익 하게 할 수도 없고, 나를 이익 하게 할 수도 없는 경우다 이겁니다. 그런 걸, 오신통에 대해 이런 말이 있죠. '다른 거를 다 알아도 도가 아니다.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고, 생수를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 이게 도다. 이게 누진(漏盡)이다.' 이렇게 말한 거와 같습니다.

※위 법문은 1992년 10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병고가 오든 애고(哀苦)가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그 모든 걸 되돌려 놔라.
> 거기다 놓으면은, 불에다가 불을 넣으면 그냥 하나가 돼 버린다.
> 불덩어리에다가 그냥 놓으면 용광로에 넣듯이 그냥 녹아 버린다.

since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미니:상호인쇄
수첩:상호인쇄
12절: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200부 이상 @ 1000 원
• 백부이상 @1,2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관계 사이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요



그림 · 박구원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주는지 성찰

나와 이웃

상대방을 존중하는 평등사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며, 다음이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불편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가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탄생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없이 외웠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해석하면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오직 홀로 존귀하다' 이다. 갓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내용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며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이다.

불교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탄생게가 고타마 싯다르타가 했다고 해서 그 분만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 스스로가 한다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존귀한 존재이다. 존귀하게 태어났으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내 자신이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떨까? 상대방 스스로 탄생게를 외친다면 그 역시 이 세상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내 자신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상대방 역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아야 하듯 부모도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사회 역시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웃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이웃을 존중해야 한다. 존중받는 상사가 되고 싶으면 아래 직원을 존중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에 이런 가치를 갖는 것 이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평등사상이다.

연기적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

물질의 풍요는 인간사회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 끊임없이 발명되는 생활용품은 인간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것을 대변하는 단어는 '편리함' 이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과학과 기계문명의 발달은 심각한 폐단을 동반한다. 협동심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졌다.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함을 즐기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자연히 이웃에게 필요한 대화가 상실되어 버렸다.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 없게 되었다. 골치 아픈 일과 심각한 일을 싫어하는 단순한 인간으로 변해간다. 현재의 즐거움이 필요할 뿐 미래를 위한 인내심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불교의 연기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만물은 상호관계에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신도 손해를 보고, 상대방을 도우면 자신도 이익을 받는다. 또 남을 해치면 내가 죽고 남을 도우면 내가 사는 이치이다. 이런 근본 진리는 우리의 이웃과 사회는 물론 세계열강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상과 종교로 불교를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에 따라 성인이 되는 종교이다. 이런 인간중심의 종교관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가져오고,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의 시작이다

불교는 평등과 존중의 종교
'연기' 기반한 대화 필요
"大我의 삶 속에 행복이"

격조 있는 사회를 위한 불교의 역할

사회에도 격조가 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사회에도 품격이 있다. 사회의 품격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다. 격조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의 품격은 높아진다. 지금 우리가 속한 사회의 품격이 낮다면 그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낮기 때문이다.

인격이란 사람 됨됨이다. 된 사람이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자신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신보다 지식이 없어도 무시하지 않고 배울 것을 찾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인격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의 문제이다. 불교가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다.

불교는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신행하는 불자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내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며 생활하고 사회와 국가가 부강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대아의 생활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소아의 생활이다. 소아와 대아의 차이는 물질의 규모에 있지 않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세상을 살면서 느낀 것은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 편리함에 금전이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윤리나 도덕을 망각한다면 세상은 범죄로 덮이고 만다. 그러나 적은 금전이라도 남을 위해 베풀면 소아에서 대아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

"포괄주의적 태도로 타종교 만나자"

종교와 종교

종교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

오늘의 현대사회는 다양한 종교 신념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21세기는 종교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이다. 종교는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에 직면해 있다. 종교 소비자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종교전통은 소비자의 상품이 되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게다가 21세기는 지난 세기보다 산업화, 도시화, 사회구조의 재편성이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현대인의 새로운 욕구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확산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인류생존의 근원적인 문제인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종교 등 현대사회의 전 분야에서 고조되고 있다.

종교교리 전반의 새로운 이해 요구

오늘날 기성종교는 이와 같이 급격하게 변해해 가는 현실에 대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종교인 불교나 그리스도교도 예외는 아니다. 종교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종교는 무력하게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시 한 번 브라이언 윌슨(B. R. Wilson)은 현대사회에 있어 종교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영혼이나 내세에 대한 입장이 오로지 종교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는 자연과학적인 해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과학에서는 영혼을 두뇌활동의 산물로 보고 신체활동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뇌과학의 발달과 유전자공학의 발달은 인간영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교리 전반에 걸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과학의 성과에 종교는 맞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성과를 포괄하는 은유와 상징의 지평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종교문화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느 한 종교만이 감당하여 해결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 시대의 종교들은 독선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관용적 태도로 종교 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절실하게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종교나 배타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포괄주의적 태도를 견지한 채로 타종교와 만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적인 대화의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지녔으며, 타 종교는 자신의 가르침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결국 자신의 종교로 돌아오는 과정적 진리만을 지녔다고 보는 태도가 포괄주의적 태도이다. 이제는 이러한 포괄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시장 상황' 에 처한 종교현실
종교간 갈등은 쇠퇴 지름길
공동 목표로 시대요구 부응

즉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자신의 종교만이 가졌다는 신념에서 벗어나서, 이웃 종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오히려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이 더 깊고 넓게 이해되고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타종교와 함께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종교 간 투쟁은 종교회의감을 증가시킬 것

물론 종교는 '절대진리' 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종교의 절대성과 최고성을 주장하는 '절대신념체계' 이기 때문에 비타협적이고 다른 신앙을 무시하거나 이단시하는 위험이 있다. 현대의 다종교사회에서는 각 종교의 사상적, 교리적 편견과 독단적 배타성이 야기하는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늘 잠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있는 곳에는 종교와 종교 간의 대립과 충돌이 늘 있어 왔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분쟁이 지속되는 등 종교 간의 마찰과 대립은 그치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종교적 분쟁과 충돌로 종교가 인간 삶의 지혜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가르침으로 인식되기는커녕, 오히려 종교가 대립과 투쟁의 주된 원인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나 실망감도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직면한 문제를 의식화시키는 일이며, 그 의식화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의 혼탁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과학적 접근이나, 정치적, 사회적 접근을 넘어서 총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자각과 함께 인간의 사고의 변화를 도모하는 종교적 접근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현대사회가 직면한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을 종교적 문화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종교문화 운동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서 지구상의 생명 전체를 포함하는 운동으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와 종교가 함께 하는 공동의 목표이고, 이를 통하여 종교 간에 진정한 관계 맺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석
금강대 교수



10·27법난 제35주년 기념법회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72법난 기념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불기2559(2015)년 10월 27일(화) 오후 2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문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 무 원

관계 사이

아프다. 그리고 시끄럽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아픈 이유는 다양하다. 나와 이웃의 갈등, 종교간 갈등, 남북갈등에 국가간 갈등 등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아픈 이유가 존재한다. 관계 즉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말이 있듯 불교는 갈등과 아픔 해결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개인과 개인을 비롯 국가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연기와 화엄의 불교적 해답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그림 · 박구원

조건 없는 나눔… 함께 살아가는 길

남한과 북한

각국 패권 다툼의 경연장이 된 남북

2015년도 남한 인구는 5천1백만 명, 북한은 2천5백만 명 정도로 남북한의 인구는 도합 76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아득한 고조선으로부터 조선과 대한제국으로 이어진 수천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고유한 언어와 풍속,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전통을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에 의해 38선을 경계로 민족과 영토가 남과 북으로 양분됐다.

남북분단의 원인은 외적으로는 일본의 대륙진출과 미소양국의 세계패권주의, 내적으로는 세계정세에 둔감하고 개혁과 유신은 외면하면서 내분으로 국력을 쇠진시켜온 구한말 지배세력의 무능과 탐욕, 그리고 해방 후 극심한 사상적 혼란에 기인하고 있다. 1950년부터 3년 간 이어진 한국전쟁 이후 남한은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3대 세습체제를 통치이념 및 수단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에서 빼놓을 수없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다. 중국에 있어서 한반도는 지전략적(地戰略的) 요충지대다. 중국은 중국대륙의 목줄과도 같은 역할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제1, 2도련선(島鍊線)을 해상 방위선으로 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바, 남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통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US Rebalance to Asia)' 정책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태평양에서의 군사와 경제적 패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하려 한다. 여기에 일본은 미국의 비호아래 동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국내외적 이익의 창출을 위해 항시 발을 담그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는 과거는 물론 현대에도 열강 각축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각축상태를 탈피해서 그야말로 '남과 북'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7600만 명의 국민이 안락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남북의 위정자들 그리고 종교계 등 사회지도층은 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북이 긴장의 연속 속에서도 어떠한 형태이든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니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7.4공동선언,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과 6 · 15 공동선언 그리고 개성공단의 운영이란 성과가 있었다. 또 지금은 중단됐으나 금강산 관광이 성사 됐었다. 근자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도발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근래 '목함지뢰' 사태까지 대략 3000건이 넘는 침투와 국지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이 지향할 공유 가치 '통일'
북한 · 열강들 합의의 장 이끌어야
평화 통일 불교계 역할 모색 필요

평화통일의 남북 기조 공고해야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남북의 근본적인 이념차이로 인해 양측이 이해하고 주장하는 평화와 자유의 개념, 통일의 수단과 방법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분명코 남과 북이 올바른 관계 속에 가야할 한 방향의 길은 평화적 통일이고 통일 후에는 자유, 인권, 복지, 청정한 환경 등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들을 구현하고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이라면,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힘겨루기 중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폐쇄를 고집하며 강성군사대국으로 치닫는 북한을 어떻게 대화와 교류, 공존을 위한 합의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시키느냐가 필연적 과제다. 이 과제가 이루어져야만 남과 북은 물론 주변의 열강들까지도 자유와 평화라는 한 방향으로의 역사를 일궈 갈 것이다.

문화 · 경제 등 사업으로 신경망 연결

물론 북한과 주변 열강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일에는 위험요소들이 내재해 있으나 탁월한 외교력으로 관련 국가를 설득하고 북한과는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교류의 신경망을 연결하고 고착화시켜야 한다. 하여,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선 제안 등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호로써 통일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를 위해 북미 간 수교의 가교 역할을 하고, '동북아 평화실크로드 – 평화벨트 구상' 등을 정책의제로 삼아 중국과 통 큰 거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민간외교로써 문화교류에 적극 투자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 또한 망국의 원인인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후진 국가를 면치 못하고, 통일을 위한 경제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국방력의 우위를 점하는 힘의 논리도 중요하나 불교의 가르침과 같이 "조건 없이 베풀어라 – 함께 사는 길이다"라는 대 명제를 실천할 때 북한의 정권에까지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정권은 폐쇄정책에서 과감한 개방과 개혁만이 인민을 위하고 희망적 미래가 담보되며 세계사와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도 더 늦기 전에 체제의 이념과 통치 수단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추구해서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길은 수천가닥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푸는 일보다도 더 난해하다. 그러나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무상한 존재로서 의미 있는 삶에 나태하지 않는다면 어렵지만도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가 앞장서고 남과 북이 가야하는 평화의 길에 불을 밝혀야 한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배신의 게임을 협력의 게임으로

국가와 국가

좋은 국가로의 변화

사람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 자체가 변해야 하며 동시에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국가가 좋은 국가로 변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 관계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민족국가가 탄생한 것은 서양에서 30년 종교전쟁의 결과 맺어진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에서부터였다. 그때부터 국가의 국경선이 확정되고 군주들은 국내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다른 군주들과 원칙적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외교규칙과 국제법이 발전하였다.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는 정보통신혁명에 힘입어 지방과 개인을 각성시켜 지방화와 자유화를 촉진시켜왔다.

세계화의 물결과 지방화의 추세 속에 국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과거와 같이 권력으로 강제하고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압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게 되었다. 20세기 민주화의 물결과 21세기의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에서 일어난 반독재혁명은 정보화 · 세계화시대에 강압적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이제 국가는 자신의 역할을 공익(公益)을 실현하는 일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 내에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일, 국민을 외침으로부터 지키는 일,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호하는 역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화시대에도 국가 이외에 다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공익(公益)을 실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있으며 이런 역할에 충실할 때 국가는 세계화시대에도 위축되지 않고 번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이상과 같이 국가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주관적 조건인 좋은 국가가 되는 길은 충분히 밝혀졌다. 그럼 좋은 국가관계를 맺기 위한 객관적 법칙은 어떤 것인가?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는 달리 국가들의 행동을 강제할 권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들 간의 협의기구로 국가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행동할 뿐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약속이고 맺은 약속을 지키는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제법 철학의 제일원칙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틴어로 Pacta sunt servanda)'로 표

공익 실현이 좋은 국가의 조건
'죄수 딜레마' 극복, 신뢰 쌓아
"먼저 '좋은 국가'로 변화하자"

현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 간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을 강제할 객관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국가들에게 더 유리하게 때문이다.

게임이론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국가 간의 관계는 협력하면 상호이익이 되지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갈등과 배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적용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란 이런 것이다.

검사가 두 사람의 공범자들을 분리 심문하면서 "두 사람 모두 범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가벼운 처벌로 풀려나지만 두 명이 모두 자백하면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만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 자백한 자는 보상을 받고 석방되지만 부인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백을 권고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 경우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지만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수들은 가장 안전한 자백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반복게임일 경우 가능하다.

게임이 한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임인 경우 한쪽 편에서 배신에는 벌을 주고 협조에는 보상을 주는 전략으로 꾸준히 대응하면 배신 게임을 협조게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반복되는 게임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런 전략은 지금의 배신이 미래의 처벌을 받고 지금의 협력이 미래에 보상됨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고 그러한 전략을 물 먹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다는 사실은 국제정치 연구에서 오래전에 입증된 이론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이상의 논의결과는 현안문제인 남북한관계를 비롯한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한관계가 다시 시작될 기회가 온다면 한국은 이상과 같이 국제관계에서 잘 입증된 기본원칙과 지혜를 활용하여 남북한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쌓아갈 수 있다. 문제는 북한정권이 이런 원리를 깨달아 신뢰프로세스에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 차례의 게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게임자체에 응하지 않고 한국에서 정권변화가 올 때까지 버티고 기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관계에 제대로 적용되려면 북한이 먼저 좋은 국가로 변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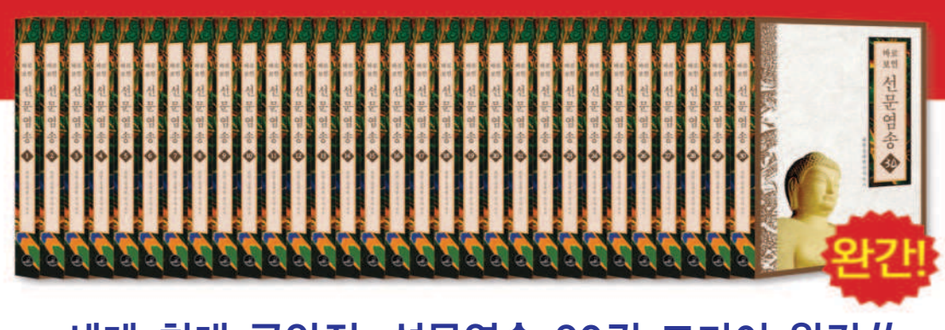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구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전화 055)932-7308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 공안의 교과서 〉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

MOONZEN